

2002 연구보고서 220-1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유 희 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강 정 희 (전문연구원)

발 간 사

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특히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잘 자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여성의 폭넓은 사회 참여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육인프라 확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자녀양육 능력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육발전을 위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육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육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전망해 보고, 보육현장이 보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 등 보육현장의 발전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고, 보육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보육선진국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육수요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 전문가 워킹,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관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님 및 보육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어린 영유아들의 입장에서 이들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 역시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특히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자 1995년도를 전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보육 수요자들은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육 발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전망해 보고, 보육현장이 보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 등 보육현장의 발전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고, 보육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보육선진국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육수요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특수 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육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담당 부처의 보육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로써 취업부모를 둔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위에서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보육의 나아갈 방향 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OECD국가들을 포함한 보육 선진국의 보육정책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발전적인 보육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보육실태를 조사하여 보육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특히 특수보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 운영 보육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운영상태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기타 자녀 양육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육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보육발전 방안은 특수보육 활성화에 초점을 둔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 심층면접 조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보육시설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보육실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특수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4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문가 회의는 4회에 걸쳐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특수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아보육 특수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3.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각 국의 보육정책 및 현황비교를 실시하였다.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에서는 인구·가족의 변화,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을 전망하여 보았다. 각 국의 보육정책 및 현황 비교에서는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살펴본 후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영국, 스웨덴, 미국의 주요 보육정책과 보육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 보육실태 및 요구분석

보육실태 및 요구분석에서는 보육시설 실태조사,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의견 조사, 부모 활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보육시설 실태조사

- 조사대상 보육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유아 전담율이 23.7%로 다른 시설에 비하여 높았다. 영아 전담의 경우 가정보육시설(42.4%)과 민간보육시설(36.8%)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운영 시간대에 따른 시설운영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4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반일제 프로그램 운영 21.2%, 야간 프로그램 운영 13.6%, 24시간 프로그램 운영 10.1%, 휴일 프로그램 운영 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비교에서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대도시(14.7%)에서 다른 지역(중·소도시 10.9%, 군 6.3%)에 비해 운영율이 높았다.
 - 보육시설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22.1%)’,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20.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17.8%)’, ‘인성지도(16.7%)’ 순이었다.
- 영유아 및 부모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 모집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유아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44.2%, 영아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모집에서의 어려움은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 보육시설들의 44%정도가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4개소(59.4%)에서는 대기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기 영유아 수는 평균 53명으로 총대기아가 9,7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들의 취업여부 질문에 총 440명의 어머니 중 239명(54.3%)이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평균 26명)나 군지역(평균 17명)에 비하여 종일제 취업모가 평균 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내취업의 경우는 군지역(평균 22명)에서 대도시(평균 9명)나 중·소도시(평균 7명)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들의 취업유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보육료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세아 보육료 역시 서울시가 고시한 국·공립 보육시설 168천원, 민간 보육시설 274천원, 가정 보육시설 362천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정 보육시설에서 평균 93천원, 민간 보육시설에서 60천원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종일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비용은 147천원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 214천원, 직장보육시설 193천원, 민간보육시설 175천원, 법인보육시설 134천원, 국공립보육시설 118천원으로 나타나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보육비용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비교시 2세 이하에서는 정부 고시 보육료를 다 받고 있지 못하고 3세 이상에서는 더 받고 있어 연령별 보육료 산정을 위한 세부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보육교사와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사모집에서 어려움이 있는가에서는 전체 응답시설중 47.9%(146개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모집의 어려움은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보수 등과 연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조사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평균 1,030천원, 법인 보육시설 1,051천원, 민간 보육시설 811천원, 직장 보육시설 834천원, 가정 보육시설 751천원이었다.
-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시설유형별에서는 국공립 시설과 법인시설에서는 가입하고 있었으나 민간시설, 직장시설, 가정 시설에서는 가입율이 딱 떨어졌다.

나. 시설장 의견조사

- 시설장 의견조사 결과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장들의 급여는 평균 보육경력 9년, 기타경력 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급여는 1,373천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평균 1,427천원), 법인보육시설(평균 1,404천원), 민간보육시설(평균 1,348천원), 가정보육시설(평균 1,264천원), 직장보육시설(평균 1,243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장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33.5%(109명)로 가장 높았고, 3년제 이하 대학교 졸업 31.4%(102명), 대학원 졸업 26.5%(86명) 순이었고 고등학교 졸업도 8.6%(28명)나 되었다. 시설장의 학력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가장 높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서는 4점 척도에서 ‘그저 그렇다’와 ‘대체로 만족한다’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만족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던 요인은 보수(2.05), 시설설비(2.43), 규모(2.46)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시설장들이 보수나 시설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중점을 둔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3.0%로 반대한다(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 유형에 따라 응답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 시설장들의 어려움점과 제안 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보육아동 모집에서의 어려움’(24.0%)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는 ‘재정적인 문제(21.3%)’, ‘행정(서류)업무 과중 (18.2%)’, ‘종사자 관리(관계)(13.1%)’ 등으로 나타났다.
 -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 내용은 보육관련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에서 ‘시설의 관리, 확충에 대한 지원요구’가 89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관련 지원’

54건(19.0%), ‘보육료지원 정비’ 39건(13.8%) 순이었다.

-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 ‘영유아에 따른 보육료 차등 적용제도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무상교육 확대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
- 보육관련 법·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현실적 조정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위한 개선, 지역자치단체별로 융통성 있는 운영 보장, 보육전달체계 관련 내용,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 사항 등이 제안되었다.
- 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86건(79.2%)’, ‘국가권장 프로그램 평준화 모색 28건(11.9%)’, ‘교재, 교구 개발, 보급 21건(8.9%)’ 등으로 제안되었다.
- 보육교사 관련 지원 내용으로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153건(40.2%)으로 가장 많아 보육교사들의 처우 불균형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 56건(34.6%)’, ‘운영인력 개선 25건(15.4%)’, ‘시설의 자율성 확대 24건(14.8%)’, ‘지원방식 개선 21건(13.0%)’, 등이 제안되었다.
-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시설관리와 지원연계 시스템 구축 54건(32.9%)’, ‘문서 간소화 및 전산화 45건(27.4%)’, ‘행정인력의 전문화 방안 모색 37건(22.6%)’, 등이 제안되어 전문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안으로는 평가제도의 도입이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189건이 응답되었다. 보육교사 지원, 야간·24시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야간담당 종사자 지원 확대’가 가장 많았다.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보육교사 의견조사

- 보육교사 의견조사 결과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응답 보육교사들의 99.5%(370명)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2명(0.5%)이었다. 기혼은 148명(39.9%)이었고, 미혼은 223명(60.1%)이었다. 평균 연령은 29세였다.
 - 보육교사들의 경력은 평균 4.7년, 보육 외 기타 경력은 평균 4.4년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로는 2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 121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순이었다.
 -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교 졸업이 47.1%(170명), 대학교 졸업 29.9%(108명) 순이었다. 고졸 이하도 19.9%(72명)이었다. 전공학과는 유아교육학 167명(58.6%)이 가장 많았고, 보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가정관리학, 교육학 순이었다.
-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수는 연령별로 0~12개월 영아를 평균 4명 돌보고 있으나 많게는 9명까지 돌보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0~12개월은 1~3명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12~24개월 영아는 1~4명, 2세 영아는 1~6명, 3세이상 5세아는 1~20명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특수보육담당교사의 경우 장애아를 평균적으로 3명, 최대 10명 이상 돌보는 교사도 있었다.
 -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시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운영 평가에서는 보육교사들은 시설 설비, 교사 관리, 프로그램운영, 급·간식 운영, 안전관리 운영, 차량운행, 재정관리 등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대부분(관심이 매우 높다 54.1%, 조금 있다 43.8%)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다.
 - 보육교사들은 근무조건에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과의 관계, 보육서비스 내용 등으로 분류한 세부항목의 근무만족도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시간과 급여에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하겠다.

- 보육교사들의 어려운 점과 제안 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로서 계속 종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84.2%(304명)이 계속 종사하겠다고 높은 비율로 답하여 영유아 보육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과 일치한다 하겠다. 이직 희망은 15.8%(57명)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사들은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교사 지원 확대’, ‘시설·설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으로 ‘영아 프로그램 지원’, ‘영아교사, 간호사 등 인력 지원’, ‘영아보육 규정 재정비’를 제시하였다.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아전문교사, 교사 교육, 수당 지급 등 인력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고, ‘장애아용 시설·설비 지원’, ‘장애아보육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제안하였다. 야간·24시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은 ‘교사지원’, ‘프로그램 및 환경 지원’, ‘건강, 영양, 안전 지원’ 순이었다.

라. 부모 의견조사

- 부모 의견조사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1,190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 960명(80.9%), 중·소도시 거주자 201명(16.9%), 군지역 25명(2.1%)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6.0%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31.3%, 가정보육시설(놀이방) 12.5%, 직장보육시설 0.3%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 시설이용 실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 순위는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좋은 프로그램’, ‘훌륭한 교사’ 순이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 가운데 유아들(3세~5세)은 75.5%, 영아(1세 미만~2세아)들은 24.3%로 나타나 영아들의 보육시설 활용도가 낮았다.

-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낮시간 동안 영아를 맡아 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가 1순위 요인이고, 2순위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이었다. 장애아는 1순위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친구들과 사귀도록 하려고)’로 나타났다.
- 한달 평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46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08천원, 가정보육시설 259천원이었다. 현재의 보육료 보다 세 시설 이용 부모 모두 보육료가 낮아지길 희망하였다.
-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42.7%가 ‘관심이 매우 높다’, ‘조금 있다’ 49.8% 순으로 답해 보육 정책에 관심이 높음을 나타냈다.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부모들의 보육시설 만족도는 4점 척도에서 교사(3.34), 운영시간(3.27), 식·간식(3.25), 안전관리(3.20), 프로그램(3.11), 보육, 교육 비용(3.11), 집과의 거리(3.07), 특별활동(3.01) 시설설비(2.89), 차량운행(2.72), 등이었다.
- 직장 업무 수행 및 자녀양육시 나타나는 양성평등의식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과 직장 선택시 갖고 있는 양성평등의식은 ‘직장을 고를 때 자녀양육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여자의 76.0%, 남자의 60.8%가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 직장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경우 여자는 36.9%가 ‘직장 일을 먼저 한다’고 답했고, ‘자녀양육을 먼저 한다’ 52.6%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도 자녀양육 먼저가 54.7%였고, 직장 일 먼저가 37.8%였다.
 -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에는 부모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는 여자의 응답에서는 ‘주로 모가 책임진다’ 52.9%, ‘부가 책임진다’ 0.9%, 남자의 응답에서도 ‘모가 책임진다’ 34.3%, ‘부가 책임진다’ 6.0%,로 나타나 모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의 응답이 여자의 응답에서 41.4%, 남자의 응답에서 55.2%로 나타나 자녀양육시 양성평등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어려운 점 및 제안 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에 대하여서는 시간연장 보육실시, 적절한 보육료 산정, 차량운행을 희망하였다.
 - 영아 발달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실시, 교재 교구 확충,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비와 환경구성,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제안하였다.
 - 보육시설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 우려,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부족 등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 정부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빈부 격차 없이 평준화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길 요구하였다.
 - 저렴한 보육료와 무상 보육의 확대, 장애아의 특수교육비의 정부 지원, 소득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자녀수에 따른 보육비의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보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및 근무조건의 개선, 교사대 아동수의 비율 하향 조정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보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줄어든 현실에서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건의하였다. 3세 미만 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야간보육, 24시간보육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5. 보육활성화 방안

보육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은 가. 보육정책 개발 목적, 나. 정책 목표, 다. 핵심정책과제로 정리하였으며, 핵심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핵심정책과제 1 :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

핵심정책과제 2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방안 마련

핵심정책과제 3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핵심정책과제 4 : 지역사회 통합 보육 모형 구축

핵심정책과제 5 : 효율적인 보육행정·지원체계 구축

핵심정책과제 6 : 기업의 보육정책 확대

핵심정책과제 7 : 가정과 기업에서의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문화 확산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3. 연구의 제한점	13
II.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15
1.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	17
가. 가족의 역사적 변화와 가족/노동의 관계 변화	17
나. 인구·가족 변화의 주요 측면	18
다. 가족/노동의 갈등과 보육정책의 방향	22
2.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전망	27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보육	27
나.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 전망	31
다. 보육정책의 방향 제안	35
III. 각국의 보육정책 및 현황비교	39
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41
2. 각국의 주요 보육정책	48
3. 각국의 보육현황	87
4. 각국의 보육 프로그램	102
5. 각국의 보육시설 평가	110
6. 시사점	122

IV. 보육실태 및 요구 분석	129
1. 보육시설 실태 분석	131
가. 실태조사 결과	131
나. 심층면접결과	156
다. 소결	168
2.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의견분석	171
가. 시설장 의견조사	171
나. 보육교사 의견조사	188
다. 소결	205
3. 부모 의견 조사	210
가. 일반 사항	210
나. 보육시설 이용 실태	213
다. 직업 및 자녀양육과 양성평등의식	234
라. 어려운 점 제안사항	241
마. 소결	245
4. 보육현장의 문제점	247
가.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문제점	247
나. 특수보육의 문제점	252
V. 보육활성화 방안	257
1. 보육정책 개발 목적	259
2. 정책 목표	259
3. 핵심정책과제	259
4. 정책과제	259
5. 4대 우선 추진 과제	261
6. 정책과제별 추진 전략	261
참고문헌	287
부 록	291

표 목 차

<표 I-1> 조사대상자 분포	8
<표 I-2> 시설 실태 조사 내용	8
<표 I-3> 시설장 조사 내용	9
<표 I-4> 교사 의견조사 내용	9
<표 I-5> 부모 조사내용	10
<표 II-1> 젠더체계 유형별 가족/노동/국가의 관계	18
<표 II-2> 가족형태의 변화(1970-2000)	19
<표 II-3>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980-2000)	19
<표 II-4> 기혼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 비율(%) · 30	
<표 II-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32
<표 III-1>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행정체제	41
<표 III-2> 5개국의 유아교육과 보호 행정정책	42
<표 III-3> 유아교육과 보호기관 운영형태	43
<표 III-4> OECD 국가들의 유아1인당 교육비	45
<표 III-5> 유아교육과 보호 비용부담	45
<표 III-6> 5개국의 유아보육의 현황	46
<표 III-7> 종사자 배치기준(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52
<표 III-8> 가정보육시설 배치기준	52
<표 III-9> 일반보육료(2002년, 서울시)	55
<표 III-10>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료(2002년, 서울시)	55
<표 III-11> 저소득층 지원기준(2002, 서울시)	56
<표 III-12>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2002)	56
<표 III-13> 기타 저소득층 지원단가(2002)	57
<표 III-14> 보육사업 국고보조 내용	57
<표 III-15> 영유아 교육과 보호 통합 프로그램	75
<표 III-16> 스웨덴의 공립 유아교육·보육시설의 유형 및 특징	81
<표 III-17> 보육시설 현황	88

<표 III-18> 연도별 설치 현황	89
<표 III-19> 특수보육시설 일반 현황	90
<표 III-20> 보육율	90
<표 III-21> 연도별 보육 영유아 현황	91
<표 III-22>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91
<표 III-23> 일본의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관련 교과목	93
<표 III-24> 일본의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최소 이수과목	94
<표 III-25> 영국의 유아보호 종사자 인력	95
<표 III-26>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기관	96
<표 III-27>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기관	97
<표 III-28> 서비스 유형별 비율,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임금	98
<표 III-29> 연령별 종일제 영유아 교육 및 보호 취원율	99
<표 III-30> 연령별 방과후 보육 아동 취원율	99
<표 III-31> 기관 및 시설 유형별 종사자 비율	100
<표 III-32> 보육 비용	100
<표 III-33> 1996년 기관에 등록한 3~5세 유아의 수	101
<표 III-34> 3개 주의 유아보호기관과 헤드스타트 시설의 종사자/유아의 비율	101
<표 III-35> 보육 관련 프로그램(보건복지부 개발)	102
<표 III-36> 주요 척도들의 내용 및 구성	114
<표 IV-1> 시설 분포	132
<표 IV-2> 시설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132
<표 IV-3> 지역별 시간대별 실시 여부	133
<표 IV-4> 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실시 여부	134
<표 IV-5> 프로그램 유형별 실시 못하는 이유	134
<표 IV-6> 지역별 특수보육 요구	135
<표 IV-7> 시설 유형별 특수보육 요구	135
<표 IV-8> 특수보육 실시 희망 이유	136
<표 IV-9> 보육시설에서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137
<표 IV-10> 연령별 현원	138
<표 IV-11> 시설유형별 유아의 모집 어려움	139
<표 IV-12> 시설유형별 영아의 모집 어려움	139

<표 IV-13> 영유아의 모집 어려움 이유	140
<표 IV-14> 대기 아동	140
<표 IV-15> 연령별 평균 대기 아동	141
<표 IV-16> 특수보육 평균 대기 아동	142
<표 IV-17> 지역별 어머니 취업 유형	143
<표 IV-18> 지역별, 시간대별 2세 미만 보육료	144
<표 IV-19>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2세 미만 보육료	144
<표 IV-20> 지역별, 시간대별 2세 보육료	145
<표 IV-21>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2세 보육료	146
<표 IV-22> 지역별, 시간대별 3세 이상 보육료	146
<표 IV-23>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3세 이상 보육료	147
<표 IV-24>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현황	148
<표 IV-25> 시설 유형별 잡부금	149
<표 IV-26>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평균값	149
<표 IV-27> 지역별 정부 기준단가와와의 비교	150
<표 IV-28> 시설유형별 정부 기준단가와와의 비교	150
<표 IV-29> 보육료를 낮게 받는 이유	151
<표 IV-30> 일반교사 모집시 어려움	151
<표 IV-31> 일반교사 모집시 어려운 이유	152
<표 IV-32> 특별교사 모집시 어려움	152
<표 IV-33> 컴퓨터 활용	153
<표 IV-34> 인터넷 활용 여부	154
<표 IV-35> 보육시설 유형별 보험 가입	155
<표 IV-36> 보육시설 유형별 지역사회 기여정도	156
<표 IV-37> 심층면접 조사기관	157
<표 IV-38> 시설장 일반 사항	172
<표 IV-39> 시설장 경력	173
<표 IV-40> 시설장 학력	174
<표 IV-41> 보육관련 자격증 종류	175
<표 IV-42> 보육시설 운영 만족도	176
<표 IV-43>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 이유	177

<표 IV-44> 시설장의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177
<표 IV-45> 보육시설 유형별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 인지정도	178
<표 IV-46>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찬성 여부	179
<표 IV-47>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찬성 이유	179
<표 IV-48>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반대 이유	180
<표 IV-49> 방과후 보육으로 적절한 장소	180
<표 IV-50> 순위별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운 점	181
<표 IV-51> 법·제도 관련 지원 요구 내용	182
<표 IV-52> 시설환경, 프로그램 지원 요구 내용	184
<표 IV-53> 보육교사관련 지원 요구 내용	184
<표 IV-54> 시설운영, 행정지원, 평가인증제 지원 요구내용	185
<표 IV-55> 보육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187
<표 IV-56> 보육교사 일반사항	189
<표 IV-57> 보육교사 평균 보수	190
<표 IV-58>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종류	191
<표 IV-59> 보육교사 학력 및 전공	191
<표 IV-60> 연령별 담당 영유아 수	193
<표 IV-61> 특수보육 담당 영유아 수	194
<표 IV-62> 시설 유형별 중점 보육 내용	195
<표 IV-63> 보육시설 운영 평가	196
<표 IV-64> 부모들의 시설이용 주요 이유	197
<표 IV-65>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197
<표 IV-66> 자녀양육 지원 정책 인지도	198
<표 IV-67>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199
<표 IV-68> 시설 유형별 근무 만족도 비교	200
<표 IV-69>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	201
<표 IV-70> 계속종사 여부 및 이직 희망시 이유	201
<표 IV-71> 정보활용 여부	202
<표 IV-72>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내용	202
<표 IV-73>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203
<표 IV-74>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203

<표 IV-75> 야간·24시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204
<표 IV-76> 기타 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204
<표 IV-77> 거주 지역	210
<표 IV-78> 부모 일반사항	211
<표 IV-79> 부모의 학력	212
<표 IV-80> 부모 직업	212
<표 IV-81> 이용보육시설 유형	213
<표 IV-82> 이용 프로그램 유형	213
<표 IV-83> 보육시설 이용 연령별 영유아	214
<표 IV-84> 이용시설 유형별 연령별 영유아	215
<표 IV-85> 이용시설 유형별 바람직한 영아보육 장소	215
<표 IV-86> 이용시설 유형별 자녀양육 중점내용	216
<표 IV-87> 자녀요인별 자녀양육 중점내용	216
<표 IV-88> 자녀요인별 보육시설 활용 이유	217
<표 IV-89> 이용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활용 이유	218
<표 IV-90> 자녀요인별 이용 시작시간	219
<표 IV-91> 자녀요인별 이용 끝시간	219
<표 IV-92> 한달 평균 보육료	220
<표 IV-93> 월 평균 보육료	221
<표 IV-94> 이용시설 유형별 보육료 부담 정도	221
<표 IV-95> 자녀요인별 보육료 부담 정도	222
<표 IV-96> 이용 프로그램별 생활수준 대비 보육료 부담 정도	222
<표 IV-97> 이용시설 유형별 희망 월평균 보육료	223
<표 IV-98> 보육료 추가 우수 보육 시설 이용 의사	223
<표 IV-99>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 순위	224
<표 IV-100>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225
<표 IV-101> 정부 보육정책 관심도	225
<표 IV-102>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226
<표 IV-103> 지원정책 인지도 시설유형별 평균	227
<표 IV-104>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228
<표 IV-105> 보육시설 만족도 시설유형별 평균	229

<표 IV-106> 보육시설 만족도 자녀 요인별 평균	231
<표 IV-107>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의 이유	232
<표 IV-108>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233
<표 IV-109> 직장 선택시 자녀 고려 여부	234
<표 IV-110> 직장일과 자녀양육 대립시 우선 수행 여부	235
<표 IV-111>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36
<표 IV-112> 가사일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36
<표 IV-113> 맞벌이 부부 중 자녀양육 주 책임자	237
<표 IV-114> 맞벌이 부부 중 가사활동 주 담당자	238
<표 IV-115> 저녁모임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 지원자	239
<표 IV-116> 맞벌이 부부에서 자녀가 아픈 경우 주 대처자	240
<표 IV-117>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242
<표 IV-118> 정부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244
<표 IV-119> 영아보육비의 정부단가와 비교	253
<표 V-1> 2002년도 지원계획	263
<표 V-2> 1년 미만 보육교사 초봉 평균	275

그림 목 차

<그림 II-1>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27
<그림 II-2> 한국과 미국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9
<그림 III-1> 0-5세아 수탁율(1995)	43
<그림 III-2> OECD 국가들의 유아 1인당 교육비 비교	44

부 표 목 차

<부표 1> 지역별 운영 프로그램	293
<부표 2> 지역별 어머니 취업형태	293
<부표 3> 지역별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294
<부표 4> 기타 가입 보험	294

I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6
3. 연구의 제한점	1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어린 영유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잘 자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 보장과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별로 보육활성화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3, 4, 5세아의 취원을 100%를 돌파하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및 교육 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점차 하향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4년 - 1999년 사이 ‘엔젤플랜’을 수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영아보육, 연장보육, 일시보육, 방과후보육, 다기능(통합)보육을 활성화하였으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경감, 지역 아동양육지원센터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었고 후속정책으로 2000년부터는 ‘신엔젤플랜’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 역시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특히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자 1995년도를 전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수요자들은 가까운 곳의 보육 시설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수요가 급증하자 보육 우선 정책으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즉, 정부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확충하고자 하였던 보육시설은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 3,150개소(41.5% : 국·공립 보육시설 750개소, 법인 2,400개소), 직장보육시설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 3,000개소(39.5%)이었다. 동 기간 중 보육시설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928개소(117.6%)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유형별 보육시설 확충실적을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 7,134개소 중

가(계획대비 237.8%)를 제외하고는 공공보육시설(1,673개소, 계획대비 53.1% : 국·공립보육시설 175개소, 계획대비 23.3%, 법인보육시설 1,498개소, 계획대비 62.4%), 직장보육시설(121개소, 8.4%)의 모든 경우에서 보육시설 확충 실적이 매우 불균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 의존도가 높아진 보육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보육현장이 보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요가 높은 영아보육, 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도 특별 추가예산을 지원하여 특수보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영아보육 및 야간보육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한 바 있다.

한편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 말 48.7%이다. 이중 1 - 5세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은 701,865명으로 취업기혼여성의 15.6%가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녀양육 지원 제도, 특히 영아양육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취업모들이 자녀가 어린 시기에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 형을 띄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0년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 - 19세 12.5%, 20 - 24세 60.8%, 25 - 29세 55.9%이었던 것이 30 - 34세에서는 48.5%로 낮아졌다가 35 - 39세부터는 59.1%, 40 - 44세 63.4%, 45 - 49세 64.6%, 50 - 54세 55.2%로 변화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원형을 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정부는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세계적 경제 4강을 목표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1년 6월 발표된 맥켄지 '우먼코리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를 지적한 바 있다. 즉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54%로 대졸 남성 취업률 93%와 비교하였을 때 큰 격차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동 보고서는 2010년 세계 10위의 국가경쟁력 달성은 여성인재의 적극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여성인력 활용의 결정적 변수는 육아 부담의 해소라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2001).

현재 보육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강조되고 있는

한편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의 보장 및 각 나라의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성인들은 영유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우리 나라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6월말 현재 21,26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770,029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보건복지부 보육과, 2002).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은 3 -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외에 보육서비스 제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0 -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로는 2002년 6월말 현재 영아전담 시설 156개소(5,073명)가 있고,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66개소(2,425명), 장애아 통합 124개소(918명)가 있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은 252개소(2,185명)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보건복지부 보육과, 2002).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이 영아(0 - 2세)이거나 장애아인 경우, 혹은 근무가 오후 늦게 끝나는 경우 자녀들을 위하여 안전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지원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인 보육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근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총 보육비용은 2001년도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3,200억원으로 25% 수준이다. 이를 OECD국가들 중 스웨덴 83%, 일본 54%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보육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육 발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전망해 보고, 보육현장이 보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 등 보육현장의 발전 저해요인들을 살펴봄, 보육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보육선진국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육수요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보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특수 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육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담당 부처의 보육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로써 취업부모를 둔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위에서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보육의 나아갈 방향 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OECD국가들을 포함한 보육 선진국의 보육정책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발전적인 보육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운영 체계,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운영형태, OECD국가들의 수탁율, 유아 교육 및 보육비용, 지원 및 관리 체계, OECD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보육실태를 조사하여 보육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현장 설문 조사를 통하여 보육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영유아 및 부모 관련 내용, 보육료 관련 내용, 보육교사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특히 특수보육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수보육은 0-2세를 담당하는 영아보육, 오후 10-11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보육, 영유아들이 일주일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부모를 만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보육,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보육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 운영 보육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특수보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장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아전담시설, 24시간 보육운영 시설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기타 자녀양육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육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보육발전 방안은 특수보육 활성화에 초점을 둔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련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의 내용은 보육과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이 연구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특히 보육정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 발전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보육현장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즉,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그리고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표본의 구성

우선 조사 시설의 표집은 중앙보육정보센타에 기재되어 있는 전국 보육시설 목록 중 영아를 전담하고 있다고 한 348개시설, 야간 보육 프로그램 운영 217개소, 장애아 59개 시설,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 운영 93개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¹⁾ 나아가 국공립 보육시설 183개소를 포함하여 총 900개소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설문조사 의뢰 전화작업을 하였다. 국공립 보육시설 183개소는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 534개소 중 무선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하겠다고 응답한 시설은 영아전담 시설 254개소, 장애아 전담 및 통합 138개소, 야간·24시간 운영 168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158개소로 총 718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조사는 718개소를 활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시설당 세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설문조사는 총 2,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I-1>. 우편조사로 실시된 응답 결과 보육시설 335개소에서 설문지를 회송, 분석하여 회수율이 46.7%였으며, 부모 설문지는 1,190부가 회수, 분석되었다(회수율 55.2%).

1) 중앙보육정보센타에 의할 때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156개소, 장애아 전담보육 66개소, 장애아 통합보육 124개소, 시간연장형 보육운영 252개소와 차이 있음.

<표 I-1> 조사대상자 분포

단위 : 개소(%)

조사대상	영아전담시설	야간·24시간 운영시설	장애아 전담/ 통합 시설	국공립 시설	계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시설	348	217	59+93=152	183	900
조사응답시설	254	168	138	158	718
분석설문지수 (응답율)	75(29.5)	116(69.0)	111(80.4)	73(46.2)	375(52.2)

나) 조사 설문지의 개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사전조사는 유형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시설을 대상으로 2002년 8월 5일에서 8월 17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된 조사의 내용은 시설 실태 조사에서는 운영프로그램 관련 내용, 영유아 및 부모 관련 내용, 보육료 관련 내용, 교사 관련 내용 등이다. 시설장 조사에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I-2> 시설 실태 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시설 유형
운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연령별 운영프로그램 유형 운영시간대별 유형, 실시 못하는 이유 특수보육 실시 희망 여부, 실시 희망 이유 중점 운영 프로그램
영유아 및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영유아, 시간대별, 연령별 영유아 수 영유아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종류 대기 아동, 유무, 연령별 대기아 수 영유아 모집, 모집이 어려운 이유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별, 연령별 보육료 정부기관 단가와 비교, 이유 유형별 잡부금
교사	교사모집, 모집이 어려운 이유
기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활용 내용 가입보험 내용 지역사회 기여 내용

<표 I -3> 시설장 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월평균 급여, 경력(보육, 기타) 학력, 전공, 보유 자격증
시설 운영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 만족도 ◦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 이유 ◦ 보육정책에 관한 관심 ◦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지 ◦ 방과후 보육 실시에 대한 의견, 이유, 실시 의사 ◦ 방과후 보육에 적절한 장소
문제점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 ◦ 보육 요인별 지원이 시급한 내용 ◦ 보육 유형별 지원이 시급한 내용

나아가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운영에 관한 의견과, 문제점 및 제안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I -4>와 같다.

<표 I -4> 교사 의견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근무시설 유형, 성, 연령, 경력(보육, 기타), 월평균 급여, 보유 자격증, 학력, 전공
운영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영유아 및 프로그램 ◦ 영유아 보육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 ◦ 시설의 운영내용 운영정도에 대한 의견 ◦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 이유 ◦ 보육정책에 관한 관심 ◦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지 ◦ 보육현장 활성화에 시급한 지원내용 ◦ 직업 만족도, 근로환경 등 18개 세부사항
문제점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 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시설 이용에 관한 의견, 직장 및 자녀양육의 양성 평등의식, 문제점 및 제안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I -5>와 같다.

<표 I-5> 부모 조사내용

항목	조사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이용시설유형, 아동과의 관계, 성, 연령, 월평균 수입, 부/모 최종학력, 직업
시설 이용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보육시설 선택의 중요한 요인, 이용시간, 활용만족도 ◦ 프로그램, 이용 프로그램, 영아보육의 바람직한 시설유형, 자녀양육시 중점내용 ◦ 보육료, 시설별, 자녀요인별 보육료, 부담정도, 희망 월평균 보육료 ◦ 보육정책에 관한 관심
직장 및 자녀양육의 양성평등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선택과 자녀양육 ◦ 직장일과 가사의 우선 순위 ◦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역할분담의 정도
문제점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시 만족스럽지 못한 점 ◦ 보육시설에 요구하는 사항 ◦ 보육정책 관련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다) 조사실시

보육시설 실태,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는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 사이 우편조사로 이루어졌다. 부모 대상의 조사는 개별 보육시설장에게 조사를 의뢰한 후 회수를 부탁하여 동봉하도록 하였다. 718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375부가 부모 대상 설문지는 1,190부가 회수, 분석되어 회수율 52.2%였다.

라) 조사결과의 분석

최종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되었으며 빈도 분석, χ^2 검증, t-test, 분산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3) 심층면접조사 실시

보육실태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특수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4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소재 장애아 전담·통합 보육시설 14개소, 영아전담·통합 보육시설 14개소, 야간·24시간 보육프로그램 운영시설 12개소를 무선으로 표집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4)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문 내 용
1차 자문 (내부자문)	· 연구의 진행계획 검토 · 설문조사의 구성 및 내용 · 보고서 목차
2, 3, 4차 자문 (외부자문)	· 보육 활성화 방안 시안 검토 · 보고서 초안 검토

<1차 외부전문가 회의>

① 일시 : 2002년 9월 17일(14:00 - 16:00)

② 회의내용

- 보육 현장의 문제점
- 보육 활성화 방안
- 보육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

③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202호)

④ 참석자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춘옥(서울시 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부회장), 오경숙(면일어린이집 원장), 박금희(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정책연구원), 이윤경(보육교사협회 대표), 황영자(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황윤옥(공동육아회 사무총장), 이종신(부천고강성심어린이집 원장), 유희정(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정희(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제2차 외부전문가 회의>

① 일시 : 2002년 9월 19일(14:00 - 16:00)

② 회의내용

- 국·공립보육시설 현장의 요구
- 보육정책 제안

③ 장소 :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의실

④ 참석자

원명순(서울시 국·공립시설연합회 회장), 오경숙(면일어린이집 원장), 방승희(만리어린이집 원장), 채혜선(중림어린이집 원장), 김정희(새싹어린이집 원장), 박금희(서울시 국·공립시설연합회 보육정책연구원), 전영옥(은행정어린이집 원장), 양은희(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 김성희(서울시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유희정(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정희(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제3차 외부전문가 회의>

① 일시 : 2002년 9월 27일(16:30 - 19:00)

② 회의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요구 수렴
- 보육정책 제안

③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대회의실

④ 참석자

이영애(서울시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회장), 강주중(대림어린이집 원장), 전해순(가나어린이집 원장), 김심환(정한어린이집 원장), 유희정(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정희(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5) 전문가 워킹

특수보육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영아보육 특수보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1회 2일에 걸쳐 관계자 워킹을 개최하였다.

① 일시 : 2002년 11월 22 - 23일(14:00 - 17:00)

② 회의내용

- 영아보육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장애아보육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야간·24시간보육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③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회의실, 공동의 장

④ 참석자

- 장애아보육: 이계윤(장애아보육협회회장), 홍은주(목련어린이집원장), 채혜선(중림어린이집원장)
- 영아보육: 오경희(햇빛어린이집원장), 오경숙(면일어린이집원장), 심정희(한솔어린이집원장)

- 야간, 24시간 보육: 조숙경(문화어린이집원장), 송종숙(백상어린이집원장), 이화숙(보경어린이집원장)
- 연구진: 유희정(본원 연구위원), 강정희(본원 전문연구원)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당초 2002년도 10월 발간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별, 사회계층별, 취업모의 보육요구를 재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1월 말 현재 동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 보육시설조사, 기초 자치단체조사, 보육교사조사를 포함한다. 동 보고서는 12월 말 발간예정이다.

Ⅱ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1.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	17
2.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전망	27

1.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²⁾

가. 가족의 역사적 변화와 가족/노동의 관계 변화

1) 후기산업사회로의 발전과 가족/노동의 관계 변화

사회발전의 각 단계마다 ① 성별분업의 기반, ② 사회 문화적 가치, ③ 가족/노동의 관계가 각기 달라지고 있다.

전산업사회	=>	산업사회 19세기말 -20세기초	=>	후기산업사회 20세기 중반이후
①가정/일터의 미분화 성별분업미약		가정/일터의 분리 성별분업심화 (남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		가정/일터의 분리 성별분업약화 (2인부양구조의 형성)
②전통적 친족·지역 중심의준거체제		성찰성의 형성 핵가족규범의 강화		성찰성 증대와 개인화 가족규범의 다양화
③가족/노동의 갈등 미약		가족/노동의 갈등 미약		가족/노동의 갈등 심화

2) 2인 부양가구의 발전

EU회원국의 가구조사 결과 (Eurostat, 2000) 회원국의 평균 62%가 2인부양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2인 부양가구는 증가 경향을 보이는데, 스페인 44%, 포르투갈 7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인 부양가구의 증가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1992년에 비해 네덜란드는 20%, 스페인 12%가 증가하였고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각각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인 부양가구의 노동참여형태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부부 어느 한쪽이 시간제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유자녀 가구에서

2)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은 한국여성개발원이 2002년 10월 7일 개최한 『신보육정책 : 꿈나무 플랜』의 내용 중 발췌 요약하였음. 1. 인구·가족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전망은 장혜경 박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혜경 박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으며, 2. 경제 사회의 변화와 보육정책의 방향은 김영옥(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종숙(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박사가 집필하였음.

의 2인 부양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2인 부양가구의 비율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은 추세여서, 고용, 보육 및 여성 정책 수립의 새로운 지평이 요구되고 있다.

(www.europa.int/com/eurostat/public/datashop)

3) 각국의 젠더구조에 따른 가족/노동/국가의 관계

변화하는 가구부양 구조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스웨덴, 핀란드 등은 2인부양 구조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부유럽국가들은 국가정책의 한계를 가족집단이 메꿔 주어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II-1> 젠더체계 유형별 가족/노동/국가의 관계

젠더구조 \ 구분	젠더규범	여성 취업률	보호노동의 수행방식
개인중심의 젠더구조 (individualistic gender regime)	2인 부양자규범	높음	(가족친화적) 국가정책
가족중심의 젠더구조 (familistic gender regime)	(남성)1인 부양자규범	낮음	(개별 가족적) 가족연대전략

자료: 김혜경(2002), 『가족과 문화』 14집 1호.

나. 인구·가족 변화의 주요 측면

1) 가족형태 및 구성의 변화

가) 가족형태의 변화와 자녀보호 기능의 문제

(1) 확대가족의 급격한 감소

지난 30년간 한국가족형태의 변화상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의 안정적인 지속을 바탕으로 3세대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2000년 현재 각각 82%와 6.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기상 자녀양육기 단계에 있는 가족의 여성취업을 보완해줄 가족차원의 자원이 크게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1980년 40.0%, 1990년 46.8%, 2000년 48.7%로 증가하였다. <표 II-3>을 보면 결혼과 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현재 각각 55.9%, 48.5%를 나타내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2> 가족형태의 변화(1970-2000)

단위 : %

가족형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핵가족	부부	5.4	5.0	6.5	7.8	9.3	12.6	14.8
	부부와 미혼자녀	55.5	55.6	57.4	57.8	58	58.6	57.8
	편부(모)와 미혼자녀	10.6	10.1	10.1	9.7	8.7	8.6	9.4
직계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1
	부부와 자녀와 양(편)친	17.4	10.9	10.6	9.9	9.4	8.0	6.8
기타	기타가족	9.7	17.9	14.8	14	13.8	11.2	1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년도

<표 II-3>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980-2000)

단위 : %

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20-24세	53.5	55.1	64.6	66.1	60.8
25-29세	32.0	35.9	42.6	47.8	55.9
30-34세	40.8	43.6	49.5	47.5	48.5
35-39세	53.1	52.9	57.9	59.2	59.1
40-44세	56.7	58.2	60.7	66.0	63.4
45-49세	57.3	59.2	63.9	61.1	64.6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나) 이혼율 및 한 부모 가족의 증대로 인한 자녀보육기능의 문제

이혼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1980년 5.7%에서 2000년 35.9%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향후 5년간을 전망해 볼 때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계 된다.

이혼율 증가는 한 부모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전체 가구주

중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 형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의 4.3%에서 2000년 현재 11.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의 증가와 그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은 이전에 양부모가 담당하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한 부모가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곧바로 자녀보육 기능상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자녀양육에서 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교육비 증가부담이 있게 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1).

2)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 결혼욕구의 약화와 여성 취업욕구의 증대

최근 가족가치관의 변화 중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1998년의 전국조사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라고 보는 의견은 전체의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견해가 두드러져 20대의 경우 단지 20%만이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가족·복지·노동부문』1999). 그러나 결혼욕구의 약화와는 달리 취업기대는 강화되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국여성연구소(2000)의 조사에 의하면 여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83.0%가 결혼과 관계없이 “평생 일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나) 젊은 남성들의 태도변화: 남성의 생계부양규범의 약화

특히 20대 젊은 남성들의 태도변화가 두드러져서 이들이 아버지가 되는 앞으로 10년간 부부의 생계부양 역할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즉 이들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의 보육문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소(2000)가 수행한 전국의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항목에서이지만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오히려 가족 지향적 태도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즉 ‘가족관계가 희생된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라거나, ‘결혼상대자가 반대할 때 직장을 포기하겠다’라는 응답에 대한 지지도가 남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³⁾. 즉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스러운’ 가정의 의식은 약화된 반면,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3)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자녀문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만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족지향성을 보였음(앞글).

수 있다. 김양희 외(2001)의 전국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젊고 고학력의 남성으로 갈수록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규범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20대 남성의 52.2%가 반대하였으며(50대는 21.5%), ‘남자들은 바깥일을 하므로 자녀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20대 남성의 87.9%가 반대하였다.

다) 부부 역할관의 변화 : 2인 부양 규범의 정착

맞벌이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여성의 약 80% 내외가 맞벌이를 희망하였고, 남성은 기혼남성의 경우 66%가, 미혼남성의 81.1%가 맞벌이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전업주부, 남성=생계담당자’라는 부부역할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여성의 8.5%, 전체 남성의 11.6%만이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가족 주기별로 볼 때 자녀보육의 책임이 큰 30-39세 집단의 여성 중에서도 ‘가정에만 전념’하겠다고 희망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한 반면, 25.8%의 응답자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기를 희망했다(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3) 가구경제의 변화

가)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1) 실질생계비의 증대

주택가격의 상승, 교육비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가계의 실질 생계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01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90년대 이래 실질 소비지출은 실질소득의 증가폭을 넘어서기도 한다.

(2) 소비지출 구성상의 변화

가계소비구조의 추이를 볼 때 의식주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교육비나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소비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교육비 구조는 곧바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며, 이는 소자녀관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나) 2인 부양가족의 증대

2인 부양가족은 전국적으로 1990년 27.4%, 1995년 33.4%, 2000년 39.5%로 증가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2002에 의하면 근로자가구 중 유배우자 2인 부양가구의 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부부상호취업자의 증가는 실제로 생계비의 증대에 따라 여성의 소득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진 것과 관계가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1년 현재 49.0%로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다. 한편 지난 20년 간의 추이를 볼 때, 근로소득에서 주소득원이었던 남성이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1977년의 91.6%에서 1995년의 80.4%로 일관되게 감소하였으며, 대신 배우자의 소득은 10.6%로 늘어나 그 기여분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김승권외, 2000).

다. 가족/노동의 갈등과 보육정책의 방향

1) 가족/노동의 갈등 및 여성화

가) 여성노동의 생애주기 단절

결혼과 출산은 여성노동력 공급상 큰 전환을 가져오는 생애사건이다. 취업여성 중 절대수의 여성들이 결혼 후 1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종사상의 지위 변화를 보여준다. 즉 결혼직전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여성 중 71.3%에 해당하였으나, 이들 중 절반이 결혼과 더불어 퇴직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4%로 하락하고, 이후 첫 자녀 출산후 다시 33.7%로 하락하였다(김영옥, 1998: 97-98).

나) 비정규직의 여성화

남성노동자는 전체의 64.5%가 상용직이며, 여성노동자는 66.1%가 임시·일용직이다(1998년 전체 노동자 중 47.2%가 임시·일용직). 위의 수치에 파견직이나 가내수공업자, 재택근무자를 합하면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대체로 70%로 추산된다(김태홍, 1999).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25세 미만의 신규노동력과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임시직, 일일고용이 많이 발견되는 데 비해 여성은 30대 이후에서 지배적이며, 특히 35세 이후에는 70% 이상

이 모두 임시직, 일일고용이다(권혜자, 1992:22). 즉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학력, 고연령이라는 한계 노동자(marginal worker)라는 특성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시점을 계기로 한계노동자로서 위치가 전환되고 있다.

2) 가족형성의 연기와 출산률 저하

가) 출산률 저하원인에 대한 기존연구들

(1) 근대화 및 가족계획사업과의 관련성

근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족계획사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준다 (Hernandez, 1984; Nortman, 1985). 즉 근대화와 발전은 출산을 제한하는 수단인 가족계획의 필요성과 적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정치지도자에 의해 도입되는 가족계획사업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행정적 내부구조와 여타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한다(Hernandez, 1984; 김한곤, 1993:28에서 재인용).

(2) 여성지위와의 관련성

여성지위의 향상은 출산력에 부정적 결과를 미친다. 즉 사회경제적 발전은 여성의 교육기회의 향상을 초래하고, 모성역할 이외의 다양한 역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출산률 저하에 기여한다(Simmons, 1988; Mason, 1985, 1987; Poston and Winston, 1988).

(3) 한국에서의 여성지위 변화와 출산률 저하

김한곤(1993)에 의하면 1966년에서 1985년 사이 출산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경제활동참여라기보다는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특히 소자녀관 형성의 결과로 파악된다.

나) 최근의 출산률 저하

(1) 결혼의 기피와 출산의 연기

초혼연령은 2001년 현재 남자 29.6세, 여자 26.8세로 지난 40년간 남자는 4.2세, 여자는 5.2세가 높아졌는데 1960년 각기 남자 25.4세, 여자 21.6세, 70년에는 남녀 각기 27.1세, 23.3세를 기록하였으며 1985, 1995, 2000년 여성 초혼연령은 23.4세, 25.4세, 26.5세, 남성은 26.4세, 28.4세, 29.3세로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있

다(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70년 현재 20대 후반 여성들 중 9.7%에 불과하던 미혼집단의 비율은 2000년 현재 40.1%로 늘어났고, 30대 전반에도 10% 이상이 미혼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미혼률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대로 인한 의식변화, 취업을 통한 경제력의 확보 등과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고학력여성의 미혼경향이 가속화되었는데 성평등 규범을 가진 이들 여성들에게는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이중부담이 예견되는 결혼이란 부담스러운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대졸 이상 미혼여성의 경우 11.0%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구조의 변화

① 출산율의 저하

일반적으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피임실천 및 인공유산, 그리고 결혼연령의 상승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참여 증대에서 기인하는 여성의식 및 결혼관의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출산율의 감소분을 결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효과와 기혼부인의 출산율 감소에 의한 효과로 구분해보면, 1959년부터 69년의 10년 사이에는 부인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저하의 90%를 설명했던 반면, 1979-89년의 경우 그것은 61%로 저하하고, 대신 결혼연령의 상승이라는 원인이 38%로 증가하였다. 한편 출산율의 변화에는 출산의 양은 물론, 출산의 속도도 중요하다. 출산의 속도를 반영하는 결혼 후 첫 자녀출산까지의 기간(첫출산간격)이 80년대 후반 이래의 결혼코호트에서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은기수, 2001).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이들 젊은 부부들이 직장가정을 병립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를 늦게 낳은 전략을 취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신세대 커플들이 생각하는 임신, 출산 시기는 결혼 4-5년 내인데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된 후에야 아이를 낳겠다는 실리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율 감소는 인구구조를 고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70년에 3.1%에 지나지 않았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가 2000년에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 속도는 세계

에서 유래 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에 22년밖에 걸리지 않는 급격한 증가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간호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족 중심적 양육체제”의 한계

가) 여성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일반의 견해

여성취업에 대한 일반의 기대와 가계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역시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나타난다. 전체 남성의 38%, 여성 42%가 보육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정도 및 각 연령대에서 모두 가사 및 육아부담을 지적하고 있다(통계청(1988), 『사회통계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통계연보』). 유통업 분야 남녀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가정영역의 일에 대한 외부도움 정도에서 기혼남녀근로자의 각각 24%, 31%가 보육과 관련해서 외부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해감에 따라 여가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남성근로자들의 관심이 증대해가고 있어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보육정책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김태홍 외, 2001; 장혜경, 2002).

나) 고용형태별 양육문제

부부상호취업가족의 취학전 자녀양육 실태를 살펴보면 대략 전체의 약 56%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부모나, 친인척 등이 돌보고 있었다. 특히 전일제 취업여성의 51.0%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제도에 의지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다) 직업계층별 양육문제

친족제도에 대한 의존은 전일제/시간제와 같은 취업형태만이 아니라, 계층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관리·전문직의 경우 친족제도에 대한 의존이 가장 높다. 가족에 대한 의존이 높은 집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판매직이나 기능직 등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제4차 여성취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졸

기혼여성의 6.7%만이 “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대졸이상 집단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29.6%로 나타났다. 보육비용 한도도 중졸이하가 14만 3천원인데 비해, 대졸이상 여성은 23만1천원으로 나타나서 계층별 기대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별로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

4) 보육정책의 방향제안

가) 2인부양 모델의 보편화추세를 인정, 지원하는 보육정책의 필요

이미 가족내의 성역할 가치관은 남성1인 부양 모델을 넘어서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가족 의존적 자녀부양체계가 갖는 딜레마는 결혼과 출산의 연기 및 출산률 저하, 가족 삶의 질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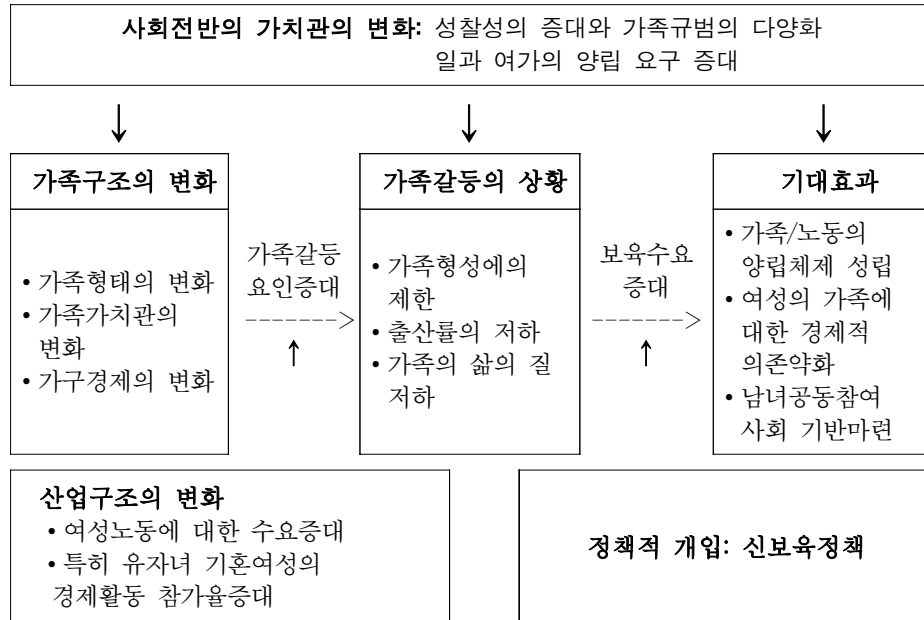
나) 가구계층별 요구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보육정책의 필요.

현재 2인 부양가구에서 자녀양육실태는 계층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도가 상대적인 고소득층의 이용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보육비 지원의 차등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계층별 수요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다) 여성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체제 필요.

2인 부양가구에 있어서도 보다 어려움을 겪는 층은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이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제 취업자보다 전일제 취업자가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대신, 과반수가 가족이나 친족체계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전일제 취업자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보육서비스의 확장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림 II-1>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2.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전망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보육

1) 국내외 여성노동공급연구에서 나타난 자녀 보육의 중요성

국내외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은 주로 임금과 비 근로소득, 즉 경제적 요인의 함수인 반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남성과 달리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특성 변수들, 즉 자녀수, 자녀연령, 6세 미만 자녀보유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다 (Mincer 1962, Gronau 1977, Becker 1981, 양승주 1994). 즉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유할수록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무급노동이 증가하는 원인은 자녀의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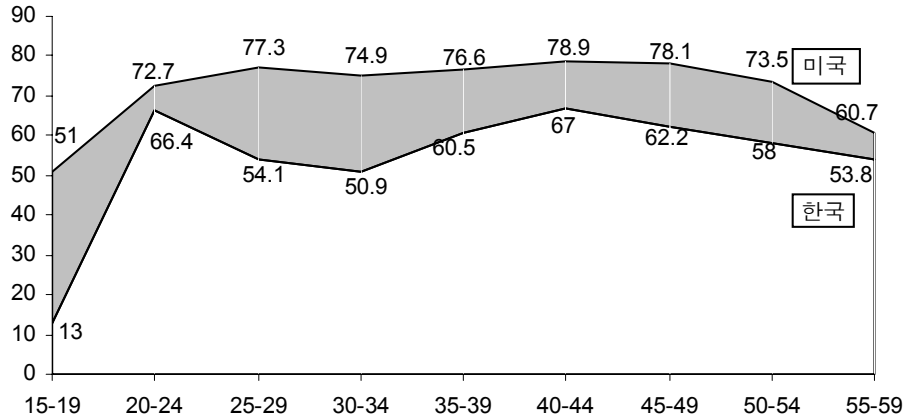
많을수록 가게 내에서 생산하는 보육서비스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의하여 시장대체물에 비하여 가격이 싸고,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서비스의 구입이 가게 내에서의 생산에 비하여 비싸기 때문에 풀이된다 (Bryant 1992). 또한 타 가사노동과는 달리 자녀양육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질적 완전대체의 가능성이 적어 불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수준은 남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육비용으로 인한 여성의 유보임금의 상승은 시장임금을 상회하게 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가게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양육에 집중하고 남성으로 하여금 시장노동에 집중하게 하는 성별 분리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Becker 1981, England 1993). 경직적인 노동시장, 즉 노동공급자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노동시장일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자녀양육기간인 20대 후반부터 30대 사이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증가, 보육비 부담의 완화, 근로조건의 유연화, 성별임금격차의 감소 등에 힘입어 여성노동공급행태에서의 자녀관련변수의 영향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질적인 M자형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자녀가 어릴 때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가게생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차츰 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늘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rational)인 행동이다 (Bryant, 1992).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은 노동공급을 늘이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의 축소라는 탄력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시장에서의 이탈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경력단절로 인하여 복귀가 어렵거나 하향취업 하게 된다.

<그림 II-2> 한국과 미국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자료: ILO, 『노동통계연감』(1999).

우리 나라 여성의 결혼전후 직종이동의 방향이 대체로 수직적 하향이동이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 농수산직, 생산직 간의 수평이동이며 상향이동은 매우 적은 비율에 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국여성의 출산 전·후의 직업이동 방향에 대한 Dex (1987)와 Joshi et. al. (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종이동이 여성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든 노동시장에서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든, 우리 나라 여성이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치러야 하는 취업경력상의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향취업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에게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며 이 중 상당수는 재진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24세 연령층에서 78.7%로 같은 연령층의 남성보다도 높은 참가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하는데, 이러한 하락추세는 40~44세층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20~24세 층이 40세가 되어서 나타내는 취업행태가 지금의 40세 여성의 행태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결혼·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규모가 대졸여성의 경우 미혼시 취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0-24세 78.7% → 40-44세 49.9%)(200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또한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이 20대 후반 및 30세 초반에 급격히 이루어진 후,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추가적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녀의 보

육과정에서 그리고 둘째 자녀의 출산이후 그 동안 미루었던 취업중단을 하게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40대 중반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육아를 끝낸 여성들의 재진입으로 인한 것인데, 재진입의 규모가 미미하며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퇴출전 직종과는 상이한 직종에서 불안정한 취업조건으로 편입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여성의 노동공급과 보육간 관계에서의 집단별 다양성

여성의 노동공급과 보육의 관련성에 대한 집단별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취업여성의 22%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의 응답은 30-34세의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총 72.2%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연령대가 타 연령대와 구분되는 점은 출산 및 육아의 시기를 거치므로 이런 어려움이 육아부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사 및 육아부담 비율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지 않다. 그 원인은 자녀양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Becker(1981)에 의하면 자녀양육의 질적인 측면은 자녀의 수와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소득수준과 학력에 따라 자녀의 질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양육, 즉 인적자원(Human Capital) 축적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가계소득 증가와 고학력화가 진전되면 자녀양육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부담의 수준은 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들은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경향이 강하며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취업자들도 육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 기혼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 비율(%)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9.2	47.0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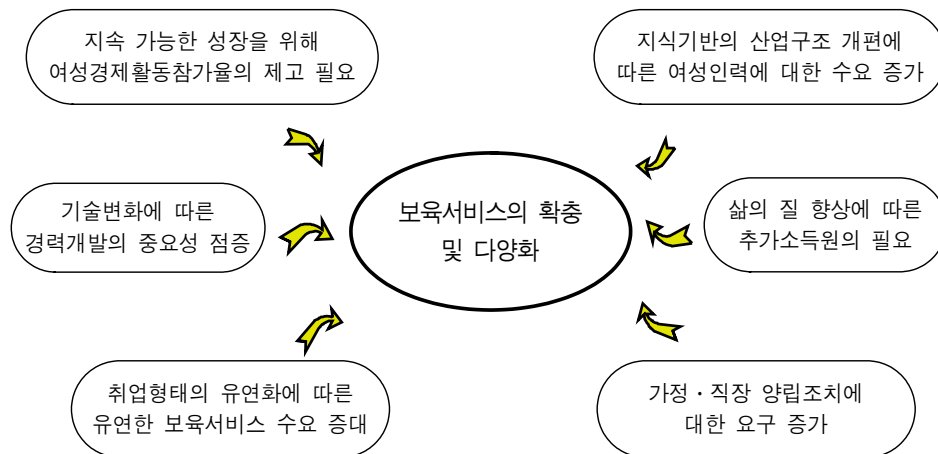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프라 중 하나인 보육서비스

스 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는 집단별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 전망

국가경제의 발전과 산업수요 및 가구와 여성개인의 요구에 의해 보육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인다. 또한 기술변화는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세대, 월드컵 세대의 ‘가정과 일의 균형’에 대한 요구에 주목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가정과 일의 양립조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 보육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

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7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달성 필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 현재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여성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¹⁾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스웨덴	81.0	88.1
미국	73.0	81.4
캐나다	71.0	84.0
OECD 평균	64.0	81.1
한국	55.0	54.7

주 1) 25-64세 기준

자료: OECD(2000), Education at a Glance, OECD(2001.6), Employment Outlook.

우리 나라의 2001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8%이며 시간적 추세변화를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는 52.0%로 나타난다. 즉 현재 상태에서 비약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자가 향후 8년간 약 370만명 더 증가해야 한다는 산술적 수치를 도출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여성은 출산 및 보육의 시기인 25-34세에서 가장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데, 특히 이 현상은 대졸여성에서 두드러진다. 그 결과, 대졸여성의 인력 활용도는 54.7%로 OECD 30개국 중에서 최하위수준이다. 따라서 고학력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요구받고 있는 당면과제이다.

나) 산업구조의 지식 집약적 개편에 따른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산업구조의 지식 집약적 개편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OECD회원국의 경우도 금융·보험, 기업서비스와 같은 지식 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10년 동안에 약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지식 집약적인 산업의 구성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지식 집약적 개편은 서비스업 및 소프트한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취업기회의

純증가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여성취업자수는 2000 ~ 2010년 사이에 연평균 2.22%씩 증가하고, 중저위 기술제조업에서도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반면 저위기술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취업자는 같은 기간동안 2.32%씩 증가할 전망인데, 특히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5.04%), ICT서비스업(3.78%), 사업서비스업(3.7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다) 기술변화에 따른 고숙련·경력직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의 기술진보는 고용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의 창출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한번 습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계속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학력, 고숙련, 다기능인력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고용증가율 및 전망에 따를 것 같으면, 교육훈련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빠른 성장을 보이는 10개 직종중 8개가 대학이상의 교육이나 장기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졸 후의 직업훈련을 요하는 직종들은 평균치를 하회하는 고용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는 우리 나라에서도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전병유, 2000, 김영옥, 2000).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중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력개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고급인적자원인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다.

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추가소득원의 필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소득원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5% 수준으로 한자리수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식, 내구재소비, 여가문화와 관련된 가계소비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주5일 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의 확산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고급화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지

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인 취업으로 4인 가족 부양’ 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1가족 2인 취업’으로 삶의 질 제고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요구 증대

가) 취업형태의 유연화에 따른 유연한 보육서비스 수요 증대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인 근로의 개념 즉, 일정한 근로장소와 일정한 근로시간 등의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 근무나 재량근무제, 탄력근무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취업형태 역시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 등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유연화는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가정·직장 양립조치에 대한 요구 증가

인적자원은 모방, 대체가 쉽지 않고 성과와의 인과관계가 경쟁자에 의해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기업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육성·유지하기 위해 가정·직장양립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직장 양립조치가 주는 이득에는 줄잡아도 ①인재의 보유 ②질 높은 고객 서비스의 제공 ③다양한 고객의 요구에의 대응 가능 ④결근, 병가, 스트레스의 감소 ⑤생산성과 능률의 향상 ⑥회사에 대한 헌신과 신뢰성 증대 ⑦ 간부들의 태도에 있어서 유연성 증대와 변화에의 대응 능력 증대 등을 들 수 있으며 HSBC 은행의 사례가 그 이득의 일부를 예시하고 있다.(Scotland Office (2001.9), Work Life Balance : The Business Case).

사례 : HSBC Bank plc

- 1988년, 은행에서 자녀양육 프로그램 도입이전에는 은행에서 모성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의 70%가 복직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력 보유율은 30%에 불과하였다.
- 2001년은 HSBC가 육아실 프로그램을 설치한지 13년이 되는 해로서, 인력보유율은 85%로 증대하였다.
- 모성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1년이다.

다. 보육정책의 방향 제안

1) 보육서비스 공급증가와 프로그램 다양성의 요구

경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증대를 통한 가계 및 국가경제에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하여 보육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경제사회발전의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기존에 지적되어 온 보육시설 대폭 확충, 영아보육 확대, 장애아 보육확대 등 양적 팽창 뿐 아니라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탄력적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2) 보육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유인(incentive)으로 작용

자녀양육시기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유보임금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임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자녀 위탁양육에 드는 비용, 자녀양육이 시장에서 질적인 완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자녀의 인적자원 축적의 손실이라는 기회비용, 경제활동참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등이 유보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이익을 상회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동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 위탁양육에 드는 비용 및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유보임금 수준을 상승시킨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보육비용의 증가는 유보임금 수준을 더욱 상승시킨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방향은 유보임금의 상승을 최소화하여 여성과 가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가) 적정보육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한 가계의 이익을 극대화

보육비 부담은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며 이는 보편적 보육 및 기본보육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시에 낮은 보육비로 인한 낮은 질적 수준은 중산층 여성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려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하므로 현실화가 요구된다.

적정보육비는 각 가정의 소득수준, 자녀의 수, 부양가족 수 등 가계경제의 포괄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적정보육료의 산정은 각 소득계층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나)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증가방안 마련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즉 교육목적이 아닌 영아양육의 목적으로의 보육시설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점이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점이다. 즉 자녀가 영아기 일 때 노동시장을 퇴출하지 않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영아보육시설의 미비라는 공급측 요인과 함께 보육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수요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고학력 여성인력일수록 시설이용보다는 조부모 양육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개인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자녀양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영아기의 노동시장 퇴출을 막고 사적 인적자원 활용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영아보육시설의 증가, 영아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영아보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 감독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3) 보육의 사회적 책임 분담을 위한 사회보육시스템의 확립의 필요성

자녀양육의 책임이 기혼여성의 책임으로부터 가족, 사회, 국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느 때 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경제를 위한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보육의 수요자는 여성 뿐 아니라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남성과 국가 또한 수요자이다. 그러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적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가능케 하는 아동 1인당 보육비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사회적인 보육비

규모의 산출은 보육시설, 지역, 아동의 연령 등 가능한 세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재정 및 조세제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집행에 있어 타 부문과의 차별성 및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각국의 보육정책 및 현황비교

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41
2. 각국의 주요 보육정책	48
3. 각국의 보육현황	87
4. 각국의 보육 프로그램	102
5. 각국의 보육시설 평가	110
6. 시사점	122

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OECD는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하여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유아를 위한 모든 서비스로 정의 내리면서 교육중심 또는 보호중심, 종일제 또는 반일제, 기관중심 또는 가정중심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기존에 이분법적으로 유아교육 혹은 보육으로 분리하던 개념을 통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은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의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교육과 보호를 병기한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다.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념분리에 따른 이원화, 영아에게는 보호를 강조하고 유아에게는 교육을 강조하는 연령별 이원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체제이다(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OECD 국가들 중 유아교육과 보육을 연령별로 분리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며, 대체적으로 3-6세 대상의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0-2세 대상의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III-1>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행정체제

국 가	담당 부처	연령(세)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교육부	0-6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보건복지부	0-6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2, 3-5, 6 0-2, 3
미국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5 0-4
일본, 한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3-5 0-5

나정·장영숙(2002).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한편 단일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등으로 교육부 혹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유아기가 평생학습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임을 부각하여 유아기의 경험의 연계성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고, 이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아직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복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와 일본이 있으며, 3-5세는 교육부가, 0-5세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III-2> 5개국의 유아교육과 보호 행정정책

국가	보육대상	보육기관	담당부처
일본	취학전 3세~취학전	보육소 유치원	후생성 문부성
스웨덴	6세이하		보건사회부 (국가보육위원회감독)
프랑스	2개월~2세 2~6세	탁아소 유치원	보건성 공교육성
영국	5세미만 5~8세	보육소 영아학교	사회보장성 교육과학성
미국	0~5 3~6 4~6	보육소 보육학교 유치원	보건복지성

나.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운영형태

서비스 제공 유형에서 OECD 가입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종일제로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연중 무휴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영국의 유아학교,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그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던 국가들도 최근 들어서는 종일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는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은 반일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육시설에서도 반일제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들어 유치원에서도 연장제 혹은 종일제 운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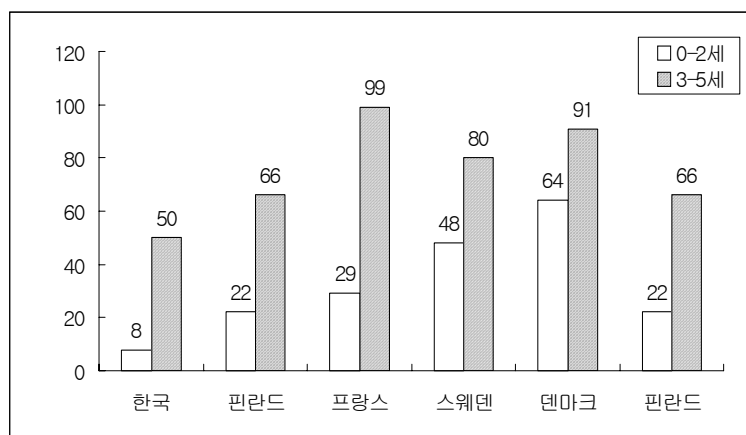
<표 Ⅲ-3> 유아교육과 보호기관 운영형태

구분	국가	운영형태	비고
사회민주주의국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종일제 종일제 종일제	· 연중운영 · 연중운영 · 연중운영
보수주의국가	프랑스 이태리 독일	종일제 종일제 혼합형	· 8시간(8:30~16:30)운영, 휴무 수요일에는 시(市)가 지정한 학교가 종일제 운영(8:30~18:30) · 8~10시간 운영 · 6~7시간 운영
자유민주주의국가	영국 미국 한국	혼합형 혼합형 혼합형	· 2000년부터 유아학교 체제에 연중무휴제 도입 · 1996년부터 반일제보다 종일제 프로그램에 다니는 유아 수가 많아짐 · 1999년 현재 유치원의 연장제 및 종일제 운영비용이 70%를 넘어섬

나정·장영숙(2002).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다. OECD 국가들의 수탁율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5세아의 80%이상, 4세아의 60%이상, 3세아의 40%이상이 유아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2001년도 0~2세아의 경우 보육율이 8.6%이고 3~5세아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였을 때 50.7%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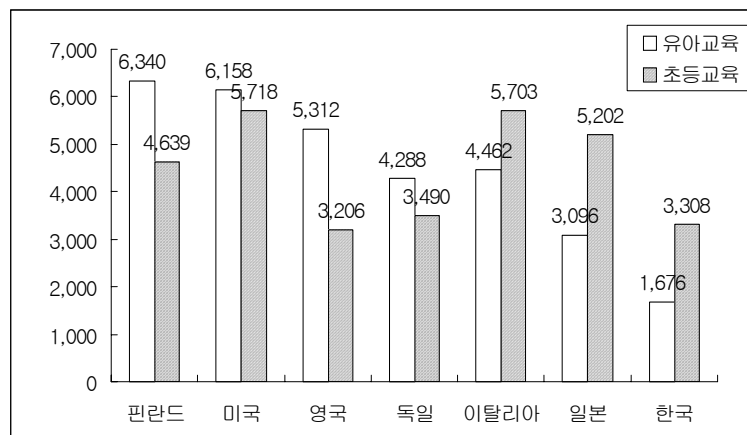
<그림 Ⅲ-1> 0-5세아 수탁율(1995)

다. 즉 취학직전 연령인 5세아도 50% 정도만이 교육 혹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교육을 기초교육(basic education)에 포함시키고, 정규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는 OECD나 UNESCO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라. 유아 교육 및 보육비용

1)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

OECD 국가들의 평균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를 살펴보면 유아 1인당 3,788달러, 초등학생 1인당 3,769달러로 유아교육비용이 초등학생 교육비용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676달러, 초등학생 3,308달러로 초등학생이 유아의 2배에 달하며 유아의 경우 OECD국가 유아 1인당 교육비 평균의 44.2% 수준에 불과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그림 III-2> OECD 국가들의 유아 1인당 교육비 비교

<표 III-4> OECD 국가들의 유아1인당 교육비

(1997, \$:미국달러 환산액)

구분	국가	유아교육	초등교육	비율
유아>초등	핀란드	6,340	4,639	1.4:1
	미국	6,158	5,718	1.1:1
	영국	5,312	3,206	1.7:1
	독일	4,288	3,490	1.2:1
유아<초등	이태리	4,462	5,073	0.9:1
	일본	3,096	5,202	0.6:1
	한국	1,676	3,308	0.5:1
	OECD국가평균	3,788	3,769	1.1:1
	한국:OECD 국가평균비율	44.2%	87.5%	

OECD(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0 : OECD Indicators, Table B4.1에서 발췌.

2)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

국가별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비용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아기의 3년 또는 그 이상의 무상 유아 교육을 교육체제 안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호는 지방정부와 부모가 공동 부담하고 있으며, 부모의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국가가 부담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의 대상 영유아의 연령은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5> 유아교육과 보호 비용부담

국가	연령	비용부담주체
프랑스, 이태리	2/3~6	정부/지방정부-무상
영국	3~5	정부-무상
스웨덴	4~6	정부-무상
독일	3~6	주정부, 지방정부,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나 최대 20%)
미국	5 0~4	정부-무상 연방/주정부, 지방정부, 부모(최대70%)
한국	3~5(교육) 0~5(복지)	부모(최대 100%), 국가 부모(최대 100%), 지방정부, 국가

나정·장영숙(2002).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표 III-6> 5개국의 유아보육의 현황

국가	출발 시기	법적근거	보육시설 이용률	비용부담
일본	1890	보육소 -아동복지법 유치원 -학교교육법	49.2%	· 보육료를 가구소득액에 따라 7 단계로 구분해 감면(복지사무소 수납) · 감면분은 정부(50%), 도도부현(25%), 시정촌(25%)이부담
스웨덴	1854	사회 서비스법 (1982)	92%(공립보육시설 56%, 기관 38, 가정18, 민간보육시설36%)	· 정부 23%, 지자체 62%, 수익자 15%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불 : 평균소득의 10~15%)
프랑스	1826	모자보호법 (1940)	84.4%	
영국	1816	아동법(1982)	39.3% (놀이방 13%, 유치원10%, 공립1%, 사립1.5%,가정보육 6%, 기타 7.8%)	
미국	1964	사회보장법, 각주아동 보호법(1990)	58%(가정 20%, 시설 보육 35%)	· 부모 부담원칙, 빈곤가정에는 공적지원 (Head Start 프로그램; 연방정부 80%, 주정부 20%)

마. 지원 및 관리

- 1) OECD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는 국·공립, 민간의 구분 없이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OECD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 3) OECD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 4) 아동권리의 보장과 국가 미래인력 개발 차원에서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 5) 아동의 교육 및 보호를 정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바. OECD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 1)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
- 2) 교육체계들간의 동등하고 강력한 협력관계
- 3)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관심 및 보편적인 접근기회 제공
- 4) 공공재원의 확충과 기반 구축
- 5) 질 개선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접근
- 6) 모든 유형의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근무조건 확립
- 7) 지도·감독과 자료수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
- 8) 연구와 평가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교육은 초기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보육은 빈곤 영유아들에 대한 타아를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와 보호적 서비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통합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유아교육기관은 아직까지 유아들에 대한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반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정도는 각 국가들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보육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호 개념이 아동중심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종일제 프로그램과 연중무휴 프로그램 등으로 보육프로그램이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개개 국가들의 경쟁력이 가속화되면서 영유아들이란 미래 국가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영유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상 교육·보육 대상 영유아가 5세에서 4세, 3세 이하로 하향되고 있다. 영국은 2004년까지 0-14세 아동 160만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도부터 보육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추가 영유아 40,000-50,000명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엔

젤플랜(1994-1999년)’에 이어 ‘신엔젤플랜(2000-2004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특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정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이 매우 미비함으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보육선진국들로부터는 우리 나라 보육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시사받을 수 있다.

- 1) 유아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간의 통합 혹은 협력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가 증가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 3) 각국은 아동의 잘 자랄 권리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의 측면에서 보육정책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역시 합계출산율 1.3(2002년)의 쇼크를 극복,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정책의 발전이 요구된다.
- 4) 보육현장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한 보육발전이 요구된다.

2. 각국의 주요 보육정책⁴⁾

가. 우리 나라의 주요 보육정책

1) 보육정책 발전과정

보육사업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의 보육시설들은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시작되었다. 취업모 자녀들이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자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빈적 차원에서 보육시설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산업사회의 발전, 여성교육의 향상, 여성의 의식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이유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아동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포함하여 출생시부터 영유아 전체가 대상이 되는 폭넓은 의미에서 접근되기에 이르렀다.

4) 각국의 주요 보육정책 소개는 우리 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육과(2002), 유희정(2002, 2001, 1999)에서 발췌, 요약 정리하였음. 일본의 경우는 森上史郎(2002, 最新保育資料集), 保育研究所(2001, 基礎から學ぶ保育制度-現状と改善・擴充のポイント)에서 부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음. 영국, 스웨덴, 미국의 사례는 OECD(1999, 2001)가 국가별로 발간한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자료들을 부분 발췌, 정리하였음.

동시에 보육이란 이전의 단순한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개념으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이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가) 보육사업의 태동기(어린이집 시기 : 1921~1982년)

- 임시구호 (1921~1961년)
- 보건중심 (1961~1982년)

나) 보육사업의 준비기(새마을 유아원 시기 : 1982~1991년)

- 교육중심 (1982~1991년)

다) 보육사업 전개기(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10년 : 2001년)

- 선별적 복지실현 (1991년 이후)

라) 보육사업 발전기(2002~현재)

-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 시작

2) 보육정책

가) 유아교육 · 보육 행정체계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다.

구 분	유 치 원	보육시설
담당부처	교 육 부	보건복지부
설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 공립 - 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 공립 - 민간 - 직장 - 가정 - 공동육아협동조합
주대상연령	3~5세	0~5세 만12세까지 가능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 보육법

나) 보육 행정체계

보육에 관한 행정체계로써 보건복지부 안에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복지정책실-가정복지심의관-보육과이다. 보육과는 2002년 5월에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아동복지과에서 아동관련 업무와 함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여성부와 노동부가 유아교육과 보호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및 노동시장의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구 분	담당부서	기 능
보건복지부	보육과	1. 보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 개정 3.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보육사업 국고보조기준 및 업무지침 수립, 시달 5.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육성 6. 저소득층, 만 5세아 등 아동보육료 대상자 선정 및 지원 7. 특수 보육시설(영아, 장애아, 방과후 및 시간연장형 등)의 설치기준 마련 등 8.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9. 표준보육과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10.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시,도,군,구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	보육관련 행정, 지원금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사업추진 및 관리
여성부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실	보육사업에 관련된 정책개발 및 평가
노동부	평등정책과	직장보육담당

(1) 시설의 설치 종류 및 설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 6조에 그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 등의 보육시설이 있다.

①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이다.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놀이방”으로 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설비 조건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비,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 대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1998년부터 관할 행정 당국에 신고만 함으로써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완화된 절차는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보육시설의 민간부문 의존도는 유치원보다도 높으며, 40명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영세한 규모의 시설이 많다.

(3)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 9조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 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사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7> 종사자 배치기준(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시설장 ¹⁾	전 보육시설(다만,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임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사	2세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1인(10인당 특수 교사 1인)	(상 동)
간호사 ²⁾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 동)
영양사 ³⁾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 동)
취사부 ⁴⁾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 동)

주 : 1)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무직 관리인,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

2) 간호 조무사도 가능함

3) 동일 시·군·구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인근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또는 영양관련전문단체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가능함

4) 영유아 50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표 III-8> 가정보육시설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보육교사	2세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이상 영유아인 경우 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은 20인까지만 보육가능)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4) 운영관리

(가) 대상아동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영유아보육법 제1조)으로서,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6조). 그러나 '96.1.1일부터는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

세까지로 연장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 ② 모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 ③ 저소득 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 ④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 ⑤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또한 보육시설에는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사 1인당 보육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영아 반대 유아반이 동일 비율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보육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30~19:30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 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합의에 의해 실시가 가능하다.

(다) 보육내용

보육내용은 보육프로그램을 근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기본으로 한다. 보육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항목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의 기본 원칙	
보호	영아 및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세심한 보호를 통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하여야 한다.
교육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양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건강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하게 해 줌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서비스	보조자 또는 의사 결정자로서의 부모 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조직과 목표, 철학 등을 이해시켜 보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 참여, 지역 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 활용,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보육시설, 가정, 지역사회 모두의 복지에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육료

① 일반보육료 산정

보육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장의 계통을 거쳐 결정된다. 먼저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산정 시달(영유아보육법 제24조)과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시·도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하 ‘수납한도액’이라 한다)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 다만,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150%범위 이내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표 Ⅲ-9> 일반보육료(2002년, 서울시)

(단위 : 원)

구 분	국 · 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2세미만	206,000	338,000	362,000
2세	168,000	274,000	362,000
3세이상	116,000	165,000	199,000

② 특수보육료

㉠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3세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방학기간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100%를 적용한다.

장애아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중증장애아(장애등급 1~3급)는 2세미만 보육 단가를 적용하고, 경증장애아(장애등급 4~6급)는 2세아 보육 단가를 적용한다.

<표 Ⅲ-10>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료(2002년, 서울시)

단위 : 원

구 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1~3급(중증)	4~6급(경증)
국공립 시설	58,000	206,000	168,000
민간보육시설	83,000	338,000	274,000

㉡ 야간 · 휴일 · 24시간 보육료

• 야간보육료

- 상시 24시까지의 보육은 국고보조지원 기준단가의 120%를 적용
- 일시적 야간보육은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를 적용
- 상시 24시간제 보육은 국고보조지원 기준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 휴일 보육료 :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70%를 가산하여 휴일보육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 반일제 보육료 : 국고보조지원기준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③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대상시설 및 지원대상구분에서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명시하고 있다. 기타저소득층 기준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재산 조사방법(기준)에 의한다.

㉠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부자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까지의 아동

㉡ 기타 저소득층 아동

-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이때 정부지원단가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국고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정부지원단가 기준과의 차액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도록 한다.

<표 III-11> 저소득층 지원기준(2002, 서울시)

(단위 : 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이상
가구상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가구당 재산	3,600 (5,400)	3,800 (5,700)	4,100 (6,150)

<표 III-12>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2002)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2세미만	서울	232,000	45,400	185,600
	지방		116,000	116,000
2세	서울	192,000	38,400	153,850
	지방		96,000	96,300
3세이상	서울	119,000	23,800	95,200
	지방		59,500	59,500

<표 Ⅲ-13> 기타 저소득층 지원단가(2002)

(단위 : 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2세미만	서울	92,800	18,560	74,240
	지방		46,400	46,440
2세	서울	76,800	15,360	61,440
	지방		38,400	38,400
3세이상	서울	47,600	9,520	38,080
	지방		23,800	23,800

④ 보육사업 국고보조

보육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있다.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 운행비, 저소득층 아동 지원금, 기타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4> 보육사업 국고보조 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아동지원	- 만 5세아 무상보육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저소득층 아동)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면 지역 소재 모든 보육시설 대상
종사자 인건비	- 교사봉급 50%와 원장 인건비 - 영아 교사 100% - 농어촌 교사 1인 추가, 취사부 1인 추가 - 장애아 교사 100%, 취사부 1인 - 야간 교사 100%	국·공립, 비영리 보육시설 대상
교재·교구비	- 연간 100만원 (2000부터)	민간 보육시설 대상
차량운행비	- 월 120,000 (연 1,440,000)	국·공립, 비영리 보육시설 대상
저소득층 아동지원금	- 법정저소득아동 : 보육료 100% 보조 - 기타저소득층 아동(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재산·가구당 3200만원 이내) : 보육료 40% 보조	모든 보육시설 대상
기타지원금	-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 국·공립, 비영리 : 시설 보강비, 시설 개·보수비	국·공립, 비영리 보육시설 대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0~6세아의 보육을 우선으로, 또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루에 12시간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3세 이상의 유아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유아 30명당 교사 1인이 맡도록 하고 있다. 운영 시간, 보육 내용 및 보육료 결정 등과 같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방행정 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에 대해서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다. 하루 12시간의 보육시간 이외에 연장보육, 야간보육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때의 보육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주요정책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반 확충에 목표를 두고 노동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2002. 3. 6)』을 발표하였다.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추진

- ① 다양한 보육수요(영아·야간·휴일·24시간 보육 등)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충
- ② 보육시설 이용율이 85%에 그치는 점을 감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 고려

(2) 보육사업에서 민간기능 활성화 방안 및 정부의 역할

- ①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보육서비스 부문을 보완하고, 특수보육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원칙을 재정립
- ② 보육서비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실화

(3) 추진계획

- ①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취업모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아(0~2세) 보육서비스를 확충

- 야간·휴일·24시간 등 특수보육서비스 지원
- 초등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
-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육아조합에 보육시설을 지원(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②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보육현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③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

- 시설비는 현행대로 국·공립 및 민간법인 보육시설에만 지원하되,
- 인건비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의 구분 없이 가급적 동일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특수보육시설까지 확대
- 복잡다양하게 지원되는 기타 운영비는 점진적으로 축소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향후 보육료 자율화에 따른 부담증가를 감안, 지원대상과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④ 보육인프라의 확충 및 내실화

- 『보육서비스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시장의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연령대별 표준 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에 보급(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보육정보 Network를 구축
- 기초자치단체 별로 최소 1인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보육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배치

나. 일본의 주요 보육정책

일본의 유아교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기부터 학교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아동 중심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발전해 왔다. 1876년 최초의 국립 유치원이 설립된 이래 1960년대의 유아교육진흥책과 더불어 성장한 유치원은 한 때 학교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연계된 유아학교로 개편될 뻔한 시기도 있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도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원이 하나의 학교 제도권의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보호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확대와 충실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교육내용을 좀 더 현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애쓰던 시기이다. 1990년대에는 출산율의 저하, 일하는 여성들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4년에 계획된 엔젤플랜(1994~1999) 즉, 향후 약 10년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보육, 고용, 교육, 주택 등에 관련하여 육아 지원 시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시책 등을 언급하여 현재의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엔젤플랜이후 2000년도부터 신엔젤플랜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1) 보육정책 발전과정

일본의 보육사업은 1875년 정부가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아이들이 수업에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시설(komorigakko: baby-sitter school)을 제공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공장 보육 시설이 개설되면서 증가되었으며 1919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보육사업이 복지 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소득에 따른 보육료 산정 및 입소절차 규정이 이루어졌고, 1960년대 후반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1967년 보육시설 긴급 정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1974년에는 장애아 보육을 위한 제도가 설립되었으며 1981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장 보육과 야간 보육사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985년 이후 보육행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감소시키고 대신 지방 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을 증가시키려는 소극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일하

는 여성들의 증가로 인하여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4년에 계획된 엔젤플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엔젤플랜’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4개성이 공동으로 1994년부터 1999년 기간동안 추진한 보육정책이다. 이로써 영아(0-2세)보육, 연장보육, 일시보육, 방과후 보육, 다기능(통합) 보육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영유아 건강지원 1일 서비스 사업, 보육시설의 인력 확충,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육료 경감, 지역 아동양육지원센터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2000년부터는 ‘엔젤플랜’의 후속으로 ‘신엔젤플랜(2000-2004년)’을 전개하고 있다(유희정, 2001; 테시 2001).

가) 19세기

- 1875년 Baby-sitter school 제공(보육사업의 시초).
- 1889년 공장 보육 시설 개설

나) 20세기 중반까지(1900년-1950년)

- 1904년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개칭
- 1919년 공립보육시설 설립(1926년 65개로 증가), 농번기 보육시설 설립
- 1938년 복지부 신설(내무부에서 아동국으로 이관)
-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보육사업이 복지시설로 인정)

다) 20세기 중반 이후(1951년-현재)

- 1958년 소득에 따른 월보육료 산정. 국가(지방)보조체계 확립
- 1961년 보육시설 입소절차조건에 관한 규정마련
- 1967년 보육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
- 1974년 장애아 보육제도 마련
- 1981년 연장보육과 야간 보육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
- 1985년 중앙정부책임감소(부담분 80%→50%로 감소),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책임증가
- 1994~1999년 : 엔젤플랜
- 2000~2004년 : 신엔젤플랜

2) 보육정책

가)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

일본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은 보육을, 유치원은 교육을 위한 시설로써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은 중류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은 근로층의 자녀를 위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유치원	보육시설
국가기관	문부성	후생성
기능과 목적에 따른 구분	학교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관계법령	학교교육법 (1947년 제정)	아동복지법 (1947년 제정)

위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보육시설은 아동복지 시설의 하나로 인정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보육과 관련된 지침이나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나) 보육 행정체계

보육에 관한 행정체계에는 후생성의 아동 가정국, 도도부현, 시정촌이 있으며, 기능에 따른 담당부서 및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담당 부서	기 능
후생성의 아동가정국	기획과	조치비 예산작성 및 집행 및 지도·감독
	모자위생과	위생관리, 급식
도도부현		보육시설의 인가, 지도, 감독, 감사 및 보모 시험 실시 업무 담당
시정촌		후생과, 민생과, 보육과, 복지과등 보육시설의 일선 행 정을 담당하며 입소조치 기획, 관리, 경리,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1) 보육시설의 유형

일본의 보육시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인가유무	종 류
공립보육시설		시정촌립 보육시설, 도도부현립보육시설 계절 보육시설, 벽지 보육시설
사립 보육시설	인가·미인가 보육시설 두 종류로 나뉨	사회복지법인립, 종교법인립 재단 법인립, 개인립 사업소(직장, 기업내)보육시설 가정보육실
사적 보육서비스 기관 (영리추구 보육시설)		베이비 호텔, 베이비시터 유아교실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취업모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보육운동의 일환으로 국가, 도, 시 이외의 민간에 의해 세워진 보육시설이 많이 설립되었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절 보육시설과 벽지 보육시설은 국가가 특별 보육사업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계절보육시설은 농번기나 지방 산업이 바쁜 시기에 연간 20일 정도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며, 벽지 보육시설은 산간지역, 외딴 섬에 설치하며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보모 2인을 배치한다.

(2) 시설기준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은 아동 복지법 제45조 관련 보육시설 최저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2세 미만	만 2세 이상
보육실 옥외 유희장	1.65 m ² 이상	1.98 m ² 이상 3.3 m ² 이상
교실의 종류	보육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유희실, 옥외 유희장, 조리실, 화장실
유아실내시설	실내 골조 의자, 그네, 보행기, 수압차	악기, 이젤, 의자, 책 등
기타	보육실을 2단 이상 설계하는 경우는 대피계단, 그 외의 조정 요건을 설비해야 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설비 조건이 다르며 만 2세를 기준으로 3.3m²이상의 옥외 유희장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3) 보육시설 종사자

(가) 보육교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이름과 자격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의 보육에 종사하는 여자를 보모라 칭한다. 보모는 자격 제도에 의거하며 자격증을 얻기 위한 보모시험 자격과 시험과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모의 자격	보모 시험	시험과목
1.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여 62단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고등전문 학교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3. 고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인 정자 4. 아동복지 시설에서 3년 이상 아동보호에 종사한자 중 보육교사시험에 합격한자	· 도도부현에서 1년 1회 이상 실시하며 8개 과목을 시험 본다.	· 사회복지 · 아동복지 · 아동심리학 및 정신보건 · 보건위생학 및 생리학 · 간호학 및 실습 · 영양학 및 실습 · 보육원리 및 교육원리 · 보육실습

현재에는 여자 뿐 아니라 남자 보육교사도 인정하여 보부라 부르며, 보육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 보육교사 양성기관

보육교사 양성 기관의 종류
1. 학교교육에 의한 대학 및 단기 대학(2년) 2. 후생성 대신에 의해 승인된 기관

일본의 보육교사, 즉 보모 양성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학교교육에 의한 단기 대학과 보육교사 양성기관이 주된 기관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75%가 2년제 대학에 의해서 배출되나 1994년 이후 계속 보육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보육교사의 수

보육교사의 수는 아동복지법 제 45조 관련 아동복지 시설에 관한 최저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연 령	교사대 아동의 수
영아 또는 만 3세 미만	1 : 6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	1 : 20
만 4세 이상	1 : 30

보육시설에는 보모 이외에 원장, 보건부, 간호사, 사무직원, 영영사, 조리원, 용무원, 촉탁의 등이 있지만 법률상 의무는 보육교사, 촉탁의, 조리원 뿐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원장은 법적·제도적 위치가 취약하여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시설 관리자·지도원 등의 복지시설 지도 전문원’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독자적인 직업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다. 2001년 10월 현재 보육교사는 총 225,648명으로 유자격자 ‘221,959명(양성소 졸업 198,813명, 시험합격자 23,108명, 인정 40명), 무자격자 3,689명이다(유아보육 연구소, 2002).

(4) 운영관리

(가) 보육시간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한 보육시설 최저 기준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자의 노동시간,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장이 융통성 있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보육내용

보육내용은 후생국에서 마련한 ‘보육시설 보육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한 최저기준에 보육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최저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건강상태 진찰	얼굴, 체온, 피부 이상의 유무, 청결상태(매일 등소시)
개별검사	청결, 외상, 복장등 이상 유무(매일 퇴소시)
자유놀이	음악, 회화, 조작, 이야기, 자연관찰, 사회관찰, 집단 유희

(다) 보육료

아동복지법 제56조 제2항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능력에 맞게 비용을 징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전년도에 과세계층 등급에 따라 후생성에서 산정한 보육단가에 따른 보육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불한다. 계층구분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시설 사용의 일반화,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육료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 보호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보육료에 차등을 둔다는 원칙
- 전년도 세대별 소득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등급 결정
- 1997년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한다고 개정
- 점차 보육료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책정 방식 변경
- 10등급 분류 방식에서 1998년 7등급으로 변경
- 3세 미만아를 0세아와 1~2세아로 구별하여 책정

계층	대 상		3세미만아	3세이상아
1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세대		0엔	0엔
2	제1계층 및 제4-7계층을 제외한 전년도의 시정촌 민세액의 구분이 다음에 해당되는 세대	시정촌민세 비과세세대	9,000엔	6,000엔
3		시정촌민세 과세세대	19,500엔	16,000엔
4	제1계층을 제외하고 전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세액 구분에 해당되는 세대 (2001년)	64,000엔 미만	30,000엔	27,000엔 (보육단가한도)
5		64,000엔이상 160,000엔미만	44,500엔	41,500엔 (보육단가한도)
6		160,000엔이상 408,000엔 미만	61,000엔	58,000엔 (보육단가한도)
7		408,000엔이상	80,000엔 (보육단가한도)	77,000엔 (보육단가한도)

다) 주요보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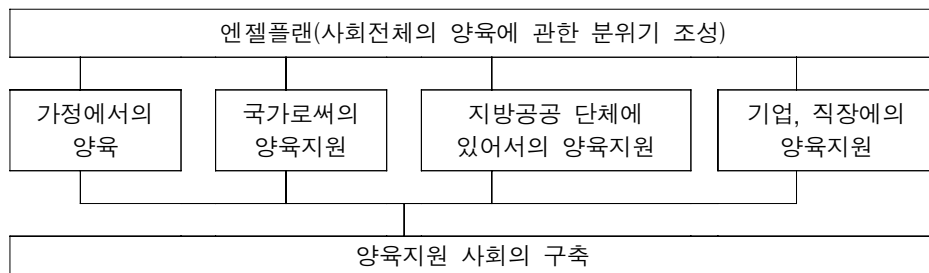
엔젤 플랜

1994년 12 월 16일 문부·후생·노동·건설 4 장관합의. 후생성·문부성·노동성·건설성은 21세기의 소자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젤플랜』을 책정하고, 1995년도부터 대략 10년간, 사회전체를 통한 양육지원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보육대책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5개년 사업]으로서 1995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1) 기본계획

- (가) 저연령아(0~2세아)보육, 연장보육, 일시적 보육의 확충 등 니드(need)가 높은 보육서비스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보육소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보육시스템의 다양화·탄력화를 향상시킨다.
- (나) 보육소가 유아보육, 상담지도 등 다양한 니드(needs)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의 개선·정비를 도모한다.
- (다) 저연령아의 돌봄의 촉진 및 개소시간 연장의 촉진을 위해 보육소의 인적인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아나 3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다자세대 등의 보육료의 경감을 도모한다.
- (라)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육아의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지역 어린이 양육 네트워크 만들기를 추진한다.

(2) 엔젤플랜의 위치 부여



신엔젤플랜 :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 대책의 구체적 계획

(1) 취지

소자화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금후의 아기 기르기 지원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 방향에 관해서』(1994년 12월 문부과학성, 노동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4대신의 합의)와 그 구체화의 일환으로서의 『당면의 긴급보육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1994년 12월 대장, 후생성, 자치 대신의 합의) 등에 기초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번 『소자화 대책 추진 관계각료회의(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6대신의 합의)』에서 『소자녀 대책추진기본방침』이 결정되어, 중점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정리되었으며, 엔젤플랜에 의한 긴급 보육 대책 5개년 사업(후생성, 1994~1999)을 개정하여 『신엔젤플랜』을 책정하였다(2000~2004). 소자화 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2) 신엔젤플랜의 목표

(가) 보육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의 충실

(나) 여성의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

(다) 노동의 방법에 대해서 고정적인 성별역할분업과 직장 우선의 기업풍토의 정정

(라)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정비

(마) 지역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교육환경의 정비

(바)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는 교육환경의 실현

(사)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 주택 만들기과 마을 만들기에 의한 양육지원

(3) 신엔젤플랜의 목표치

신엔젤플랜의 목표치	1999년도	2004년도 목표치
저연령아 입소의 확대	58만명	68만명
연장보육의 취지	7,000개소	13,000개소
휴일보육의 취지	100개소	300개소
영유아지원, 임시보육의 추진	450개소	500시정촌
다기능보육소 등	365개소 (5년간의 누계 1,600개소)	2,000개소
지역양육지원센터의 정비	1,500개소	3,000개소
보육의 추진	1,500개소	3,000개소
가족지원센터의 정비	62개소	180개소
방과후아동클럽의 추진	9,000개소	11,500개소

다. 영국의 주요 보육정책

영국은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중심의 사립보육시설 및 놀이집단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이 짧고, 비싼 등록금, 기관에 따른 질적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부모의 대다수가 만 4세의 어린 유아들도 초등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한편 영국은 여성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한 변화로써 고용주들이 취업모들을 위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장하고, 휴직제(career break)를 도입, 휴직 후 다시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있다(양옥승 외, 1999)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 나라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제도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책의 수립 등과 연관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 보육정책 발전과정

영국의 보육에 대한 개념은 1816년 Robert Owen이 New Lanark, Scotland에 빈곤아동을 위해 설립한 유아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8세기말의 산업혁명과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여성고용을 증대시켜 보육시설 확충에 정부가 투자하였지만 전쟁종료 후 여성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하여 1945년 영국 정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보육이 필요한 아동도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나 시간제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5세 미만의 아동의 보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부나 지방당국은 보호가 박탈된 아동의 보육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익자 부담과 민간부분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다. 1980년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영유아 보육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1991년에 발효된 아동법(Children's Act)은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에서는 취업부모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하고 극빈 아동에 한해서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 19세기

- 1816년 빈민아동을 위해 유아원 설립.

나) 20세기 중반까지(1900년~1950년)

- 1945년 보육시설에서 아동양육 금지. 반일제·시간제 권장.

다) 20세기 중반 이후(1951년 - 현재)

-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영유아 보육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
- 1989년 : 아동법(Children's Act) 제정
- 1991년 : 아동법(Children's Act) 발효
- 1996년 : 4세 유아에 대한 유아원 지불보증제도 도입
1999~2000년 유아 1인당 1,130파운드가 지급
- 1994년 : 4세아 시간제 무상유아교육 제공
부모가 원하는 모든 4세아 대상
1일 2시간 30분, 주당 5회, 연간 33주 기준
- 1997년 : 유아교육과 보호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EYDP(Early Year Development Partnership) 출범
· 유아기 서비스 증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 : 평균 수입의 1/2 이하인 가정의 아동을 우선 대상
·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도록 함.
- 1997년 : Sure Start Project
- 1998년 : Child Challenge Project
 - 1)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good quality)
 - 2)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보육시설(accessibility)
 - 3) 저렴한 비용
- 1998년 : 국가유아교육기관(EYNT0: Early Years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설립
· 유아와 그 가족의 요구에 불응하는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함.
- 1998년 : 0~14세까지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 보호 전략 발표

- 총 4억 7천만 파운드가 할당됨. 이 중에서 4천 4백만 파운드가 1999~2000년도 보호시설 확충에 투입됨.
- 1999년 : 유아교육과 보호 기관 등록을 교육고용부 산하의 교육표준청(OFSTED: 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이 관리
- 1999-2002 : 3세아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및 시행 시작. 3세아를 위한 무상 보호 시설 66% 확충
- 2004년까지 : 0-14세 아동 160만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 수립

2) 보육정책

영국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종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유아교육 · 보육 행정체계

(1) 보육시설의 유형

(가) 유아학교와 유아학급

유아학교와 유아학급은 지방교육당국이 3-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아학교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유아학급(reception class)은 초등학교의 병설 학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학교와 유아학급은 공교육 체제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하루 운영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 운영되지만 실제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유아들(88%)이 오전 3시간 정도만 다니고 있다. 유아학교와 유아학급은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하고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1:10에서 1:13정도이다. 전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어 놀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리 정해진 교육과정은 없다.

(나) 공립 보육시설

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0~4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의 경우 일부는 종일제로 또 일부는 반일제로 구성된다. 비용은 부모 부담으로서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지방당국이나 사회 사업국에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1:3에서 1:8까지 다양하다.

(다) 사립 유아원

사립 유아원의 경우 부모들이 등록금을 부담하며, 그 액수는 기관에 따라 다

양하다. 또한 교사나 교사양성과정도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 영국의 공립 유치원의 질적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심하며, 취업여성의 요구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기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라) 놀이집단

영국의 3~4세 유아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유아교육의 형태이다. 그러나 놀이 집단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며, 관할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영국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유아교육 체제에서 보면 놀이 집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공립 유치원보다는 놀이집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놀이집단의 4정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지원 액수는 운영비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약간의 돈만 지불하면 된다.

놀이집단의 운영시간은 대개 1주일에 2~3일에 걸쳐 총 10시간 정도이다. 놀이집단의 교사는 교직경력이 있는 부모들이 담당하기는 하지만 자격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과정

또한 교원의 경우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과 법적 자격조건은 다르지만 이들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이들을 위한 훈련은 아주 제한되어 있거나 거의 없는 편이다. 단지 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 위원회(Nursery Nurse Examination Board)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보육교사가 되는 자격을 갖춘다. 입학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16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2년제 과정이다. 보육교사가 되는 두 번째 과정은 전문 학사 학위(Bachelor of Tech.)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보육교사들은 유아들의 보건과 사회 사업에 책임을 지며,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유아교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양옥승 외, 1998).

(가) 보육교사의 자격

영국의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증하는 형태이다. 보육종사자는 대개 전문학사과정을 마치고 보육교사로 양성되어 보육시설이나 사립 유아원에서 일한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국가보육위원회(NNEB, 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oard)에서 2년과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받거나, 기

업 및 기술인 교육위원회(BTEC, Business and Technician Education Council)에서 수여하는 증명(Diploma)을 받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1992년부터 영유아 교육 및 보육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립직업자격기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에서 보육교사 직업자격기준(NVQs)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자격기준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보육시설에서는 개인별로 필요성 및 상황에 따라서 NNEB, BTEC, 몬테소리, 놀이집단 Diploma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은 자격소지자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나) 보육교사 양성과정

영국의 유아관련 교사는 크게 유아교사 양성과정, 유아보모 종사자 양성과정, 놀이집단 종사자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교사로 나뉜다. 보모는 1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의 정시제 교육을 실시하는 BTEC(Business Technology Education Council)에서의 과정, 2년의 정시제 또는 3년의 시간제 교육을 받는 NNEB의 과정,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원격 교육 등으로 6단위 72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등을 통해 양성된다. 이들은 지방정부 보육소, 시립 보육소의 보육을 담당하며 초등학교내의 준비학급 아동들의 교육을 보조한다고 한다(나정, 2000).

나) 주요보육정책

1997년 이래로 정부는 영국의 유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여왔다. 법적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유아보호 조세감면, 국가 유아보호 전략, 유아발달 및 보호 협력체 등이 있다. 대표적인 보육정책으로는 Sure Start 프로그램, 수월성 프로그램, 교육특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Sure Start 프로그램

1997년부터 저소득층의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Sure Start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만 4세가 될 때까지 조기교육, 건강, 가족 지원, 영양 등과 관련된 도움을 지방교육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부모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동원하여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Sure Start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당국, 사회 자원인사, 건강, 보육, 교육시설의 관계자들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러 기관들이 통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Sure Start는 의료, 교육, 환경, 수송을 포함한 일곱 개의 정부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범부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고용부의 장관은 “Sure Start는 빈곤 유아의 낮은 성취와 그 이후에 예상되는 빈곤으로 이어지는 세대간 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20년 내에 유아빈곤을 퇴치하려는 정부 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Sure Start, 1999 : 2). 영국에서는 2년 동안 5억 4000만 파운드를 프로그램에 투입해 왔고, 잉글랜드에서는 4억 5200만 파운드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Sure Start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Sure Start, 1999).

- ① 사회 및 정서적 발달 향상
- ② 건강 증진
- ③ 학습능력의 향상
- ④ 가정과 지역공동체 강화
- ⑤ 운영 생산성의 증대

핵심적인 서비스로 봉사활동, 가정방문, 가족 및 부모지원, 질 높은 놀이와 학습지원, 유아보호 경험, 가족 및 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해 조언하는 지역사회 보건·보호 서비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사립 및 임의 기부 부문의 종사자나 지역사회단체와 부모뿐 아니라 방문 건강 검사자, 의사, 양육 전문가, 보육사, 놀이집단 근로자, 유아교사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2) 조기 수월성 센터 프로그램

조기 수월성 센터(Early Excellence Centre) 프로그램은 “유아 서비스 공급자의 혁신, 유아 서비스의 통합, 4세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보호, 성인훈련, 교육, 보건, 성인교육, 지역사회 발전을 포괄하는 등의 조직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one-stop shopping’이란 말로 진행되고 있다.

(3) 교육특구

교육특구(EAZ : Education Action Zone)는 기업, 학부모, 학교, 유아 서비스 제공자, 지역관리, 교회, 대학, 그리고 기타 지역 내의 조직과 기관들로 이루어진 “Action Forum”에 의해 만들어진 20여 개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로 구성된다. “Action Forum”은 지역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적, 목표, 전략을 포함한 3년에 걸친 계획을 제출한다. 교육특구는 연간 백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3/4이 정부로부터 온 것이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지역연합은 지역 내의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표 III-15> 영유아 교육과 보호 통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비고
Sure Start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0~4세까지의 유아	지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을 통한 학교 적응 준비→유아들의 삶 향상	유아교육, 건강 서비스, 가족지원, 양육에 대한 조언
Early Excellence Centres	5세 이하의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영유아 교육 서비스 ·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호 · 성인교육의 혁신 	교육, 복지, 건강, 평생교육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의도
Out of School Child Care	3~14세까지의 학교재학 아동 (학교일과 전후 및 휴일을 위함)	어머니들에게 직장가정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국가적인 보호 전략 지원)	전국적인 복권사업(National Lottery)에서 나온 1억 7천만 파운드가 1999~2003년까지 학교 밖 보호 장소 확충을 위해 투입
Education Action Zones	저소득층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적인 프로그램 · 지역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회 제공 	2~3개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를 통합하며 유아교육과도 연계
Health Action Zones	저소득층 지역	건강과 음식,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도모	나쁜 건강의 원인, 아동의 건강, 어린 나이의 임신 문제를 다룸
Regeneration Programmes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저투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장기적인 실직 상태를 막기 위한 재할 촉진 전략	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부양 포함

라. 스웨덴의 주요보육정책

스웨덴은 선별주의적 유아교육·보육에서 보편주의적 유아교육·보육제도를 발전시켜 아동복지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공식화한 나라이다. 특히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충요구, 방과후 보육 확대 요구,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노동력 활용의 필요 등의 요소가 공적 지원 체계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육아 휴직 제도, 출산수당 및 전체 아동 대상의 양육비 지급 등의 각종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남녀평등과 여성 취업권을 직접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공적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스웨덴은 0~6세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아동 양호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 양호 교육이나 유치원 교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스웨덴은 유아교육·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또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냐가 가장 큰 이슈로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가정양육이 갖는 장점을 최대화하여 기관중심의 보육이 실시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영아를 중심으로 한 가정과 유사한 보육환경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가정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1) 보육정책 발전과정

스웨덴 정부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몫이라고 여겼으나 산업화 이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아동이 증가하여, 정부는 17세기 이후 사회적 대책의 하나로 빈민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여 그들을 보호하였다. 18세기에는 구빈법을 제정함으로써 15세 이하의 아동을 구빈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때부터 아동을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짐이 아닌 미래의 나라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854년 최초의 탁아소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 중반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빈민층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전국적으로 탁아소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직업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미래의 노동인력 확보를 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이 강구되었다. 1960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복지시설의 확충과 취원 희망자의 대기기간을 감소하고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최근 1996년에는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호를 전담함으로서 학교 체제와 아동 보호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가) 17세기

- 17세기 중엽 빈민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설립

나) 18세기

- 구빈법 제정

다) 19세기

- 1854년 최초로 보육시설 설립(creche)

라) 20세기 중반까지(1900년-1950년)

- 1900년부터 4주간 무급출산휴가 실시
- 1931년부터 8주간의 유급 휴가 실시
- 1935년 전국적으로 탁아소 확대
- 1938년 산전·산후 모자보건책 강구

마) 20세기 중반 이후(1951년-현재)

- 1955년 출산수당 지급
- 1960년 아동복지법 개정
- 1960~1970년 사이 보육시설의 700% 증가
- 1973년 취학전 교육법 제정
- 1985년 스웨덴 국회는 공공보육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안 통과

2) 보육정책

가)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

(1) 스웨덴의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스웨덴의 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일원화로 되어 있으며 행정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행정 체제	일원화
국가 기관	보건사회부
보육 감독 책임	국가 보건 복지 위원회
관계 법령	사회복지법

(2) 관련법 제정

스웨덴에서는 1973년 『취학전 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공립 보육시설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75년 스웨덴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되는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이 법률은 여러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함께 1982년 『사회복지법』으로 통합되었으며 육아보장 제도나 아동수당과 같은 아동보육 행정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나) 보육행정체계

(1) 시설설치 방법

취학전 교육 기관 또는 레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 협회, 단체, 재단, 기타 특정 개인은 학교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설치 인가제도	허가제
인가/설치/운영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설치 기준	질적 수준과 안전성 요건 구비

학교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의 활동전체의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이동되었을 때 새로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 보육시설 유형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크게 공립과 민간보육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 · 공립	민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보육시설 -영아집단 -형제집단 -확대된 형제 집단 * 시간제 유아 집단 * 개방유아학교 * 가정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육시설

스웨덴의 공립 유아교육 · 보육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유아학교(Preschool)

시간제 유아학교(part time preschool)와 개방 유아학교(open preschool)가 있다. 이 둘은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있거나 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의 자녀를 위한 시설로서, 시간제 유아학교는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석한다는 것이고, 개방 유아학교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시간제 유아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3시간이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지며, 한 반의 정원은 약 20명이다. 유아교사 한 명과 보육교사 한 명이 지도한다. 4-5세부터 입학할 수 있고 수업료를 내야하지만 6세인 경우는 무료이다.

개방 유아학교는 1972년 처음 도입되었고 1991년 현재 계속 그 수가 늘고 있다. 일주일 중 하루에서 5일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하루 몇 시간만 운영할 수도 있다. 유아교사 한 명과 보육교사 한 명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자치정부에 따라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시간을 정해 근무하면서 부모를 위한 복지 분야의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나) 기관 보육시설(Day care center)

기관 보육시설은 유아원(nursery)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아동을 돌본다. 스웨덴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7세이므로 1-6세까지의 아동은 기관 보육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육시설에서 하루를 보낸다. 기관 보육시설은 가정 보육시설과 함께 스웨덴 유아교육 · 보육시설의 절반을 차지하며 취학전 아동의 38%는 기관 보육시설에서 생활한다.

대부분의 기관 보육시설의 유아들은 연령층을 섞어 분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반은 보통 15명 ~ 24명으로 구성되며 한 반당 교사의 수는 보통 2-3명이다. 교사의 60%는 자격증을 가진 유아교사 또는 놀이 지도자이며 나머지

40%는 보육교사다. 유아교사와 놀이 지도자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2년반 동안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육교사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여 3년 동안의 과정을 밟으면 된다. 스웨덴에서는 보육교사보다 유아교사나 놀이 지도자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육시설은 대개 아침 8시에 문을 연다. 야간에도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시간, 부모수입, 전체 자녀의 수에 따라 차별 적용되며 자치정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이 연령별 세 종류의 집단으로 운영된다.

- 영아 집단(infant group) : 1-3세 유아를 대상으로 10-12명 집단으로 운영된다. 유아 5명당 2인의 보육교사(preschool teacher, child attendant)가 있다.
- 형제 집단(sibling group) :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15-18명 집단으로 운영된다. 유아 5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있다.
- 확대된 형제 집단(extended sibling group) : 1-12세 아동을 돌보는 보육 유형이다.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다른 집단과 유사하다.

(다)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 가정보육시설은 가정 탁아모를 지방 자치 단체가 고용한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가정 탁아모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부모들은 지방 자치 단체에 비용을 지불한다. 가정보육시설이란 개인이 보통 자신의 집에서 유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가정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놀이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줄고 있다.

(라) 놀이센터(Leisure time center)

놀이센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7~12세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놀이센터의 나이제한은 자치정부에 따라 다른데 12세, 9세, 때로는 7세인 경우도 있어 12세가 될 때까지 놀이센터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자치정부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다. 놀이센터의 교사들은 놀이 지도자들과 보육교사들이다.

놀이센터는 학교수업 전후나 학교가 쉬는 날에만 운영되고 공공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실생활이 함께 이루어진다. 아침이나 간식 등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며 부모는 월 단위로 수업료를 낸다. 대부분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놀이센터를 학교에 통합시켜서 학교 교사들과 놀이 지도자가 서로 협력하여 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마) 레저클럽(Leisure club)

9-12세의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친구와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어른들이 지도도 해준다. 레저클럽도 회비가 있지만 놀이센터보다는 저렴하다. 자치정부에 따라서는 놀이센터에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장소는 매번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자치정부도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공립 유아교육·보육시설은 <표 Ⅲ-16>과 같이 정리된다.

<표 Ⅲ-16> 스웨덴의 공립 유아교육·보육시설의 유형 및 특징

형 태		아동연령	보육시간	집단크기
기관 보육시설		1- 3세 3- 6세 1-12세	종일(7-12시간)	10-18명
유아 학교	시간제 유아학교	4- 6세	1일 3시간(오전 또는 오후)	15-20명
	개방 유아학교	1- 6세	주 1-5일 개방 1일 2-3시간 또는 종일	10-20명
가정 보육시설		1-12세	종일 또는 시간제	2,3-10명
놀이센터		7-12세	방과전·후 시간	20-40명
레저클럽		9-12세	오후, 시간제	20-40명

스웨덴의 아동보육 서비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국·공립, 민간 모두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나 보육교사 고용과 임금 지불방법에 차이점이 있다.

국·공립	민 간
부모들이 지방 자치단체에 보육료를 지급하면 지방 자치 단체는 가정 탁아모를 고용하고, 임금 지급을 지불한다.	부모들이 가정 탁아모를 고용하고 직접 임금 지불

(3) 보육시설 종사자

(가) 교사의 자격

스웨덴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4개의 범주로 즉 아동 양호 교사, 유치원 교사, 레크레이션 지도 교사, 가정 탁아모로 분류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자격기준	연 령	교육기간	교육과정
아동 양호 교사 (child attendant)		16세이상	2~3년	간호학, 아동발달학
유치원 교사 (pre-school teacher)		18세이상	최저 11년 이상	발달심리 교육학 등
레크레이션 지도교사 (recreation instructor)		18세이상	최저 11년 이상	음악, 창의적활동 등
가정 탁아모 (childminder)		제한없음	90~100시간	아동양호 교육과정

현직 보육 교사들의 연수교육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재정적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도 보육교사의 지위는 그리 높지 않으며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나) 보육교사의 수

보건사회부의 안내서에 따르면 각 보육시설 직원의 절반은 보육교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절반이 아동 양호교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 양호교사보다 훈련된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인 경우 0세에서 3세 영아반에는 5명의 영아당 2명의 종일제 교사가 돌보도록 하고 있고, 3세에서 6세의 경우에는 5명의 유아당 1명의 보육교사가 있다.

(4) 운영관리

(가) 대상 아동

현재 스웨덴에서는 1세에서 12세 아동에 이르기까지 공공자금에 의해서 유아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공립보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상 유아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집단의 유형		연 령
유아원(nursery)	영아 집단	1 ~ 3세
	형제 집단	3 ~ 6세
	확대된 형제 집단	1 ~ 12세
시간제 유아집단		4 ~ 6세
개방 유아학교		1 ~ 6세
가정 보육시설		1 ~ 12세
레저 타임 센터		7 ~ 12세

여성 취업률의 증가로 인해 아동보육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남녀 평등 의식 및 여성의 정책적 영향력의 증대로 취학전 아동의 보육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 보육내용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체제인 스웨덴의 교육시설은 다양하지만 프로그램은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국가 보육 위원회가 보육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각 스웨덴의 보육시설들이 공통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국가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제시한 '취학전 보육 프로그램'에 제시된 보육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 목표	보육 내용
아동의 안전성과 안정적 보살핌	문화 활동(언어, 극활동, 음악, 미술) 자연 활동(야외학습) 지역사회 생활 활동(책임과 협력증진활동)

(다) 보육료 및 보조금

① 공립 보육시설

스웨덴의 보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 기금에 의존하며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수익자 즉 부모가 분담한다. 각 기관의 보육료 지원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중앙정부	지방 정부	부모
시설 보육	47%	43%	10%
가정 보육	31%	54%	15%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전체 보육 비용의 10% ~ 15%로 지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지불되어 낮은 소득 계층의 부모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보육료 분담률은 기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약간 더 높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육료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사회보장 보험의 일부로 아동보육부담금 (child care charge)에서 충당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에 부과된 지방세에서 보육비용을 충당

최근들어 중앙정부의 보육 지원금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보육 지원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② 민간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 보육시설의 직원 봉급, 임대료, 창립 보조금을 중앙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그러나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부모들이 보육료 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가족이 보육료를 지불하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에는 보육료 분담액을 일정기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부모들의 보육료 분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 미국의 주요 보육정책

미국은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정책적, 교육적,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세 유아의 86.5%(1996년 기준)가 공립 유치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포괄적·복합적 서비스인 Head Start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아 대상의 통합 교육의 활성화 및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연령별 시간대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각 주와 사회단체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및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

원해 줌으로써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를 장려하여 이에 대한 호응 및 결과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보육정책 발전과정

가) 9세기

- 19세기 중엽 이민자 자녀의 미국시민으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관육아가 나타남
- 1898년 전국보육시설협회 조직

나) 20세기 중반까지(1900년-1950년)

- 1920년 영국의 영아원(nursery school) 도입
- 1937년 1,900개의 보육시설 설립(1935년 사회보호법 근거)
- 1938년 보육시설협회 설립

다) 20세기 중반 이후(1951년-현재)

- 1962년 보육시설 설립의 법제화
- 1965년 Head Start 프로그램 추진
- 1968년 장애아동 조기 지원법 제정
- 1975년 아동 및 가족사업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 Act)이 의회 통과, 1975년 장애아교육법 마련
- 1990년 아동보호법 제정
- 1994년 :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프로그램 설치
- 1997년 : '미국 교육을 위한 행동 강령' 발표

2) 보육정책

보육 관련 법규를 문서화한 주정부의 보육 면허 규정집(State Day Care Center Licensing Requirements)에는 법적인 책임의 소재, 보육의 범위(대상 연령), 프로그램, 유아-교사 및 직원의 비율, 직원의 자격, 물리적 시설 및 설비, 화재·건강·영양 및 안전, 행정 및 기타 특수 영역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

러나 각각의 주 정부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규가 문서화되지 않은 주도 있다.

법적으로는 Dept. of Social Service, Dept. of Public Welfare 또는 Dept. of Human service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연방규정은 보건교육 복지성, 미국 노동성의 승인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보육 시설에 적용된다. 모든 주는 대개 등록이나 허가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규정은 모두 다르다.

가) 유아교육 · 보육행정 체계

(1) 보육시설의 유형

(가) 유아원(Preschool)

유아원은 공립과 사립이 있으며 2세 반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사회성 발달 및 인지발달을 강조한다.

- nursery school : 2-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부모협동 유아원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준비에 더하여 자녀 공동 양육의 목적이 추가된다.

(나) 아동 보육기관(Child care center)

보육시설은 주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종일제로 제공하며 대상 연령폭도 넓다. 미국의 보육시설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한 보건 교육 복지성에서 일원화하여 관장하고 있으나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다원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양옥승, 1995).

○ 보육시설의 종류

-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 출생에서 6세까지 소집단의 유아를 자연스럽게 양육
-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가정에서 소집단의 유아를 자연스럽게 양육
- 직장보육(employer child care): 보통 6주된 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주가 후원하거나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 또는 위탁
- 방과후 보육(after-school care):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방과후 아동 양육을 제공

- 고등학교 보육 프로그램(high school child care program): 고등학생 중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학생에게 자녀가 만 6주에서 5세가 될 때까지 아동 보육을 제공
- 드랍오프 아동보육센터(drop-off child care centers): 부모가 쇼핑, 운동, 모임 등의 짧은 시간 동안 영아부터 초등학교 아동까지 보호
- 아픈 아이 보육 센터(sick child care center): 2개월에서 14세의 경미하게 아픈 아동의 양육을 제공하며 아동이 원하는 한 머무를 수 있으나 보통은 2일 정도 머물 수 있다.
- 세대간 아동보육기관(intergenerational child care): 유아교육과 양로원을 통합하거나 또는 유아교육기관에 은퇴한 노인을 고용하여 아동은 노인의 사랑과 주의를 받도록 하고 노인은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기쁨을 갖도록 한다.

나) 주요정책 :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복합적 프로그램이다. 만 2세~6세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기관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헤드스타트의 확대된 서비스로 헤드스타트에 참여하였던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팔로우 스루(Follow Through)프로그램과 가정에서 헤드스타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홈스타트(Home Start)가 있다.

3. 각국의 보육현황

가. 한국의 보육현황

1)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아동 현황

가)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은 전체 21,267개소이다. 국고지원 시설 2,912개소(14%)중 국·공립 시설은 1,294개소(6%)이고, 민간보육시설은 1,618개소(8%)이다. 또한 비지원 시설은 18,355개소(86%)로 민간에 의존한 운영 형태를 보여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관리,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원대비 현원이용율은 86%로 국·공립 96%, 법인 87%, 민간단체 90%, 개인 87%, 직장보육시설 78%, 가정(놀이방) 71% 순으로 가정보육이 가장 낮다. 현원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가 비싼 점, 중산층 이상의 경우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표 III-17>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개인	단체	법인		
시설수 (%)	21,267 (100)	1,294 (6)	12,311 (58)	10,179 (48)	514 (2)	1,618 (8)	195 (1)	7,467 (35)
영유아수 (%)	770,192 (100)	102,856 (13)	574,570 (75)	460,381 (53)	27,916 (4)	140,273 (18)	8,398 (1)	84,205 (11)
현원 이용율	(86)	(96)	(87)	(87)	(90)	(87)	(78)	(71)

※ 비율 : 시설종류간 백분율,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2002. 6. 30.

(1) 연도별 설치 현황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3,690개소에서 2001년 현재 21,267개소로 5.8배(17,577개소) 증가하였다. 이 중 국·공립 시설은 503개소에서 1,294개소로 2.6배(791개소) 증가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은 1,217개소에서 12,311개소로 10배(11,094개소) 증가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율이 더 높다. 민간보육시설중에서는 개인시설의 증가율이 높았다(1992년 30.2%, 2002년 48%). 또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0~5세 보육영유아도 1991년 89,441명에서 2002년 770,192명으로 11년간 8.6배 증가하였다.

<표 Ⅲ-18> 연도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놀이방)	가정 (놀이방)	아동수	증가 아동수
			소계	개인	단체	법인				
1991	3,690 (100.0)	503 (13.7)	1,217 (33.2)	미분류			19 (0.5)	1,931 (52.6)	89,441	
1992	4,513 (100.0)	720 (16.0)	1,808 (40.0)	1,369 (30.2)	14 (0.4)	425 (9.4)	28 (0.6)	1,957 (43.4)	123,297	△33,856
1993	5,490 (100.0)	837 (15.2)	2,419 (44.1)	1,776 (32.4)	19 (0.3)	624 (11.4)	29 (0.5)	2,205 (40.2)	153,270	△29,973
1994	6,975 (100.0)	983 (14.1)	3,091 (44.3)	2,267 (32.5)	17 (0.2)	807 (11.6)	37 (0.5)	2,864 (41.1)	219,308	△66,038
1995	9,085 (100.0)	1,029 (11.3)	4,125 (45.4)	3,175 (34.9)	22 (0.3)	928 (10.2)	87 (1.0)	3,844 (42.3)	293,747	△74,439
1996	12,098 (100.0)	1,079 (8.9)	6,037 (49.9)	4,688 (38.7)	69 (0.6)	1,280 (10.6)	117 (1.0)	4,865 (40.2)	403,001	△109,254
1997	15,375 (100.0)	1,158 (7.5)	8,172 (53.2)	6,388 (41.6)	150 (1.0)	1,634 (10.6)	158 (1.0)	5,887 (38.3)	520,959	△117,958
1998	17,605 (100.0)	1,258 (7.1)	9,622 (54.7)	7,468 (42.4)	227 (1.3)	1,927 (11.0)	184 (1.0)	6,541 (37.2)	556,957	△35,998
1999	18,768 (100.0)	1,300 (6.9)	10,558 (56.3)	8,327 (44.4)	266 (1.4)	1,965 (10.5)	207 (1.1)	6,703 (35.7)	640,915	△83,958
2000	19,276 (100.0)	1,295 (6.7)	11,304 (58.6)	8,970 (46.5)	324 (1.7)	2,010 (10.4)	204 (1.1)	6,473 (33.6)	686,000	△45,085
2001	20,097 (100.0)	1,306 (6.5)	11,794 (58.7)	9,490 (47.2)	313 (1.6)	1,991 (9.9)	196 (1.0)	6,801 (33.8)	734,192	△48,192
2002. 6. 30	21,267 (100)	1,294 (6)	12,311 (58)	10,179 (48)	514 (2)	1,618 (8)	195 (1)	7,467 (35)	770,192	△36,000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2002. 6. 30.

(2) 특수보육시설 현황

특수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 66개소, 장애아 통합 124개소, 영아 전담 156개소, 방과후 전담 194개소, 방과후 혼합 991개소이다.

수요자의 특수보육 요구는 높으나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시설확충 및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연장보육,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수보육시설 종사자는 장애아 전담 768명, 장애아 통합 225명, 영아전담 783명, 방과후 전담 310명, 방과후 혼합 990명으로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사자격제도가 시급하다.

<표 III-19> 특수보육시설 일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개인	단체	법인		
장애아 전담	시설수	66	10	55	15	6	34	0	1
	아동현원	2,425	265	2,146	429	166	1,551	0	14
	종사자수	2,425	111	546	94	7	445	0	5
장애아 통합	시설수	124	51	72	28	8	36	0	1
	아동현원	918	389	528	153	85	290	0	1
	종사자수	225	108	117	39	19	59	0	0
영아 전담	시설수	156	26	97	36	24	37	0	33
	아동현원	5,073	1,050	3,633	1,062	790	1,781	0	390
	종사자수	1,132	249	803	219	178	406	0	80
방과후 전담	시설수	194	14	161	130	4	27	0	19
	아동현원	4,857	380	4,254	3,428	174	652	0	223
	종사자수	310	21	266	215	8	43	0	23
방과후 혼합	시설수	991	92	854	685	35	134	1	44
	아동현원	12,263	1,682	10,357	7,061	667	2,629	13	211
	종사자수	990	97	850	678	35	137	1	42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2002. 6. 30.

나) 보육 영유아

(1) 보육율

추정 0~5세 영유아는 3,720,013명이다(2002). 보육시설 취원 영유아는 770,029명(20.7%)으로 한 해 평균 50,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에서 0~2세 영아의 보육율(10.1%)은 3~5세 유아의 보육율(30.6%)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0~2세 영아 보육율을 높일 수 있는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표 III-20> 보육율

단위 : 명, %

연령	총 영유아 수	취원아 수	보육율
계	3,720,013	770,029	20.7
0~2세	1,782,319	177,554	10.1
3~5세	1,937,694	592,475	30.6

* 2002년도 3~5세 유치원 취원아는 592,475명(총 영유아의 14.8%, 3~5세아의 28.4%)임.

중앙보육정보센터(2002).

교육부(2002).

통계청(2002). 장래인구추계

(2) 연도별 보육영유아 현황

보육영유아는 1995년도 293,747명(7.4%)에서 2002년도 770,029(20.7%)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 12.1%씩 증가하였다. 특히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이후 보육영유아수가 293,747명에서 770,029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21> 연도별 보육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년도	총 영유아수	보육시설 취원아수	유치원 취원아수
1995	3,977,000	293,747 (7.4%)	529,265
1996	3,987,000	403,001(10.1%)	551,770
1997	4,002,000	520,959(13.0%)	568,096
1998	4,303,000	556,957(12.9%)	533,912
1999	4,293,000	640,915(14.9%)	534,166
2000	3,969,179	686,000(17.3%)	545,263
2001	3,854,184	734,192(19.0%)	545,142
2002	3,720,013	770,029(20.7%)	550,150

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88,504명으로 시설장 21,066명, 보육교사 50,254명임. 1급 보육교사는 26,195명(52.1%), 2급 보육교사 24,059명(47.9%)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Ⅲ-22>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보육 교사			유치원교사 유자격자	의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소계	1급	2급					
명 (%)	88,504	21,066	50,254 (100.0)	26,195 (52.1)	24,059 (47.9)	22,523 (중복자격)	252	526	387	16,017

<http://www.educare.or.kr>(2002. 6. 15).

나. 일본의 보육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일본의 보육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 수는 22,278개소이며 이중 공립은 12,872개소로 전체의 58%를, 사립은 9,406개소로 전체의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아수도 공립의 경우 984,155명으로 전체의 53%를, 사립의 경우 887,537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신보육자료집, 2002).

2) 보육교사

가) 보육교사의 자격

보모라 칭하는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자격이다. 일본의 국가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시설 및 강습회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기타 민간통신교육을 이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정태화·이정표·조정윤, 1998). 보모 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후생성 장관이 정하는 보모시험자격인정기준에 의한다.

나)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일본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은 1995년부터 정비되었으며 주간은 2년, 야간은 3년 간의 기간동안 200시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목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계 과목들을 포함하는 일반과목과 복지, 보육, 교육, 심리, 보육 내용, 가정, 기초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목으로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0). 보모자격을 위한 관련 교과목과 최소한의 이수과목은 <표 III-23>, <표 III-24>와 같다.

<표 Ⅲ-23> 일본의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관련 교과목

과 목	수업과목 예	단위수
교육의 본질 및 목표에 관한 과목	교육원리, 보육학 등	6
유아·아동 또는 어린이의 심신 발달 및 학습과정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학, 아동심리학 등	
교육에 관계되는 사회적·제도적 또는 경영적인 사항에 관한 과목	보육사, 교육환경론 등	
교육방법 및 기술(정보기기 및 교재 활용을 포함)에 관한 과목	보육방법론, 시청학, 교재연구 등	
교육과정 일반에 관한 과목	보육계획론, 보육과정총론 등	12
보육내용에 관한 과목	보육내용총론 보육내용연구 1. 어린이와 환경 2. 어린이 생활과 놀이 3. 어린이의 문화 등 종합활동론	
지도법에 관한 과목	보육지도법, 보육형태론 등	
교육실습	교육실습(사전·사후의 지도를 포함)	5
합 계		23

출처: 森上史朗 편, 최신보육자료집, 1995.

<표 III-24> 일본의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최소 이수과목

계열	필수과목		선택과목	
	과목명	학점수	과목명	학점수
보육의 본질·목적의 이해	사회복지Ⅰ	2	아동복지Ⅱ	2
	사회복지Ⅱ	2	보육원리Ⅱ	2
	아동복지	2	양호원리Ⅱ	2
	보육원리	4		
	양호원리	2		
	교육원리	2		
보육 대상의 이해	발달심리학	2	발달심리학Ⅱ	2
	교육심리학	2	교육심리학Ⅱ	2
	소아보건	5	소아보건Ⅱ	2
	소아영양	3	임상심리학Ⅰ	2
	정신보건	2		
보육의 내용·방법의 이해	보육내용	6	보육내용Ⅱ	6
	영아보육	2	영아보육Ⅱ	2
			양호내용	2
			장애아보육	2
			아동문학	2
			가정관리	2
기초기능	기초기능	6	기초기능Ⅱ	4
보육실습	보육실습	5	보육실습Ⅱ	2
			보육실습Ⅲ	2
기초과목	기초과목	8		
	체육	2		
총 이수학점	57		11	

출처: 森上史朗 편, 최신보육자료집, 1995.

다. 영국의 보육현황

1) 영유아교육 및 보육현황

영국의 유아보호 종사자는 총 385,160명이며, 이중 고용된 인원은 341,820명이고, 자원봉사자는 43,340명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Ⅲ-25> 영국의 유아보호 종사자 인력

(단위 : 명, %)

유아보호 종사자	고용된 인원(%)	자원봉사자(%)	전체인력(%)
보육원 종사자	51,190 (15)	7,000 (16)	58,190 (15)
유아학교/ 놀이집단 종사자	80,440 (24)	33,540 (77)	113,980 (30)
학교 일과 후 클럽 종사자	13,550 (4)	2,120 (5)	15,670 (4)
휴일클럽 종사자	3,340 (1)	680 (2)	4,020 (1)
보육사	93,300 (27)		93,300 (24)
보모	100,000 (29)		100,000 (26)
전 체	341,820(100)	43,340(100)	385,160(100)

* 출처: Hera 2 Report. 1999

2)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호기관

0~5세 영유아 보호는 보통 부모가 비용을 부담한다. 보호주체로는 사립보육원, 지역보육원 보육사, 부모, 친구/이웃/친척, 부모와 토들러 집단, 학교 일과 전후클럽, 휴일클럽 등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III-26>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기관

명칭	운영 주체	운영 형태 및 특징
사립 보육원 (Private Day Nursery)	고용주/ 개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영유아 대상 ·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제고, 연중 운영 · 오전 8시~오후 6시나 그 이후까지 연장제로 운영
지역 보육원 (Local Authority Day Nursery)	지역사회 사업부 (S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영유아 대상 ·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운영 · 아동과 성인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양
보육사 (Childminder)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 부모들은 시간제로 비용을 지불 · 지역 사회사업부에 등록, 감사를 받음.
부모 (Nanny/Au Pair)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영유아 가정에서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돌봄. · 지역 사회사업부에서 관할
친구/이웃/친척 (Friend/Neighbour/ Relative)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과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보호형태 · 자신의 집 또는 유아의 집에서 돌봄. · *2시간 이상 보수를 받고 일하면 보육사 (Childminder)로 등록을 함.
부모와 토들러 집단 (Parent and Toddler Group)	자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센터에서 운영 · 비형식적 집단으로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참여
학교일과 전후 클럽 (Before/ After School Club)	지역교육청 (L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이상의 영유아 대상 · 학교일과 전후에, 학교 구내나 사립 보호시설에서 제공 · 시간제 보호 형태
휴일 클럽 (Holiday Club)	지역교육청 (L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이상의 영유아 대상 · 휴일날 학교나 지역 보호시설에서 제공

그 외에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기관으로는 교육과 보호 통합기관, 통합 보육원/가족센터, 조기 수월성 센터가 있다.

<표 Ⅲ-27>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기관

명칭	운영 주체	운영 형태 및 특징
교육과 보호 통합기관 (Combined Education and child Care)	지역교육청 (LEA)과 사회사업부 (S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장소에서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여 제공 · 지역의 교육·사회사업부에서 함께 재원을 제공하고 규제함. <p>* 증가 추세</p>
통합 보육원/가족센터 (Combined Nursery/ Family Centre)	지역교육청 (LEA)과 사회사업부 (S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대상. · 교육과 보호를 제공 · 성인교육, 훈련 및 상담도 제공
조기 수월성 센터 (Early Excellence Centre)	지역교육청 (LEA)과 사회사업부 (S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영유아 및 그 가족 대상 · 유아교육과 보호 통합 제공 · 0~5세 영유아에게는 연중 연장제 보호 제공 · 3~5세 영유아에게는 학기중에 유아교육 장소 제공 <p>* 교육특구 내에 있음.</p>

서비스 유형별 비율과 요구되는 교사의 자격요건 및 임금은 다음과 같다.

<표 III-28> 서비스 유형별 비율,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임금

형태	교사:학생비율 (매시)	교사자격	시간당 임금
보육학교	1:10	훈련받은 보육교사 ; 보육원 간호사	£ 17 £ 5.50
보육학급	1:13	훈련받은 보육교사 ; 보육원 간호사	£ 17 £ 5.50
유아반	1:13		상기와 같음
초등학교의 예비학급	1:15	자격교사 ; 학급보조원	£ 17 학교에 의해 정해짐
사립 보육학교, 사전준비학교	1:8	자격 갖춘 종사자 (최소한 직원의 반이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7 (교사) £ 2.10 ~ £ 10.10 (자격에 따른 직원급여)
사립학교	5명 이상이면 등록해야 함		
기회집단	1:4	자격교사 ; 보육원 간호사	£ 17 £ 5.50
유아학교/ 놀이집단	1:8	자격 갖춘 종사자 (최소한 직원의 반이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7 £ 2.69
사립보육원	1:3(0~2) 1:4(2~3) 1:8(3~5)	자격 갖춘 종사자 (최소한 직원의 반이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7 (교사) £ 2.10 ~ £ 10.00 (다른 직원들)
지역보육원 (위험에 처한 아이들 대상)	1:1 ~ 1:6 (유아의 나이에 의존)	보육원 간호사 ; 유아보호 종사자 (최소한 직원의 반이 자격을 갖추어야 함)	£ 3.95 ~ £ 10.28
보육사	1:3(0~5) 1:6(5~7)		£ 1 ~ 3 (시간당, 한 유아당)
보모			£ 3
학교일과 전후클 럽, 휴일 놀이 클럽	1:8	직원의 반 정도는 유아보호 훈련이 요구됨	£ 3 ~ 5

* 출처 : Bertram & Pascal(1999)

라. 스웨덴의 보육현황

1990~1998년 영유아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1~5세 73%, 6세가 74%의 취원율을 보인다. 이중 Pre-school leisure-time center의 취원율은 1~5세가 61%, 6세가 68%의 취원율을 보임으로써 family day care home의 취원율보다 월등히 많다.

<표 III-29> 연령별 종일제 영유아 교육 및 보호 취원율
(Percentage of children in different age groups,
enrolled in full-time ECEC-settings)

(1990-1998, %)

년도	Pre-school/ leisure-time center		family day care home		Total	
	1~5세	6세	1~5세	6세	1~5세	6세
1990	39	45	17	19	56	64
1995	52	62	14	10	67	72
1996	56	66	14	9	70	74
1997	59	69	13	7	72	76
1998	61	68	12	6	73	74

1998년 연령별 방과후 보육아동 취원율은 6세가 54%, 12세가 2%로, 1994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I-30> 연령별 방과후 보육 아동 취원율
(Children enrolled in leisure-time centres 1994-1998.
Percent of all children in each age group)

아동연령	1994년	1996년	1998년
6	22	36	54
7	51	60	66
8	46	53	60
9	32	39	44
10	9	11	12
11	3	4	5
12	1	2	2

스웨덴의 기관 및 시설 유형별 종사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II-31> 기관 및 시설 유형별 종사자 비율
(Full-time employee per by education in different Swedish ECEC-and School-Age Child Care Settings in 1998. percent)

구 분	Pre-school	Leisure time centre
Pre-School Teacher/Teacher	54	26
Leisure-time Pedagogue	1	44
Child minder	42	21
Other	1	1
No education for children	2	3
Total	100	100

양육형태에 따른 보육비용은 Pre-school(day care center), Family Day Care Home, Leisure-time Center 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2> 보육 비용
(Swedish Child Care-costs in 1998(Gross Costs))

양육형태	비용
Total costs per child average	42 mdr SEK 56,200 SEK
Pre-school(day care centre) per child average	25.8 mdr SEK 71,200 SEK
Family Day Care Home per child average	5.8 mdr SEK 60,300 SEK
Leisure-time Centre per child average	6.9 mdr SEK 26,400 SEK

mdr = 1,000million

마. 미국의 보육현황

1996년 미국의 전체아동은 12,378천명이며, 등록된 아동은 7,580천명으로 61%의 등록율을 보인다. 이중 보육학교의 등록율은 공립15%, 사립19%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유치원의 등록율은 공립23%, 사립4%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보육시간은 종일제와 반일제 등록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 Ⅲ-33> 1996년 기관에 등록한 3~5세 유아의 수
(단위 :명, 개소(천))

3~5세 전체 인구		전체 등록	보육학교 (Nursery School)		유치원 (Kindergarten)		시 간	
연령	인원	인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종일제	반일제
3세	4,045	1,506	511	947	22	26	657	848
4세	4,148	2,454	1,029	1,168	180	77	1,034	1,420
5세	4,185	3,621	290	202	2,652	477	1,870	1,750
전체	12,378	7,580 (61%)	1,830 (15%)	2,317 (19%)	2,853 (23%)	580 (4)	3,562 (29%)	4,019 (30%)

* 출처: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1997).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in USA Background Report).

유아보호기관과 헤드스타트시설의 종사자와 유아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헤드스타트 시설의 교사대 유아의 비율이 더 낮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4> 3개 주의 유아보호기관과 헤드스타트 시설의 종사자/유아의 비율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헤드스타트 기준	
연령범위	비율	연령범위	비율	연령범위	비율	연령범위	비율
유아	1:5	1세까지	1:5	유아	1:5 2:12	유아	1:4
영아	1:5	1~2세	1:6	12~18개월	1:6	영아	1:4
				18~30개월	1:7		
				30~36개월	1:8		
2세	1:7	2~3세	1:10	초등학교 이전 (Pre-school)	1:12 1:14	2세	1:4
2½~3세	1:8					2½~3세	1:4
3세	1:10	3~4세	1:15			3세	1:8
4세	1:12	4~5세	1:20			4세	1:10
5세	1:15	5세	1:25			5세	1:10

* 출처: National Resource Centre of Health and Safety in Childcare, Website, 1999

4. 각국의 보육 프로그램

가. 한국의 보육 프로그램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보급하는 보육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운영한다.

1)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보육시설의 보육은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과 같은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본 원칙을 토대로 보육계획의 내용,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지역사회복지 도모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이 수립된다.

이와 같은 보육계획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그간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III-35> 보육 관련 프로그램(보건복지부 개발)

프 로 그 램 명		개발년도
영유아보육프로그램(10권)		1993
영아보육프로그램(8권)	급식프로그램(3권)	1995-1996
영유아안전프로그램(2권)	유아 보육프로그램(11권)	1999
유아 교육프로그램(7권)	장애아 보육프로그램(3권)	
부모참여 교육프로그램(3권)	영아교육프로그램(4권)	
방과후 아동 보육프로그램(7권)		
영유아 안전 보육프로그램		

2) 학급 편성 및 운영

보육시설은 대상의 연령에 따라 학급당 인원수,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달라진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반은 1:5의 비율을, 2세 영아반은 1:7의 비율을 3세이상 유아반은 1:20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 보육시설은 장애아 5인당 1인의 보육교사를 두며, 5인이 초과할 때 마다 교사 1인씩 증원한다(장애아 10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자 1인을 포함).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 미만반과 2세반이 5:5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보육시설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상태에서 하루 10시간(오전7:30~오후7:30)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1) 2세미만 영아반의 하루일과(예)

시간	교육활동
07:30	등원, 자유놀이, 기저귀 갈기
10:30	손씻기, 오전간식
11:00	대집단(울동, 동화, 이야기 나누기)
11:20	자유놀이
12:00	기저귀 갈기, 손 씻기
13:00	점심, 반일반 귀가
13:30	양치 및 휴식
15:30	낮잠, 기저귀 갈기, 화장실 가기
16:00	오후간식
17:00	자유놀이, 기저귀 갈기
17:30~	순차적 귀가

(2) 3세이상 유아반의 하루일과(예)

시간	교육활동
07:30	등원, 자유놀이
10:00	정리 정돈, 손씻기, 간식
10:30	대집단(이야기 나누기)
11:00	대집단(작업, 음률)
12:00	점심 및 양치질
13:00	실외 놀이
14:00	대집단
14:20	낮잠
16:00	오후간식
16:40	대집단
17:30~	자유놀이, 순차적 귀가

나. 일본의 보육 프로그램

일본 유치원 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학교교육법 제79조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치원 보육 내용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감독청인 문부성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1948년 ‘보육요령’이란 이름 하에 처음으로 성립된 이후 유치원 교육요령으로 1956년, 1964년, 1989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되었다.

1)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교육내용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교육요령에 따르는데, 현행 유치원 교육요령은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교육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2) 학급 편성 및 운영

일본의 유치원은 4월에 시작하여 3월에 끝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9주 이상 수업을 한다. 유치원의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을 표준으로 하는데, 유아의 심신발달정도, 계절 등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치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탁아기능이나 그 밖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일일 교육계획안(예)

시간	교육활동
07:30	등원 · 실내자유선택활동
09:30	정리 및 아침 모임(체조)
10:10	중심활동(출석 · 여러 가지 활동)
11:20	급식 준비 및 급식
12:20	급식 정리 및 낮잠 준비
12:50	낮잠
14:30	기상(정리)
14:50	간식
15:40	귀가준비
16:00	실내외 자유놀이(순차귀가)
17:00	연장보육
18:30	전원귀가

다. 영국의 보육프로그램

영국의 유아교육은 그 시작이 자선사업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고 1980년대 후반까지는 중앙정부보다는 각 지역교육당국, 그리고 특히 각 학교의 교장이나 주임교사의 역할이 강했기 때문에 모두를 대표하는 교육 목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영국은 1988년 당시 대처 총리의 노력으로 교육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1)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국 정부는 모든 유아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을 미리 준비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학습결과(Desirable Outcomes for Children’s Learning)’라는 지침서를 제시하여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1998년부터 ‘학습목표(Learning Goals)’로 명칭이 바뀌었다. 각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목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하며 또한 교육 기준청이 유치원 기관 평가의 준거로도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 규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로 영국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 학급 편성 및 운영

영국에서 학급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리는 정부가 제시한 ‘1999~2000학년도 유아교육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계획안에서 밝히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은 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가운데 유아들의 개인적인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은 가정과 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질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부모와 유아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문화적·종교적·윤리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 구성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며 혼합연령의

경우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성령 2/73에 의하면, 4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급에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2 : 26 혹은 2 : 20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사 2명 중 1명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소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일 교육계획안>

시간	교육활동
09:00	등원 및 놀이
10:00	수 놀이
10:30	음악, 여러 가지 놀이, 언어, 식탁을 준비하기 위하여 거들기
12:00	점심
13:15	미술, 활동
14:20	놀이, 이야기
15:15	귀가

출처 : 고혜운(1987).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유치원 교육과정 비교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라. 스웨덴의 보육프로그램

스웨덴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유아교사들이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의 지위를 초등학교의 지위와 동등하게 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좀더 확고하게 하고,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1)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놀이를 유아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유아들이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상상 및 창의적 활동을 강조하며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되도록 한다. 교육활

동은 부모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계획되어지며 아동의 생활, 상황, 흥미, 이전의 경험 및 특별한 요구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진다.

2) 학급 편성 및 운영

스웨덴 유아교육의 특징은 집단활동을 통한 아동의 발달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활동을 통해서 집단성원으로 발전을 돕는 지지와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집단은 보통 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제집단과 작업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 집단의 인원이 2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려되고 있는 아동집단 구성의 유아 수는 연령이 어릴수록 적다. 스웨덴 유아교육의 집단 구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형제집단의 구성이다. 이는 스웨덴 가정의 평균 자녀수가 1.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이 혼합된 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아집단은 보통 3세 이하의 유아로 구성되며 2세 반 ~ 3세가 되면, 형제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 6개월 ~ 1세 동안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집단의 유아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3세까지는 12명을 넘지 못한다. 형제집단은 3~7세 사이이며 15~20명 가량이다.

(1) 9개월 ~ 3세의 일일 교육계획안

시간	교육활동
06:30	등원 및 자유놀이
07:00	아침식사
09:30	그룹별 활동
10:30	낮잠준비(자장가나 동화)와 낮잠
12:00	이와 손담기, 점심식사
13:30	실내놀이/실외놀이
15:15	간식
15:45	귀가

(2) 3~7세의 일일 교육계획안

시간	교육활동
06:30	등원 및 자유놀이
08:00	아침식사
08:45	자유선택활동
11:10	그룹별 노래와 동화
11:30	점심식사
12:15	휴식
13:00	실외자유놀이
15:00	간식 및 실내자유놀이
18:30	귀가

출처 : 이해란(1985). 스웨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마. 미국의 보육 프로그램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 지역, 기관 그리고 교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전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각 주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요구와 합의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1)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유치원 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극놀이, 게임, 미술, 음악, 동작, 수, 과학활동 및 실외 놀이 등을 포함하며 주제나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운영한다. 또한 유아원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하루 일과를 진행한다. 실외놀이와 산책의 경험도 매일의 일과에 포함하도록 한다. 간식과 점심, 화장실 가기 등의 일상생활 훈련을 포함하며 유아와 함께 집단활동도 계획한다.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안전한 자료와 설비를 원칙으로 개별화된 교실환경을 꾸민다. 각 영아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여 가정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발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학급 편성 및 운영

미국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란 우수한 교사진과 적절한

교사 대 유아 비율, 그리고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EYC에서 제안하는 교사 대 유아의 적절한 비율 및 교실의 집단 크기를 각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대 유아의 적절한 비율 - NAEYC(1944)

유아의 연령	집단크기(명)							
	6	8	10	12	14	16	18	20
영아(출생~12개월)	1:3	1:4						
걸음마기(12~24개월)	1:3	1:4	1:5	1:4				
2세(24~30개월)		1:4	1:5	1:6				
2세 6개월(30~36개월)			1:5	1:6	1:7			
3세					1:7	1:8	1:9	1:10
4세						1:8	1:9	1:10
5세						1:8	1:9	1:10

(2) 일일 교육계획안 (전일제 아동보호 프로그램)

시 간	교 육 활 동
07:00	도착 · 아침식사 · 제한된 실내놀이
08:30	대집단모임
08:45	실내 자유선택활동
09:45	청소 · 화장실 가기
10:10	간식시간(소집단)
10:15	실외 자유선택활동
11:30	청소 · 손씻기
12:00	점심식사
12:30	이닦기 · 화장실 가기
13:00	낮잠시간
14:00	자유시간 · 화장실 가기
15:00	집단시간
15:15	간식시간(소집단)
15:3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17:00	청소
17:15	귀가

5. 각국의 보육시설 평가

가. 한국의 보육시설 평가

우리 나라는 아직 국가적인 평가제도나 평가체제는 없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인 방법으로 개별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2년 9월 『평가인증제 도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국가적 체계를 갖춘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고, 2004년도에는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평가인증제 도입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목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과, 보육시설의 환경, 인력,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육수요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가인증 결과를 예산지원기준으로 활용하여 정부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다.

2) 평가 주체·평가자·평가 대상

(1) 평가 주체 : 국가수준의 평가기관이 주관

보건복지부는 중앙에 평가인증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인증업무의 일관성 및 지역간 형평성 유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평가전담기구로는 보육관련단체나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동 기관에 평가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2) 평가자 구성

평가자 구성은 ‘보육시설평가인증단(가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보육시설평가인증위원회’와 평가인증과 관련된 연구지원, 평가지원, 행정지원을 위한 ‘평가인증단 사무국’을 둔다.

(3)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제도 적용대상으로 하되, 우선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도 정착 경과 및 평가인증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시설유형별 혹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상시설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할 것이다.

3) 평가주기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되,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주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 평가기준(평가지표)

(1) 기본방향

국공립, 민간(법인·단체·개인), 직장, 가정보육시설 등 시설 유형 및 규모 등 시설의 특성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한다.

평가초기에는 현재의 보육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평가지표별 요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점진적인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한다.

(2) 평가영역 및 세부평가항목

2000년 연구용역사업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된 평가영역을 기본틀로 검토하되, 이용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할 것이며, 평가영역의 수정·보완 및 영역별 평가지표 개발은 03년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것이다.

평가영역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영역 : 보육시설 운영관리(운영일반, 보육아동관리, 재무관리, 서류관리)
- ② 제2영역 : 보육인력(전문성, 근무환경, 보육교사관리)
- ③ 제3영역 : 교육과정(교육계획, 교육과정운영, 교육자료, 교육과정평가)

- ④ 제4영역 : 보육환경(주변환경, 실내환경, 시설설비, 놀이공간·시설)
- ⑤ 제5영역 : 건강·영양·안전(건강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 ⑥ 제6영역 :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부모 참여, 지역사회 연계)
- ⑦ 제7영역 : 이용자 만족도

5) 평가절차

(1) 제1단계 : 보육시설 자체평가

- ① 신청 :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평가인증단 사무국에 평가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평가인증기준·절차·보고서 서식 등 관련 자료를 수령
- ②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준비
시설별 자체평가위원회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 보호자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 ③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관찰평가 신청
보육시설 자체평가 결과, 보육시설 인증기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평가인증단 사무국에 제출하고 관찰평가를 신청

(2) 제2단계 : 보육시설 관찰평가

- ① 평가인증단(평가지원팀)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관찰평가 실시
- ② 관찰평가자는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찰평가보고서를 평가인증단 사무국에 제출

(3) 제3단계 : 보육시설 인증여부 결정 및 통보

- ① 평가인증단 사무국에서 보육시설의 자체평가보고서와 관찰평가자가 실시한 관찰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인증 검토자료 작성
- ② 평가인증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관찰평가보고서 및 사무국의 평가인증 검토자료를 토대로 인증여부를 결정
- ③ 사무국에서는 평가결과와 인증여부를 해당 보육시설에 통보

(4) 제4단계 : 이의제기

-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시설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평가인증단에 이의를 제기
- ② 평가인증단에서는 관찰평가자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 실시후 그 결과를 재심의

6) 인증방법 및 결과의 공개

- (1)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적합’, ‘조건부인증’, ‘부적합’의 5등급체계가 검토 중임
- (2) 평가인증 결과는 해당시설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 (3)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등급(최우수, 우수, 적합)을 획득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인증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최우수 및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을 현판으로 제작·게시할 수 있도록 함

7)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지표·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추이와 평가대상 보육시설의 수용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평가인증제의 도입으로 보육시설 환경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평가준비 및 자체평가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인증기간 경과 후에는 재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평가인증 결과는 보육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도구 및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36> 주요 척도들의 내용 및 구성

도구명	주요평가영역	영역/항목	개발자	연도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환경구성의 적합성, 시설 및 설비관리의 효율성, 경영관리의 합리성,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적절성		한국 교육개발원	1987
유아교육기관의 분석기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사-부모 상호작용, 교사 자격 및 자질 향상, 운영관리, 집단구성, 물리적 환경, 건강과 안전, 영양과 음식평가	10/114	이기숙	1989
한국유아교육시설기관의 표준 평가척도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의 양과 質, 영양·안전·건강, 교직원, 교육과정의 운영, 심리적 환경, 유치원의 경영 및 운영, 평가활동, 부모교육	9/132	이영석	1990
유치원교육 평가척도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전문성, 경영관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5/60	국립 교육평가원	1994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 평가기준 : 물리적 환경, 운영 및 종사자관리, 보육프로그램, 상호작용, 부모의 만족도 - 평가체계 : 평가관리단, 평가단 자체 평가위원	5/93	한국 보건사회연 구원	1995
유아교육 프로그램평가척도	일과계획, 교육과정,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영양·건강·안전, 운영관리, 교직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평가활동	10/169	이은혜 이기숙	1996
유치원 평가척도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운영관리, 유아의 영양·건강·안전, 교직원 관리,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6/82	장명림 이기숙 김양분	2000
한국유아교육기관인정 제 모형	교육과정, 상호작용, 교직원, 물리적 환경, 행·재정, 건강·안전, 영양·급식, 부모와 지역사회, 평가	9/204	이화여대 BK21	2002

나. 영국의 보육시설 평가

1) 평가 목적

국가가 기관 평가를 주도하는 영국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하면서 체재 하에 모든 기관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는 책무성에 관심을 둔다. 현재 영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만 5세 의무교육을 시작할 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목표(Learning Goal)를 완성하도록 기대한다.

2) 평가 주체 · 평가자 · 평가 대상

(1) 평가 주체 : 국가수준의 평가기관이 주관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은 교육고용성과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교육기준청은 학교의 질을 평가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주요업무는 학교의 질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2) 평가자 구성

평가약정자(contractor)와 등록된 장학사(RgI)라는 두 가지 인적자원 조직이 평가절차를 관리한다. 평가약정자들은 민간인으로서 개별적으로 교육기준청에 등록하며, 교육기준청과 평가 계약을 맺어 해당 교육기관을 평가한다. 이들은 평가 대상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평가 절차, 평가 시기,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결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다. 평가단은 교육기준청에 의해 연수를 받고 자격을 심사 받은 인사로 구성된다. 평가단에는 반드시 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학부모와 같은 인사들로 1주일 정도 교육을 받는다.

(3) 평가 대상

OFSTED는 nursery school, primary school, secondary school 등을 평가해 왔는데 2001년 9월부터는 childcare 시설에 대해서도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

이다.

3) 평가 핵심요소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평가는 교육기준청과 독립된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평가 체제 전체의 질은 교육기준청에서 관리한다. 평가단은 공개 경쟁에 의해 선정된다.

4) 평가 절차

평가 이전 단계→ 평가 단계→ 평가 이후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미국 NAEYC의 평가와 달리 자체평가는 없으며 외부 평가단의 평가만 이루어진다.

(1) 1단계 : 평가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 8주정도 소요된다. 교육기준청이 대상 학교에 평가 시작 약 6주-8주전에 평가일정과 평가의 종류를 알리고 관련서류를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평가에 대한 공고를 받은 기관은 1주일 이내에 학교의 성격과 학급의 구성 특징에 대한 정보를 교육기준청으로 보내야 한다. 교육기준청은 서류를 받는 즉시 그 학교의 특징에 맞추어 평가할 팀을 선정하고, 평가 대상 학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사전감사지표를 보낸다. 등록 장학사는 준비단계에서도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 면담도 할 수 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평가를 위한 사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운다.

(2) 2단계 : 방문 평가 단계

평가단의 기관 방문 평가는 하루 동안 이루어진다. 평가단 구성은 대상 학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팀의 크기는 대상학교의 유형, 평가 단계, 규모에 따라 3-15명까지 다양하다. 장학사는 방문 평가 기간 동안 평가 노트의 모든 항목에 빠짐 없이 기록하고 유아 학습에 관련된 5가지 평가 영역이 충실히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 평가를 하는 동안 평가단은 전체 방문 시간의 60%이상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할애해야 한다. 교실 관찰은 교육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속해 있는 학급만을 선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 단계를 마치고 나서 장학사들은 수업 관찰 내용을 가지고 교사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업에 대한 장·단점을 알려준다. 구두로 피드백을 주는 주요 목적은 그 기관이 무엇을 잘 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기관 평가의 주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해당 기관의 평가가 만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장학사는 다음 평가 시기를 1-2년 또는 3-4년 중에서 선택하여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기관의 교육적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OFSTED는 평가 종결 2주 이내 장학사의 결정에 대해 추인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OFSTED가 장학사의 판단에 동의할 경우에는 교육고용성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교육고용성은 해당 기관에 6개월 간의 개선노력 기간을 부여한 후 다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재평가에서도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OFSTED는 지역교육청에 대해 해당기관이 EYDCP(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 Plan)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해지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3) 3단계 : 최종 평가 단계

평가단은 평가에 근거하여 대상 학교의 수준을 논의하고 의견을 종합한다. 평가단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평가 대상 학교를 ‘뛰어남’, ‘만족함’, ‘미흡’의 세 단계로 최종 평가를 한다. 최종 보고서는 개개인 평가자의 판단과 평가단의 판단 결과에 기초하여 등록 장학사가 작성하며, 방문 평가가 끝나고 6주 정도가 지나면 운영자와 지역교육청에 송부된다. 이 보고서는 방문 평가 후 2개월 정도 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학부모들이 참고하게 된다. 기관 평가 보고서는 대략 A4 용지 30쪽 정도에 이른다.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지 4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기관들은 평가단과 직접 논의하거나 교육기준청에 중재 요청이나 서면으로 공식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5) 평가 내용 및 방법

5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뛰어남’에서 ‘매우 부족함’에 이르기까지 7등급으로 판정된다. 평가 방법은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기술이 함께 이루어진다.

① 학교의 특성과 관련 : 학생 수, 지역사회 특성, 인종적 특성, 특수교육이 필

요한 학생의 수(학교의 질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 ② 학습자의 성취도와 관련 : 학업 측면과 생활 측면에서 평가
- ③ 교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관련 : 교수학습의 질, 교육과정의 특성, 건강 · 안전 · 영양 등과 관련된 배려, 학부모와의 연계
- ④ 학교운영의 효율성 : 행정과 재정적인 측면
- ⑤ 학교가 더욱 발전 시켜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평가

6)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평가결과가 ‘만족스럽다’는 결과를 받으면 유아교육기관으로 최종 자격이 부여받는다. 그러나 ‘미흡’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교육기준청의 특별 조치가 취해진다. 즉, 해당기관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이내에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지방교육청이나 교육기준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행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인가를 취소하고 학교를 폐쇄한 후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의 다른 학교로 보내게 된다.

다. 미국의 보육시설 평가

1) 평가 목적

(1) 보육프로그램의 수준 개선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을 돕는다.

(2)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평가 및 전문성 인정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준을 결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2) 평가 주체 · 평가자 · 평가 대상

(1) 평가 주체

민간 단체인 전미유아교육협의회(NAEYC)가 주축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NAEYC는 192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현재 10,2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미국 전역에 400여 개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2) NAEYC 평가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평가자 자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자격은 유아교육이나 아동발달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교사, 관리자, 장학 담당자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일간의 평가자 훈련 강좌에 참여한 후, 평가의 실제에 관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자로 선정 되면 최소한 1년에 3번 이상의 방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NAEYC 평가 대상 프로그램

0-5세까지의 각 연령에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동을 만나질 또는 종일제로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교육 또는 보육하고 있어야 하며, 학령기 아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8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인준을 신청하기 전 적어도 1년 전에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각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허가 사항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3) 평가의 성격

모든 운영과 결과 활용에서 자발성을 가지는 인정 평가제이다.

4) 평가 소요기간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5) 평가의 절차

NAEYC의 인정평가 절차는 크게 인정평가 신청→자체평가→기관 방문 및 관찰→인정 여부 결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인정평가 신청 및 자체 평가

① NAEYC의 인정평가 신청

각 기관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전화 혹은 NAEYC의 홈페이지(www.naeyc.org)

를 통해 가능하다.

② 신청하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우송

학급관찰보고서, 교사 질문지, 운영관리 보고서, 부모용 질문지, 설명서

③ 자체평가 과정

각 기관에서는 교사와 기관의 행정가로 자체평가 팀을 구성한다. 설명서를 기초로 인정 기준을 이해한 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자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④ 외부 평가자 파견 신청

자체평가가 끝나면 NAEYC의 인정평가 담당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평가자 파견을 신청한다.

2단계: 기관방문 및 관찰 (on-site-visit validation process)

① 기관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발달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 기술을 지닌 유아교육전문가로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평가자 수와 관찰 일수가 다르게 배정된다. 원아가 60명 이하일 때는 1명, 60명 이상일 때는 2명의 평가자가 하루 동안 관찰하며, 120명일 때는 이틀 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자 훈련과정

NAEYC의 인정평가 담당 부서에 인정평가자 신청을 하면, 하루 동안 평가 실행을 위한 연습을 하게 된다.

③ 평가자의 임무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의 타당성 검증이 주임무이다. 기관 방문 날짜는 총 유아의 2/3 이상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결정한다. 기관 관찰이 끝나면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에게 설명한다. 평가자는 기관장으로 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평가자는 최종 보고서를 인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기관에서 평가자의 임무 수행에 불만이 있을 경우, NAEYC 담당 부서에 다른 평가자의 기관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3단계: 인정 결정 단계

① 인정위원회에서 결정

평가자, 유아교사 양성 전문가, 그리고 이미 인정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기관에서 작성한 자체보고서와 평가자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인정’ 혹은 ‘인정 지연’의 판정을 내린다.

② 평가 결과

NAEYC의 인정평가 담당 부서에 ‘인정’의 판정을 받은 기관에 인정 증명서, 인정된 기관임을 알리는 홍보자료(포스터, 로고, 학부모용 브로셔)등을 우송한다. 인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준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30일 이내에 인정평가자의 평가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다.

③ 인정의 유효기간: 3년.

이 기간에도 매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3년이 되면 인정의 효력이 완료되기 90일 이전에 재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인정 과정은 인정의 과정과 동일하다.

6) 평가의 항목 및 내용

(1) 인정 평가 항목

1986년 처음 사용한 이래 시행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 거쳐 개정되었다. 1998년 개정에는 교사의 계속적인 발달 및 교사역할의 복잡성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개별 유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의 창조, 다양한 문화적 특성 고려, 가정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강화, 교사의 처우 및 권한 강화, 계속적인 변화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2) 내용

평가의 10개 영역에 걸쳐 83개 항목(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사-부모간의 상호작용, 교사자격 및 전문성 발달, 운영관리, 교사편제, 물리적 환경, 건강과 안전, 영양 및 급식, 평가로 나누어진다.

각 항목은 ‘미흡’, ‘만족’, ‘매우 만족’의 3점 척도로 평정되며, 각 항목에 대한 평정에서 ‘미흡’ 혹은 ‘만족’으로 평정하게 되면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해야 한다.

7) 평가결과의 활용

미국의 인정평가는 국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여부에 따른 행정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다. 인정이 지연되었다면, 기관은 원인을 파악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자기 스스로 기관의 질을 향상시킨 후 언제든지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기관에 주어지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며, 한 번 인정이 다음 번의 재인정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다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은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원아모집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대중적인 공적효력을 갖는다. 인정여부의 결정은 법적 규제의 성격을 띠지는 않으나 우수한 기관이라는 전문성의 지위를 인정된 기관에게 제공하여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미국의 인정평가제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라 각 기관이 부단히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

6. 시사점

가. 각 국가별 시사점

1) 일본

일본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후생성과 문부성을 중심으로 한 이원병행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할부처간의 파벌주의가 우리 나라와 같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득에 따른 월 보육료의 슬라이딩제(Sliding Scale)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보육비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육비 차등 징수 방법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일본은 1965년 이후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영아를 위한 특별 보육 대책, 장애아 보육제도의 마련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취업모의 지속적인 증가, 복지적 개념의 교육적 사고,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수혜 기회의 확대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현 우리 나라도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인 형태 및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요구와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현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로써 ‘산후 등 대체 직원 제도’, ‘보육교사 수확 자금 대여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점은 결국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열악한 유아 및 보육교사의 지위, 처우 등의 개선을 통하여 우수 유아교사를 확보하고 공립 유아교육 또는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기초교육으로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영국

영국은 유아교육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해온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중심의 사립보육시설 및 놀이집단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 짧고, 비싼 등록금, 기관에 따른 질적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부모의 대다수가 만 4세의 어린 유아들도 초등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유아교육의 중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양상이 달라지며, 이것은 결국 유아교육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각 부처간의 행정적 파벌주의에서 벗어나 유아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양성의 척도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영국은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여성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한 변화로서 고용주들이 취업모들을 위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장하고, 휴직제(career break)를 도입하며, 휴직 후 다시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있다(양옥승 외, 1999)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 나라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제도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책의 수립 등과 연관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됨’에 대한 의식이 없는 현 우리 나라의 젊은 부모들 특히 영유아기 대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를 강화하여 영유아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이며, 부모는 이들의 발달에 결정적인 인적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Sure Start 프로그램과 기존의 유치원 교육에 보육의 요소를 더하고자 하는 유아교육 정책 계획은 현재 영국 정부가 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유아교육학회 편, 2000).

결국 우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의 문제를 단순히 유아들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책임, 그에 따른 지원체계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결책들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스웨덴

스웨덴은 선별주의적 유아교육·보육에서 보편주의적 유아교육·보육제도를 발전시켜 아동복지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공식화한 나라이다. 특히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충요구, 방과후 보육 확대 요구,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노동력 활용 필요 등의 요소가 공적 지원 체계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사회적 변화와 매우 유사한 상태에서 정부의 노력 및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제고해 볼 수 있게 한다.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육아 휴직 제도, 출산수당 및 전체 아동 대상의 양육비 지급 등의 각종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남녀평등과 여성 취업권을 직접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공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복지적인 사고를 도입하여 아동을 포함한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스웨덴은 0~6세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아동양호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 양호 교육이나 유치원 교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편협한 교과목 이수과정에서 벗어나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균형 잡힌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 편제가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스웨덴은 유아교육·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또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냐가 가장 큰 이슈로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가정양육이 갖는 장점을 최대화하여 기관중심의 보육이 실시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영아를 중심으로 한 가정과 유사한 보육환경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가정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시사점도 제공받을 수 있다.

4) 미국

미국은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정책적, 교육적,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세 유아의 86.5%(1996년 기준)가 공립 유치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을 지원해 주기 위해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포괄적·복지적 서비스인 Head Start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아 대상의 통합 교육의 활성화 및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연령별 시간대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다양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결과와 고찰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및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각 주와 사회단체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및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모두에 기초를 둔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모색하는 공동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미국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서야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준평가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유아교육 관련 협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준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미국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 및 결과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우리 나라의 형식적인 자격연수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연수를 통한 교사의 자기반성 및 실천적 지식을 통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체제모형별 시사점

1) 이원병행체제 모형

이원병행체제 모형을 선택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중복, 재정의 낭비, 수혜자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계층간 교육 및 보육 수혜 기회의 불평등, 기관에 따른 현저한 질적 차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이원병행체제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아교육·보호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현재 유아교육과 보호행정 전체를 교육부로 이관중이며, 가난, 실업, 건강증진, 낮은 성취, 사회적 소외, 평생교육 등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고용부, 사회사업부, 의료부, 통상산업부, 재무부 등의 5개 정부 부처간의 통합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또한 일본의 경우도 다원적인 일원화 방안을 선택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립상황을 청산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유·보 일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3~5세 유아 대상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서비스 수혜율이 영국은 60%로, 미국은 54%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이것은 이들 나라가 유아교육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공공 재원 투입이 낮은 상태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원병행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과 보호의 기회를 모든 유아들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복지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엔젤플랜,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육과 보호가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협력체제가 필수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일원통합체제 모형

일원통합체제 모형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 중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유아교육·보육의 관할부처가 교육부로 되어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72년 이후 보건성에서 관할하는 일원통합체제를 확립하였

으나 1997년 9월 이후 교육부로 유아교육체제 관할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것은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 초기 유아교육체제가 교육을 중시하는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일주, 2000).

일원통합체제의 경우 국가의 일관성 있는 지원 및 관리체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규제 기준 및 질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유아교육기관 규제기준 설정 및 시행 그리고 호주의 교사양성기관을 통한 질적 관리 등은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평준화와 일원통합체제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서비스는 모든 유아들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점차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일 행정체제 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한 적절한 행정통제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포괄적·복지적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어떤 유형의 유아교육체제를 운용하든 영아보육은 근로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채택하며, 유아교육은 모든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의 발달은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수준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각 관할부처간의 협력도 필수적이며,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IV



보육실태 및 요구 분석

1. 보육시설 실태 분석	131
2.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의견분석	171
3. 부모 의견 조사	210
4. 보육현장의 문제점	247

보육실태 및 요구 분석에서는 보육시설 실태조사,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의견조사, 부모 활용만족도 조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보육시설 실태 분석

보육시설 실태 분석에서는 335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40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결과를 분석하였다. 보육시설의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은 각 시설의 시설장들이 응답하였다.

가. 실태조사 결과

1) 일반사항

조사된 시설은 대도시 251개소(74.9%), 중·소도시 74개소(22.1%), 군 지역 10개소(3.0%)로 분포되어 있다. 시설 유형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18개소(35.3%)로 가장 많았고, 민간보육시설 92개소(27.6%), 법인보육시설 67개소(20.1%), 가정보육시설 47개소(14.1%), 직장보육시설 10개소(3.0%)이었다. 운영 유형에서는 영유아통합이 205개소(50.5%)로 가장 많았고, 일반·장애아 통합 77개소(19.0%), 영아전담 75개소(18.5%), 장애아전담 34개소(8.7%), 유아전담 15개소(3.7%)로 분포되어 있었다<표 IV-1>.

2) 운영 프로그램

조사대상 보육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표 IV-2, 부표 1>에서와 같이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유아전담율이 23.7%로 다른 시설(법인 18.5%, 민간 21.3%, 직장 16.7%, 가정 10.6%)에 비하여 높았다.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은 법인보육시설에서 39.8%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 21.9%, 민간보육시설 18.0%, 직장보육시설 27.8% 순이었다. 가정보육시설은 장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9.1%로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운영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아 전담의 경우 가정보육시설(42.4%)과 민간보육시설(36.8%)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시설 분포

구분		개소(%)
지역	대도시	251 (74.9)
	중·소도시	74 (22.1)
	군	10 (3.0)
	계	335(100.0)
운영주체별 시설 분포	국·공립	118 (35.3)
	법인	67 (20.1)
	민간	92 (27.6)
	직장	10 (3.0)
	가정	47 (14.1)
	계	334(100.0)
운영프로그램별 시설 분포	유아전담	15 (3.7)
	영아전담	75 (18.5)
	영유아통합	205 (50.5)
	장애아전담	34 (8.7)
	일반·장애아 통합	77 (19.0)
	계	406(100.0)

<표 IV-2> 시설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통계치
유아전담	53 (23.7)	20 (18.5)	33 (21.3)	3 (16.7)	7 (10.6)	116 (20.3)	$X^2=14.82$ df=4 p=.005
영아전담	59 (26.3)	29 (26.9)	57 (36.8)	5 (27.8)	28 (42.4)	178 (31.2)	$X^2=15.74$ df=4 p=.003
영유아 통합	63 (28.1)	16 (14.8)	37 (23.9)	5 (27.8)	25 (37.9)	146 (25.6)	$X^2=20.19$ df=4 p=.000
장애아 전담	8 (3.6)	22 (20.4)	10 (6.4)	2 (11.1)	2 (3.0)	44 (7.7)	$X^2=24.90$ df=2 p=.000
일반·장 애아 통합	41 (18.3)	21 (19.4)	18 (11.6)	3 (16.7)	4 (6.1)	87 (15.2)	$X^2=11.40$ df=4 p=.022
계	224(100.0)	108(100.0)	155(100.0)	18(100.0)	66(100.0)	571(100.0)	

운영 시간대에 따른 시설운영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49.2%로 가장 많았고, 반일제 프로그램 운영 21.2%, 야간 프로그램 운영 13.6%, 24시간 프로그램 운영 10.1%, 휴일 프로그램 운영 5.9% 순이었다. 지역간 비교에서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대도시(14.7%)에서 다른 지역(중·소도시 10.9%, 군 6.3%)에 비하여 운영율이 높았다. 24시간 운영은 대도시(10.0%)와 중·소도시(10.9%)가 군(6.3%)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지역에서는 종일반 운영이 62.5%로 가장 높았다<표 IV-3>.

<표 IV-3> 지역별 시간대별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반일제	96 (20.5)	35 (23.8)	3 (18.8)	134 (21.2)
종일제	228 (48.6)	73 (49.7)	10 (62.5)	311 (49.2)
야간	69 (14.7)	16 (10.9)	1 (6.3)	86 (13.6)
24시간	47 (10.0)	16 (10.9)	1 (6.3)	64 (10.1)
휴일	29 (6.2)	7 (4.7)	1 (6.3)	37 (5.9)
계	469(100.0)	147(100.0)	16(100.0)	632(100.0)

한편 시간대별 운영은 시설 유형간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 운영(72.0%)과 24시간 운영(18.3%)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비율이 높았다. 법인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 운영 59.3%, 반일제 운영 19.4% 순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 운영 39.0%, 반일제 운영 28.6%, 야간 프로그램 운영 16.0% 순이었다. 직장보육시설에서는 반일제와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29.0%, 야간 16.1%, 24시간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특수보육프로그램인 야간 프로그램은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에서, 24시간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다른 시설에 비하여 운영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4>.

시설장들이 유형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는 ‘시설 여건, 교사의 준비 등 시설차원에서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장애아 보육에서 여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아 전담 53.9%, 일반·장애아 통합 40.5%, 영아전담 40.3%)<표 IV-5>.

<표 IV-4> 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통계치
반일제	14 (8.9)	21 (19.4)	61 (28.6)	9 (29.0)	28 (23.1)	133 (21.1)	$X^2=83.93$ df=4 p=.000
종일제	113 (72.0)	64 (59.3)	83 (39.0)	9 (29.0)	41 (33.9)	310 (49.2)	$X^2=4.35$ df=4 p=.360
야간	14 (8.9)	10 (9.3)	34 (16.0)	5 (16.1)	23 (19.0)	86 (13.6)	$X^2=39.23$ df=4 p=.000
24시간	13 (18.3)	9 (8.3)	20 (9.4)	4 (12.9)	18 (14.9)	64 (10.2)	$X^2=25.83$ df=4 p=.000
휴일	3 (1.9)	4 (3.7)	15 (7.0)	4 (12.9)	11 (9.1)	37 (5.9)	$X^2=34.60$ df=4 p=.000
계	157(100.0)	108(100.0)	213(100.0)	31(100.0)	121(100.0)	630(100.0)	

<표 IV-5> 프로그램 유형별 실시 못하는 이유

단위 : 개소(%)

이유	유아전담	영아전담	영유아 통합	장애아 전담	일반· 장애아 통합
시설 여건, 교사의 준비 등 시설차원에서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28 (25.6)	33 (40.3)	27 (20.3)	104 (53.9)	66 (40.5)
실시할 의향은 있으나 해당 영유아가 없어서	6 (5.5)	6 (7.3)	2 (1.9)	15 (7.8)	17 (10.4)
시설장으로서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4 (3.7)	3 (3.7)	7 (6.8)	11 (5.7)	9 (5.5)
지원 부족	1 (0.9)	1 (1.2)	1 (1.0)	1 (0.5)	1 (0.6)
인근지역 보육시설 밀집	1 (0.9)	-	-	2 (1.0)	2 (1.2)
소계	40 (36.7)	43 (52.4)	37 (35.9)	133 (68.9)	95 (58.3)
해당 전담시설이어서	69 (63.3)	39 (47.6)	66 (64.1)	60 (31.1)	68 (41.7)
전체	109(100.0)	82(100.0)	103(100.0)	193(100.0)	163(100.0)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프로그램의 특수보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에 서는 응답자의 44.8%(150개소)가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수보육 희망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영아 보육 희망 79.5%, 장애아 보육 희망 78.1%, 야간 보육 희망 75.7%, 24시간 보육 희망 78.9%)가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비하여 특수보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6>.

<표 IV-6> 지역별 특수보육 요구

단위 : 개소(%)

구분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대도시	70 (79.5)	50 (78.1)	56 (75.7)	45 (78.9)
중·소도시	16 (18.2)	11 (17.2)	16 (21.6)	12 (21.1)
군	2 (2.3)	3 (4.7)	2 (2.7)	0 (0.0)
계	88(100.0)	64(100.0)	74(100.0)	57(100.0)

<표 IV-7> 시설 유형별 특수보육 요구

단위 : 개소(%)

구분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국·공립	21 (23.9)	23 (35.9)	19 (25.7)	10 (17.5)
법인	13 (14.8)	14 (21.9)	12 (16.2)	9 (15.8)
민간(단체·개인)	34 (38.6)	20 (31.3)	33 (44.6)	24 (42.1)
직장	2 (2.3)	2 (3.1)	1 (1.4)	2 (3.5)
가정	18 (20.5)	5 (7.8)	9 (12.2)	12 (21.1)
계	88(100.0)	64(100.0)	74(100.0)	57(100.0)

특수보육의 시설 유형별 비교에서는 <표 IV-7>에서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에서 특수보육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영아 보육 희망 38.6%, 장애아 보육 희망 31.3%, 야간 보육 희망 44.6%, 24시간 보육 희망 4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희망 비율이 높았다(영아 보육 희망 23.9%, 장애아 보육 희망 35.9%, 야간 보육 희망 25.7%, 24시간 보육 희망 17.5%). 이와 같이 보육발전 방안에서는 기존시설 중 특수보육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수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영아수용시설 부족하므로(27명)’, ‘기존 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6명)’ 등의 이유가 제안되었다. 장애아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필요성 때문에(19명)’, ‘장애 아들에게 건전한 사회생활 기회 및 균등한 보육기회 부여하기 위하여(6명)’, ‘정부에서 특수교사를 지원해 주는 경우 실시가 가능하다(6명)’ 등의 이유가 제안되었다.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필요성이 절실하며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35명)’를 이유로 제시하였다. 24시간 보육 희망이유로는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10명)’,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10명)’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표 IV-8>.

<표 IV-8> 특수보육 실시 희망 이유

유형	이유	개소(%)
영아	영아수용시설 부족	27 (54.0)
	정부지원금이 운영에 큰 도움	3 (6.0)
	영아기 보육 연구 목적	1 (2.0)
	기존 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	16 (32.0)
	연령에 맞는 교육 지도를 하기 위해	3 (6.0)
	소계	50(100.0)
장애아	통합교육의 필요성	19 (54.3)
	건전한 사회생활 기회 및 균등한 보육기회 부여	6 (17.1)
	기존 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	4 (11.4)
	정부 지원시 실시(특수교사 지원)	6 (17.1)
	소계	35(100.0)
야간	필요성 절실 및 직장 맞벌이 부모의 편의 도모	35(100.0)
24시간	필요성 절실	10 (35.7)
	부모의 욕구 충족	10 (35.7)
	기존 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	8 (28.6)
	소계	28(100.0)

보육시설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표 IV-9>와 같이 운영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22.1%)’,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20.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17.8%)’, ‘인성지도(16.7%)’

순이었다. 따라서 현장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별로 유아보육에서는 ‘인성지도(33.0%)’,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24.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20.2%)’ 순이었다. 한편 영아보육에서는 ‘안전한 보호(28.4%)’,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26.9%)’,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18.5%)’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아 보육에서는 ‘장애아 특별 프로그램(24.7%)’이 가장 높았고,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21.3%)’, ‘안전한 보호(21.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19.3%)’ 순이었다.

야간보육은 ‘안전한 보호(30.9%)’와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25.9%)’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시간보육은 ‘안전한 보호(31.3%)’와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21.6%)’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휴일보육에서는 ‘안전한 보호(33.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30.3%)’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운영목적에 따라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형별 지원방안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9> 보육시설에서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단위 : 개(%)

구분	유아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휴일	전체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101 (24.3)	141 (26.9)	32 (21.3)	4 (4.9)	5 (6.8)	0 (0.0)	283 (22.1)
인성지도	137 (33.0)	45 (8.6)	8 (5.3)	10 (12.3)	11 (14.9)	3 (9.1)	214 (16.7)
안전한 보호	19 (4.6)	149 (28.4)	32 (21.3)	25 (30.9)	23 (31.1)	11 (33.3)	259 (20.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	84 (20.2)	87 (16.6)	29 (19.3)	12 (14.8)	5 (6.8)	10 (30.3)	227 (17.8)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21 (5.1)	97 (18.5)	4 (2.7)	21 (25.9)	16 (21.6)	5 (15.2)	164 (12.8)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3 (0.7)	4 (0.8)	8 (5.3)	8 (9.9)	8 (10.8)	3 (9.1)	34 (2.7)
특별 프로그램	50 (12.0)	2 (0.4)	37 (24.7)	1 (1.2)	6 (8.1)	1 (3.0)	97 (7.6)
계	415 (100.0)	525 (100.0)	150 (100.0)	81 (100.0)	74 (100.0)	33 (100.0)	1,278 (100.0)

3) 영유아 및 부모 관련 사항

보육시설들의 보육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10>과 같이 총 영유아수는 평균 60명으로 최대 286명, 최소 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미만인 경우 평균 15명으로 최대 90명에서 최소 1명이었다. 2세아의 경우는 평균 16명이었으며, 최대 49명, 최소 1명이었다. 3세 이상의 경우는 평균 54명으로 최대 180명, 최소 1명이었다.

<표 IV-10> 연령별 현원

단위 : 명

구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총 영유아수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현원	반일제	6	1	33	5	1	21	19	0	99	60	4	286
	종일제	10	1	60	13	1	57	43	1	99			
	야간	4	0	22	4	1	30	9	1	72			
	24시간	2	1	12	2	1	7	5	1	19			
	장애아	12	1	80	5	1	20	14	1	60			
	계	15	1	90	16	1	49	54	1	180			

영유아 모집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유아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44.2%, 영아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 모집에서의 어려움은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 시설유형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였으며, 법인보육시설 37.2%, 민간보육시설 67.2%, 가정보육시설 73.9%, 직장보육시설 75.0%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

영아모집 역시 시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였으며, 법인보육시설 34.6%, 직장보육시설 37.5%, 민간보육시설 58.8%, 가정보육시설 72.5%의 순서로 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2>. 지역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11> 시설유형별 유아의 모집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있다	25 (24.8)	16 (37.2)	39 (67.2)	6 (75.0)	17 (73.9)	103 (44.2)
없다	76 (75.2)	27 (62.8)	19 (32.8)	2 (25.0)	6 (26.1)	130 (55.8)
계	101(100.0)	43(100.0)	58(100.0)	8(100.0)	23(100.0)	233(100.0)
통계치	$X^2=40.13$ df=4 p=.000					

<표 IV-12> 시설유형별 영아의 모집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있다	28 (25.2)	18 (34.6)	47 (58.8)	3 (37.5)	29 (72.5)	125 (43.0)
없다	83 (74.8)	34 (65.4)	33 (41.3)	5 (62.5)	11 (27.5)	166 (57.0)
계	11(100.0)	52(100.0)	80(100.0)	8(100.0)	40(100.0)	291(100.0)
통계치	$X^2=38.21$ df=4 p=.000					

영유아 모집시 어려움에서는 유아의 경우, ‘인근 유사시설들과의 경쟁 때문에 (41.4%)’, ‘지역, 환경적 요인 때문에(34.5%)’, ‘수요가 적음(11.2%)’ 등이 응답되었다.

영아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다(36.1%)’, ‘타 보육시설과의 보육료 차이 즉,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보육료가 비싸다고 한다(17.0%)’, ‘시설에 대한 불만족 및 전문보육시설 요구(16.3%)’, ‘부모가 영아 질병발생 및 사망사고를 우려하여 시설에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8.8%)’ 등으로 나타났다<표 IV-13>.

응답 보육시설들의 44%정도가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4개소(59.4%)에서는 대기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4>. 연령별 분포에서는 2세 대기아가 있는 시설이 144개소(78.3%)으로 가장 많았고, 1세 137개소(74.5%), 3 - 5세 114개소(62.0%), 0세 81개소(44.0%) 순이었다.

총 184개소의 평균 대기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표 IV-15>에서와 같이 평균 53명, 총대기아가 9,73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 1명에서 최대 425명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영유아의 모집 어려움 이유

연령	이유	개소(%)
유아(3 - 5세)	시설 특성상의 문제	5 (4.3)
	인근 유사시설들과의 경쟁	48 (41.4)
	지역, 환경적 요인	40 (34.5)
	수시모집의 어려움	3 (2.6)
	수요가 적음	13 (11.2)
	협소한 규모 및 시설	7 (6.0)
	계	116(100.0)
영아(0 - 2세)	시설에 대한 불만족 및 전문보육시설 요구	24 (16.3)
	가정탁아 선호	10 (6.8)
	수요 부족	53 (36.1)
	비싼 보육료(타 보육시설과의 보육료 차이)	25 (17.0)
	부모의 영아 질병발생 및 사망사고 우려	13 (8.8)
	장애아동 거주지역의 방대성	3 (2.0)
	홍보부족	10 (6.8)
	교사의 전문성	7 (4.8)
	보육시설 특성상의 문제	2 (1.4)
	계	147(100.0)

<표 IV-14> 대기 아동

단위 : 개소(%)

연령	시설수(대기아가 있는 시설 대비 비율)	비고
0세	81 (44.0)	184 (59.4)
1세	137 (74.5)	
2세	144 (78.3)	
3-5세	114 (62.0)	
대기아 총수	184(100.0)	
대기아 없음		126 (40.6)
계		310(100.0)

평균 대기아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대기아 수가 많아졌으며, 0세 평균 10명(총대기아 781명), 1세 평균 17명(총대기아 2,325명), 2세 평균 20명(총대기아 2,847명), 3 - 5세 평균 33명(총대기아 3,777명)이었다. 이로써 대기아가 있는 시설 수에서는 2세(78.3%), 1세(74.5%), 3 - 5세(62.0%), 0세(44.0%) 순이었

으나 영유아 수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기아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기아수는 시설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평균 84명)과 법인보육시설(평균 40명)에 집중되어 있었다(민간보육시설 평균 9명, 직장보육시설 5명, 가정보육시설 3명).

이와 같이 각 연령 모두에서 대기아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아직까지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0세에서 5세아 모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육수요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보육시설들을 찾지 못하여 현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더라도 보다 나은 시설들을 찾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V-15> 연령별 평균 대기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0세		1세		2세		3-5세		총대기수	
		평균 (총수)	시설수	평균 (총수)	시설수	평균 (총수)	시설수	평균 (총수)	시설수	평균 (총수)	시설수
지역별	대도시	11 (746)	70	18 (2,158)	117	21 (2,589)	122	33 (3,302)	100	59 (8,797)	150
	중·소	3 (33)	10	9 (166)	19	13 (253)	20	36 (468)	13	29 (922)	32
	군	2 (2)	1	1 (1)	1	3 (5)	2	7 (7)	1	8 (15)	2
유형별	국·공립	13 (695)	52	22 (1,944)	87	27 (2,369)	89	38 (3,028)	79	84 (8,036)	96
	법인	5 (38)	8	15 (300)	20	16 (343)	22	30 (630)	21	40 (1,309)	33
	민간	3 (35)	12	3 (66)	23	4 (115)	27	9 (117)	13	9 (339)	38
	직장	2 (3)	2	2 (2)	1	10 (10)	1	0 (0)	0	5 (15)	3
	가정	1(10)	7	2 (13)	6	2 (10)	5	2 (2)	1	3 (35)	14
전체	평균 (총수)	10 (781)	81	17 (2,325)	137	20 (2,847)	144	33 (3,777)	114	53 (9,734)	184
	최소	1		1		1		2		1	
	최대	80		174		120		225		425	

특수보육 대기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장애아 보육 대기아동은 42개 시설에서 평균 11명 총 461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육은 19개 시설에서 평균 9명, 총 166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자연발생적인 수요이외에도 보육시설들이 장애아나 야간보육을 실시한다는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보육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V-16>.

<표 IV-16> 특수보육 평균 대기 아동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아		야간·24시간 보육	
		평균(총수)	시설수	평균(총수)	시설수
지역별	대도시	12(369)	32	9(157)	17
	중·소	8 (75)	9	5 (9)	2
	군	17 (17)	1	0 (0)	0
유형별	국·공립	11(245)	22	13(105)	8
	법인	12(140)	12	7 (14)	2
	민간	10 (73)	7	6 (38)	6
	직장	3 (3)	1	5 (5)	1
	가정	0 (0)	0	2 (4)	2
전체	평균(총수)	11(461)	42	9 (166)	19
	최소	1		1	
	최대	50		40	

어머니들의 취업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440명의 어머니중 239명(54.3%)이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종일제 취업모와 가내취업모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평균 26명)나 군지역(평균 17명)에 비하여 종일제 취업모가 평균 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내 취업의 경우는 군지역(평균 22명)에서 대도시(평균 9명)나 중·소도시(평균 7명) 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들의 취업유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17, 부표 2>.

<표 IV-17> 지역별 어머니 취업 유형

하위변인	보육시설구분	평균	표준편차	F통계값	사후검증
종일제 취업	전체	31	24.6	3.88*	(1.3)
	대도시	33	26.3		
	중·소도시	26	18.0		
	군	17	9.8		
시간제 취업	전체	10	10.3	1.04	
	대도시	10	10.8		
	중·소도시	8	8.0		
	군	14	10.8		
가내 취업	전체	9	10.5	3.48*	(2.3)
	대도시	9	10.7		
	중·소도시	7	5.4		
	군	22	23.9		
취업 계	전체	41	34.2	2.20	
	대도시	43	37.2		
	중·소도시	33	21.8		
	군	35	24.6		
비취업	전체	17	15.4	.08	
	대도시	17	14.8		
	중·소도시	18	16.8		
	군	16	20.2		

* p < .05 ** p < .005 *** p < .001

4) 보육료

2세미만, 2세, 3세 이상 보육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세 미만 보육료

2세 미만아의 경우 반일제 보육 비용은 평균 176천원(최소 110천원, 최대 318천원)으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군지역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종일제 보육의 경우 평균 240천원(최소 120천원, 최대 380천원)으로 군지역(평균 178천원)이 대도시(평균 244천원)나 중·소도시(234천원)에 비하여 보육료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게 나타났다<표 IV-18>.

<표 IV-18> 지역별, 시간대별 2세 미만 보육료

단위 :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평균	179	166	165	176	244	234	178	240
(최대)	318	210	180	318	380	350	232	380
(최소)	110	116	150	110	160	130	120	120
통계치	F=1.31 df=99 p=.275				F=7.69 df=269 p=.001			
사후검증					(1, 3) (2, 3)			

보육시설 유형별에서는 반일제의 경우 평균 176천원으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일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비용은 239천원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 315천원, 직장보육시설 281천원, 민간보육시설 258천원, 법인보육시설 214천원, 국·공립보육시설 205천원으로 나타나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료가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비용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19>.

서울시가 고시하고 있는 2세 미만 보육료 국·공립보육시설 206천원, 민간보육시설 338천원, 가정보육시설 362천원 등과 비교시 보육현장에서는 정부고시 보육료보다 민간보육시설은 80천원, 가정보육시설은 47천원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소 금액을 받고 있는 시설은 시설 운영상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IV-19>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2세 미만 보육료

단위 :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평균	176	161	178	185	178	176	205	214	258	281	315	239
(최대)	206	206	318	290	260	318	260	338	338	350	380	380
(최소)	120	116	110	130	120	110	130	120	150	220	206	120
통계치	F=.62 df=98 p=.651						F=84.01 df=264 p=.000					
사후검증							(1,3) (1,4) (1,5) (2,3) (2,4) (2,5) (3,5)					

나) 2세 보육료

2세아의 경우 반일제 보육비용은 평균 157천원으로 2세 미만아 176천원에 비하여 19천원 낮았다. 최소비용은 100천원, 최대비용은 300천원으로 지역별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종일제 보육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가 평균 203천원(최소 116천원, 최대 362천원)으로 중·소도시(평균 196천원)나 군지역(평균 152천원)에 비하여 보육료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20>.

<표 IV-20> 지역별, 시간대별 2세 보육료

단위 :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평균	156	150	150	157	203	196	152	200
(최대)	300	210	150	300	362	350	200	362
(최소)	100	100	150	100	116	20	100	20
통계치	F=.24 df=107 p=.785				F=3.48 df=274 p=.032			
사후검증					(1, 3)			

보육시설 유형별에서는 반일제의 경우 평균 157천원으로 직장보육시설(평균 175천원)과 가정보육시설(평균 162천원)에서 국·공립보육시설(평균 145천원)이나 법인보육시설(평균 148천원), 민간보육시설(평균 158천원)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일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비용은 200천원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 269천원, 직장보육시설 241천원, 민간보육시설 214천원, 법인보육시설 179천원, 국·공립보육시설 168천원으로 나타나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료가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비용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21>.

2세아 보육료 역시 서울시가 고시한 국·공립보육시설 168천원, 민간보육시설 274천원, 가정보육시설 362천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정보육시설에서 평균 93천원, 민간보육시설에서 60천원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2세 보육료

단위 :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평균	145	148	158	175	162	157	168	179	214	241	269	200
(최대)	170	200	570	290	230	570	232	300	280	300	362	362
(최소)	100	100	100	115	100	100	116	100	140	180	20	20
통계치	F=.48 df=107 p=.752						F=63.42 df=274 p=.000					
사후검증							(1, 3) (1, 4) (1, 5) (2., 3) (2, 4) (2, 5) (3, 5)					

다) 3세 이상 보육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반일제 보육비용은 평균 136천원으로 2세 미만아 176천원에 비하여 평균 40천원, 2세아 156천원에 비하여 평균 20천원 낮았다. 최소비용은 70천원, 최대비용은 240천원으로 지역별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종일제 보육의 경우에서 대도시가 평균 148천원(최소 105천원, 최대 330천원), 중·소도시 평균 149천원(최소 117천원, 최대 332천원)으로 군지역(평균 122천원)에 비하여 보육료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22>.

<표 IV-22> 지역별, 시간대별 3세 이상 보육료

단위 :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평균	134	145	120	136	148	149	122	147
(최대)	240	232	120	240	330	332	150	332
(최소)	70	100	120	70	105	117	90	90
통계치	F=.65 df=84 p=.525				F=.66 df=212 p=.521			

보육시설 유형별에서는 반일제의 경우 평균 136천원으로 직장보육시설(평균 156천원)과 가정보육시설(평균 144천원), 법인보육시설(평균 146천원)에서 국·공립보육시설(평균 120천원)이나 민간보육시설(평균 131천원)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일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비용은 147천원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 214천원, 직장보육시설 193천원, 민간보육시설 175천원, 법인보육시설 134천원, 국·공립보육시설 118천원으로 나타나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보육비용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23>. 그러나 2세 미만, 2세아에 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정부 고시가 보다 보육료를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비교시 2세 이하에서는 정부 고시 보육료를 다 받고 있지 못하고 3세 이상에서는 더 받고 있어 연령별 보육료 산정을 위한 세부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IV-23>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대별 3세 이상 보육료

단위 : 천원

구분	반일제						종일제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평균	120	146	131	156	144	136	118	134	175	193	214	147
(최대)	206	232	240	200	230	240	206	275	332	250	330	332
(최소)	70	86	97	110	100	70	105	90	119	150	116	90
통계치	F=1.54 df=84 p=.198						F=78.78 df=212 p=.000					
사후검증							(1, 3) (1, 4) (1, 5) (2, 3) (2, 4) (2, 5) (3, 5)					

그 이외에 특수보육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2세 미만아인 경우 222천원(최소 116천원, 최대 337천원), 2세아인 경우 210천원(최소 96천원, 최대 300천원), 3세 이상아인 경우 202천원(최소 113천원, 최대 332천원)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분없이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평균 보육료 193천원으로 정부기준가인 4-6급 장애아 168천원, 1-3급 장애아 206천원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에서는 평균 보육료 220천원으로 정부 기준인 4-6급 장애아 274천원, 1-3급 장애아 338천원과 비교시 보육료를 8-9만원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현황

보육시설들이 보육료 이외에 받고 있는 잡부금은 <표 IV-24>에서와 같이 현

장학습비 187개소(52.8%), 특기교육비 126개소(35.6%), 급·간식비 18개소(5.1%), 차량운영비 8개소(2.3%), 교재·교구비 8개소(2.3%), 기타 7개소(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들이 보육료의 부족분을 잡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 IV-24>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현황

구분	개소(%)
현장학습비	187 (52.8)
특기교육비	126 (35.6)
급·간식비	18 (5.1)
차량운영비	8 (2.3)
교재·교구비	8 (2.3)
기타	7 (2.0)
계	354(100.0)

현장학습비의 경우 시설유형별 잡부금 유무 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시설의 41.2%에서 현장학습비를 받고 있었으며, 특기교육비를 받고 있는 곳은 27.9% 등이었다<표 IV-25>.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비교에서는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부표 3>, 시설유형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현장학습비의 경우 평균 9천원을 받고 있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 평균 8천원으로 다른 시설(국·공립 10천원, 법인 9천원, 민간 10천원, 직장 10천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기교육비는 민간보육시설(평균 31천원)과 직장보육시설(평균 33천원)에서 다른 시설(국·공립보육시설 16천원, 법인보육시설 20천원, 가정보육시설 23천원)보다 평균 10천원 정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량운영비의 경우 민간보육시설(평균 33천원)과 가정보육시설(평균 30천원)에서 다른 시설(국·공립보육시설 24천원, 법인보육시설 10천원)보다 평균 10 - 20천원 정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재교구비를 받고 있는 시설은 가정보육시설(평균 27천원)과 민간보육시설(평균 20천원)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교재교구비는 받고 있지 않았다<표 IV-26>.

<표 IV-25> 시설 유형별 잡부금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현장학습비	95 (53.1)	27 (32.1)	46 (37.4)	5 (38.5)	13 (24.5)	186 (41.2)
특기교육비	61 (34.1)	16 (19.0)	35 (28.5)	3 (23.1)	11 (20.8)	126 (27.9)
급·간식비	4 (2.2)	3 (3.6)	7 (5.7)	1 (7.7)	3 (5.7)	18 (4.0)
차량운영비	3 (1.7)	3 (3.6)	2 (1.6)	0 (0.0)	1 (1.9)	9 (2.0)
교재·교구비	1 (0.6)	2 (2.4)	3 (2.4)	0 (0.0)	2 (3.8)	8 (1.7)
없다	14 (7.8)	31 (36.9)	27 (22.0)	4 (30.8)	22 (41.5)	98 (21.7)
기타	1 (0.6)	2 (2.4)	3 (2.4)	0 (0.0)	1 (1.9)	7 (1.5)
계	179(100.0)	84(100.0)	123(100.0)	13(100.0)	53(100.0)	452(100.0)

<표 IV-26>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평균값

단위: 천원

구분	지역	평균	최대	최소
현장학습비	국·공립	10	80	1
	법인	9	30	3
	민간	10	30	2
	직장	10	15	4
	가정	8	20	1
	계	9	80	1
특기교육비	국·공립	16	40	-
	법인	20	40	7
	민간	31	200	5
	직장	33	40	25
	가정	23	50	5
	계	21	200	-
급·간식비	국·공립	20	20	20
	법인	25	50	6
	민간	24	35	10
	직장	-	-	-
	가정	22	50	5
	계	23	50	5
차량운영비	국·공립	24	60	3
	법인	10	10	10
	민간	33	50	20
	직장	-	-	-
	가정	30	30	30
	계	27	60	3
교재·교구비	국·공립	-	-	-
	법인	4	4	3
	민간	20	30	10
	직장	-	-	-
	가정	27	27	27
	계	16	30	3

마) 정부기준단가와 비교

정부가 고시한 보육단가보다 보육료를 높게 받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총 333개소중 11개소(3.3%)였고, 기준에 따라 받고 있다 52.9%, 기준보다 낮게 받고 있다 43.8%로 나타났다. 기준보다 낮게 받는다고 응답한 시설은 군지역 70.0%, 중·소도시 58.9%, 대도시 38.4%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보육료를 낮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27>.

<표 IV-27> 지역별 정부 기준단가와 비교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높은 편이다	10 (4.0)	1 (1.4)	0 (0.0)	11 (3.3)
기준에 맞는다	144 (57.6)	29 (39.7)	3 (30.0)	176 (52.9)
낮은 편이다	96 (38.4)	43 (58.9)	7 (70.0)	146 (43.8)
계	250(100.0)	73(100.0)	10(100.0)	333(100.0)

정부기준단가와 비교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V-28>에서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기준단가에 맞는다 83.8%, 정부기준단가보다 낮게 받고 있다 15.4%로 대부분 정부기준단가에 따라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설들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단가를 다 받고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50.7%, 민간보육시설 65.9%, 직장보육시설 60.0%, 가정보육시설 57.4%가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8> 시설유형별 정부 기준단가와 비교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높은 편이다	1 (0.9)	0 (0.0)	5 (5.5)	1 (10.0)	4 (8.5)	11 (3.3)
기준에 맞는다	98 (83.8)	33 (49.3)	26 (28.6)	3 (30.0)	16 (34.0)	176 (53.0)
낮은 편이다	18 (15.4)	34 (50.7)	60 (65.9)	6 (60.0)	27 (57.4)	145 (43.7)
계	117(100.0)	67(100.0)	91(100.0)	10(100.0)	47(100.0)	332(100.0)

정부기준단가보다 보육료를 낮게 받는 이유로는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 46개소(25.3%)’,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여서 54개소(29.7%)’,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66개소(36.3%)’ 등으로 나타났다<표 IV-29>.

<표 IV-29> 보육료를 낮게 받는 이유

구분	개소(%)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	46 (25.3)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여서	54 (29.7)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66 (36.3)
정부지원금으로 미수보육료 충당	9 (4.9)
협회에서 결정한 금액(구청과 협의)	5 (2.7)
형평성 원칙에 맞게 (장애아의 등급 수준이 아닌 연령별 수준에 맞게)	2 (1.1)
계	182(100.0)

5) 보육교사

교사모집에서 어려움이 있는가에서는 전체 응답시설중 47.9%(146개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가정보육시설 84.4%, 직장보육시설 77.8%, 민간보육시설 75.6%, 국·공립보육시설 16.2%로 나타나 시설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표 IV-30>.

<표 IV-30> 일반교사 모집시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있다	없다	계
지역별	대도시	117(49.8)	118(50.2)	235(100.0)
	중·소도시	24(39.3)	37(60.7)	61(100.0)
	군	5(55.6)	4(44.4)	9(100.0)
	소계	146(47.9)	159(52.1)	305(100.0)
보육시설 유형별	국공립	18(16.2)	93(83.8)	111(100.0)
	법인	21(36.2)	37(63.8)	58(100.0)
	민간(단체·개인)	62(75.6)	20(24.4)	82(100.0)
	직장	7(77.8)	2(22.2)	9(100.0)
	가정	38(84.4)	7(15.6)	45(100.0)
	계	146(47.9)	159(52.1)	305(100.0)
	통계치	$X^2=100.36$ df=4 p=.000		

일반교사 모집시 어려운 이유로는 ‘소규모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급여 때문에 72개소(35.0%)’, ‘영아보육등 업무량 과다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60개소(29.1%)’, ‘교사 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46개소(22.3%)’, ‘경력자가 부족하며 보육교사 직군 자체에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21개소(10.2%)’ 등으로 나타났다<표 IV-31>.

교사모집의 어려움은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보수등과 연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조사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월평균 1,030천원, 법인보육시설 1,051천원, 민간보육시설 811천원, 직장보육시설 834천원, 가정보육시설 751천원인 점을 들 수 있다.

<표 IV-31> 일반교사 모집시 어려운 이유

단위 : 개소(%)

이유	계
소규모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급여	72 (35.0)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성향(영아보육 등 업무량 과다)	60 (29.1)
교사 수급의 어려움	46 (22.3)
경력자 부족과 높은 이직율	21 (10.2)
학기 중 우수교사 채용 애로	3 (1.5)
지역적인 특성	4 (1.9)
계	206(100.0)

일반 교사모집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47.9%인 것에 반하여 특별교사의 모집에서의 어려움은 80.2%(101개소)로 응답되었다<표 IV-32>.

특별교사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특수교사 자격증 보유자들이 보육시설을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69개소(61.6%)’, ‘전공양성과정 대학 및 특수교사 전공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25개소(22.3%)’, ‘구립과 사설기관, 보육시설과 특수학교의 급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10개소(8.9%)’ 등이 제기 되었다<표 IV-32>.

<표 IV-32> 특별교사 모집시 어려움

구분	개소(%)
없다	25 (19.8)
있다	101 (80.2)
계	126(100.0)

특별교사 모집 어려운 이유	개소(%)
전공양성과정 대학 및 특수교사 전공자 부족	25 (22.3)
보육시설 기피 성향	69 (61.6)
타관련기관의 경력 인정치 않음(어린이집에서의 경력등)	1 (0.9)
구립과 사설기관, 보육시설과 특수학교의 처우와 급여차이 심함	10 (8.9)
찾은 이직	2 (1.8)
지원자 수 저조	5 (4.5)
계	112(100.0)

6) 시설 운영

보육시설들의 컴퓨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응답한 333개소 중 326개 시설(97.9%)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23개소(37.9%)로 가장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최대 37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간에 <표 IV-33>에서와 같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33> 컴퓨터 활용

단위 : 개소

구분	지역			시설유형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국·공립	법인	민간 (단체·개인)	직장	가정	
평균	3	2	2	4	3	2	1	3	3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37	10	6	37	12	21	8	2	37
통계치	F=3.17 df=324 p=.043			F=9.11 df=324 p=.000					
사후검증				(1, 3) (1, 5) (2, 5)					

인터넷 활용 유무에서는 응답시설의 93.4%(296개소)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4>.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보육시설(94.6%)에서 중·소도시(89.9%)나 군지역(88.9%)에 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도 국·공립보육시설(94.7%)이나 법인보육시설(92.2%), 민간보

육시설(95.2%)에 비하여 직장보육시설(90.0%)과 가정보육시설(89.1%)에서 인터넷 활용이 다소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V-34> 인터넷 활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지역			시설유형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국·공립	법인	민간 (단체·개인)	직장	가정	
한다	227 (94.6)	62 (89.9)	8 (88.9)	107 (94.7)	59 (92.2)	80 (95.2)	9 (90.0)	41 (89.1)	296 (93.4)
안 한다	13 (5.4)	7 (10.1)	1 (11.1)	6 (5.3)	5 (7.8)	4 (4.8)	1 (10.0)	5 (10.9)	21 (6.6)
계	240 (100.0)	69 (100.0)	9 (100.0)	113 (100.0)	64 (100.0)	84 (100.0)	10 (100.0)	46 (100.0)	317 (100.0)

보육시설들이 어떤 보험에 들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상해보험)(99.1%)과 시설의 화재에 대비한 화재보험(92.2%)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유형별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99.2%, 100.0%)과 법인보육시설(94.0%, 97.0%)에서는 가입하고 있었으나 민간보육시설(87.0%, 87.0%), 직장보육시설(70.0%, 60.0%), 가정보육시설(57.4%, 55.3%)에서는 가입율이 툇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외의 교사를 위한 건강보험, 학교배상 책임보험, (시설)이행 보증보험 등에서 보험가입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35>.

그 이외에도 보육시설들은 자동차보험(18개소), 가스배상책임보험(8개소), (교사)국민연금(5개소), (교사)상해보험(6개소), (교사)퇴직적금(3개소), 여행보험(야외행사 때)(3개소), 음식물배상보험(1개소)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4>.

보육시설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자녀양육 자료제공’에서 국·공립시설의 64.4%, 법인보육시설의 47.8%, 민간보육시설의 58.7%, 직장보육시설의 90.0%, 가정보육시설의 29.8%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상담하고 있다’에서는 국·공립시설의 69.5%, 법인보육시설의 68.7%, 민간보육시설의 72.8%, 직장보육시설의 100.0%, 가정보육시설의 48.9%

가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웃 어린이에게 보육시설 개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에서는 국·공립시설의 15.3%, 법인보육시설의 23.9%, 민간보육시설의 18.5%, 직장보육시설의 20.0%, 가정보육시설의 8.5%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기여한다는 응답이 매우 낮았다.

‘지역부도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에서는 국·공립시설의 34.7%, 법인보육시설의 43.3%, 민간보육시설의 31.5%, 직장보육시설의 40.0%, 가정보육시설의 2.1%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 등에 비하여 가정보육시설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36>.

<표 IV-35> 보육시설 유형별 보험 가입

단위 : 개소(%)

구분		(교사) 산재보험	(교사) 고용보험	(교사) 건강보험	(영유아) 유아교육기 관종합보험 (상해보험)	(시설) 학교배상 책임보험	(시설) 이행 보증보험	(시설) 화재보험
국 공립	가입 비가입	117 (99.2) 1 (0.8)	118(100.0) 0 (0.0)	102 (86.4) 16 (13.6)	116 (98.3) 2 (1.7)	56 (47.5) 62 (52.5)	70 (59.3) 48 (40.7)	105 (89.0) 13 (11.0)
	소계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법인	가입 비가입	63 (94.0) 4 (6.0)	65 (97.0) 2 (3.0)	54 (80.6) 13 (19.4)	67(100.0) 0 (0.0)	25 (37.3) 42 (62.7)	5 (7.5) 62 (92.5)	64 (95.5) 3 (4.5)
	소계	67(1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민간	가입 비가입	80 (87.0) 12 (13.0)	80 (87.0) 12 (13.0)	34 (37.0) 58 (63.0)	92(100.0) 0 (0.0)	23 (25.0) 69 (75.0)	4 (4.3) 88 (95.7)	86 (93.5) 6 (6.5)
	소계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직장	가입 비가입	7 (70.0) 3 (30.0)	6 (60.0) 4 (40.0)	4 (40.0) 6 (60.0)	10(100.0) 0 (0.0)	6 (60.0) 4 (40.0)	1 (10.0) 9 (90.0)	10(100.0) 0 (0.0)
	소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가정	가입 비가입	27 (57.4) 20 (42.6)	26 (55.3) 21 (44.7)	8 (17.0) 39 (83.0)	46 (97.9) 1 (2.1)	7 (14.9) 40 (85.1)	0 (0.0) 47(100.0)	43 (91.5) 4 (8.5)
	소계	47(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계	가입 비가입	294 (88.0) 40 (12.0)	295 (88.3) 39 (11.7)	202 (60.5) 132 (39.5)	331 (99.1) 3 (0.9)	117 (35.0) 217 (65.0)	80 (24.0) 254 (76.4)	308 (92.2) 26 (7.8)
	소계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통계치		X ² =61.02 df=4 p=.000	X ² =78.09 df=4 p=.000	X ² =104.81 df=4 p=.000	X ² =3.17 df=4 p=.530	X ² =23.34 df=4 p=.000	X ² =126.33 df=4 p=.000	X ² =3.82 df=4 p=.431

<표 IV-36> 보육시설 유형별 지역사회 기여정도

단위 : 개소(%)

구분		자녀양육 자료제공	자녀양육 상담	이웃 어린이 에게 보육시설 개방 프로그램 실시	지역부모 대상 부모교육 실시	기타	없다
국· 공립	기여	76 (64.4)	82 (69.5)	18 (15.3)	41 (34.7)	16 (13.6)	14 (11.9)
	비기여	42 (35.6)	36 (30.5)	100 (84.7)	77 (65.3)	102 (86.4)	104 (88.1)
	소계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118(100.0)
법인	기여	32 (47.8)	46 (68.7)	16 (23.9)	29 (43.3)	5 (7.5)	5 (7.5)
	비기여	35 (52.2)	21 (31.3)	51 (76.1)	38 (56.7)	62 (92.5)	62 (92.5)
	소계	67(1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67(100.0)
민간	기여	54 (58.7)	67 (72.8)	17 (18.5)	29 (31.5)	4 (4.3)	6 (6.5)
	비기여	38 (41.3)	25 (27.2)	75 (81.5)	63 (68.5)	88 (95.7)	86 (93.5)
	소계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직장	기여	9 (90.0)	10(100.0)	2 (20.0)	4 (40.0)	1 (10.0)	0 (0.0)
	비기여	1 (10.0)	0 (0.0)	8 (80.0)	6 (60.0)	9 (90.0)	10(100.0)
	소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가정	기여	14 (29.8)	23 (48.9)	4 (8.5)	1 (2.1)	1 (2.1)	20 (42.6)
	비기여	33 (70.2)	24 (51.1)	43 (91.5)	46 (97.9)	46 (97.9)	27 (57.4)
	소계	47(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계	기여	185 (55.4)	228 (68.3)	57 (17.1)	104 (31.1)	27 (8.1)	45 (13.5)
	비기여	149 (44.6)	24 (51.1)	277 (82.9)	230 (68.9)	307 (91.9)	289 (86.5)
	소계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334(100.0)
통계치		$X^2=23.18$ df=4 p=.000	$X^2=13.72$ df=4 p=.008	$X^2=5.09$ df=4 p=.278	$X^2=24.14$ df=4 p=.000	$X^2=8.82$ df=4 p=.066	$X^2=41.80$ df=4 p=.000

나. 심층면접결과

1) 심층면접대상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보충하여 특수보육시설의 실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영아(전담·통합)시설 14개소, 야간 24시간 시설 12개소, 장애아(전담·통합) 시설 14개소로 총 40개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IV-37> 심층면접 조사기관

구분	영아보육시설 (전담·통합)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장애아시설 (전담·통합)
개소	14개소	12개소	14개소

2) 심층면접 실시

심층면접은 본 연구 연구자, 조사자에 의하여 2002년 9월-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 결과는 영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야간·24시간 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별로 구분하여 정리되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부모 의견, 활성화 방안으로 요약하였다.

가) 영아전담 및 통합어린이집

○ 운영상의 문제점

① 영아모집 및 보육료

- 지역에 따라 새학기 영아반 충원이 어렵다.
- 영아 전담 시설의 경우 영아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수시로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세가 되면 주위의 어린이집 대기자로 명단에 올려놓았다가 순서가 되면 수시로 퇴소하기 때문이다.
- 영아 수를 종일반만 인정하는 정원제는 문제가 있다. 현장 정원의 60% 이상이 반일제이므로 규정 정원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변칙운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영아 보육료(362,000원)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지역의 수준에 따라 책정된 보육료를 다 받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 영아와 유아의 급간식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영아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다. 영아들에게는 유제품과 같은 고가의 제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교사

- 교사 1인당 돌보는 영아의 수가 많아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즉, 씻기기, 밥먹이기, 책 읽어 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할 때 아이를 방치하게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 영아교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기 때문에 학급 운영을 준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영아전담시설의 교사들은 시간 연장 등으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며 區의 예산 지원도 1명 뿐이다. 따라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충원이 가장 어렵다. 교사가 취사부, 행정, 청소, 차량보조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자격을 갖춘 교사들은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 보수교육의 기회가 적어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 영아교사들의 현장 실습은 유치원 교사의 실습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국공립으로만 몰려 놀이방과 같은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자가 적다.

③ 프로그램

- 월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실내·외 환경구성 및 프로그램, 교재교구가 부족하다.
- 타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가 없어 교육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부모들의 의식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 강사 인건비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④ 통합시설의 어려움

- 영아와 큰 반 유아들간 월령별 차이로 인해 영아들이 피해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영아들을 위한 독립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 통합시설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 정원비율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즉, 영아의 경우 한번 입소하면 변동사항이 없어 저소득층 대기자는 신학기가 되어도 들어오기 어렵다.

⑤ 지원

- 영아전담(놀이방)의 경우 자가이면서 단독 건물이 아니면 교사인건비 지원이 안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직장 자녀 입소 비율을 50%로 맞추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 영아의 수가 적다고 채용된 교사를 임의로 퇴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많다.
- 영아를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의 별도 지원이 없다.
-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에 필요한 소독기, 공기 청정기, 멸균실, 기저귀 갈이대, 세면시설, 샤워시설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 영아들의 발달에 맞는 이유식,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리사의 지원이 부족하다.

⑥ 지역사회와의 연계

- 소규모 시설의 경우 간호사 지원이 안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의료혜택 제도가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
- 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영아들의 보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원봉사자, 보조교사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견학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부모 의견

- ① 영아 전담시설은 유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유아 통합시설보다 영아와 부모들에게 이점이 많다. 그러나 퇴소 후 마땅히 맡길 곳이 주변에 없고, 구립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유아 통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다.
- ② 저소득층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기자가 많아 들어오기 매우 어렵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조건 국·공립보육시설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 ③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가 비싸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구립시설 정도의 보육료로 낮추어 주길 바란다.

○ 활성화 방안

- ①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입소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새학기가 되면 지역에 따라 영아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입소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원 충원에 대한 기관의 부담도 줄어 들 것이다.
- ② 차등보육료제 실시로 아동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보육료 단가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별 지원보다 아동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일부 기관의 변칙적인 운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 ③ 월령별에 따른 교사대 아동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영아와 교사의 비율, 영아와 교사의 비율이 3:1로 조정되어 보호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교사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 영아 교사들의 지원은 아동수 변동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교사 수급도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다.
 - 교사들에게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 영아반도 월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한 실내외 환경 구성, 프로그램, 교재교구가 있어야 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유아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교사들에게 장기적인 연구의 기회와 연구비가 부여된다면 영아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타 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 ⑥ 영아를 위한 별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환경구성이 이루어져

야 한다.

- 통합 시설에서는 영아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유아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미비한 보육시설 설비는 교사들의 노동력 손실을 유발시키므로 영아를 위한 수면실, 놀이실, 기저귀 갈이대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다면 노동력 손실을 줄이고 영아들의 생활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⑦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고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⑧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지원 체계의 확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와 연계된 의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자원활동센터의 자원 활동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에 소속된 시설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무료로 개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저소득 계층 영아의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비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야간·24시간 보육

○ 운영상의 문제점

① 아동 및 부모의 성향

- 보육아동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해체·이혼,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다. 대부분 애정 결핍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발달도 늦은 편이어서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어려운 생활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방치하는 경향이 많

다. 국경일이나 휴일에도 기관에 맡기는 등 보육시설에 많이 의존한다. 일부 부모들은 고아원보다 손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 편부모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아동이 다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② 보육료

- 24시간제 보육료가 150 - 250% 인상되어 저소득층 부모들은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데 특히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그렇다.

③ 교사

- 24시간 야간보육 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밤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기 쉽고, 고된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때문이다.
- 대리모의 역할 수행과 같은 특별 보육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 교사들은 영아돌연사, 질식사 등 영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로 인해 기관에서는 영영아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밤늦은 시간 부모들이 술에 취해 수시로 아이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교사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밤늦게 아이를 데리로 오는 이유는 보육료가 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 2교대의 경우 일반 교사와 야간 교사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적 연계가 부족하고 교사로서 소속감을 갖기도 어렵다.
- 24시간 보육시설장들간에 정보교환의 통로가 전혀 없어 문제점과 개선점을 공유하기 어렵다.

④ 지원

- 24시간 보육에 대한 홍보 지원이 미흡하여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기관의 인원 충원 부족현상으로 이어진다.
- 야간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야간 취사부가 없어 아이들은 두끼 이상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게 되어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사부의 역할을 교사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 24시 보육시설 졸업 후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다시 방과후 아동으로 지내게 되는데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없다.

- 저소득 지원대상의 아동들 중에는 구비서류 부족으로 실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동의 부모와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⑤ 환경

- 24시 보육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환경을 가진 곳이 많다.
- 주간보육 공간과 야간보육 공간을 따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공간확보가 어렵다. 또 엄마들의 24시 보육 아동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주간보육 아동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 부모 의견

- ① 보육료가 인상되어 매우 어렵다. 저소득층의 영아들이 많으므로 보육료의 일 부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 활성화 방안

- ① 24시 보육 아동과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 한다.
 - 정서적 불안정, 공격적 성향, 식탐, 물건에 대한 집착 등 애정 결핍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부모들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② 보육료의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 10월 이후 보육료가 150 - 250% 인상되어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열악한 가정에서 영아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 보육료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③ 보육교사들의 24시간 보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사들에게는 대리모 역할 수행과 같이 24시 보육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훈련 과정 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24시간 보육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행정·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에서는 24시간 보육시설 간의 Network을 형성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 24시간 보육아동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아동 수에 상관없이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야간 취사부를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덜어 주도록 한다.
- ⑤ 일관된 관리 및 운영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4시간 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부모들이 지켜야 할 의무 및 준수 사항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부모가 숙지하게 해야 한다.
- ⑥ 취침 등 24시간 보육을 위한 독립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현재의 보육시설들은 주간과 병행하는 곳이 많다. 교실을 주간 보육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므로 야간보육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교사와 아동에게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
- ⑦ 방과후 아동에 대한 야간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 24시간 야간보육을 받은 아동은 퇴원 할 연령이 되어도 맡아 줄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 장애아 보육

○ 운영상의 문제점

① 교사(일반교사/특수교사)

- 통합시설에 근무하는 일반교사들은 장애아에 대한 인식과 문제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반면 특수교육 교사들은 일반 보육을 하려고 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다.
- 특수치료사의 처우가 낮아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놀이, 음악, 미술치료 등 체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② 전담시설의 문제점

- 전담 시설의 경우 보육내용의 질이 떨어지고 특수 교사로 등록된 교사들이 실제로는 보조교사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 시설장, 취사부,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법인, 국·공립에 비해 운영이 어렵다.

- 부모들이 전담시설보다 통합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다.

③ 지원

-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3:1로 일률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 아동만 입소 가능하여 사실상 중증 장애 아동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 장애아를 둔 부모가 심리적 부담 없이 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 치료기관에 따라 놀이 및 특수치료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천차만별이다. 세금공제가 안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 장애영아는 영아명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다.
- 오후 시간에 장애아가 남아 있을 경우 교사가 장애아를 돌보기 어려워므로 교사 2교대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시나 구의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원이 일정치 않은 것도 문제이다.

④ 환경

- 공간적인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렵다. 모든 활동에 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활동에 따라 장애 아동이 개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필요하다.

○ 부모의견

- ① 장애아에게는 통합시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애아 전담 시설보다 통합을 선호하게 된다. 많은 유아보육시설에서 장애아 통합을 해주길 바라는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장애아 통합을 해주었으면 한다.
- ② 통합시설 졸업 후 장애아들은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우며 특히 고등학교 이후에는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초등학교에 특수교사 지원을 요청하는 공청회 등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③ 장애아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치료를 실시 할 수 있는 체계와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④ 장애아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사교육비도 부담이 되며 아이를 돌보느라 인간관계도 원활하지 못해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에 시달리기도 한다.
- ⑤ 일반 교사는 특수교사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아이를 대한다. 따라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아에 대한 기본 이해, 의식 전환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장애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⑦ 비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 ⑧ 미취학 장애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길 바란다.
- ⑨ 초등학교로 진학한 장애아에게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교육적으로 방치되지 않았으면 한다.
- ⑩ 장애아들의 경우 유급되어도 취학전까지 지속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

○ 활성화 방안

- ① 장애아 대상 교사 양성 및 수급 체계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일반 유아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가 특수보육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을 경우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교사 수급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보육학과 등이 서로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조정된다면 특수교사 양성 및 일반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취득에 보완이 될 것이다.
- ② 국·공립위주의 통합시설 확충과 지원, 입소시 우선 순위에 장애아를 고려해야 한다.
 - 장애아는 정상아들과 통합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낼 때 적응력 등에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장애아에게 관심을 갖고 입소시에도 우선 순위를 배정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 ③ 장애아동 등급에 따른 교사배치 제도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장애아의 장애 등급과 장애 성향을 고려한 교사대 아동 비율이 하향조절되어야 한다. 현재 10명당 언어치료사를 지원하는 기준을 낮추어 적은 아동의 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아가 있는 원에는 2교대 교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 교사당 아동의 수 1:3으로는 경증 아동만 입소하게 되므로 아동 수에 따른 교사배치가 아니라 아동 장애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교사배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④ 특수교사 지역사회 순환 근무제 도입을 실시한다.
 - 비용적인 문제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의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 특수교사가 일정한 시설에 상주하기 보다 구청이나, 지역의 복지관 등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시설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순환제 방식의 치료사제도를 도입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 ⑤ 장애아 부모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통합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임상적인 소견서 만으로 입소 가능하게 하여 부모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장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차등보육료제 도입과 가계 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여 아동과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건강보험 적용 등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설치료기관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⑦ 장애아들을 위한 평생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장애아들은 통합시설 졸업 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장애아들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⑧ 장애아를 위한 지역사회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장애아들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 및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아 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소결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18개소(35.3%)로 가장 많았고, 민간보육시설 92개소(27.6%), 법인보육시설 67개소(20.1%), 가정보육시설 47개소(14.1%), 직장보육시설 10개소(3.0%)이었다.
- 조사대상 보육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유아 전담율이 23.7%로 다른 시설에 비하여 높았다. 영아 전담의 경우 가정보육시설(42.4%)과 민간보육시설(36.8%)에서 높았다.
 - 운영 시간대에 따른 시설운영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4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반일제 프로그램 운영 21.2%, 야간 프로그램 운영 13.6%, 24시간 프로그램 운영 10.1%, 휴일 프로그램 운영 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비교에서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대도시(14.7%)에서 다른 지역(중·소도시 10.9%, 군 6.3%)에 비해 운영율이 높았다.
 - 시간대별 운영은 시설 유형간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특수 보육프로그램인 야간 프로그램은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에서, 24시간 보육프로그램은 국·공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다른 시설에 비하여 운영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프로그램에서 특수보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 가에서는 응답자의 44.8%(150개소)가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비해 특수보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시설에서 특수보육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기존시설 중 특수보육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수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보육시설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22.1%)’,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20.3%)’,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17.8%)’, ‘인성지도(16.7%)’ 순이었다. 유형별 지원방안에서는 유형별 운영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영유아 및 부모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 모집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유아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44.2%, 영아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모집에서의 어려움은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 보육시설들의 44%정도가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4개소(59.4%)에서는 대기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대기 영유아 수는 평균 53명으로 총대기아가 9,7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명에서 최대 425명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대기아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대기아 수가 많아졌다. 0세 평균 10명(총대기아 781명), 1세 평균 17명(총대기아 2,325명), 2세 평균 20명(총대기아 2,847명), 3 - 5세 평균 33명(총대기아 3,777명)이었다. 또 대기아가 있는 시설 수에서는 2세(78.3%), 1세(74.5%), 3 - 5세(62.0%), 0세(44.0%) 순으로 영유아 수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기아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기아수는 시설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평균 84명)과 법인보육시설(평균 40명)에 집중되어 있었다(민간보육시설 평균 9명, 직장보육시설 5명, 가정보육시설 3명).
- 각 연령 모두에서 대기아가 있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0세에서 5세아 모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육수요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보육시설들을 찾지 못하여 현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더라도 보다 나은 시설들을 찾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특수보육 대기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장애아 보육 대기아동은 42개 시설에서 평균 11명, 총 42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육은 19개 시설에서 평균 9명, 총 166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자연발생적인 수요이외에도 보육시설들이 장애아나 야간보육을 실시한다는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보육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머니들의 취업여부 질문에 총 440명의 어머니 중 239명(54.3%)이 취업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평균 26명)나 군지역(평균 17명)에 비하여 종일제 취업모가 평균 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내취업의 경우는 군지역(평균 22명)에서 대도시(평균 9명)나 중·소도시(평균 7명)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들의 취업유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보육료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세 미만아의 경우 반일제 보육 비용은 평균 176천원, 종일제 보육의 경우 평균 240천원였다. 종일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비용은 239천원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 315천원, 직장보육시설 281천원, 민간보육시설 258천원, 법인보육시설 214천원, 국·공립보육시설 205천원으로 나타나 보육현장에서는 정부고시 보육료와 비교시 민간보육시설은 80천원, 가정보육시설은 47천원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세아 보육료 역시 서울시가 고시한 국·공립보육시설 168천원, 민간보육시설 274천원, 가정보육시설 362천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정보육시설에서 평균 93천원, 민간보육시설에서 60천원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종일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비용은 147천원이었으나 가정보육시설 214천원, 직장보육시설 193천원, 민간보육시설 175천원, 법인보육시설 134천원, 국·공립보육시설 118천원으로 나타나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보육비용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세 미만, 2세아에 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정부 고시가 보다 보육료를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비교시 2세 이하에서는 정부 고시 보육료를 다 받고 있지 못하고 3세 이상에서는 더 받고 있어 연령별 보육료 산정을 위한 세부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현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기준단가와 비교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의 15.4%가 정부기준단가보다 낮게 받아 대부분 고시된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설들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단가를 다 받고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50.7%, 민간보육시설 65.9%, 직장보육시설 60.0%, 가정보육시설 57.4%가 정보고시 단가보다 낮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정부기준단가보다 보육료를 낮게 받는 이유로는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 46개소(25.3%)’,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여서 54개소(29.7%)’,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66개소(36.3%)’ 등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사와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사모집에서 어려움이 있는가에서는 전체 응답시설중 47.9%(146개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모집의 어려움은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보수등과 연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조사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월평균 1030천원, 법인보육시설 1051천원, 민간보육시설 811천원, 직장보육시설 834천원, 가정보육시설 751천원이었다.
-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시설유형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99.2%, 100.0%)과 법인보육시설(94.0%, 97.0%)에서는 가입하고 있었으나 민간보육시설(87.0%, 87.0%), 직장보육시설(70.0%, 60.0%), 가정보육시설(57.4%, 55.3%)에서는 가입율이 툭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사를 위한 건강보험, 학교배상 책임보험, (시설)이행 보증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의견분석

보육시설 실태 분석을 실시한 335개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근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장 의견조사는 335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고, 보육교사 설문지는 375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가. 시설장 의견조사

1) 일반사항

응답 시설장들의 92.0%(298명)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26명이었으며, 법인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 - 39세가 40.3%, 40 - 49세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42세였다. 시설유형별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의 경우

30 - 39세가 46.5%로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비율이 높아 가정보육시설 시설장들의 연령이 다소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장들의 급여는 <표 IV-39>에서와 같이 평균 보육경력 9년, 기타경력 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급여는 1,373천원이었다. 최소 500천원에서 최고 3,000천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평균 1,427천원), 법인보육시설(평균 1,404천원), 민간보육시설(평균 1,348천원), 가정보육시설(평균 1,264천원), 직장보육시설(평균 1,243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경력에서 직장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낮았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표 IV-38>.

<표 IV-38> 시설장 일반 사항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성별	여자	111 (95.7)	52 (80.0)	83 (93.3)	7 (77.8)	45(100.0)	298 (92.0)
	남자	5 (4.3)	13 (20.0)	6 (6.7)	2 (22.2)	0 (0.0)	26 (8.0)
	계	116(100.0)	65(100.0)	89(100.0)	9(100.0)	45(100.0)	324(100.0)
연령(세)	25 - 29	3 (2.6)	2 (3.1)	3 (3.4)	0 (0.0)	1 (2.3)	9 (2.8)
	30 - 39	40 (35.1)	27 (42.2)	38 (43.2)	3 (33.3)	20 (46.5)	128 (40.3)
	40 - 49	42 (36.8)	20 (31.3)	37 (42.0)	4 (44.4)	18 (41.9)	121 (38.1)
	50 - 59	22 (19.3)	7 (10.9)	9 (10.2)	2 (22.2)	4 (9.3)	44 (13.8)
	60 - 64	7 (6.1)	8 (12.5)	1 (1.1)	0 (0.0)	0 (0.0)	16 (5.0)
	계	114(100.0)	64(100.0)	88(100.0)	9(100.0)	43(100.0)	318(100.0)
	평균	43	44	43	42	41	42
급여(천원)	- 500	0 (0.0)	1 (1.8)	3 (4.4)	0 (0.0)	1 (2.8)	5 (1.9)
	501 - 1,000	9 (9.3)	6 (10.7)	27 (39.7)	3 (42.9)	15 (41.7)	61 (23.0)
	1,001 - 1,500	60 (61.9)	39 (69.6)	23 (33.8)	3 (42.9)	13 (36.1)	138 (52.1)
	1,501 - 2,000	26 (26.8)	8 (14.3)	11 (16.2)	1 (14.3)	6 (16.7)	52 (19.6)
	2,001 - 2,500	2 (2.1)	2 (3.6)	2 (2.9)	0 (0.0)	0 (0.0)	6 (2.3)
	2,501 -	0 (0.0)	0 (0.0)	2 (2.9)	0 (0.0)	1 (2.8)	3 (1.1)
	계	97(100.0)	56(100.0)	68(100.0)	7(100.0)	36(100.0)	265(100.0)
	평균	1,427	1,404	1,348	1,243	1,264	1,373
	최소	750	800	650	800	500	500
	최대	2,500	2,200	3,000	2,000	2,000	3,000

시설장들의 경력은 6 - 10년이 40.6%로 가장 높았고, 1- 5년 31.8%, 11 - 15년 16.7% 순이었으며, 20년 이상인 시설장도 10명(3.2%)이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 평균 10년, 민간보육시설 평균 9년, 법인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각각 8년이었으며, 가정보육시설이 6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표 IV-39> 시설장 경력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보육경력 (년)	1 - 5	29 (25.2)	23 (35.9)	26 (29.5)	3 (33.3)	20 (47.6)	101 (31.8)
	6 - 10	38 (33.0)	31 (48.4)	38 (43.2)	4 (44.4)	18 (42.9)	129 (40.6)
	11 - 15	27 (23.5)	5 (7.8)	16 (18.2)	1 (11.1)	4 (9.5)	53 (16.7)
	16 - 20	15 (13.0)	3 (4.7)	6 (6.8)	1 (11.1)	0 (0.0)	25 (7.9)
	21 - 25	4 (3.5)	0 (0.0)	1 (1.1)	0 (0.0)	0 (0.0)	5 (1.6)
	26 - 30	2 (1.7)	2 (3.1)	1 (1.1)	0 (0.0)	0 (0.0)	5 (1.6)
	계	115(100.0)	64(100.0)	88(100.0)	9(100.0)	42(100.0)	318(100.0)
	평균	10	8	9	8	6	9
	최소	1	1	4	2	1	1
	최대	28	30	20	18	14	30
기타경력 (년)	1 - 5	22 (34.9)	13 (31.7)	15 (32.6)	0 (0.0)	11 (52.4)	61 (35.1)
	6 - 10	17 (27.0)	15 (36.6)	21 (45.7)	3(100.0)	4 (19.0)	60 (34.5)
	11 - 15	9 (14.3)	5 (12.2)	6 (13.0)	0 (0.0)	2 (9.5)	22 (12.6)
	16 - 20	6 (9.5)	4 (9.8)	3 (6.5)	0 (0.0)	1 (4.8)	14 (8.0)
	21 - 25	5 (7.9)	2 (4.9)	1 (2.2)	0 (0.0)	2 (9.5)	10 (5.7)
	26 - 30	4 (6.3)	2 (4.9)	0 (0.0)	0 (0.0)	1 (4.8)	7 (4.0)
	계	63(100.0)	41(100.0)	46(100.0)	3(100.0)	21(100.0)	174(100.0)
	평균	11	11	9	9	9	10
	최소	1	1	2	7	2	1
	최대	40	32	20	10	27	40

시설장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33.5%(109명)로 가장 높았고, 3년제 이하 대학교 졸업 31.4%(102명), 대학원 졸업 26.5%(86 명) 순이었고 고등학교 졸업도 8.6%(28명)나 되었다. 시설유형별에서는 국·공립보육시

설에서 대학원 졸업이 41.5%로 법인보육시설(29.2%), 민간보육시설(17.8%), 직장보육시설(11.1%), 가정보육시설(2.3%)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25.6%로 가장 높아 시설장의 학력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가장 높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장들의 전공은 유아교육학이 42.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사회복지학 17.1% 순이었다<표 IV-40>.

<표 IV-40> 시설장 학력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단체·개인)	직장	가정	계
최종 학력	고졸	4 (3.4)	4 (6.2)	7 (7.8)	2 (22.2)	11 (25.6)	28 (8.6)
	대학교졸(3년제 이하)	29 (24.6)	14 (21.5)	38 (42.2)	3 (33.3)	18 (41.9)	102 (31.4)
	대학교졸(4년제 이상)	36 (30.5)	28 (43.1)	29 (32.2)	3 (33.3)	13 (30.2)	109 (33.5)
	대학원	49 (41.5)	19 (29.2)	16 (17.8)	1 (11.1)	1 (2.3)	86 (26.5)
	계	118(100.0)	65(100.0)	90(100.0)	9(100.0)	43(100.0)	325(100.0)
전공	보육학	3 (2.1)	1 (1.6)	12 (13.2)	0 (0.0)	7 (17.1)	23 (6.6)
	유아교육학	70 (47.9)	23 (37.7)	37 (40.7)	3 (42.9)	13 (31.7)	146 (42.2)
	사회복지학	36 (24.7)	13 (21.3)	7 (7.7)	0 (0.0)	3 (7.3)	59 (17.1)
	아동(복지)학	6 (4.1)	5 (8.2)	5 (5.5)	0 (0.0)	0 (0.0)	16 (4.6)
	가정(관리)학	6 (4.1)	3 (4.9)	4 (4.4)	1 (14.3)	3 (7.3)	17 (4.9)
	간호학	0 (0.0)	1 (1.6)	0 (0.0)	1 (14.3)	4 (9.8)	6 (1.7)
	교육학	11 (7.5)	4 (6.6)	10 (11.0)	0 (0.0)	2 (4.9)	27 (7.8)
	영양학	1 (0.7)	0 (0.0)	2 (2.2)	0 (0.0)	0 (0.0)	3 (0.9)
	기타	13 (8.9)	11 (18.0)	14 (15.4)	2 (28.6)	9 (22.0)	49 (14.2)
	계	146(100.0)	61(100.0)	91(100.0)	7(100.0)	41(100.0)	346(100.0)

시설장들의 97.2%는 보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4명)과 법인보육시설(5명)에서 자격증이 없는 시설장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28.0%로 가장 높았고, 2급 유치원정교사 23.1%, 1급 유치원정교사 21.0% 순이었다. 법인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33.8%로 가장 높았고, 2급 유치원정교사 16.9%, 특수교사 15.5% 순

이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급 보육교사가 30.2%로 월등히 높았고, 2급 유치원정교사 23.6%순으로 국·공립이나 법인에 비하여 시설장들의 학력이 다소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1급 보육교사(44.5%, 34.0%)와 2급 보육교사(33.3%, 32.0%)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41>.

<표 IV-41> 보육관련 자격증 종류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단체·개인)	직장	가정	계
자격증	있다	111 (96.5)	60 (92.3)	89(100.0)	9(100.0)	46(100.0)	315 (97.2)
	없다	4 (3.5)	5 (7.7)	0 (0.0)	0 (0.0)	0 (0.0)	9 (2.8)
	계	115(100.0)	65(100.0)	89(100.0)	9(100.0)	46(100.0)	324(100.0)
자격증 종류	1급 보육교사	15 (10.5)	9 (12.7)	32 (30.2)	4 (44.5)	17 (34.0)	77 (20.3)
	2급 보육교사	4 (2.8)	8 (11.3)	16 (15.1)	3 (33.3)	16 (32.0)	47 (12.4)
	1급 유치원정교사	30 (21.0)	4 (5.6)	8 (7.5)	1 (11.1)	2 (4.0)	45 (11.9)
	2급 유치원정교사	33 (23.1)	12 (16.9)	25 (23.6)	0 (0.0)	10 (20.0)	80 (21.1)
	특수교사	4 (2.8)	11 (15.5)	7 (6.6)	1 (11.1)	1 (2.0)	24 (6.3)
	사회복지사	40 (28.0)	24 (33.8)	7 (6.6)	0 (0.0)	2 (4.0)	73 (19.2)
	교사자격증	11 (7.7)	2 (2.8)	4 (3.8)	0 (0.0)	1 (2.0)	18 (4.7)
	기타	6 (4.2)	1 (1.4)	7 (6.6)	0 (0.0)	1 (2.0)	15 (4.0)
	계	143(100.0)	71(100.0)	106(100.0)	9(100.0)	50(100.0)	379(100.0)

2) 시설운영 관련 내용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서는 4점 척도에서 ‘그저 그렇다’와 ‘대체로 만족한다’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만족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던 요인은 보수(2.05), 시설설비(2.43), 규모(2.46)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시설장들이 보수나 시설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급·간식 운영(3.25), 안전관리 운영(3.18), 교사자격(3.00)으로 나타났다<표 IV-42>.

<표 IV-42> 보육시설 운영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4) 매우 만족한다	3) 대체로 만족한다	2) 그저 그렇다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체	평균
물리적 환경	시설의 위치	61 (18.5)	162 (49.1)	72 (21.8)	35 (10.6)	330(100.0)	2.75
	규모	41 (12.5)	130 (39.5)	97 (29.5)	61 (18.5)	329(100.0)	2.46
	설비	31 (9.4)	129 (39.2)	118 (35.9)	51 (15.5)	329(100.0)	2.43
인적 환경	교사의 전문성	38 (11.6)	218 (66.7)	64 (19.6)	7 (2.1)	327(100.0)	2.90
	자격	57 (17.4)	215 (65.5)	48 (14.6)	8 (2.4)	328(100.0)	3.00
	보수	7 (2.2)	97 (30.4)	106 (33.2)	109 (34.2)	319(100.0)	2.05
보육 서비스 내용	운영시간	30 (9.2)	199 (60.9)	60 (18.3)	38 (11.6)	327(100.0)	2.68
	프로그램 운영	42 (12.8)	234 (71.6)	47 (14.4)	4 (1.2)	327(100.0)	2.98
	급·간식 운영	105 (32.0)	203 (61.9)	18 (5.5)	2 (0.6)	328(100.0)	3.25
	안전관리 운영	82 (25.2)	216 (66.5)	25 (7.7)	2 (0.6)	325(100.0)	3.18
	차량운행 운영	36 (17.8)	102 (50.5)	45 (22.3)	19 (9.4)	202(100.0)	2.77
보육료 수납		19 (6.8)	153 (54.4)	85 (30.2)	24 (8.5)	281(100.0)	2.62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 이유를 <표 IV-43>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18.0%(358명)’, ‘교사들이 좋아서 13.7%(272명)’, ‘프로그램이 좋아서 11.9%(238명)’, ‘환경이 좋아서 11.3%(225명)’, ‘가깝고 활용에 편리하여서 11.1%(220명)’ 순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영아전담시설의 경우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20.0%(64명)’, ‘영아를 받아주므로(16.9%)’가 높게 응답되었고, 장애아 전담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아를 받아 주므로(25.0%)’, ‘프로그램이 좋아서 21.1%(27명)’,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18.8%(24명)’의 이유가 높게 응답되었다.

시설장들이 정부의 보육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에서는 대부분(관심이 매우 높다 79.7%, 조금 있다 18.2%)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4>.

세부적으로 보육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을 시설장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서는 세부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5>.

<표 IV-43>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 이유

단위 : 명(%)

구분	유아전담	영아전담	영유아 통합	장애아 전담	일반·장애 아 통합	계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14 (19.7)	64 (20.0)	186 (17.9)	24 (18.8)	70 (16.4)	358 (18.0)
프로그램이 좋아서	12 (16.9)	22 (6.9)	125 (12.0)	27 (21.1)	52 (12.1)	238 (11.9)
환경이 좋아서	6 (8.5)	48 (15.0)	116 (11.2)	10 (7.8)	45 (10.5)	225 (11.3)
교사들이 좋아서	12 (16.9)	44 (13.8)	142 (13.7)	21 (16.4)	53 (12.4)	272 (13.7)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6 (8.5)	34 (10.6)	101 (9.7)	3 (2.3)	43 (10.0)	187 (9.4)
가깝고 활용에 편리하여서	9 (12.7)	32 (10.0)	130 (12.5)	4 (3.1)	45 (10.5)	220 (11.1)
비용이 가장 적게 들므로	4 (5.6)	19 (5.9)	96 (9.2)	7 (5.5)	42 (9.8)	168 (8.5)
영아를 받아주므로	4 (5.6)	54 (16.9)	101 (9.7)	0 (0.0)	40 (9.3)	199 (10.0)
장애아를 받아주므로	4 (5.6)	2 (0.6)	35 (3.4)	32 (25.0)	34 (7.9)	107 (5.4)
원장의 인격	0 (0.0)	1 (0.3)	6 (0.6)	0 (0.0)	4 (0.9)	11 (0.6)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식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0.1)	0 (0.0)	0 (0.0)	1 (0.1)
계	71(100.0)	320(100.0)	1,039(100.0)	128(100.0)	428(100.0)	1,986(100.0)

<표 IV-44> 시설장의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구분	관심이 매우 높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계
시설장 수	267(79.7)	61(18.2)	5(1.5)	0(0.0)	333(100.0)

<표 IV-45> 보육시설 유형별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 인지정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단체·개인)	직장	가정	계
만5세 무상교육	잘 알고 있다	104 (88.1)	63 (94.0)	78 (85.7)	6 (60.0)	33 (71.7)	284 (85.2)
	조금 알고 있다	14 (11.9)	4 (6.0)	13 (14.3)	4 (40.0)	13 (28.3)	48 (14.5)
	잘 모른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혀 모른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18(100.0)	67(100.0)	91(100.0)	10(100.0)	46(100.0)	332(100.0)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잘 알고 있다	112 (94.9)	66 (98.5)	84 (92.3)	8 (80.0)	36 (78.3)	306 (92.2)
	조금 알고 있다	6 (5.1)	1 (1.5)	7 (7.7)	2 (20.0)	10 (21.7)	26 (7.8)
	잘 모른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혀 모른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18(100.0)	67(100.0)	91(100.0)	10(100.0)	46(100.0)	332(100.0)
보육·유아 교육비용 소득공제	잘 알고 있다	106 (89.8)	61 (91.0)	69 (76.7)	8 (80.0)	31 (67.4)	275 (83.1)
	조금 알고 있다	10 (8.5)	6 (9.0)	14 (15.6)	2 (20.0)	11 (23.9)	43 (13.0)
	잘 모른다	2 (1.7)	0 (0.0)	7 (7.8)	0 (0.0)	4 (8.7)	13 (3.9)
	전혀 모른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18(100.0)	67(100.0)	91(100.0)	10(100.0)	46(100.0)	332(100.0)
육아휴직제도	잘 알고 있다	89 (75.4)	50 (74.6)	48 (53.3)	3 (30.0)	23 (51.1)	213 (64.5)
	조금 알고 있다	19 (16.1)	12 (17.9)	31 (34.4)	5 (50.0)	14 (31.1)	81 (24.5)
	잘 모른다	10 (8.5)	5 (7.5)	11 (12.2)	2 (20.0)	8 (17.8)	36 (10.9)
	전혀 모른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18(100.0)	67(100.0)	91(100.0)	10(100.0)	46(100.0)	332(100.0)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잘 알고 있다 92.2%, 조금 알고 있다 7.8%)’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만5세 무상교육(잘 알고 있다 85.2%, 조금 알고 있다 14.5%)’,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잘 알고 있다 83.1%, 조금 알고 있다 13.0%)’, ‘육아휴직제도(잘 알고 있다 64.5%, 조금 알고 있다 24.5%)’ 순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인지가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인지정도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 비하여 민간보육시설에서 인지 정도가 다소 낮았고, 직장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서 인지 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중점을 둔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3.0%로 반대한다(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 유형에 따라 응답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찬성한다 41.4%)에 비하여 법인보육시설(찬성한다 59.7%)이나 민간보육시설(찬성한다 58.8%), 가정보육시설(찬성한다 59.6%)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V-46>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찬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포함)	가정	계
찬성한다	48 (41.4)	40 (59.7)	60 (58.8)	28 (59.6)	176 (53.0)
반대한다	68 (58.6)	27 (40.3)	42 (41.2)	19 (40.4)	156 (47.0)
계	116(100.0)	67(100.0)	102(100.0)	47(100.0)	332(100.0)
통계치	$X^2=9.70$ $df=3$ $p=.021$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찬성 이유로는 ‘맞벌이 부모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1.3%(55명)’,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30.7%(54명)’, ‘연계된 교육환경의 효율성이 있으므로 19.3%(34명)’, 사설학원(보습학원)에 비하여 보육의 질이 높으므로 8.5%(15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IV-47>.

<표 IV-47>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찬성 이유

구분	명(%)
맞벌이 부모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55 (31.3)
외동아이들에게 혼합연령의 장점 살릴 수 있음	4 (2.3)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4 (30.7)
가정같은 분위기 유지	8 (4.5)
사설학원(보습학원)에 비해 보육의 질이 높으므로	15 (8.5)
국·공립 시설 활용	1 (0.6)
초등학교 1,2학년만 보육 가능	5 (2.8)
연계된 교육환경의 효율성이 있으므로	34 (19.3)
계	176(100.0)

한편 시설장들이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영유아 전담보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37.6%(77명)’,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 등을 달리해야 하므로 26.8%(55명)’, 초등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22.0%(45명)’, ‘초등학생의 보육에 따른 교사수급, 시설,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8.8%(18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IV-48>.

한편 시설장들은 <표 IV-49>에서와 같이 방과후 보육시설로 적절한 장소로 ‘방과후 전담시설 29.3%(117명)’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23.8%(95명)’, ‘어디라도 공간이 허락하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 17.8%(71명)’, ‘복지관 13.5%(54명)’, ‘어린이집 10.0%(40명)’ 순으로 바람직한 장소를 제안하였다.

<표 IV-48>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운영 반대 이유

구분	명(%)
영유아와 초등생의 발달특성 고려, 교육환경 등을 달리해야 함	55 (26.8)
초등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의 전문성 결여	45 (22.0)
초등학생의 보육에 따른 교사수급, 시설, 재정 마련 어려움	18 (8.8)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을 꺼림	3 (1.5)
부모의 사설학원 선호	4 (1.9)
전담보육에 지장 초래	77 (37.6)
집과의 거리가 멀(희망자 소수)	1 (0.5)
지역사회 복지관이 바람직	2 (0.9)
계	205(100.0)

<표 IV-49> 방과후 보육으로 적절한 장소

구분	명(%)
초등학교	95 (23.8)
어린이집	40 (10.0)
복지관	54 (13.5)
기타 공공시설	8 (2.0)
종교시설	9 (2.3)
어디라도 공간이 허락하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	71 (17.8)
방과후 전담시설	117 (29.3)
각 연령에 적합한 곳	5 (1.3)
계	399(100.0)

3) 어려운점 및 제안 사항

시설장들이 보육시설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서는 1순위에 서 ‘보육아동 모집에서의 어려움’이 24.0%로 가장 높아 본 조사에 응답한 보육 시설들중 184개소에서 대기아가 있는 것(평균 53명, 총대기아가 9,730명)과 대 조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적인 문제(21.3%)’, ‘행정(서류)업무 과 중 (18.2%)’, ‘종사자 관리(관계) (13.1%)’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 어려움에서는 ‘종사자 관리(관계) (22.2%)’, ‘재정적인 문제 (16.0%)’, ‘행정(서류)업무 과중 (13.2%)’,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의 어려움 (13.2%)’, ‘보육아동 모집에서의 어려움 (10.8%)’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어려움에서는 ‘종사자 관리(관계)(28.2%)’, ‘재정적인 문제(14.6%)’, ‘아 동부모와의 관계(12.7%)’,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에서의 어려움(11.4%)’, ‘행정(서류)업무 과중(11.4%)’으로 나타나 보육시설들이 원아모집과 운영, 재정 적인 어려움, 종사자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50>.

<표 IV-50> 순위별 보육시설 운영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보육아동모집	79 (24.0)	35 (10.8)	25 (7.9)
보육료 미납	7 (2.1)	19 (5.8)	13 (4.1)
종사자 관리(관계)	43 (13.1)	72 (22.2)	89 (28.2)
행정(서류)업무	60 (18.2)	43 (13.2)	36 (11.4)
행정기관의 관계	18 (5.5)	25 (7.7)	24 (7.6)
아동부모와의 관계	9 (2.7)	26 (8.0)	40 (12.7)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32 (9.7)	43 (13.2)	36 (11.4)
재정적인 문제	70 (21.3)	52 (16.0)	46 (14.6)
융자금(부채) 상환	8 (2.4)	9 (2.8)	7 (2.2)
탁아소 수준으로 인식	2 (0.6)	1 (0.3)	0 (0.0)
안전관리(사고 발생시)	1 (0.3)	0 (0.0)	0 (0.0)
계	329(100.0)	325(100.0)	316(100.0)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요인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요인으로는 보육관련 법·제도, 시설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시설 운영, 행정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IV-51>.

<표 IV-51> 법·제도 관련 지원 요구 내용

구 분			명(%)	
법, 제도	공공성	보육의 공보육화(전보육아 무상교육)	15 (5.3)	15 (5.3)
	교사	종사자 관리, 지원개선	40(14.1)	
		경력인정조항 완화	14 (4.9)	
	소계		54 (19.0)	
	시설운영	영아전담시설 확대	8 (2.8)	
		어린이집의 공식적인 방학 도입	5 (1.8)	
		교사대 아동수 비율 검토	10 (3.5)	
		안전 보호	2 (0.7)	
	소계		25 (8.8)	
	부처관련 사항	상위부처에서 정해진 사항에 무조건 적용	2 (0.7)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계정립	9 (3.2)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종사자를 구청에서 관리(이관)	7 (2.5)	
		각 시도의 특성과 문화질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법령이나 하부법 적용	13 (4.6)	
		제도(관리부서)의 일원화	1 (0.4)	
	소계		32 (11.4)	
	시설관리, 확충	공공기관 부설 보육시설 확충	6 (2.1)	
		신고제에서 허가제(인가제)로	16 (5.7)	
		지원을 위한 법개정	34(12.0)	
		시설별 거리 제한 도입	10 (3.5)	
		보육아동 지역입학제도입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 영유아 우선입소 원칙(국·공립)	2 (0.7)	
		법과 제도 인식 용이를 위한 쉬운 해설 첨부	3 (1.1)	
		인원제한 폐지	15 (5.3)	
		놀이방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허가 허용	3 (1.1)	
	소계		89 (31.4)	
	국·공립 시설운영	국·공립 시설 위탁제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으로 전환	11 (3.9)	
		국·공립 시설에 일정비율 장애아동 보육 의무화	2 (0.7)	
		시설장의 현실적 운영을 위한 개인위탁제도 도입	2 (0.7)	
		시설장 재량 확대 및 자율성 보장	4 (1.4)	
		40인 미만 시설도 시설장 지원	3 (1.1)	
	소계		22 (7.8)	
	보육료 지원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	9 (3.2)	
		보육료 차등 적용제도 확대	8 (2.8)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3 (1.1)	
		무상교육 확대 실시	19 (6.7)	
	소계		39 (13.8)	
	시설장	시설장에 대한 보수 및 처우 개선	7 (2.5)	7 (2.5)
계			283(100.0)	

보육관련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에서는 ‘시설의 관리, 확충에 대한 지원요구’가 89건(31.4%)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관련 지원’ 54건(19.0%), ‘보육료 지원 정비’ 39건(13.8%) 순이었다. 시설의 관리, 확충에 대한 지원요구와 관련해서는 ‘시설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부설 보육시설 확충’, ‘신고제에서 허가제(인가제)로 환원’, ‘시설별 거리 제한 도입’, ‘보육아동 지역 입학제 도입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 영유아 국·공립시설 우선 입소’, ‘법과 제도 인식 확대를 위한 쉬운 해설 첨부’, ‘인원제한 폐지’, ‘놀이방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허가 허용’ 등이 제안되었다.

보육교사 관련 내용으로는 ‘종사자 관리, 지원 개선’이 40건으로 많았고, ‘경력 인정조항 완화’가 제안되었다.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 ‘영유아에 따른 보육료 차등 적용제도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무상교육 확대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 그 이외에도 보육관련 법·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는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현실적 조정 등을 포함한 시설운동을 위한 개선, 지역사회단체별로 융통성 있는 운영 보장 등을 포함한 보육전달체계 관련 내용,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 관련 사항 등이 제안되었다.

시설환경과 관련한 지원요구는 <표 IV-52>에서와 같이 제안되었다. 우선 ‘시설 개·보수 지원 요구’가 103건(42.2%)로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2000년도말 현재 18,004개소의 보육시설중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인 1990년도까지 설립된 시설은 1,288개소(7.2%)이었고,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설립된 시설은 4,342개소(24.1%),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설립된 시설은 12,374개소(68.7%)로 설립이 오래된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시설 정화 요구 54건(22.1%)’, ‘지역사회시설과의 체계적 연계방안 모색 31건(12.7%)’, ‘추가 시설 요구 29건(11.9%)’, ‘교재·교구 지원 요구 17건(7.0%)’ 등이었다.

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교사지원 다양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86건(79.2%)’, ‘국가권장 프로그램 평준화 모색 28건(11.9%)’, ‘교재, 교구 개발, 보급 21건(8.9%)’ 등으로 제안되어 시설장들은 국가단위의 기준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해 주되 지역별, 시설별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IV-52> 시설환경, 프로그램 지원 요구 내용

구분		명(%)
시설환경	시설 개·보수 지원 요구	103 (42.2)
	주변시설 정화 요구	54 (22.1)
	시설의 공공성 명시	4 (1.6)
	지역사회시설과의 체계적 연계방안 모색	31 (12.7)
	추가 시설 요구	29 (11.9)
	교재·교구 지원	17 (7.0)
	안전 충분히 고려된 2층 보육시설 허용	6 (2.5)
	소계	244(100.0)
프로그램	국가권장 프로그램 평준화 모색	28 (11.9)
	교사지원 다양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86 (79.2)
	교재, 교구 개발, 보급	21 (8.9)
	소계	235(100.0)

보육교사 관련 지원 내용으로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153건(40.2%)으로 가장 많아 보육교사들의 처우 불균형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전문화 방안 마련 98건(25.7%)’, ‘근무조건 개선 47건(12.3%)’, ‘교사자격증제도화, 교사인력은행, 교사평가 등 보육교사 관리방안 개설 29건(7.6%)’, ‘교사양성기관의 일원화 17건(4.5%)’, ‘경력관리 개선 14건(3.7%)’ 등이 제안되었다<표 IV-53>.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서 보육교사가 1순위 요인임을 고려할 때 보육의 발전방안 마련에서는 교사의 근무조건 향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53> 보육교사관련 지원 요구 내용

구분	명(%)
처우개선 방안 마련	153 (40.2)
교육, 전문화 방안 마련	98 (25.7)
근무조건 개선	47 (12.3)
경력관리 개선	14 (3.7)
교사자격증제도화, 교사인력은행, 교사평가 등 관리방안 개설	29 (7.6)
교사양성기관의 일원화	17 (4.5)
기타	23 (6.0)
소계	381(100.0)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 56건(34.6%)’, ‘운영인력 개선 25건(15.4%)’, ‘시설의 자율성 확대 24건(14.8%)’, ‘지원방식 개선 21건(13.0%)’, ‘기자재, 교재·교구 지원 16건(9.9%)’, ‘운영방식 개선 11건(6.8%)’ 등이 제안되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시설관리와 지원연계 시스템 구축 54건(32.9%)’, ‘문서 간소화 및 전산화 45건(27.4%)’, ‘행정인력의 전문화 방안 모색 37건(22.6%)’, ‘행정 감독 철저 13건(7.9%)’, ‘행정인력 증대 11건(6.7%)’ 등이 제안되어 전문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54>.

<표 IV-54> 시설운영, 행정지원, 평가인증제 지원 요구내용

구분		명(%)
시설운영	운영방식 개선	11 (6.8)
	운영인력 개선	25 (15.4)
	운영비 지원, 확대	56 (34.6)
	기자재, 교재·교구 지원	16 (9.9)
	시설의 자율성 확대	24 (14.8)
	지원방식 개선	21 (13.0)
	기타	9 (5.6)
	소계	156(100.0)
행정지원	행정인력 증대	11 (6.7)
	행정인력의 전문화 방안 모색	37 (22.6)
	문서 간소화 및 전산화	45 (27.4)
	시설장 교육 강화	4 (2.4)
	시설관리와 지원연계 시스템 구축	54 (32.9)
	행정 감독 철저	13 (7.9)
	소계	164(100.0)
평가인증제	실시전 충분한 시험기간 거쳐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 필요	47 (27.8)
	보육시설의 이상형에 대한 기준설정 기회	13 (7.7)
	환경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행정지원 후 평가인증제 도입 필요(시기상조)	49 (29.0)
	시설 수준별 평가 기준 달리 해야함	14 (8.3)
	외형적 조건보다 교사의 보육마인드를 평가는 것 우선	2 (1.2)
	우수시설 인센티브 적용, 열악한 시설은 도태유도	21 (12.4)
	평가 후 기준미달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필요	13 (7.7)
	형식적이고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	9 (5.3)
	전국 시설 같은 기준으로 평가	1 (0.6)
	소계	169(100.0)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안으로는 평가인증제도는 보육환경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행정지원 문제를 해결한 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그 이전에는 시기상조이다) 49건(29.0%)가 가장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실시 전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쳐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7건(27.8%)’,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열악한 시설은 도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건(12.4%)’, ‘시설 수준별 평가 기준을 달리 해 주어야 할 것이다 14건(8.3%)’, ‘평가 후 기준미달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3건(7.7%)’, ‘보육시설의 이상형에 대한 기준 설정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13건(7.7%)’, ‘형식적이고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9건(5.3%)’ 등으로 바람직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이로써 시설장들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도입시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운영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보육,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야간·24시간 보육 등에 대하여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은 <표 IV-55>에서와 같이 응답되었다.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응답이 238건(31.5%)으로 가장 높았다. 그 중 ‘영아교사 전문화, 지원 확대’가 6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현장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 42건(17.6%)’,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대 37건(15.5%)’, ‘보육의 질적 향상과 개선 방안 마련 33건(13.9%)’, ‘영아전문 프로그램 개발 시급 28건(11.8%)’, ‘영아 보육료(수당) 지원 확대 22건(9.2%)’, ‘영아보육의 공교육화 6건(2.5%)’ 등이었다.

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60건이 응답되었다. 그 중 ‘교사지원 확대’가 61건(38.1%)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지원 55건(34.4%)’, ‘보육료 지원확대 28건(17.5%)’,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10건(6.3%)’, ‘유아보육의 공보육화 4건(2.5%)’, ‘지역사회관련 기관과의 지원체계 법제화 2건(1.3%)’이 제안되었다.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189건이 응답되었다. 우선 ‘보육교사 지원’이 59건(31.2%)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교육의 활성화 32건(16.9%)’, ‘장애아 무상 보육 28건(14.8%)’,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26건(13.8%)’,

‘교사대 장애아동 비율 하향 조정 23건(12.2%)’, ‘장애아 보육 운영지원 13건 (6.9%)’, ‘부모 교육 우선 실시등 장애아 부모 지원 4건(2.1%)’, ‘행정기관과의 장애아 전담 위원회 설치 4건(2.1%)’ 등이 제안되었다.

<표 IV-55> 보육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명(%)	
영아보육	교사대 아동비율 하향조정(현실화)	42 (17.6)	238 (31.5)
	영아전문 프로그램 개발 시급	28 (11.8)	
	보육의 질적 향상과 개선 방안	33 (13.9)	
	영아교사 전문화, 지원 확대	69 (29.0)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대	37 (15.5)	
	영아보육의 공교육화	6 (2.5)	
	보육료 지원 확대	22 (9.2)	
	지역사회관련 기관과의 유대 강화	1 (0.4)	
	소계	238(100.0)	
장애아보육	교사대 아동 비율 하향 조정	23 (12.2)	189 (25.0)
	통합교육 활성화	32 (16.9)	
	행정기관과의 장애아전담위원회 설치	4 (2.1)	
	장애아 무상 보육	28 (14.8)	
	장애아 보육 운영지원	13 (6.9)	
	보육교사 지원	59 (31.2)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26 (13.8)	
	장애아 부모 지원(부모 교육 우선)	4 (2.1)	
	소계	189(100.0)	
유아보육	보육료 지원확대	28 (17.5)	160 (21.2)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지원	55 (34.4)	
	교사지원 확대	61 (38.1)	
	유아보육의 공보육화	4 (2.5)	
	지역사회관련 기관과의 지원체계 법제화	2 (1.3)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10 (6.3)	
	소계	160(100.0)	
야간·24시간보육	야간담당 종사자 지원 확대	77 (57.0)	135 (17.8)
	야간 프로그램 운영 환경 지원	19 (14.1)	
	보육비 조정, 지원 확대	21 (15.6)	
	안전사고 대비 방안 마련	11 (8.1)	
	교재·교구 개발 및 활성화	4 (3.0)	
	공보육 시설의 확대	3 (2.2)	
	소계	135(100.0)	

야간·24시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135건이 응답되었다. 우선 ‘야간 담당 종사자 지원 확대’가 77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비 조정, 지원 확대 21건(15.6%)’, ‘야간 프로그램 운영 환경 지원 19건(14.1%)’, ‘안전사고 대비 방안 마련 11건(8.1%)’, ‘교재·교구 개발 및 활성화 4건(3.0%)’, ‘공보육 시설의 확대 3건(2.2%)’ 등으로 제안되었다.

기타 제안으로는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10건)’,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개발, 확대되어야 한다(5건)’, ‘공공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지원되어야 한다(5건)’, ‘국·공립보육시설 구분없이 모든 형태의 시설에 균등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4건)’, ‘교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3건)’, ‘시설 용자 원금상환이 장기 분할되기 바란다(2건)’, ‘국·공립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2건)’, ‘취학연령 이후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1건)’, ‘새로운 입안 적용 전후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1건)’,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1건)’와 같이 제안되었다. 이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는 미래보육 환경을 전망하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보육교사 의견조사

1) 일반사항

응답 보육교사들의 99.5%(370명)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2명(0.5%)이었다. 기혼은 148명(39.9%)이었고, 미혼은 223명(60.1%)이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60.1%(220명), 30~39세 34.4%(120명), 40세 이상은 5.5%(2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9세였다.

보육교사들의 경력은 <표 IV-56>, <표 IV-57>에서와 같이 평균 4.7년, 보육 외 기타 경력은 평균 4.4년이었다. 보육 경력은 112명(31.8%)이 3~4년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보수는 940.6천원이었고 501천원에서 1,000천원을 받는 교사가 224명(72.0%)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임금은 400천원이었고, 1,500천원이 가장 많이 받는 급여였다. 초과 근무 수당은 평균 49.8천원이었고, 특별활동 수당은 평균 61.2천원이었다. 보육교사들 370명(98.7%)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5명(1.3%)뿐이었다. 자격증 종류로는 2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가 121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2급 보육교

<표 IV-56> 보육교사 일반사항

구분		명(%)
성별	여자	370 (99.5)
	남자	2 (0.5)
	소계	372(100.0)
혼인	기혼	148 (39.9)
	미혼	223 (60.1)
	소계	371(100.0)
연령	20~29세	220 (60.1)
	30~39세	126 (34.4)
	40세 이상	20 (5.5)
	소계	366(100.0)
	평균 29.2 최소 20 최대 53	
경력	1~2년	76 (21.6)
	3~4년	112 (31.8)
	5~6년	80 (22.7)
	7~8년	46 (13.1)
	9~10년	30 (8.5)
	11년 이상	8 (2.3)
	소계	352(100.0)
	평균 4.7 최소 1 최대 15	
보육 외 기타 경력	1~2년	44 (40.7)
	3~4년	23 (21.3)
	5~6년	19 (17.6)
	7~8년	11 (10.2)
	9~10년	7 (6.5)
	11년 이상	4 (3.7)
	소계	108(100.0)
	평균 4.4 최소 1 최대 20	

<표 IV-57> 보육교사 평균 보수

구분		명(%)
월평균 보수	50만원 미만	5 (1.6)
	501천원~100만원	224 (72.0)
	101만원~150만원	82 (26.4)
	소계	311(100.0)
	평균 940.6 최소 400 최대 1,500	
초과근무 수당	5만원~30만원	11 (50.0)
	31만원~50만원	8 (36.4)
	51만원 이상	3 (13.6)
	소계	22(100.0)
	평균 49.8 최소 5 최대 200	
특별활동 수당	5만원~30만원	4 (30.8)
	31만원~50만원	4 (30.8)
	51만원 이상	5 (38.5)
	소계	13(100.0)
	평균 61.2 최소 15 최대 100	

사 114명(31.1%), 1급 보육교사 103명(28.1%), 1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 12명(3.3%),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8명(2.2%) 순이었다.

자격증 취득 경로는 관련 대학 졸업시 취득한 경우가 198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164명(44.4%)이었다<표 IV-56>.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교 졸업이 170명(47.1%), 대학교 졸업 108명(29.9%) 순이었다. 고졸 이하도 72명(19.9%)이었다. 전공학과는 유아교육학이 167명(5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육학 23명(8.1%), 사회복지학 20명(7.0%), 아동복지학 18명(6.3%), 가정관리학 9명(3.2%), 교육학 4명(1.4%) 순이었다<표 IV-58>, <표 IV-59>.

<표 IV-58>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종류

구분		명(%)
자격증 유무	있다	370 (98.7)
	없다	5 (1.3)
	소계	375(100.0)
자격증 종류	1급 보육교사	103 (28.1)
	2급 보육교사	114 (31.1)
	1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	12 (3.3)
	2급 유치원정교사(1급 보육교사)	121 (33.1)
	특수교사	2 (0.5)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8 (2.2)
	자격없음	1 (0.3)
	기타	5 (1.4)
	소계	366(100.0)
자격증 취득 경로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164 (44.4)
	관련 대학 졸업	198 (53.7)
	관련 대학원 졸업	4 (1.1)
	기타	3 (0.8)
	소계	369(100.0)

<표 IV-59> 보육교사 학력 및 전공

구분		명(%)
최종 학력	고졸 이하	72 (19.9)
	대학졸(3년제 이하)	170 (47.1)
	대학졸(4년제 이상)	108 (29.9)
	대학원	11 (3.0)
	소계	361(100.0)
전공	보육학	23 (8.1)
	유아교육학	167 (58.6)
	사회복지학	20 (7.0)
	아동(복지)학	18 (6.3)
	가정(관리)학	9 (3.2)
	교육학	4 (1.4)
	영양학	1 (0.4)
	기타	43 (15.1)
	소계	285(100.0)

2) 시설운영 관련 내용

보육교사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수는 연령별로 0~12개월 영아 1~3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26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4~5명 담당은 20명(39.2%) 이었다. 그러나 6~9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5명(9.8%)이나 되었다. 평균 4명을 돌보고 있으나 많게는 9명까지 돌보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들이 희망하는 담당 영유아의 수는 1~3명으로 71명(87.7%)으로 가장 높았다.

12~24개월 영아를 교사 1명당 5명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46.4%로 가장 많았고, 6~9명 32.1%, 1~4명 21.4% 순이었다. 평균 5명을 돌보고, 최대 9명까지 돌보고 있었다. 교사들이 희망하는 영아 수는 1~4명 72명(57.1%), 5명 38.1% 순이었다.

2세 영아는 교사 1명당 7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6명 33.1%, 8~9명 31.5%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6명을 돌보고 있으며, 최대 9명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희망 영유아 수는 1~6명으로 76명(57.1%)이 답하였다.

3세 유아는 교사가 1~20명을 담당하는 경우가 67명(86.0%)으로 가장 많았고, 21~30명을 돌보는 교사도 11명(12.8%)이나 되었다. 교사가 희망하는 3세 담당 영유아 수는 1~20명으로 응답자 전원(100.0%)이 희망하였다.

4세아는 보육교사가 1~2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59명(79.7%)으로 가장 높게 답하였다. 평균 16명을 담당하고 최대 38명까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희망 4세 영유아 수는 1~20명이 94.4%로 가장 많았다.

5세아의 경우 1~20명을 보육교사 61명(68.5%)이 가장 높게 담당하고 있으며, 21~30명 29.2%, 31명 이상 2.2% 순이었다. 평균적으로 유아 17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최대 41명을 돌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들이 희망하는 담당 유아수는 1~20명으로 89.6% 이었다.

보육교사들은 0~12개월은 1~3명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선을 제시하고 있다. 12~24개월 영아는 1~4명을, 2세 영아는 1~6명, 3세 이상 5세아는 1~20명이 담당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V-60>.

특수보육담당교사의 경우 장애아는 1~3명을 돌보는 교사가 18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4~5명 24.5%, 8~9명 20.8% 순이었다. 평균적으로 3명을 돌보고 있었다. 희망 영유아 수는 1~3명으로 72.7%가 답하였다.

야간보육은 영유아 1~3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27.8%, 4~5명 22.2%, 6~

7명 22.2% 등의 순이었다. 평균 교사 1명당 영유아 7명을 돌보고 있었으며, 최대 20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육교사들의 희망 영유아 수는 4~5명(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60> 연령별 담당 영유아 수

단위 : 명(%)

구분		현재 담당 영유아 수	희망 담당 영유아 수
0 - 12개월	1 - 3	26 (51.0)	71 (87.7)
	4 - 5	20 (39.2)	10 (12.3)
	6 - 9	5 (9.8)	0 (0.0)
	소계	51(100.0)	81(100.0)
	평균, 최대, 최소	4, 9, 1	3, 5, 1
12 - 24개월	1 - 4	24 (21.4)	72 (57.1)
	5	52 (46.4)	48 (38.1)
	6 - 9	36 (32.1)	6 (4.8)
	소계	112(100.0)	126(100.0)
	평균, 최대, 최소	5, 9, 1	4, 7, 1
2세	1 - 6	41 (33.1)	76 (57.1)
	7	44 (35.5)	35 (26.3)
	8 - 9	39 (31.5)	22 (16.5)
	소계	124(100.0)	133(100.0)
	평균, 최대, 최소	6, 9, 1	6, 9, 1
3세	1 - 20	67 (86.0)	101(100.0)
	21 - 30	11 (12.8)	0 (0.0)
	31 이상	1 (1.2)	0 (0.0)
	소계	86(100.0)	101(100.0)
	평균, 최대, 최소	13, 44, 1	10, 20, 1
4세	1 - 20	59 (79.7)	84 (94.4)
	21 - 30	14 (18.9)	5 (5.6)
	31 이상	1 (1.4)	0 (0.0)
	소계	74(100.0)	89(100.0)
	평균, 최대, 최소	16, 38, 1	14, 30, 1
5세	1 - 20	61 (68.5)	95 (89.6)
	21 - 30	26 (29.2)	11 (10.4)
	31 이상	2 (2.2)	0 (0.0)
	소계	89(100.0)	106(100.0)
	평균, 최대, 최소	17, 41, 2	16, 30, 1

24시간 보육은 영유아 1~3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5명(62.5%)이었고, 4~5명은 3명(37.5%)이었다. 평균 3명을 돌보고 있으며, 희망 영유아 수는 1~3명으로 55.6%가 높게 응답하였다.

휴일보육은 4~5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50.5%(2명)이었으며, 휴일보육을 실행하는 곳이 많지 않아 응답자 수가 적었다<표 IV-61>.

<표 IV-61> 특수보육 담당 영유아 수

단위: 명(%)

구분		현재 담당 영유아 수	희망 영유아 수
장애아	1 - 3	18 (34.0)	48 (72.7)
	4 - 5	13 (24.5)	14 (21.2)
	6 - 7	9 (17.0)	3 (4.5)
	8 - 9	11 (20.8)	1 (1.5)
	10 이상	2 (3.8)	0 (0.0)
	소계	53(100.0)	66(100.0)
	평균, 최대, 최소	3, 8, 1	5, 13, 1
야간	1 - 3	5 (27.8)	3 (23.1)
	4 - 5	4 (22.2)	7 (53.8)
	6 - 7	4 (22.2)	1 (7.7)
	8 - 9	1 (5.6)	1 (7.7)
	10 이상	4 (22.2)	1 (7.7)
	소계	18(100.0)	13(100.0)
	평균, 최대, 최소	7, 20, 1	6, 15, 1
24시간	1 - 3	5 (62.5)	5 (55.6)
	4 - 5	3 (37.5)	4 (44.4)
	6 - 7	0 (0.0)	0 (0.0)
	8 - 9	0 (0.0)	0 (0.0)
	10 이상	0 (0.0)	0 (0.0)
	소계	8(100.0)	9(100.0)
	평균, 최대, 최소	3, 5, 1	3, 5, 1
휴일	1 - 3	1 (25.0)	0 (0.0)
	4 - 5	2 (50.0)	1 (33.3)
	6 - 7	0 (0.0)	0 (0.0)
	8 - 9	1 (25.0)	1 (33.3)
	10 이상	0 (0.0)	1 (33.3)
	소계	4(100.0)	3(100.0)
	평균, 최대, 최소	5, 10, 1	17, 35, 5

<표 IV-62>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보육시 중점을 두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30.3%(213명)’, ‘인성지도 29.8%(210명)’, ‘안전한 보호 29.1%(20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 내용에 비슷하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공립시설에서는 ‘인성지도 33.5%(92명)’,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32.0%(88명)’, ‘안전한 보호 26.9%(74명)’의 순으로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인시설은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37.2%(55명)’, ‘안전한 보호 25.0%(37명)’, ‘인성지도 23.6%(35명)’ 순이었다. 민간시설에서는 중점 보육 내용을 ‘인성지도 30.7%(51명)’, ‘안전한 보호 30.1%(50명)’,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27.7%(46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장시설에서는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과 ‘안전한 보호’가 각각 29.2%(14명), ‘인성지도 27.1%(13명)’ 순이었다. 가정시설에서는 ‘안전한 보호 (44.8%)’, ‘인성지도 (28.4%)’,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14.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시설에서는 ‘안전한 보호’가 다른 시설보다 응답한 비율이 높아 영아의 안전을 다른 내용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IV-62> 시설 유형별 중점 보육 내용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88 (32.0)	55 (37.2)	46 (27.7)	14 (29.2)	10 (14.9)	213 (30.3)
인성지도	92 (33.5)	35 (23.6)	51 (30.7)	13 (27.1)	19 (28.4)	210 (29.8)
안전한 보호	74 (26.9)	37 (25.0)	50 (30.1)	14 (29.2)	30 (44.8)	205 (29.1)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13 (4.7)	13 (8.8)	14 (8.4)	2 (4.2)	7 (10.4)	49 (7.0)
부모와의 관계	2 (0.7)	3 (2.0)	2 (1.2)	0 (0.0)	0 (0.0)	7 (1.0)
특별 프로그램	6 (2.2)	2 (1.4)	2 (1.2)	3 (6.2)	1 (1.5)	14 (2.0)
기타	0 (0.0)	3 (2.0)	1 (0.6)	2 (4.2)	0 (0.0)	6 (0.9)
계	275(100.0)	148(100.0)	166(100.0)	48(100.0)	67(100.0)	704(100.0)

보육시설 운영 평가에서는 보육교사들은 시설 설비가(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51.9%, 잘 운영되고 있다 37.7%)잘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가정(3.43), 직장(3.36), 국·공립(3.31), 법인

(3.22), 민간(3.14)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부표 5>.

교사 관리에서도 보육교사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56.1%(206명)’, ‘잘 운영되고 있다 36.8%(135명)’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운영 평가에서는 234명(63.8%)이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라고 답하였고 113명(30.8%)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공립이(3.33)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이 3.17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전체적으로 3.25의 수준을 나타냈다.

급·간식 운영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잘 운영되고 있다 53.1%,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42.9%)고 답하였다.

안전관리 운영 평가(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56.1%, 잘 운영되고 있다 40.2%)도 대부분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시설별로는 국·공립(3.44)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차량운행 운영은(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48.6%, 잘 운영되고 있다 42.3%) 잘 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전체적인 운영 정도는 4점 척도에서 3.30으로 나타났으며, 민간(3.42)이 가장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관리는 148명(47.4%)이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128명(41.0%)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표 IV-63><부표 5>.

<표 IV-63> 보육시설 운영 평가

단위 : 명(%)

구분	잘 운영되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계
시설 설비	138(37.7)	190(51.9)	34(9.3)	4(1.1)	366(100.0)
교사 관리	135(36.8)	206(56.1)	22(6.0)	4(1.1)	367(100.0)
프로그램 운영	113(30.8)	234(63.8)	17(4.6)	3(0.8)	367(100.0)
급·간식 운영	197(53.1)	159(42.9)	14(3.8)	1(0.3)	371(100.0)
안전관리 운영	149(40.2)	208(56.1)	13(3.5)	1(0.3)	371(100.0)
차량운행 운영	93(42.3)	107(48.6)	12(5.5)	8(3.6)	220(100.0)
재정관리	128(41.0)	148(47.4)	31(9.9)	5(1.6)	312(100.0)

부모들의 시설 이용 주요 이유는 <표 IV-64>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20.3%(321명)’, ‘환경이 좋아서 11.8%(186명)’, ‘늦

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11.6%(184명)', '프로그램이 좋아서 11.5% (181명)', '교사들이 좋아서 11.4%(180명)', '가깝고 활용이 편리하여서 11.0% (174명)' 순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64> 부모들의 시설이용 주요 이유

구분	명(%)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321 (20.3)
프로그램이 좋아서	181 (11.5)
환경이 좋아서	186 (11.8)
교사들이 좋아서	180 (11.4)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184 (11.6)
가깝고 활용에 편리하여서	174 (11.0)
비용이 적게 들므로	139 (8.8)
영아를 받아주므로	161 (10.2)
장애아를 받아주므로	54 (3.4)
계	1,580(100.0)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대부분(관심이 매우 높다 54.1%, 조금 있다 43.8%)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시설의 보육교사들이 64.0%(16명)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법인 58.7%(44명), 국·공립 56.1%(83명), 민간 50.6%(43명) 순이었고, 가정시설이 37.1%(13명)으로 가장 낮았다<표 IV-65>.

<표 IV-65>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계
관심이 매우 높다	83 (56.1)	44 (58.7)	43 (50.6)	16 (64.0)	13 (37.1)	199 (54.1)
조금 있다	63 (42.6)	30 (40.0)	40 (47.1)	9 (36.0)	19 (54.3)	161 (43.8)
별로 없다	2 (1.4)	1 (1.3)	2 (2.4)	0 (0.0)	3 (8.6)	8 (2.2)
계	148(100.0)	75(100.0)	85(100.0)	25(100.0)	35(100.0)	368(100.0)

세부적으로 보육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육교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에서는 세부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잘 알고 있다 62.0%’, ‘조금 알고 있다 32.4%’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잘 알고 있다 51.5%’, ‘조금 알고 있다 41.6%’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 ‘잘 알고 있다 46.8%’, ‘조금 알고 있다 34.4%’, ‘육아휴직제도’ ‘잘 알고 있다 39.0%’, ‘조금 알고 있다 35.8%’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인지가 가장 낮았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공립시설과 직장, 법인시설이 민간시설에 비해 인지 정도가 높았다<표 IV-66>.

<표 IV-66> 자녀양육 지원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구 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모른다	계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192(51.5)	155(41.6)	23 (6.2)	3 (0.8)	373(100.0)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232(62.0)	121(32.4)	19 (5.1)	2 (0.5)	374(100.0)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	174(46.8)	128(34.4)	60(16.1)	10(2.7)	372(100.0)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포함)	145(39.0)	133(35.8)	72(19.4)	22(5.9)	372(100.0)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는 <표 IV-67>과 같다. 근무환경에 대해 ‘다소 만족하다 209명(56.6%)’, ‘매우 만족하다 74명(20.1%)’로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담당 영유아수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다 193명(52.7%)’, ‘매우 만족하다 61명(16.7%)’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연수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다 51.3%’, ‘매우 만족하다 14.0%’로 답해 비교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다소 만족하다 48.1%’, ‘매우 만족하다 16.4%’로 응답하였다. 고용의 안정성은 ‘다소 만족하다 47.9%’, ‘매우 만족하다 25.5%’,로 나타나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를 위한 복리후생은 ‘다소 만족하다 44.0%’,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36.51%로 답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설장과의 관계에서는 53.3%가 ‘다소 만족하다’고 답했고, ‘매우 만족하다

43.7%'로 나타났다. 기타 종사자들과의 관계는 '다소 만족하다 52.3%', '매우 만족하다 44.4%'로 나타나 교사들은 근무조건 등 물리적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프로그램 준비에는 '다소 만족하다 60.1%',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23.9%'로 답했다. 근무시간이 길므로 프로그램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 준비는 '다소 만족하다 52.3%', '매우 만족하다 37.5%', 영유아 안전관리는 '다소 만족하다 60.2%', '매우 만족하다 34.3%',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는 '다소 만족하다 67.6%', '매우 만족하다 25.8%', 행정(서류)업무는 '다소 만족하다 62.4%', '매우 만족하다 20.8%', 교실관리(청소, 정리정돈)는 '다소 만족하다 64.5%', '매우 만족하다 24.0%'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물리적 근무 환경, 인적자원과의 관계, 보육서비스 내용 등으로 분류한 세부항목의 근무 만족도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물리적 근무환경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21.7%', 보육프로그램 준비에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23.9%'로 답해 불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67>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하다	다소 만족하다	별로 만족 하지 못하다	전혀 만족 하지 못하다	계
교사를 위한 물리적 (근무)환경	74(20.1)	209(56.6)	80(21.7)	6 (1.6)	369(100.0)
보육프로그램(교재교구)준비	54(14.7)	221(60.1)	88(23.9)	5 (1.4)	368(100.0)
보육프로그램 운영	73(19.8)	257(69.8)	36 (9.8)	2 (0.5)	368(100.0)
시설장과의 관계	160(43.7)	195(53.3)	11 (3.0)	0 (0.0)	366(100.0)
기타종사자들과의 관계	163(44.4)	192(52.3)	10 (2.7)	2 (0.5)	367(100.0)
근무시간	60(16.4)	176(48.1)	110(30.1)	20 (5.5)	366(100.0)
급여	42(11.5)	120(32.9)	155(42.5)	48(13.2)	365(100.0)
담당 영유아 수	61(16.7)	193(52.7)	94(25.7)	18 (4.9)	366(100.0)
교사연수	49(14.0)	180(51.3)	102(29.1)	20 (5.7)	351(100.0)
고용의 안정성	90(25.5)	169(47.9)	78(22.1)	16 (4.5)	353(100.0)
식사 및 간식 준비	137(37.5)	191(52.3)	31 (8.5)	6 (1.6)	365(100.0)
영유아 안전관리	125(34.3)	219(60.2)	19 (5.2)	1 (0.3)	364(100.0)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	94(25.8)	246(67.6)	24 (6.6)	0 (0.0)	364(100.0)
행정(서류)업무	73(20.8)	219(62.4)	54(15.4)	5 (1.4)	351(100.0)
교실관리(청소,정리정돈)	87(24.0)	234(64.5)	38(10.5)	4 (1.1)	363(100.0)
교사를 위한 복리후생	35(10.1)	153(44.0)	127(36.5)	33 (9.5)	348(100.0)
기타	2(13.3)	7(46.7)	2 (13.3)	4(26.7)	15(100.0)

근무시간은 ‘다소 만족하다 48.1%’,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30.1%’, ‘매우 만족하다 16.0%’,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5.5%’ 순으로 답해 근무시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급여에서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42.5%’, ‘다소 만족하다 32.9%’,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13.2%’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나 교사들의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등 처우개선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근무시간과 급여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무시간은 국·공립(2.44), 민간(2.25), 법인(2.12), 직장(1.96), 가정(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국·공립(2.83), 법인(2.45), 직장(2.44), 민간(2.42), 가정(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시설의 교사들이 근무시간과 급여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가정시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표 IV-68>.

<표 IV-68> 시설 유형별 근무 만족도 비교

하위변인(총점)	보육시설구분	평균	표준편차	F통계값	사후검증
근무시간	전체	2.25	0.80	4.93***	(1,5)
	국·공립	2.44	0.78		
	법인	2.12	0.73		
	민간	2.25	0.87		
	직장	1.96	0.54		
	가정	1.94	0.78		
급여	전체	2.58	0.86	5.21***	(1,2) (1,3) (1,5)
	국·공립	2.83	0.83		
	법인	2.45	0.79		
	민간	2.42	0.90		
	직장	2.44	0.82		
	가정	2.31	0.86		

<표 IV-69>와 같이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매우 보람을 느낀다 37.1%, 다소 보람을 느낀다 56.7%)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무여건은 열악하지만 아이들을 보육하는 역할에 큰 긍지를 느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표 IV-69>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

구분	명(%)
매우 보람을 느낀다	138 (37.1)
다소 보람을 느낀다	211 (56.7)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21 (5.6)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2 (0.5)
계	372(100.0)

보육교사로서 계속 종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04명(84.2%)이 계속 종사하겠다고 높은 비율로 답하였으며, 이직 희망은 57명(15.8%)로 나타났다. 이직 희망 이유는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 (26.8%)’,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15.7%)’,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15.0%)’, ‘교사를 위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14.4%)’ 순으로 나타나 보수 및 근무환경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IV-70>.

<표 IV-70> 계속종사 여부 및 이직 희망시 이유

구분		명(%)
계속 종사 여부	계속종사	304 (84.2)
	이직희망	57 (15.8)
	소계	361(100.0)
이직 희망시 이유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23 (15.0)
	교사를 위한 근무환경(물리적환경)이 열악하다	22 (14.4)
	업무량이 많다	15 (9.8)
	업무량에 비하여 보수가 너무 적다	41 (26.8)
	시설장과의 갈등이 많다	1 (0.7)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24 (15.7)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가 적다	13 (8.5)
	교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5.9)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가 너무 열악하다	4 (2.6)
	기타	1 (0.7)
	소계	153(100.0)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가에는 컴퓨터 활용(93.6%), 인터넷 활용(90.5%)로 정보 활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1>.

<표 IV-71> 정보활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한다	349 (93.6)	334 (90.5)
안한다	24 (6.4)	35 (9.5)
계	373(100.0)	369(100.0)

3) 어려운 점 및 제안사항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유형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으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지원 확대 86명(30.1%)’, ‘교사 지원 확대 73명(25.5%)’, ‘시설·설비 지원 확대 39명(13.6%)’ 순으로 제안하였다<표 IV-72>.

<표 IV-72>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내용

구분	명(%)
규정 준수	35 (12.2)
시설·설비 지원 확대	39 (13.6)
교사 지원 확대	73 (25.5)
프로그램 지원 확대	86 (30.1)
보육료 지원 확대	18 (6.3)
보육시설 운영 지원	19 (6.6)
부모 및 지역사회의 인식 확대	6 (2.1)
보육의 공보육화(무상보육)	10 (3.5)
계	286(100.0)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아교사, 간호사 등 인력 지원 69건(21.0%)’, ‘영아 프로그램 지원 68건(20.7%)’, ‘영아보육 규정 재정비 64건(19.5%)’등의 순으로 답하였다<표 IV-73>.

<표 IV-73>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구분	명(%)
영아보육 규정 재정비	64 (19.5)
시설확충 지원	21 (6.4)
영아용 시설설비 지원	54 (16.4)
인력지원(영아교사, 간호사)	69 (21.0)
영아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교재·교구)	68 (20.7)
위생,청결 관리 지원	12 (3.6)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병원과의 연계)	4 (1.2)
보육료 지원	16 (4.9)
재정 지원 확대(영아전담 민간 지원 포함)	11 (3.3)
부모교육 지원	8 (2.4)
지역사회 지원 모색(자원봉사 활용 등)	2 (0.6)
계	329(100.0)

<표 IV-74>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구분	명(%)
재정 지원 확대(장애아 전담 민간 지원 포함)	7 (2.7)
장애아보육 규정 재정비	17 (6.6)
장애아 보육 시설 확충	22 (8.5)
장애아용 시설 설비 지원	34 (13.2)
인력 지원(장애아 전문교사, 교사교육, 수당 지급)	87 (33.7)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지원(통합 프로그램, 개별교육, 특수교육, 교재·교구)	57 (22.1)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병원과의 연계)	18 (7.0)
보육료 지원(무상보육 지원)	10 (3.9)
부모교육 지원	3 (1.2)
지역사회지원 모색(자원봉사 활용 등)	3 (1.2)
계	258(100.0)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아 전문교사, 교사 교육, 수당 지급 등 인력 지원’을 33.7%(87명)로 가장 높게 제안하였고, ‘장애아용 시설·설비 지원’ 13.2%(34명),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8.5%(22건), ‘장애아보육 규정 재정비’ 6.6% (17명) 등의 순이었다.

야간·24시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내용은 ‘교사지원 37.7%(66명),

‘프로그램 및 환경 지원 21.1%(37명)’, ‘건강, 영양, 안전 지원 14.3%(25명)’ 순으로 제안하였다<표 IV-75>.

<표 IV-75> 야간·24시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구분	명(%)
시설 확충 지원	10 (5.7)
운영관리 지원	17 (9.7)
프로그램 및 환경 지원	37 (21.1)
교사지원	66 (37.7)
건강·영양·안전 지원	25 (14.3)
보육료 지원	4 (2.3)
부모인식 확산 도모	1 (0.6)
규정 재정비	8 (4.6)
기타	7 (4.0)
계	175(100.0)

기타 지원요구사항으로는 ‘교사 관리, 지원방안 모색’이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10.1%, ‘보육시설 정비 및 지원 확대’ 7.2% 순이었다.

<표 IV-76> 기타 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내용

구분	명(%)
교사 관리, 지원 방안 모색	42 (60.9)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간의 관계 정립	4 (5.8)
시설 지원 확대	5 (7.2)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 (10.1)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관계 정립	2 (2.9)
보육시설 운영 정비 및 지원	5 (7.2)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	3 (4.3)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1 (1.4)
계	69(100.0)

다. 소결

1) 시설장 의견조사

○ 시설장 의견조사 결과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장들의 급여는 평균 보육경력 9년, 기타경력 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급여는 1,373천원이었다. 최소 500천원에서 최고 3,000천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평균 1,427천원), 법인보육시설(평균 1,404천원), 민간보육시설(평균 1,348천원), 가정보육시설(평균 1,264천원), 직장보육시설(평균 1,243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경력에서 직장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낮았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시설장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33.5%(109명)로 가장 높았고, 3년제 이하 대학교 졸업 31.4%(102명), 대학원 졸업 26.5%(86명) 순이었고 고등학교 졸업도 8.6%(28명)나 되었다. 시설유형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대학원 졸업이 41.5%로 법인보육시설(29.2%), 민간보육시설(17.85%), 직장보육시설(11.2%), 가정보육시설(2.3%)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25.6%로 가장 높아 시설장의 학력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가장 높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서는 4점 척도에서 ‘그저 그렇다’와 ‘대체로 만족한다’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만족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던 요인은 보수(2.05), 시설설비(2.43), 규모(2.46)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시설장들이 보수나 시설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18.0%(358명)’, ‘교사들이 좋아서 13.7%(272명)’, ‘프로그램이 좋아서 11.9%(238명)’, ‘환경이 좋아서 11.3%(225명)’, ‘가깝고 활용에 편리하여서 11.1%(220명)’ 순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전체적인 인지정도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 비하여 민간보육시설에서 인지 정도가 다소 낮았고, 직장보

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서 인지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중점을 둔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3.0%로 반대한다(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 유형에 따라 응답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찬성한다 41.4%)에 비하여 법인보육시설(찬성한다 59.7%)이나 민간보육시설(찬성한다 58.8%), 가정보육시설(찬성한다 59.6%)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시설장들의 어려움점과 제안 사항은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보육아동 모집에서의 어려움’(24.0%)으로 조사에 응답한 보육시설들 중 184개소에서 대기아가 있는 것(평균 53명, 총대기아가 9,730명)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는 ‘재정적인 문제(21.3%)’, ‘행정(서류)업무 과중 (18.2%)’, ‘종사자 관리(관계)(13.1%)’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 어려움에서는 ‘종사자 관리(관계) (22.2%)’, ‘재정적인 문제 (16.0%)’, ‘행정(서류)업무 과중 (13.2%)’,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의 어려움 (13.2%)’, ‘보육아동 모집에서의 어려움 (10.8%)’ 순으로 나타났다.
-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요인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에서는 ‘시설의 관리, 확충에 대한 지원요구’가 89건(31.4%)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관련 지원’ 54건(19.0%), ‘보육료지원 정비’ 39건(13.8%) 순이었다. 보육교사 관련 내용으로는 ‘종사자 관리, 지원 개선’이 40건으로 많았고, ‘경력인정조항 완화’가 제안되었다.
-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 ‘영유아에 따른 보육료 차등 적용제도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무상교육 확대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
- 이외에도 보육관련 법·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현실적 조정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위한 개선, 지역사회단체별로 융통성 있는 운영 보장 등을 포함한 보육전달체계 관련 내용,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 관련 사항 등이 제안되었다.

- 시설환경과 관련한 지원요구에서는 ‘시설 개·보수 지원 요구’가 103건(42.2%)으로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 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교사지원 다양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86건(79.2%)’, ‘국가권장 프로그램 평준화 모색 28건(11.9%)’, ‘교재, 교구 개발, 보급 21건(8.9%)’ 등으로 제안되어 시설장들은 국가단위의 기준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해 두되 지역별, 시설별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보육교사 관련 지원 내용으로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153건(40.2%)으로 가장 많아 보육교사들의 처우 불균형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서 보육교사가 1순위 요인임을 고려할 때 보육의 발전방안 마련에서는 교사의 근무조건 향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 56건(34.6%)’, ‘운영인력 개선 25건(15.4%)’, ‘시설의 자율성 확대 24건(14.8%)’, ‘지원방식 개선 21건(13.0%)’, ‘기자재, 교재·교구 지원 16건(9.9%)’, ‘운영방식 개선 11건(6.8%)’ 등이 제안되었다.
-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시설관리와 지원연계 시스템 구축 54건(32.9%)’, ‘문서 간소화 및 전산화 45건(27.4%)’, ‘행정인력의 전문화 방안 모색 37건(22.6%)’, ‘행정 감독 철저 13건(7.9%)’, ‘행정인력 증대 11건(6.7%)’ 등이 제안되어 전문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안으로는 평가제도의 도입이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도입시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189건이 응답되었다. ‘보육교사 지원’이 59건(31.2%), 야간·24시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야간담당 종사자 지원 확대’가 77건(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는 미래보육 환경을 전망하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보육교사 의견조사

- 보육교사 의견조사 결과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응답 보육교사들의 99.5%(370명)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2명(0.5%)이었다. 기혼은 148명(39.9%)이었고, 미혼은 223명(60.1%)이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60.1%, 30~39세 34.4%, 40세 이상은 5.5%였고 평균 연령은 29세였다.
- 보육교사들의 경력은 평균 4.7년, 보육 외 기타 경력은 평균 4.4년이었다. 보육 경력은 3~4년이 가장 많았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로는 2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 121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1급 보육교사),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순이었다.
-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교 졸업이 170명(47.1%), 대학교 졸업 108명(29.9%) 순이었다. 고졸 이하도 72명(19.9%)이었다. 전공학과는 유아교육학 167명(58.6%)이 가장 많았고, 보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가정관리학, 교육학 순이었다.

○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수는 연령별로 0~12개월 영아를 평균 4명 돌보고 있으나 많게는 9명까지 돌보고 있었다. 12~24개월 영아는 교사 1명당 평균 5명, 최대 9명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2세 영아를 평균 6명, 최대 9명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3세 영유아는 보육교사가 1~20명 담당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들은 0~12개월은 1~3명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선을 제시해 주고 있다. 12~24개월 영아는 1~4명, 2세 영아는 1~6명, 3세이상 5세아는 1~20명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특수보육담당교사의 경우 장애아를 평균적으로 3명, 최대 10명 이상 돌보는 교사도 있었다. 야간보육은 평균 교사 1명당 7명을 돌보고 있었으며, 최대 20명까지 담당하고 있고 희망 영유아 수는 4~5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4시간 보육은 1~3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평균 3명을 돌보고 있으며, 희망 영유아 수는 1~3명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휴일보육은 4~5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지 않아 응답자 수가 적었다.
-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시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운영 평가에서는 보육교사들은 시설 설비, 교사 관리, 프로그램운영,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운영, 차량운행, 재정관리 등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대부분(관심이 매우 높다 54.1%, 조금 있다 43.8%)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다.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무환경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209명(56.6%),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74명(20.1%)로 응답해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 영유아수, 근무시간, 교사를 위한 복리후생, 시설장과의 관계, 기타 종사자들과의 관계, 보육 프로그램 준비, 식사 및 간식 준비,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 행정(서류)업무, 교실관리(청소, 정리정돈) 등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보육교사들은 근무조건의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과의 관계, 보육서비스 내용 등으로 분류한 세부항목의 근무만족도에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긴 근로시간, 낮은 임금, 많은 업무량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점과 제안 사항은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로서 계속 종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04명(84.2%)이 계속 종사하겠다고 높은 비율로 답하여 영유아 보육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과 일치한다 하겠다. 이직 희망은 57명(15.8%)으로 나타났다. 이직 희망 이유는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교사를 위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순으로 답하였다.
- 보육교사들은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교사 지원 확대’, ‘시설·설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으로 ‘영아 프로그램 지원’, ‘영아교사, 간호사 등 인력 지원’, ‘영아보육 규정 재정비’를 제시하였다.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아전문교사, 교사 교육, 수당 지급 등 인력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하였고, ‘장애아용 시설·설비 지원’, ‘장애아보육시설 확충’ 등 순으로 지원내용을 들었다. 야간·24시간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은 ‘교사지원’, ‘프로그램 및 환경 지원’, ‘건강, 영양, 안전 지원’ 순이었다.
- 기타 지원 사항으로는 ‘교사 관리 및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육시설 정비 및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부모 의견 조사

부모들 대상의 조사에서는 375개 보육시설의 부모 대상 설문지 1,186부가 분석되었으며, 부모들의 보육시설 활용 만족도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 이용 실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 정도,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세부운영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 및 불만족 내용,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식 등을 분석하고 보육정책에 관련한 부모들의 요구 및 제안을 알아보았다.

가. 일반 사항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부모들은<표 IV-77>에서와 같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 960명(80.9%), 중·소도시 거주자 201명(16.9%), 군지역 25명(2.1%)이었다. 이들 중 보육아동의 어머니가 1,054명(93.4%)이었고, 아버지 54명(4.8%), 친인척 11명(1.0%)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40~49세가 50.2%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은 9.6%이었다<표 IV-78>. 보육아동들 부의 최종 학력은 대졸이 57.2%로 가장 높았고 고졸은 23.9%, 대학원졸은 16.9% 순이었다. 모의 최종 학력은 대졸이 54.6%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32.3% 순이었다<표 IV-79>. 부의 직업은 사무직이 35.0%, 전문직 20.9%, 자영업 10.7%, 생산직 10.6% 순이었고 모의 직업은 전문직 31.3%, 사무직 23.3%, 가정주부 21.6% 순이었다<표 IV-80>.

<표 IV-77> 거주 지역

구 분	명(%)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960 (80.9)
중·소도시	201 (16.9)
군	25 (2.1)
계	1,186(100.0)

<표 IV-78> 부모 일반사항

구 분		명(%)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	1,054 (93.4)
	아버지	54 (4.8)
	친인척	11 (1.0)
	기타	9 (0.8)
	소계	1,128(100.0)
성별	여자	1,049 (93.2)
	남자	77 (6.8)
	소계	1,126(100.0)
혼인	기혼	1,101 (98.5)
	미혼	17 (1.5)
	소계	1,118(100.0)
응답자 연령	25~29세	114 (9.6)
	30~39세	176 (14.8)
	40~49세	597 (50.2)
	50~59세	236 (19.8)
	60~64세	67 (5.6)
	소계	1,190(100.0)
월평균 수입	~50만원	199 (22.6)
	501만원~100만원	396 (45.0)
	101만원~150만원	184 (20.9)
	151만원~200만원	62 (7.0)
	201만원~250만원	32 (3.6)
	251만원~	7 (0.8)
	소계	880(100.0)
	평균 1994.84 최소 400 최대 6500	

<표 IV-79> 부모의 학력

구 분		명(%)
부 최종학력	중졸이하	11 (1.0)
	고졸	259 (23.9)
	대졸	619 (57.2)
	대학원졸	183 (16.9)
	기타	10 (0.9)
	소계	1,082(100.0)
모 최종학력	중졸이하	11 (1.0)
	고졸	339 (32.3)
	대졸	572 (54.6)
	대학원졸	114 (10.9)
	기타	12 (1.1)
	소계	1,048(100.0)

<표 IV-80> 부모 직업

단위 : 명(%)

구분	부	모
가정주부, 무직	18 (1.9)	227 (21.6)
정년퇴직/연금생활자	2 (0.2)	3 (0.3)
농어민(농업, 축산농업, 어업, 수산업종사자 등)	12 (1.2)	1 (0.1)
생산직(생산감독, 공장근로자, 단순노무자, 기능공, 운전사)	102 (10.6)	43 (4.1)
서비스직(요식, 숙박업경영자, 이·미용업, 청소, 관리인)	50 (5.2)	53 (5.1)
자영상공업(1인 이하의 도·소매업, 가내 수공업)	103 (10.7)	41 (3.9)
판매직 (도·소매상인, 부동산 중개인, 행상, 외판원, 기타 판매직)	62 (6.4)	97 (9.2)
사무직 (과장이하, 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위관이하 군인)	337 (35.0)	244 (23.3)
관리직(경영주, 고급공무원, 기업체간부, 영관이상 군인, 경정이상 경찰)	75 (7.8)	12 (1.1)
전문직(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판검사, 교수, 교사, 연구원, 종교인, 체육인, 예술인, 언론인, 엔지니어 등)	201 (20.9)	328 (31.3)
계	962(100.0)	1,049(100.0)

나. 보육시설 이용 실태

응답자 가운데 56.0%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보육 시설 31.3%, 가정보육시설(놀이방) 12.5%, 직장보육시설 이용율 0.3% 순으로 나타났다<표 IV-81>. 프로그램의 유형별에서 전체적으로 79.8%가 종일제를, 17.5%가 반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 보육을 83.9%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종일제보육이 74.2%, 가정보육시설에서도 종일제 보육 74.5%로 종일제보육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야간보육은 가정보육 시설에서 8.2%인 반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각각 0.3%, 1.8%로 저조하였다. 그 밖의 24시간·휴일프로그램은 0.3%~1.8%의 낮은 이용 실적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데 기인한다 하겠다<표 IV-82>.

<표 IV-81> 이용보육시설 유형

구분	명(%)
국·공립 보육시설	650 (56.0)
민간 보육시설	361 (31.3)
직장 보육시설	4 (0.3)
가정보육시설(놀이방)	145 (12.5)
계	1,160(100.0)

<표 IV-82> 이용 프로그램 유형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반일제 보육	89 (15.1)	74 (22.7)	17 (15.5)	180 (17.5)
종일제 보육	496 (83.9)	242 (74.2)	82 (74.5)	820 (79.8)
야간(저녁10시정도까지 보육)	2 (0.3)	6 (1.8)	9 (8.2)	17 (1.7)
24시간	2 (0.3)	2 (0.6)	2 (1.8)	6 (0.6)
휴일 보육	2 (0.3)	2 (0.6)	0 (0.0)	4 (0.4)
계	591(100.0)	326(100.0)	110(100.0)	1,027(100.0)
통계치	$X^2=49.14$ df=8 p=.000			

<표 IV-83>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연령 가운데 5세아가 21.4%로 가장 높았다. 유아들(3세~5세)은 75.5%, 영아(1세 미만~2세아)들은 24.3%로 나타나 영아들의 보육시설 활용도가 낮았다. 1세 미만아는 3.8%에 불과하였다. 이는 영아시설의 확충과 영아보육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아는 6.9%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영유아보육시설 활용유형을 보면 5세아 42.5%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아들이 국·공립 보육시설(79.8%)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도 5세아의 이용이 2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1세 미만(6.7%), 1세~2세 미만아(23.5%), 2세아(18.8%), 3세아(23.5%)로 나타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아보육이 높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들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6.8%), 민간보육시설(14.7%)보다 가정 보육시설(30.2%)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는 민간보육시설(10.6%) 활용율이 더 높았다<표 IV-84>.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아 보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공립시설이 담당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83> 보육시설 이용 연령별 영유아

구분		명(%)	
영아	1세 미만	47 (3.8)	
	1세 - 2세 미만	103 (8.4)	
	2세아	127 (10.4)	
	소계	277 (24.3)	
유아	3세아	223 (18.2)	
	4세아	243 (19.8)	
	5세아	397 (21.4)	
	소계	863 (75.5)	
계		1,140(100.0)	

장애아	장애아	85 (6.9)
전체		1,225(100.0)

<표 IV-84> 이용시설 유형별 연령별 영유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1세 미만	12 (1.9)	22 (5.6)	10 (6.7)	44 (3.7)
1세 - 2세 미만	32 (4.9)	36 (9.1)	35 (23.5)	103 (8.6)
2세아	52 (8.0)	44 (11.0)	28 (18.8)	124 (10.4)
3세아	108 (16.6)	73 (18.4)	35 (23.5)	216 (18.1)
4세아	135 (20.7)	82 (20.7)	19 (12.8)	236 (19.7)
5세아	277 (42.5)	97 (24.5)	19 (12.8)	393 (32.9)
장애아	35 (5.4)	42 (10.6)	3 (2.0)	80 (6.7)
전체	651(100.0)	396(100.0)	149(100.0)	1,196(100.0)

부모들은 영아보육에 가장 바람직한 시설유형에 대해서 영아의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체 50.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답하였다. 규모가 작은 놀이방도 24.7%로 나타나 영아 보육은 집과 같은 시설을 선호한다고 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5>. 영유아별 바람직한 보육장소에서도 영아, 유아, 장애아 모두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부표 IV-6>.

<표 IV-85> 이용시설 유형별 바람직한 영아보육 장소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영아의 집에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 (48.3)	205 (57.1)	63 (43.8)	578 (50.5)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26 (19.6)	60 (16.7)	6 (4.2)	192 (16.8)
규모가 작은 놀이방에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64 (25.5)	54 (15.0)	65 (45.1)	283 (24.7)
일반 가정집이라면 다 괜찮다	7 (1.1)	6 (1.7)	1 (0.7)	14 (1.2)
기타	35 (5.5)	34 (9.5)	9 (6.3)	78 (6.8)
계	642 (100.0)	359 (100.0)	144 (100.0)	1,145 (100.0)
통계치	$X^2=66.41$ df=8 p=.000			

자녀 양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부모 모두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6>. 자녀요인별로 살펴 볼 때 양육의 중점 내용에서 영아 부모는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26.6%’, 유아 부모 ‘인성 지도 30.0%’, 장애아 부모 ‘균형 있는 발달 27.5%’이 중점을 두는 내용이라고 답하였다<표 IV-87>.

<표 IV-86> 이용시설 유형별 자녀양육 중점내용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328 (29.0)	181 (26.2)	58 (24.8)	567 (27.6)
인성지도	329 (29.1)	174 (25.2)	69 (29.5)	572 (27.8)
안전한 보호	162 (14.3)	112 (16.2)	49 (20.9)	323 (15.7)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	159 (14.0)	85 (12.3)	39 (16.7)	283 (13.8)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91 (8.1)	72 (10.4)	39 (16.7)	202 (9.8)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44 (3.9)	53 (7.7)	13 (5.6)	110 (5.4)
특별활동(영어, 글쓰기 등)	12 (1.1)	6 (0.9)	6 (2.6)	24 (1.2)
기타	5 (0.4)	7 (1.0)	0 (0.0)	12 (0.6)
계	1,130(100.0)	690(100.0)	234(100.0)	2,054(100.0)

<표 IV-87> 자녀요인별 자녀양육 중점내용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장애아	계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137 (26.6)	377 (27.5)	42 (27.5)	556 (27.2)
인성지도	101 (19.6)	412 (30.0)	34 (22.2)	547 (26.8)
안전한 보호	105 (20.4)	186 (13.5)	26 (17.0)	317 (15.5)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	69 (13.4)	181 (13.2)	30 (19.6)	280 (13.7)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77 (15.0)	121 (8.8)	4 (2.6)	202 (9.9)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22 (4.3)	78 (5.7)	8 (5.2)	108 (5.3)
특별활동(영어, 글쓰기 등)	3 (0.6)	17 (1.2)	0 (0.0)	20 (1.0)
기타	1 (0.2)	1 (0.1)	9 (5.9)	11 (0.5)
계	515(100.0)	1,373(100.0)	153(100.0)	2,041(100.0)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영아의 경우 ‘낮시간 동안 영아를 맡아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가 70.7%로 1순위 요인이고, 2순위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도 1순위는 ‘낮시간 동안 유아를 맡아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45.3%, 장애아는 49.4%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친구들과 사귀도록 하려고)’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시설 활용 이유는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고’,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8>.

<표 IV-89>에 의하면 이용시설 유형별로 알아본 부모의 보육시설 활용 이유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낮 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인척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 사회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자녀를 양육해 줄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IV-88> 자녀요인별 보육시설 활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요인			2순위 요인		
	영아	유아	장애아	영아	유아	장애아
낮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인척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193 (70.7)	344 (45.3)	8 (9.6)	15 (6.6)	53 (9.1)	4 (5.3)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55 (20.1)	215 (28.3)	29 (34.9)	107 (47.1)	281 (48.4)	37 (49.3)
주변사람들이 다 보내니까	1 (0.4)	1 (0.1)	0 (0.0)	1 (0.4)	7 (1.2)	0 (0.0)
사회성발달을 위하여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려고)	23 (8.4)	191 (25.1)	41 (49.4)	101 (44.5)	232 (40.0)	32 (42.7)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를 갖고 싶어서	0 (0.0)	4 (0.5)	0 (0.0)	2 (0.9)	4 (0.7)	1 (1.3)
주변에 또래 친구가 없어서	0 (0.0)	4 (0.5)	0 (0.0)	0 (0.0)	2 (0.3)	0 (0.0)
가족(친척)들을 힘들게 할 수 없거나 아이가 원해서	1 (0.4)	0 (0.0)	0 (0.0)	0 (0.0)	1 (0.2)	0 (0.0)
장애아의 특수교육 (재활치료 등)	0 (0.0)	1 (0.1)	5 (6.0)	1 (0.4)	0 (0.0)	1 (1.3)
계	273 (100.0)	760 (100.0)	83 (100.0)	227 (100.0)	580 (100.0)	75 (100.0)

<표 IV-89> 이용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활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요인			2순위 요인		
	국·공립	민간	가정	국·공립	민간	가정
낮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인척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297 (46.2)	174 (47.8)	96 (66.7)	33 (7.1)	36 (11.5)	8 (6.4)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205 (31.9)	81 (22.3)	21 (14.6)	232 (50.1)	147 (46.8)	60 (48.0)
주변사람들이 다 보내니까	2 (0.3)	0 (0.0)	0 (0.0)	3 (0.6)	2 (0.6)	2 (1.6)
사회성발달을 위하여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려고)	131 (20.4)	102 (28.0)	25 (17.4)	190 (41.0)	123 (39.2)	54 (43.2)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를 갖고 싶어서	3 (0.5)	1 (0.3)	2 (1.4)	3 (0.6)	3 (1.0)	1 (0.8)
주변에 또래 친구가 없어서	4 (0.6)	0 (0.0)	0 (0.0)	2 (0.4)	0 (0.0)	0 (0.0)
가족(친척)들을 힘들게 할 수 없거나 아이가 원해서	0 (0.0)	1 (0.3)	0 (0.0)	0 (0.0)	1 (0.3)	0 (0.0)
장애아의 특수교육 (재활치료 등)	1 (0.2)	5 (1.4)	0 (0.0)	0 (0.0)	2 (0.6)	0 (0.0)
계	643 (100.0)	364 (100.0)	144 (100.0)	463 (100.0)	314 (100.0)	125 (100.0)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중 시작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오전 7시 30분 이전부터 (8.0%)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끝시간은 영아 55.8%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유아 42.6% 오후 4시에서 6시, 장애아 43.5% 오후 4시에서 6시로 답하였다. 영아가 아침 7시 30분 이전 이용하여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이용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자녀요인별 가운데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IV-90>, <표 IV-91>.

<표 IV-90> 자녀요인별 이용 시작시간

단위 : 명(%)

시작시간	영아	유아	장애아	계
~7:30	22 (8.0)	34 (4.4)	0 (0.0)	56 (5.0)
7:31~8:00	73 (26.6)	79 (10.3)	4 (4.7)	156 (13.9)
8:01~8:30	64 (23.4)	155 (20.2)	12 (14.1)	231 (20.5)
8:31~9:00	57 (20.8)	206 (26.9)	24 (28.2)	287 (25.5)
9:01~9:30	29 (10.6)	177 (23.1)	21 (24.7)	227 (20.2)
9:31~12:00	28 (10.2)	110 (14.4)	19 (22.4)	157 (14.0)
12:01~15:00	1 (0.4)	5 (0.7)	5 (5.9)	11 (1.0)
계	274(100.0)	766(100.0)	85(100.0)	1,125(100.0)
통계치	$X^2=107.59$ df=14 p=.000			

<표 IV-91> 자녀요인별 이용 끝시간

단위 : 명(%)

끝시간	영아	유아	장애아	계
12:00	4 (1.5)	4 (0.5)	0 (0.0)	8 (0.7)
12:01~14:00	4 (1.5)	44 (5.7)	13 (15.3)	61 (5.4)
14:01~16:00	12 (4.4)	129 (16.8)	31 (36.5)	172 (15.3)
16:01~18:00	88 (32.1)	326 (42.6)	37 (43.5)	451 (40.1)
18:01~20:00	153 (55.8)	252 (32.9)	4 (4.7)	409 (36.4)
20:01~	13 (4.7)	11 (1.4)	0 (0.0)	24 (2.1)
계	274(100.0)	766(100.0)	85(100.0)	1,125(100.0)
통계치	$X^2=146.91$ df=12 p=.000			

보육시설 시작시각은 8시 30분~9시를 희망하는 부모가 23.5%로 가장 높게 답하였고, 끝시간은 18시~20시(37.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7>.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한달 평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101천원에서 200천원이 73.6%로 가장 높았다. 민간보육시설은 101천원에서 200천원이 50.0%로 가장 많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가정보육시설은 201천원에서 300천원이 37.2%로 가장 많았다. 평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46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08천원, 가정보육시설이 25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높은 것은 저연령층의 영아 보육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료, 현장 학습비, 특기 보육료, 급·간식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한달 평균 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월 평균 보육료는 171천원, 민간보육시설 242천원, 가정보육시설 283천원으로 나타났다. 시설 전체의 월평균 보육료는 207천원이었다<표 IV-92>, <표 IV-93>.

<표 IV-92> 한달 평균 보육료

단위 : 명(%), 천원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보육료	10 - 100	45 (8.1)	12 (4.1)	1 (0.9)	58 (6.0)
	101 - 200	408 (73.6)	148 (50.0)	38 (33.6)	594 (61.7)
	201 - 300	84 (15.2)	109 (36.8)	42 (37.2)	235 (24.4)
	301 - 400	17 (3.1)	22 (7.4)	31 (27.4)	70 (7.3)
	401 이상	-	5 (1.7)	1 (0.9)	6 (0.6)
	소계	554(100.0)	296(100.0)	113(100.0)	963(100.0)
	평균	146	208	259	178
현장학습비	1 - 50	177 (98.9)	63 (94.0)	14(100.0)	254 (97.7)
	51 - 100	1 (0.6)	3 (4.5)	-	4 (1.5)
	101 - 150	-	1 (1.5)	-	1 (0.4)
	151 - 200	1 (0.6)	-	-	1 (0.4)
	201 이상	-	-	-	-
	소계	179(100.0)	67(100.0)	14(100.0)	260(100.0)
	평균	12	18	13	14
특기교육비	1 - 50	243 (92.4)	67 (74.4)	13 (68.4)	323 (86.8)
	51 - 100	7 (2.7)	15 (16.7)	5 (26.3)	27 (7.2)
	101 - 150	8 (3.0)	5 (5.6)	1 (5.3)	14 (3.8)
	151 - 200	3 (1.1)	1 (1.1)	-	4 (1.1)
	201 이상	2 (0.8)	2 (2.2)	-	4 (1.1)
	소계	263(100.0)	90(100.0)	19(100.0)	372(100.0)
	평균	28	49	40	34
급·간식비	1 - 50	26 (5.1)	53 (18.7)	7 (6.7)	86 (9.5)
	51 - 100	30 (5.8)	6 (2.1)	-	36 (4.0)
	101 - 150	212 (41.2)	31 (10.9)	8 (7.6)	251 (27.8)
	151 - 200	131 (25.5)	57 (20.1)	14 (13.3)	202 (22.4)
	201 이상	115 (22.4)	137 (48.2)	76 (72.4)	328 (36.3)
	소계	514(100.0)	284(100.0)	105(100.0)	903(100.0)
	평균	44	33	32	35
기타 비용	1 - 50	67 (79.8)	35 (79.5)	10 (71.4)	112 (78.9)
	51 - 100	10 (11.9)	6 (13.6)	1 (7.1)	17 (12.0)
	101 - 150	3 (3.6)	1 (2.3)	2 (14.3)	6 (4.2)
	151-200	-	2 (4.5)	1 (7.1)	3 (2.1)
	201 이상	4 (4.8)	-	-	4 (2.8)
	소계	84(100.0)	44(100.0)	14(100.0)	142(100.0)
	평균	39	37	57	40

<표 IV-93> 월 평균 보육료

단위 : 명(%), 천원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월평균 총액	10 - 100	36 (7.0)	7 (2.5)	-	43 (4.8)
	101 - 200	352 (68.9)	101 (36.1)	22 (21.0)	475 (53.0)
	201 - 300	87 (17.0)	117 (41.8)	45 (42.9)	249 (27.8)
	301 - 400	23 (4.5)	36 (12.9)	33 (31.4)	92 (10.3)
	401 - 500	11 (2.2)	11 (3.9)	3 (2.9)	25 (2.8)
	500 이상	2 (0.4)	8 (2.9)	2 (1.9)	12 (1.3)
	소계	511(100.0)	280(100.0)	105(100.0)	896(100.0)
	평균	171	242	283	207

현재 이용시설 유형별로의 보육료 부담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적당하다’에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61.2%, 민간보육시설은 48.8%, 가정보육시설은 54.2%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33.1%, 가정보육시설 34.5%가 ‘부담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월 평균 보육료가 각각 242천원, 283천원 인 것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표 IV-94>.

<표 IV-94> 이용시설 유형별 보육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매우 부담된다	7 (1.1)	27 (7.4)	7 (4.9)	41 (3.6)
부담되는 편이다	127 (19.7)	120 (33.1)	49 (34.5)	296 (25.8)
적당하다	394 (61.2)	177 (48.8)	77 (54.2)	648 (56.4)
부담되지 않는다	116 (18.0)	39 (10.7)	9 (6.3)	164 (14.3)
계	644(100.0)	363(100.0)	142(100.0)	1,149(100.0)
통계치	$X^2=70.15$ df=6 p=.000			

자녀요인별 보육료 부담 정도를 살펴 볼 때 영아부모는 ‘적당하다’ 53.7%, ‘부담되는 편이다’ 30.5% 순으로 나타났고, 유아부모는 ‘적당하다’ 59.8%, ‘부담되는 편이다’ 22.7%, 장애아부모는 ‘부담되는 편이다’ 42.7%, ‘적당하다’ 36.6% 순으로 답하였다. 장애아부모가 ‘매우 부담되는 편이다’ 12.2%로 나타나 영아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보육료에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IV-95> 자녀요인별 보육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장애아	계
매우 부담된다	13 (4.8)	17 (2.2)	10 (12.2)	40 (3.6)
부담되는 편이다	83 (30.5)	173 (22.7)	35 (42.7)	291 (26.1)
적당하다	146 (53.7)	456 (59.8)	30 (36.6)	632 (56.6)
부담되지 않는다	30 (11.0)	117 (15.3)	7 (8.5)	154 (13.8)
계	272(100.0)	763(100.0)	82(100.0)	1,117(100.0)
통계치	$X^2=48.14$ df=6 p=.000			

이용 프로그램별 생활수준 대비 보육료의 부담 정도는 ‘적당하다 56.8%’, ‘부담되는 편이다 25.6%’, ‘매우 부담된다 3.5%’ 순이었다. 종일제 보육은 ‘적당하다 56.6%’를 나타냈고 야간보육은 56.3%로 나타났다. 24시간보육 33.3%, 휴일보육 50.0%도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4시간보육은 ‘부담되는 편이다 33.3%’, ‘매우 부담된다 16.7%’로 답해 다른 프로그램 이용 부모보다 부담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4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편부모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심층면접 사례). 보육료가 지난 10월 인상되어(150~250%) 부모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96> 이용 프로그램별 생활수준 대비 보육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반일제 보육	종일제 보육	야간(저녁10시 정도까지)보육	24시간	휴일 보육	계
매우 부담된다	5 (2.7)	28 (3.4)	2 (12.5)	1 (16.7)	0 (0.0)	36 (3.5)
부담되는 편이다	49 (26.3)	210 (25.4)	5 (31.3)	2 (33.3)	0 (0.0)	266 (25.6)
적당하다	109 (58.6)	469 (56.6)	9 (56.3)	2 (33.3)	2 (50.0)	591 (56.8)
부담되지 않는다	23 (12.4)	121 (14.6)	0 (0.0)	1 (16.7)	2 (50.0)	147 (14.1)
계	186 (100.0)	828 (100.0)	16 (100.0)	6 (100.0)	4 (100.0)	1,040 (100.0)

희망하는 월 평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부모 58.5%가 100천원 미만을 희망했고 민간보육시설 51.2%, 가정보육시설 55.6%가 101천원~200천원을 가장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현 보육료에 대한 부담 정도에 ‘적당하다 56.8%’고 답하였지만 세 시설 이용 부모 모두 현재의 보육료 보다 낮아지길 희망하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IV-97>. 자녀요인별로 희망하는 월 평균 보육료는 영아는 101천원~200천원(44.7%), 100천원 미만(28.2%) 순이었고 유아 100천원 미만(39.2%), 101천원~200천원(49.4%), 장애아 100천원(50.0%), 101천원~200천원(41.2%)로 답하였다. 영아, 유아, 장애아 부모 대부분이 200천원 이하로 보육료가 낮아지길 희망하였다.

<표 IV-97> 이용시설 유형별 희망 월평균 보육료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10만원 미만	62 (58.5)	40 (31.5)	3 (6.7)	105 (37.8)
101,000~200,000	37 (34.9)	65 (51.2)	25 (55.6)	127 (45.7)
201,000~300,000	6 (5.7)	16 (12.6)	16 (35.6)	38 (13.7)
40만원	1 (0.9)	6 (4.7)	1 (2.2)	8 (2.9)
계	106(100.0)	127(100.0)	45(100.0)	278(100.0)
통계치	$X^2=53.20$ df=6 p=.000			

보육료가 추가되더라도 우수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65.4%가 ‘있다’고 답해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표 IV-98>.

<표 IV-98> 보육료 추가 우수 보육 시설 이용 의사

구분	명(%)
있다	756 (65.4)
없다	400 (34.6)
계	1,156(100.0)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IV-99>에 의하면 영아의 부모, 유아의 부모는 다 같이 1순위로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62.0%’을 선택하였고 ‘훌륭한 교사’, ‘좋은 설비’의 순으로 답하였다. 장애아 부모는 ‘장애아를 받아주는 시설 50.6%’, ‘좋은 프로그램 28.9%’, ‘훌륭한 교사 22.0%’의 순으로 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67.5%’, ‘좋은 프로그램 35.6%’, ‘훌륭한 교사 29.9%’ 순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9>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 순위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장애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170 (62.0)	47 (17.2)	22 (8.1)	555 (72.5)	100 (13.1)	49 (6.4)	26 (30.6)	22 (26.5)	17 (20.7)	802 (67.5)	176 (14.9)	88 (7.5)
좋은 프로그램	4 (1.5)	66 (24.2)	36 (13.3)	38 (5.0)	300 (39.3)	163 (21.4)	8 (9.4)	24 (28.9)	17 (20.7)	55 (4.6)	422 (35.6)	225 (19.1)
좋은 시설·설비	12 (4.4)	27 (9.9)	43 (15.9)	18 (2.4)	61 (8.0)	104 (13.7)	0 (0.0)	5 (6.0)	5 (6.1)	30 (2.5)	97 (8.2)	163 (13.8)
훌륭한 교사	40 (14.6)	69 (25.3)	61 (22.5)	73 (9.5)	186 (24.4)	245 (32.2)	7 (8.2)	23 (27.7)	18 (22.0)	123 (10.3)	289 (24.4)	352 (29.9)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는 시설	7 (2.6)	10 (3.7)	21 (7.7)	11 (1.4)	21 (2.8)	33 (4.3)	0 (0.0)	1 (1.2)	3 (3.7)	18 (1.5)	34 (2.9)	62 (5.3)
가깝고 활용에 편리한 시설	12 (4.4)	33 (12.1)	47 (17.3)	34 (4.4)	78 (10.2)	121 (15.9)	0 (0.0)	0 (0.0)	10 (12.2)	47 (4.0)	116 (9.8)	185 (15.7)
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	3 (1.0)	11 (4.0)	20 (7.4)	2 (0.3)	7 (0.9)	33 (4.3)	0 (0.0)	1 (1.2)	7 (8.5)	5 (0.4)	20 (1.7)	63 (5.4)
영아(0~2)를 받아주는 시설	20 (7.3)	10 (3.7)	18 (6.6)	18 (2.4)	4 (0.5)	4 (0.5)	0 (0.0)	0 (0.0)	0 (0.0)	41 (3.4)	16 (1.4)	22 (1.9)
장애아를 받아 주는 시설	3 (1.1)	0 (0.0)	1 (0.4)	14 (1.8)	3 (0.4)	2 (0.3)	43 (50.6)	6 (7.2)	5 (6.1)	62 (5.2)	10 (0.8)	9 (0.8)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0 (0.0)	0 (0.0)	0 (0.0)	0 (0.0)	2 (0.3)	0 (0.0)	0 (0.0)	1 (1.2)	0 (0.0)	0 (0.0)	3 (0.3)	0 (0.0)
기타	3 (1.1)	0 (0.0)	2 (0.7)	2 (0.3)	1 (0.1)	6 (0.8)	1 (1.2)	0 (0.0)	0 (0.0)	6 (0.5)	1 (0.1)	8 (0.7)
계	274 (100.0)	273 (100.0)	271 (100.0)	765 (100.0)	763 (100.0)	760 (100.0)	85 (100.0)	85 (100.0)	82 (100.0)	1,189 (100.0)	1,184 (100.0)	1,177 (100.0)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영아, 유아의 부모는 ‘부모와 아동간에 상호작용이 적어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에 각각 30.4%, 26.9%로 가장 높게 답하였고, 장애아 부모는 32.3%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하였다. 부모들은 전체적으로 ‘부모와 아동간에 상호작용이 적어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 26.7%’, ‘집 가까운 곳에서 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없다 22.2%’ 라고 어려움을 나타냈다<표 IV-100>.

<표 IV-100>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장애아	전체
비용이 많이 든다	52 (16.6)	126 (15.0)	32 (32.3)	210 (16.8)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32 (10.2)	107 (12.7)	6 (6.1)	145 (11.6)
부모와 아동간에 상호작용이 적어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	95 (30.4)	226 (26.9)	13 (13.1)	334 (26.7)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61 (19.5)	159 (18.9)	13 (13.1)	233 (18.6)
집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61 (19.5)	188 (22.4)	29 (29.3)	278 (22.2)
기타	12 (3.8)	34 (4.0)	6 (6.1)	52 (4.2)
계	313 (100.0)	840 (100.0)	99 (100.0)	1,252 (100.0)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42.7%가 ‘관심이 매우 높다,’ ‘조금 있다’ 49.8% 순으로 답해 보육 정책에 관심이 높음을 나타냈다<표 IV-101>.

<표 IV-101> 정부 보육정책 관심도

단위 : 명(%)

구분	관심이 매우 높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계
관심도	504(42.7)	588(49.8)	78(6.6)	11(0.9)	1,181(100.0)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는<표 IV-102>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정책에 대해 27.8%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는 43.1%가 ‘잘 알고 있다’, 42.3%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해 ‘보육료 감면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46.9%가 ‘잘 알고 있다’, 31.5%도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육아 휴직제도’에 대해서는 42.6%가 ‘잘 알고 있다’, 37.1%도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으로 나타났다.

<표 IV-102>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모른다	계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	324 (27.8)	427 (36.6)	249 (21.4)	166 (14.2)	1,166 (100.0)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501 (43.1)	492 (42.3)	123 (10.6)	46 (4.0)	1,162 (100.0)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	541 (46.9)	363 (31.5)	178 (15.4)	72 (6.2)	1,154 (100.0)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포함)	489 (42.6)	425 (37.1)	154 (13.4)	79 (6.9)	1,147 (100.0)

부모의 이용 시설유형별과 자녀의 연령별로 보육정책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네 가지의 정책을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민간이나 가정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보다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표 IV-103>.

부모들의 보육시설 만족도를 <표 IV-104>에서와 같이 세부 내용 10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보육·교육 비용’에서는 (만족한 편이다 67.3%, 매우 만족한다 21.9%)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편이다 56.5%, 매우 만족한다 38.8%)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도 (만족한 편이다 67.4%, 매우 만족한다 21.8%) 89.2%가 만족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시설 설비에 있어서는 56.1%가 ‘만족한 편이다’ 이나, 24.8%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고 나타났으며, 운영시간은 (만족한 편이다 60.0%, 매우

만족한다 33.8%)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집과의 거리’에서도 (만족한 편이다 47.9%, 매우 만족한다 31.1%)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간식’에 있어서도 ‘만족한 편이다 60.4%’, ‘매우 만족하다 32.5%’로 답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65.5%가 만족한 편이다, 27.5% 매우 만족하다) 만족한 것으로 답하였다. ‘차량 운행’은 ‘만족한 편이다 48.2%’,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66.9%가 ‘만족한 편이다 18.0%’, ‘매우 만족하다’의 순이었다. 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05>.

<표 IV-103> 지원정책 인지도 시설유형별 평균

하위변인(총점)	보육시설구분	평균	표준편차	F통계값	사후검증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전체	2.78	1.01		
	국·공립	2.84	0.97	6.90***	(1, 3) (2, 3)
	민간	2.78	1.05		
	가정	2.49	1.04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전체	3.24	0.80		
	국·공립	3.31	0.75	24.26***	(1, 3) (2, 3)
	민간	3.29	0.78		
	가정	2.81	0.93		
보육·유아 교육 비용 소득공제	전체	3.19	0.92		
	국·공립	3.24	0.89	7.00***	(1, 3) (2, 3)
	민간	3.22	0.91		
	가정	2.92	1.03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포함)	전체	3.16	0.90		
	국·공립	3.22	0.85	6.87***	(1, 3) (2, 3)
	민간	3.14	0.92		
	가정	2.91	1.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IV-104>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하다	만족한 편이다	만족스럽지 못한부분이 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계
보육·교육 비용	257 (21.9)	792 (67.3)	117 (9.9)	10 (0.8)	1,176 (100.0)
교사	457 (38.8)	665 (56.5)	52 (4.4)	4 (0.3)	1,178 (100.0)
프로그램	253 (21.8)	783 (67.4)	123 (10.6)	3 (0.3)	1,162 (100.0)
시설 설비	203 (17.5)	652 (56.1)	288 (24.8)	19 (1.6)	1,162 (100.0)
운영 시간	394 (33.8)	700 (60.0)	69 (5.9)	3 (0.3)	1,166 (100.0)
집과의 거리	366 (31.1)	564 (47.9)	205 (17.4)	43 (3.7)	1,178 (100.0)
식·간식	379 (32.5)	705 (60.4)	79 (6.8)	4 (0.3)	1,167 (100.0)
안전관리	319 (27.5)	760 (65.5)	80 (6.9)	2 (0.2)	1,161 (100.0)
차량운행	163 (18.7)	419 (48.2)	176 (20.2)	112 (12.9)	870 (100.0)
특별활동	185 (18.0)	688 (66.9)	136 (13.2)	19 (1.8)	1,028 (100.0)

<표 IV-105> 보육시설 만족도 시설유형별 평균

하위변인(총점)	보육시설구분	평균	표준편차	F통계값	사후검증
보육·교육 비용	전체	3.11	0.59	10.41***	(1,2) (1,3)
	국·공립	3.18	0.58		
	민간	3.02	0.57		
	가정	3.02	0.63		
교사	전체	3.34	0.58	1.04	
	국·공립	3.35	0.58		
	민간	3.30	0.57		
	가정	3.37	0.59		
프로그램	전체	3.11	0.57	0.26	
	국·공립	3.11	0.58		
	민간	3.09	0.55		
	가정	3.12	0.58		
시설 설비	전체	2.89	0.69	2.70	
	국·공립	2.87	0.71		
	민간	2.88	0.67		
	가정	3.01	0.67		
운영 시간	전체	3.27	0.58	2.50	
	국·공립	3.28	0.57		
	민간	3.23	0.58		
	가정	3.35	0.60		
집과의 거리	전체	3.07	0.79	3.50**	(1,3)
	국·공립	3.03	0.82		
	민간	3.06	0.75		
	가정	3.23	0.74		
식·간식	전체	3.25	0.58	5.26**	(2,3)
	국·공립	3.26	0.58		
	민간	3.18	0.58		
	가정	3.36	0.59		
안전관리	전체	3.20	0.56	3.86*	(1,3) (2,3)
	국·공립	3.19	0.55		
	민간	3.17	0.55		
	가정	3.32	0.58		
차량운행	전체	2.72	0.91	44.63***	(1,2) (1,3)
	국·공립	2.45	0.95		
	민간	3.03	0.75		
	가정	2.96	0.87		
특별활동	전체	3.01	0.62	0.62	
	국·공립	3.00	0.62		
	민간	3.00	0.61		
	가정	3.07	0.66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녀요인별 시설이용 만족도는 교사에 대해(3.34)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부모가 ‘교사’에 대해(3.44) 가장 만족스러워 하였다. ‘운영시간’(3.28), ‘식·간식’(3.24), ‘안전관리’(3.20) 순이었다. ‘보육·교육’ 비용에서는 장애아 부모(2.80)가 가장 낮게 답하였고, ‘시설 설비’(2.89)에서도 장애아 부모(2.67)가 가장 낮게 답하였다. ‘집과의 거리’(3.07), ‘차량 운행’(2.74) 등 세부적으로 장애아 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는 장애아 전담 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아 통합시설도 환경구성이 장애아 위주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영아의 부모는 ‘프로그램’(3.20)에서 다른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설 설비’(3.02), ‘운영시간’(3.34), ‘안전관리’(3.28) 등에서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육시설에 만족스럽지 못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운영’(35.9%), ‘시설’(21.5%), ‘거리’(15.5%), ‘프로그램’(14.9%), ‘안전’(9.8%), ‘교사’(2.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IV-107>. 시설운영에 있어서 ‘차량운행’, ‘보육료’ 등을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답하였다. 보육시설의 원내시설, 원외시설,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다고 답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별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운영에 있어서 차량 운행 요구(28.2%), 교사 대 아동 수의 낮은 비율(17.2%), 보육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다양화에 대해 요구하였고, 원내·외 시설 환경의 개선과 안전, 영양, 위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표 IV-108>.

<표 IV-106> 보육시설 만족도 자녀 요인별 평균

하위변인(총점)	보육시설구분	평균	표준편차	F통계값	사후검증
보육·교육 비용	전체	3.10	0.59	12.31***	(1, 3) (2, 3)
	영아	3.10	0.62		
	유아	3.14	0.55		
	장애아	2.80	0.66		
교사	전체	3.34	0.58	5.35**	(1, 2)
	영아	3.44	0.58		
	유아	3.30	0.57		
	장애아	3.36	0.58		
프로그램	전체	3.11	0.57	5.08**	(1, 2)
	영아	3.20	0.59		
	유아	3.08	0.56		
	장애아	3.09	0.57		
시설 설비	전체	2.89	0.70	9.53***	(1, 2) (1, 3)
	영아	3.02	0.70		
	유아	2.86	0.69		
	장애아	2.67	0.73		
운영 시간	전체	3.28	0.58	6.74***	(1, 3) (2, 3)
	영아	3.34	0.60		
	유아	3.28	0.56		
	장애아	3.07	0.59		
집과의 거리	전체	3.07	0.79	28.34***	(1, 3) (2, 3)
	영아	3.10	0.75		
	유아	3.12	0.76		
	장애아	2.45	0.91		
식·간식	전체	3.25	0.59	3.50*	(1, 3)
	영아	3.29	0.61		
	유아	3.25	0.57		
	장애아	3.10	0.68		
안전관리	전체	3.20	0.56	3.83*	(1, 2)
	영아	3.28	0.59		
	유아	3.18	0.55		
	장애아	3.15	0.55		
차량운행	전체	2.74	0.91	6.62***	(1, 2) (1, 3)
	영아	2.93	0.88		
	유아	2.70	0.90		
	장애아	2.52	0.97		
특별활동	전체	3.01	0.62	0.63	
	영아	3.05	0.67		
	유아	2.99	0.60		
	장애아	3.00	0.7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IV-107>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의 이유

구분		명(%)	
교사	교사 불만족	21(100.0)	21 (2.3)
시설	원내시설	102 (52.6)	194 (21.5)
	원외시설	83 (42.8)	
	시설(기관)의 주변환경	9 (4.6)	
	소계	194(100.0)	
안전	안전	48 (54.5)	88 (9.8)
	위생	11 (12.5)	
	영양	29 (33.0)	
	소계	88(100.0)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62 (46.3)	134 (14.9)
	장애아 교육프로그램	6 (4.5)	
	특별활동	49 (36.6)	
	교재·교구	16 (12.7)	
	소계	134(100.0)	
운영	보육시간	26 (8.0)	324 (35.9)
	보육비용	65 (20.1)	
	차량	213 (65.7)	
	교사대아동수	17 (5.3)	
	소신있는 운영	2 (0.6)	
	전문적인 운영기관 필요	1 (0.3)	
	소계	324(100.0)	
거리	집과의 거리	140(100.0)	140 (15.5)
기타	장애아에 대한 물리치료	1(100.0)	1 (0.1)
계			902(100.0)

<표 IV-108>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구분		명(%)	
교사	교사	34 (87.2)	39 (6.3)
	상근 보건교사 확보	5 (12.8)	
	소계	39(100.0)	
시설	원내시설	52 (52.5)	99 (16.0)
	원외시설	34 (34.3)	
	시설(기관)의 주변환경	13 (13.1)	
	소계	99(100.0)	
안전	안전관리	32 (42.7)	75 (12.1)
	위생관리	16 (21.3)	
	영양	27 (36.0)	
	소계	75(100.0)	
프로그램	프로그램	133 (80.6)	165 (26.7)
	장애아 교육 활성화	14 (8.5)	
	다양한 교재·교구	18 (10.9)	
	소계	165(100.0)	
운영	휴일보육	6 (3.5)	174 (28.2)
	보육시간	29 (16.7)	
	보육비용	19 (10.9)	
	차량운행	49 (28.2)	
	교사대 아동수	30 (17.2)	
	가정과의 대화	34 (19.5)	
	부모들의 소모임 활성화	2 (1.2)	
	유아반이 없어지는것에 대한 우려	3 (1.7)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더불어 엄격한 지도감독	1 (0.6)	
	년초 방학 도입 요망	1 (0.6)	
	소계	174(100.0)	
만족함	만족함	50(100.0)	50 (8.1)
기타	기타	16(100.0)	16 (2.6)
계			618(100.0)

다. 직업 및 자녀양육과 양성평등의식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과 가사일 병행시 부모로서 갖고 있는 양성평등의식에 대해 알아 보았다.

<표 IV-109> 직장 선택시 자녀 고려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자녀양육과 관련 없이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	96 (10.3)	17 (23.0)	113 (11.3)	8 (13.8)	16 (10.0)	64 (12.1)	24 (11.3)	5 (8.5)	117 (11.5)
보수등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녀양육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우선 고른다	707 (76.0)	45 (60.8)	752 (74.9)	45 (77.6)	114 (71.3)	395 (75.0)	159 (74.6)	48 (81.4)	761 (74.8)
기타	98 (10.5)	8 (10.8)	106 (10.6)	3 (5.2)	22 (13.8)	54 (10.2)	24 (11.3)	3 (5.1)	106 (10.4)
잘 모르겠다	29 (3.1)	4 (5.4)	33 (3.3)	2 (3.4)	8 (5.0)	14 (2.7)	6 (2.8)	3 (5.1)	33 (3.2)
계	930 (100.0)	74 (100.0)	1,004 (100.0)	58 (100.0)	160 (100.0)	527 (100.0)	213 (100.0)	59 (100.0)	1,017 (100.0)
통계치	$X^2=70.15$ df=6 p=.000								

직장을 고를 때 자녀양육을 고려하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74.8%(761명)가 ‘보수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자녀양육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성별로 살펴보면 모의 76.0%(707명)가 ‘고려하여 선택한다’고 응답하였고, 부의 60.8%(45명)가 ‘고려한다’고 답하였다. 모의 10.3%(96명)는 ‘자녀양육과 관련없이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23.0%(17명)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로써 부모중의 모가 직장선택시 자녀양육에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고려한다’에 8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24세(77.6%), 30~34세(75.0%), 35~39세(74.6%), 25~29세(71.3%) 순이었다. 직종 선택시 자녀양육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모의 경우가 36.9%가 ‘직장일을 먼저 한다’고 답하였다. 52.6%는 ‘자녀양육을 먼저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의 경우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자녀양육을 먼저 한다’가 54.7%였으며 ‘직장일을 먼저 한다’가 37.8%이었다. 부모의 연령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0세이상 부모가 ‘직장일을 먼저한다’는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고, 30~34세 부모 40.3%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먼저 한다’에 20대에서 30대까지 고르게 50% 이상이 답하였다. ‘직장일을 먼저한다’에 모(36.9%)와, 부(37.3%)가 비슷한 응답을 보인 것은 여성도 직장 선택후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IV-110> 직장일과 자녀양육 대립시 우선 수행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대체적으로 직장일을 먼저 한다	346 (36.9)	28 (37.3)	374 (37.0)	16 (27.6)	47 (29.0)	213 (40.3)	75 (34.7)	27 (45.0)	378 (36.9)
대체적으로 자녀양육 일을 먼저 한다.	493 (52.6)	41 (54.7)	534 (52.8)	33 (56.9)	90 (55.6)	272 (51.4)	118 (54.6)	29 (48.3)	542 (52.9)
기타	64 (6.8)	3 (4.0)	67 (6.6)	8 (13.8)	14 (8.6)	30 (5.7)	14 (6.5)	2 (3.3)	68 (6.6)
잘 모르겠다	34 (3.6)	3 (4.0)	37 (3.7)	1 (1.7)	11 (6.8)	14 (2.6)	9 (4.2)	2 (3.3)	37 (3.6)
계	937 (100.0)	75 (100.0)	1,012 (100.0)	58 (100.0)	162 (100.0)	529 (100.0)	216 (100.0)	60 (100.0)	1,025 (100.0)

<표 IV-111>에서와 같이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에 대한 응답은 모 538명(62.8%)이 ‘다소 지장이 있다’, ‘매우 지장이 있다’ 155명(16.7%)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9.5%가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부는 ‘다소 지장이 있다’ 36명(48.0%), ‘매우 지장이 있다(17.3%)’로 답해 부모보다 모가 보다 더 자녀양육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다소 지장이 있다’ 61.4%, ‘매우 지장이 있다’ 16.6%로 나타났다.

<표 IV-111>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매우 지장이 있다	155 (16.7)	13 (17.3)	168 (16.7)	4 (7.1)	18 (11.2)	92 (17.6)	44 (20.3)	11 (18.6)	169 (16.6)
다소 지장이 있다	583 (62.8)	36 (48.0)	619 (61.7)	36 (64.3)	93 (57.8)	326 (62.2)	135 (62.2)	34 (57.6)	624 (61.4)
별로 지장이 없다	175 (18.8)	23 (30.7)	198 (19.7)	15 (26.8)	48 (29.8)	99 (18.9)	33 (15.2)	9 (15.3)	204 (20.1)
전혀 지장이 없다	16 (1.7)	3 (4.0)	19 (1.9)	1 (1.8)	2 (1.2)	7 (1.3)	5 (2.3)	5 (8.5)	20 (2.0)
계	929 (100.0)	75 (100.0)	1,004 (100.0)	56 (100.0)	161 (100.0)	524 (100.0)	217 (100.0)	59 (100.0)	1,017 (100.0)
통계치	$X^2=9.30$ df=3 p=.026								

가사일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에는 모 13.3%가 ‘매우 지장이 있다’, ‘다소 지장이 있다’ 57.6%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 13.9%가 ‘매우 지장이 있다’, 47.2% ‘다소 지장이 있다’고 답하여 가사에 있어서 모가 다소 더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모 모두 가사일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부모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매우 지장이 있다’ 16.6%, ‘다소 지장이 있다’ 61.4%로 답해 가사일이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답하였다.

<표 IV-112> 가사일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매우 지장이 있다	124 (13.3)	10 (13.9)	134 (13.3)	3 (5.5)	15 (9.3)	78 (14.9)	31 (14.5)	8 (13.3)	135 (13.3)
다소 지장이 있다	537 (57.6)	34 (47.2)	571 (56.9)	35 (63.6)	85 (52.5)	307 (58.5)	121 (56.5)	29 (48.3)	577 (56.8)
별로 지장이 없다	243 (26.1)	25 (34.7)	268 (26.7)	14 (25.5)	53 (32.7)	130 (24.8)	54 (25.2)	20 (33.3)	271 (26.7)
전혀 지장이 없다	28 (3.0)	3 (4.2)	31 (3.1)	3 (5.5)	9 (5.6)	10 (1.9)	8 (3.7)	3 (5.0)	33 (3.2)
계	932 (100.0)	72 (100.0)	1,004 (100.0)	55 (100.0)	162 (100.0)	525 (100.0)	214 (100.0)	60 (100.0)	1,016 (100.0)

맞벌이부부 중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는 모의 응답에서는 ‘주로 모가 책임진다’ 52.9%, ‘부가 책임진다’ 0.9%,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4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응답에서도 ‘모가 책임진다’ 34.3%, ‘부가 책임진다’ 6.0%,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55.2%로 나타나 성별간의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가사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도 자녀양육에 대하여 모가 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모가 책임진다’ 51.6%(502명), ‘부가 책임진다’ 1.3%(13명),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42.3%(411명)로 나타나 모가 주로 책임을 지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는 자녀양육을 분담하여 책임지는 양성평등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가사에서 분담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9세(51.9%)였다.

<표 IV-113> 맞벌이 부부 중 자녀양육 주 책임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주로 (아이의)엄마가 책임진다	473 (52.9)	23 (34.3)	496 (51.6)	27 (51.9)	67 (41.9)	266 (53.5)	115 (56.1)	27 (46.6)	502 (51.6)
주로 (아이의)아빠가 책임진다	8 (0.9)	4 (6.0)	12 (1.2)	1 (1.9)	1 (0.6)	6 (1.2)	3 (1.5)	2 (3.4)	13 (1.3)
엄마와 아빠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370 (41.4)	37 (55.2)	407 (42.4)	20 (38.5)	83 (51.9)	204 (41.0)	78 (38.0)	26 (44.8)	411 (42.3)
주로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이 책임진다	16 (1.8)	0 (0.0)	16 (1.7)	1 (1.9)	6 (3.8)	8 (1.6)	1 (0.5)	0 (0.0)	16 (1.6)
기타	27 (3.0)	3 (4.5)	30 (3.1)	3 (5.8)	3 (1.9)	13 (2.6)	8 (3.9)	3 (5.2)	30 (3.1)
계	894 (100.0)	67 (100.0)	961 (100.0)	52 (100.0)	160 (100.0)	497 (100.0)	205 (100.0)	58 (100.0)	972 (100.0)
통계치	$X^2=21.47$ df=4 p=.000								

맞벌이부부 중 가사활동을 누가 주로 담당하는가에는 여자들의 경우, ‘주로 부인이 책임진다’ 63.7%, ‘주로 남편이 책임진다’ 0.1%,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31.0%로 나타났다. 남자들의 응답은 ‘주로 부인이 책임진다’ 40.3%, ‘주로 남편이 책임진다’ 3.0%,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53.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가사 활동을 ‘주로 부인이 책임진다’(62.1%)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이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32.6%로 나타났다.

여자의 응답에 비해 남자들의 응답에서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53.7%)’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여자가 가사일에 책임지는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부모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주로 부인이 책임진다’ 62.2%,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32.3%로 답하였다. 20~24세 66.7%, 35~39세 66.2%, 30~34세 62.1%, 25~29세 60.4%, 40세 이상 50.0%로 나타났다. ‘주로 남편이 책임진다’의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1%를 넘지 못하였다.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는 경우는 40세 이상 37.9%, 25~29세 35.2%, 30~34세 32.1%, 35~39세 29.9%, 20~24세 29.4%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가사활동의 주 담당자 역할을 부인이 수행하고 있으나, 남편과 분담하는 비율도 30%선을 나타내고 있다<표 IV-114>.

<표 IV-114> 맞벌이 부부 중 가사활동 주 담당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주로 부인이 책임진다	568 (63.7)	27 (40.3)	595 (62.1)	34 (66.7)	96 (60.4)	308 (62.1)	135 (66.2)	29 (50.0)	602 (62.2)
주로 남편이 책임진다	1 (0.1)	2 (3.0)	3 (0.3)	0 (0.0)	0 (0.0)	2 (0.4)	1 (0.5)	0 (0.0)	3 (0.3)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276 (31.0)	36 (53.7)	312 (32.6)	15 (29.4)	56 (35.2)	159 (32.1)	61 (29.9)	22 (37.9)	303 (32.3)
주로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이 담당한다	20 (2.2)	0 (0.0)	20 (2.1)	1 (2.0)	3 (1.9)	10 (2.0)	4 (2.0)	3 (5.2)	21 (2.2)
기타	26 (2.9)	2 (3.0)	28 (2.9)	1 (2.0)	4 (2.5)	17 (3.4)	3 (1.5)	4 (6.9)	29 (3.0)
계	891 (100.0)	67 (100.0)	958 (100.0)	51 (100.0)	159 (100.0)	496 (100.0)	204 (100.0)	58 (100.0)	968 (100.0)
통계치	$X^2=33.35$ df=4 p=.000								

저녁 모임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은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담당한다’가 54.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친인척’(21.9%), ‘형제자매’(10.1%), ‘이웃’(3.1%)의 순으로 답하였다. 모의 경우 ‘배우자가 담당한다’ 54.7%, 부의 경우 52.1%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부모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담당한다'(54.5%), '친인척에게 부탁한다'(21.8%), '형제자매가 담당한다'(10.1%)의 순이었다. 25~29세 58.8%, 35~39세 55.5%, 30~34세 53.6%, 20~24세 52.8%, 40세 이상 49.2%의 순으로 배우자가 담당한다고 답하였다. 부모 연령별에서도 배우자 다음으로는 친인척, 형제자매, 이웃의 순으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저녁모임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 지원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배우자가 담당한다	504 (54.7)	38 (52.1)	542 (54.5)	28 (52.8)	94 (58.8)	280 (53.6)	117 (55.5)	29 (49.2)	548 (54.5)
형제자매가 담당한다	92 (10.0)	8 (11.0)	100 (10.1)	8 (15.1)	13 (8.1)	48 (9.2)	25 (11.8)	8 (13.6)	102 (10.1)
친인척에게 부탁한다	208 (22.6)	10 (13.7)	218 (21.9)	11 (20.8)	35 (21.9)	128 (24.5)	33 (15.6)	12 (20.3)	219 (21.8)
이웃에게 부탁한다	26 (2.8)	5 (6.8)	31 (3.1)	1 (1.9)	1 (0.6)	16 (3.1)	10 (4.7)	3 (5.1)	31 (3.1)
도와주는 사람(가정 부동)에게 부탁한다	19 (2.1)	0 (0.0)	19 (1.9)	0 (0.0)	2 (1.3)	12 (2.3)	5 (2.4)	0 (0.0)	19 (1.9)
기타	73 (7.9)	12 (16.4)	85 (8.5)	5 (9.4)	15 (9.4)	38 (7.3)	21 (10.0)	7 (11.9)	86 (8.6)
계	922 (100.0)	73 (100.0)	995 (100.0)	53 (100.0)	160 (100.0)	522 (100.0)	211 (100.0)	59 (100.0)	1,005 (100.0)
통계치	$X^2=13.35$ df=5 p=.020								

자녀가 아픈 경우 주 대처자는 '모가 담당한다'(여자 55.2%, 남자4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반반 담당한다'에 여자 22.7%, 남자 32.3%로 나타났으며, '부가 담당한다'는 여자 응답자 4.5%, 남자 7.7%를 보였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병원에 데리고 간다'에도 여자, 남자의 반응이 각각 7.4%, 10.8%를 나타나 어린이집에서 대처해 주는 비율이 아빠가 담당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보육 시설에서 대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모가 담당한다' 54.6%, '부모가 반반 담당한다' 23.3%, '부가 담당한다'(1.7%)의 순이었다. 각 연령별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주 대처자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이 부모가 반반 담당, 친인척, 어린이집 종

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 담당하는 것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보다 낮았다.

맞벌이부부의 직장일과 자녀양육시의 양성평등의식은 직장 선택에서부터 자녀양육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일과 자녀양육이 겹쳤을 때에는 자녀양육을 우선하는 비율이 52.8%로 나타났으나, 직장일을 고려한다는 비율도 부, 모 양쪽 37.0%를 나타내 직장일에 충실하면서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으려는 태도로 보여진다. 자녀양육이 직장일에 지장을 준다고 부모 모두(다소 지장이 있다 61.7%, 매우 지장이 있다 16.7%) 응답하였다.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로는 부가 책임진다가 1.2%인데 비해 모가 책임진다 51.6%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인 경우에도 자녀양육이나 가사를 여자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6> 맞벌이 부부에서 자녀가 아픈 경우 주 대처자

단위 : 명(%)

구분	성별			부모연령별					
	여자	남자	계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계
주로 (아이)엄마가 담당한다	491 (55.2)	29 (44.6)	520 (54.5)	31 (59.6)	72 (46.2)	280 (56.3)	116 (57.7)	27 (46.6)	526 (54.6)
주로 (아이)아빠가 담당한다	40 (4.5)	5 (7.7)	45 (4.8)	0 (0.0)	11 (7.1)	24 (4.8)	7 (3.5)	3 (5.2)	45 (4.7)
엄마과 아빠가 반반 담당한다	202 (22.7)	21 (32.3)	223 (23.4)	11 (21.2)	38 (24.4)	106 (21.3)	51 (25.4)	19 (32.8)	225 (23.3)
주로 친인척에게 부탁한다	82 (9.2)	2 (3.1)	84 (8.8)	4 (7.7)	15 (9.6)	49 (9.9)	12 (6.0)	5 (8.6)	85 (8.8)
주로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이 담당한다	4 (0.4)	1 (1.5)	5 (0.5)	0 (0.0)	0 (0.0)	2 (0.4)	3 (1.5)	0 (0.0)	5 (0.5)
어린이집(놀이방) 교사나 원장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66 (7.4)	7 (10.8)	73 (7.7)	5 (9.6)	19 (12.2)	34 (6.8)	12 (6.0)	3 (5.2)	73 (7.6)
기타	4 (0.4)	0 (0.0)	4 (0.4)	1 (1.9)	1 (0.6)	2 (0.4)	0 (0.0)	1 (1.7)	5 (0.5)
계	889 (100.0)	65 (100.0)	954 (100.0)	52 (100.0)	156 (100.0)	497 (100.0)	201 (100.0)	58 (100.0)	964 (100.0)

라. 어려운 점 제안사항

1) 보육시설

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설 운영에 대한 요구(28.2%), 프로그램의 다양화(26.7%), 시설 환경(16.0%), 위생 및 영양, 안전(12.1%), 교사(6.3%) 항목에 대한 어려운 점과 제안이었다.

보육시간은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많은 보육시설들이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높아 교사가 각 아동을 보호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을 때 영아의 안전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전문적인 보육시설의 요건으로 보건교사, 영양사 등 전문교사로 구성된 보육시설을 희망하였다.

시간연장보육 실시와 적절한 보육료의 산정으로 가계에 부담이 덜 되기를 원하였다. 보육시설과 먼 거리에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희망하였다. 영유아들의 발달사항 등을 기록해 주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시설을 원하였다.

영아들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길 희망하였다. 프로그램은 영아와 유아의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희망하였다. 교재 교구가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과,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모의 의견도 있었다. 특별활동 교육이 다양화되길 원하는 부모들의 의견도 많았다. 영유아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인성 발달을 위한 놀이중심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보육시설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비와 환경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영아들을 안심하고 맡기 어렵고 원내시설이 협소하여 활동 공간이 비좁아 영아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 주변이 교육환경과 맞지 않는 것도 불만사항으로 들었다. 부모들은 보육시설 교사가 자주 교체되는 점, 아이를 대하는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부족 등을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답하였다. 장애아교사의 경우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를 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라고 지적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IV-117>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구분		명(%)	
교사	교사	34 (87.2)	39 (6.3)
	상근 보건교사 확보	5 (12.8)	
	소계	39(100.0)	
시설	원내시설	52 (52.5)	99 (16.0)
	원외시설	34 (34.3)	
	시설(기관)의 주변환경	13 (13.1)	
	소계	99(100.0)	
안전	안전관리	32 (42.7)	75 (12.1)
	위생관리	16 (21.3)	
	영양	27 (36.0)	
	소계	75(100.0)	
프로그램	프로그램	133 (80.6)	165 (26.7)
	장애아 교육 활성화	14 (8.5)	
	다양한 교재·교구	18 (10.9)	
	소계	165(100.0)	
운영	휴일보육	6 (3.5)	174 (28.2)
	보육시간	29 (16.7)	
	보육비용	19 (10.9)	
	차량운행	49 (28.2)	
	교사대 아동수	30 (17.2)	
	가정과의 대화	34 (19.5)	
	부모들의 소모임 활성화	2 (1.2)	
	유아반이 없어지는것에 대한 우려	3 (1.7)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더불어 엄격한 지도감독	1 (0.6)	
	년초 방학 도입 요망	1 (0.6)	
	소계	174(100.0)	
만족함	만족함	50(100.0)	50 (8.1)
기타	기타	16(100.0)	16 (2.6)
계			618(100.0)

2) 정부

부모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응답자의 41.0%가 가장 높게 답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매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보육 유형의 활성화(17.8%)를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의 증대 및 의무화, 정부지원 영아보육 시설 증대를 요구하였다.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야간반 운영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증대를 제안해 사회 및 가정의 변화에 따른 보육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6.6%),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원(4.7%), 자녀양육 지원서비스제도 확립(1.8%) 등을 요구하였다. 보육시설 관리(10.9%)를 위해서는 시설인증제 도입을 원하였고, 국가에서 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렴한 보육료와 무상 보육의 확대, 장애아의 특수교육비의 정부 지원, 소득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자녀수에 따른 보육비의 지원 등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아를 맡아 줄 영아보육시설 및 장애아통합교육 시설 확충,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시설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보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줄어든 현실에서 특수보육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원진료, 정보제공 등 보육의 포괄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보육 시설의 관리와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근무조건의 개선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수당 법제화, 탄력적 근무시간 실시 등을 사회에 확산 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표 IV-118> 정부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단위 : 명(%)

구 분		빈도	
지원	보육료 지원 확대	93 (41.0)	227 (26.8)
	아동수에 따른 보육비 차등 지원	1 (0.4)	
	세금 공제	5 (2.2)	
	상근 보건교사 확보	10 (4.4)	
	민간 보육시설 지원확대	22 (9.7)	
	폭넓은 재정지원	43 (19.0)	
	의무교육(무상교육)	15 (6.6)	
	기타 지원	38 (16.7)	
소계		227(100.0)	
다양한 보육유형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의 증대 및 의무화	39 (25.8)	151 (17.8)
	정부지원 영아보육 시설 증대요망	38 (25.2)	
	부모의 출·퇴근에 맞는 탄력적 육아 보육 형태(연장보육등)	10 (6.6)	
	장애아 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26 (17.2)	
	야간반 운영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증대, 활성화	22 (14.6)	
	방과후 보육(교육)	12 (8.0)	
	휴일보육	2 (1.3)	
	연령을 구분한 보육시설	2 (1.3)	
소계		151(100.0)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원	40(100.0)	40 (4.7)
수준향상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56(100.0)	56 (6.6)
국·공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16(100.0)	116 (13.7)
자녀양육서비스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제도 확립	15(100.0)	15 (1.8)
관리	관리감독 철저	5 (5.4)	92 (10.9)
	효율적 운영관리	1 (1.1)	
	교사대 아동비 하향조정	20 (21.7)	
	시설인증제 도입	66 (71.7)	
소계		92(100.0)	
교사	교사의 처우(근무환경)개선 및 전문화	55(100.0)	55 (6.5)
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	34 (44.2)	77 (9.1)
	자녀를 둔 부모들의 탄력적 근무시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법적제도 필요	6 (7.8)	
	가정·가정 양립 지원 제도	10 (13.0)	
	교육제도	14 (18.2)	
	교육제도	13 (16.9)	
소계		77(100.0)	
기타	기타	17(100.0)	17 (2.0)
전체		846(100.0)	

마. 소결

부모의견 설문 조사를 부모들이 보육시설 활용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총1,186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 960명(80.9%), 중·소도시 거주자 201명(16.9%), 군지역 25명(2.1%)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6.0%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31.3%, 가정보육시설(놀이방) 12.5%, 직장보육시설 0.3%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 순위는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67.5%), ‘좋은 프로그램’ (35.6%), ‘훌륭한 교사’ (29.9%) 순이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 가운데 유아들(3세~5세)은 75.5%, 영아(1세 미만~2세아)들은 24.3%로 나타나 영아들의 보육시설 활용도가 낮았다. 3~5세아들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저연령층의 활용도가 더 높았다.

자녀 양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활용 부모 모두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낮시간 동안 영아를 맡아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가 1순위 요인이고, 2순위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이었다. 장애아는 1순위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친구들과 사귀도록 하려고)’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46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08천원, 가정보육시설이 25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높은 것은 저연령층의 영아 보육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료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에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61.2%, 민간보육시설은 48.8%, 가정보육시설은 54.2%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33.1%, 가정보육시설 34.5%가 부담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현재의 보육료 보다 세 시설 이용 부모 모두 보육료가 낮아지길 희망하였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42.7%가 ‘관심이 매우 높다’, ‘조금 있다’ 49.8% 순으로 답해 보육 정책에 관심이 높음을 나타냈다.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는 43.1%가 ‘잘 알고 있다’, 42.3%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해 보육료 감면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보육시설 만족도는 4점 척도에서 보육, 교육 비용(3.11), 교사(3.34),

프로그램(3.11), 시설설비(2.89), 운영시간(3.27), 집과의 거리(3.07), 식·간식(3.25), 안전관리(3.20), 차량운행(2.72), 특별활동(3.01) 등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양육과 가사일 병행시 부모로서 갖고 있는 양성평등 의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장을 고를 때 자녀양육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모의 성별로 살펴보면 모의 76.0%, 부의 60.8%가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모의 10.3%는 자녀양육과 관련 없이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고 답하였고, 부의 23.0%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직장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경우가 모의 경우 36.9%가 ‘직장일을 먼저 한다’고 답했고, ‘자녀양육을 먼저 한다’ 52.6%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에는 모 62.8%가 ‘다소 지장이 있다’, ‘매우 지장이 있다’ 16.7%로 나타났다. 부는 ‘다소 지장이 있다’ 48.0%, ‘매우 지장이 있다’ 17.3%로 답해 부모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는 모의 응답에서는 ‘주로 모가 책임진다’ 52.9%, ‘부가 책임진다’ 0.9%,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4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응답에서도 ‘모가 책임진다’ 34.3%, ‘부가 책임진다’ 6.0%,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55.2%로 나타나 모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분담하여 책임진다’의 응답이 모의 응답에서 41.4%, 부의 응답에서 55.2%로 나타나 자녀양육이 양성평등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수 있다.

어려운 점 및 제안 사항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서는 시간연장 보육실시와 가계에 부담이 덜 되는 적절한 보육료 산정을 원하였다. 보육시설과 먼 거리에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희망하였다.

영아들 발달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실시, 교재 교구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을 원하였다.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비와 환경구성이 이루어져 영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하였다. 부모들은 보육시설 교사들은 높은 이직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부족 등을 들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빈부 격차없이 평준화 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길 요구하였다.

저렴한 보육료와 무상 보육의 확대, 장애아의 특수교육비의 정부 지원, 소득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자녀수에 따른 보육비의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보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의 비율 하향 조정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세 미만 영아전담시설 확대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확충을 건의하였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보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줄어든 현실에서 특수보육의 요구도 증가하여 야간보육, 24시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4. 보육현장의 문제점

가.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문제점

1) 민간 위주 보육현장 운영의 문제점

총 보육시설 20,097개소(2001년 12월 말)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6.5%이고 기타 93.5%는 민간보육시설이다. 지난 10년간 보육시설 증가율을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공보육이 민간 보육위주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공립시설 위주로 지원 정책을 펴온 관계로 민간 보육시설들은 수익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 결과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보육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시설장의 요구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2002년 6월 현재 이러한 민간 보육시설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민간 보육시설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하여 시설장들의 보수가 낮았다(월평균 : 국·공립보육시설 1,427천원, 법인보육시설 1,404천원, 민간보육시설 1,348천원, 가정보육시설 1,264천원, 직장보육시설 1,243천원). 보육교사 보수 역시(국·공립보육시설 1,030천원, 법인보육시설 1,051천원, 민간보육시설 811천원, 직장보육시설 834천원, 가정보육시설 751천원) 시설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학력과 전공을 포함한 전문성에서도 민간보육시설

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험가입에서도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가입율이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간보육시설 점유율 94.0%인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발전 대안이 가능하다. 우선 보육선진국에서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충해나가는 것과, 다른 한편 일정 기준이 갖추어진 민간보육시설은 점차 국·공립보육시설 수준과 동일한 지원을 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육현장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

보육현장에서는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한편 2002년 보육정원 대비 현원은 86%로 영유아들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원이용율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96%, 민간 보육시설 87%, 직장 보육시설 78%, 가정보육(놀이방) 71%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국·공립 보육시설임을 알 수 있다. 보육대상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은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질적 수준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보육료가 비싼 점을 들고 있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는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현장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원충족율이 86%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조사 시설 중 184개 시설(59.4%)에서는 평균 대기아수가 평균 53명(총 9,734명)이었다. 또한 시설에 따라 최대 425명까지 대기아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편 시설장들의 44% 이상은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시설에 따라서는 정원수보다 많은 대기아가 있기도 하고 혹은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아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유아인 경우 '인근 유사시설과의 경쟁 때문에 (41.4%)', 영아인 경우 '수요가 부족한 것 같다(36.1%)'로 나타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의 부모들은 비용을 다소 더 지불하더라도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육시설 선택시 보육비 부담이 적은 곳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육 발전 방안 마련에서는 차등보육제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고

록 하는 방안으로는 정부지원의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사 양성 및 관리체제 정비, 평가인증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3) 특수보육의 미비

현재 대부분의 보육현장은 3~5세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연장보육,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취업여성의 분포가 M자형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장애 대기아는 42개 보육시설(12.5%)에서 평균 11명(총 461명)이었고, 야간·24시간 대기아는 19개시설에서 평균 9명(총 166명)이었다. 일반 영유아 대기가 일부 보다 나은 시설로 이동하길 원하는 수치가 포함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특수보육은 실수요치라고 하겠다. 따라서 총 보육시설 21,267개소에 대비시 특수보육을 희망하는 대기아는 장애영유아 29,266명, 야간·24시간 대기아 10,538명을 추계해 볼 수 있다.

한편 심층면접 결과에 의할 때 현재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운영사례를 제시하면서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즉, 특수보육인 경우 보육 인력지원, 특수치료 인력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요구되었다. 장애아는 및 24시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들은 대부분 편부등의 한부모 가족 자녀들로 저녁식사, 아침식사, 목욕시키기, 아이들 옷 세탁하기 등을 지원할 인력이 요구되었고, 특수보육 이용시 보육시설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의료시설과 긴밀한 연계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유아 및 시설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사관리 체제의 미흡

보육의 질적 수준 보장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82,231명으로 이 중 시설장 20,054명, 보육교사 47,030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양성과정과 자격관리, 경력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보육교사 평균보수는 민간 보육시설이 평균 750 - 800천원, 최소 400천원 최대 1,500천원이었다. 그러나 평균 보육경력 4.7년, 최대 경력 15년차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육교

사 보수가 열악하여 보수 지원 방안 마련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보육선진국에서는 보육시설들이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구분없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보육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시설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시설장들은 평균 보육경력 9년(기타 경력 평균 10년)에 월평균 1,373천원을 수령하고 있었다(최소 500천원, 최대 3,000천원). 한편 조사응답 보육교사의 44.4%가 보육교사 양성소 졸업 인정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력에서도 전문대학 졸업자 47.1%, 고졸이하 19.9%인 점을 감안할 때 보육현장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확대 등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들은 보육프로그램 지원요구(30.1%), 교사들에 대한 지원 확대(25.5%), 시설·설비 지원확대(13.6%), 정부고시 규정 준수(12.2%) 등을 요구하고 있어 보육발전 정책 마련에서는 이와 같이 보수, 근무조건 개선, 전문성 향상 등의 요구사항들이 수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관리감독 체제의 미흡

현재 평가인증제도 도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하여 21,000개소를 넘고 있으나 이들이 어떤 교사에 의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보육현장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86%를 점유하고 있는 정부 비지원 시설에 정부 지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부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12개월 미만아, 1세아, 2세아 모두 교사 한명이 최대 영아 9명까지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0세아의 경우 기준 초과 9.8%, 1세아 32.1%, 2세아 31.5%였다. 3세아의 경우 역시 교사 1인이 2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14.0%로 최대 44명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4-5세아의 경우에서도 교사 1인이 2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각각 20.3%, 31.4%, 최대 38명, 41명이었다. 이로써 보육현장에서는 정부기준 보육료를 다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영유아를 과중하게 배치하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들을 점검, 관리하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도입이 적극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부 재정부담의 열악

2000년도 말부터 보육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면서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육발전을 위해서 관련요인들이 점검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온 보육현장의 문제점들이 점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현장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부분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보육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여 왔고, 이러한 투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시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보육분야 발전을 위하여 재정을 증액 투자하여야 하는가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2001년도 보육비용 중 정부의 부담율은 25% 수준으로 추계되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보육현장 지원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스웨덴 83%, 프랑스 75%, 일본 54%, 미국 41% 등과 비교시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부담이 더욱 증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7) 정부 보육정책의 미흡

우리 나라는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발전을 위한 준비기를 거쳤으며, 이제 발전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보육정책 마련은 2000년도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육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 보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2001년도 말 여성부에서도 보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로 2002년도 3월 6일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는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동 방안은 과제중심 활성화 방안으로 과제별 추진계획이 누락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추가 작업들을 위한 노력이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다. 향후 보육정책은 아동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 등과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특수보육의 문제점

1) 영아보육의 문제점

○ 기초조사의 미비

본 조사결과와 0세아는 81개 시설(응답시설의 24.2%)에서 평균 1명 총 781명, 1세아는 137개 시설(40.9%)에서 평균 17명 총 2,325명, 2세아는 144개 시설(43.0%)에서 평균 20명 총 2,847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영아보육의 확충요구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부모들이 빠른 입소를 위해 중복대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역자치 단체별로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 규정의 미비

현재 2세미만 영아는 교사 한 명당 영아 5명, 2세아는 교사 한 명당 영아 7명을 보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이란 교사가 한 순간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교사대 영아비율 규정이 변경,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영아의 입원, 퇴원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교사 한 명당 보육 영아를 늘려 돌보도록 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정부기준에 의하여 0세아를 6명 이상 돌보고 있는 교사는 9.8%, 서울시 기준에 의해 4명 이상 돌보고 있는 교사는 49.0%에 달하고 있다. 또한 1세아의 경우에서도 교사 한 명당 돌보고 있는 영아가 6명 이상인 경우가 32.1%였으며, 2세아에서 8명 이상 돌보고 있는 비율 역시 31.5%였다. 따라서 영아보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교사대 영아 비율을 융통성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운영실태에 따라 영아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세부 운영지침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영아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아보육 현장으로부터 영아보육과정 개설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영아보육과정은 영아교사 양성과정 및 현재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과정 모두가 요구되고 있다.

○ 영아프로그램 요구

아직까지 영아전담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 프로그램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아보육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용 기본 시설·설비, 연령별 놀이감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아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영아보육 보육료 조정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보육시설들은 유아보육에 비하여 영아보육비를 <표 IV-119>에서와 같이 다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119> 영아보육비의 정부단가와 비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2세미만	시 기준	206,000		338,000	362,000	
	현재	205,000	214,000	258,000	281,000	315,000
	차액	+1,000	+8,000	-80,000	-81,000	-47,000
2세아	시 기준	168,000		274,000	362,000	
	현재	168,000	179,000	214,000	241,000	269,000
	차액	0	+11,000	-60,000	-121,000	-93,000

한편 영아전담 및 영유아 통합은 가정보육시설(42.4%, 37.9%)과 민간보육시설(36.8%, 23.9%)에서 국·공립보육시설(26.3%, 28.1%)이나 법인보육시설(26.9%, 14.8%)보다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영아보육은 정부고시 보육료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아 보육현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으며 그러나 부모들에서도 유아보육에 비하여 영아보육 보육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 지원 문제

영아기란 인생에서 스스로 자생력이 가장 불가능한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 돌연사, 영아질식사 등 사고 발생도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다. 그런 이유로 보험사들이 영아보험을 제도화하려고 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문제가 되므로 시설장들이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있기도 하다.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들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야간·24시간 보육의 문제점

○ 기초 조사의 미비

야간·24시간 보육 요구가 파악되어 있지 않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 및 경제 사회의 변화에서 여성 노동집단의 다양화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특히 야간보육 희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요예측이 되어있지 않아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야간·24시간 요구 영유아는 19개소의 평균 8명 총 166명이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요구된다.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간·24시간 보육실태 역시 자세한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할 때 24시간 보육에 저녁 및 아침식사 제공, 보육 영유아의 세면, 목욕, 세탁 등이 요구되고 있었다. 특히 국경일, 휴일에도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한편 24시간 보육 영유아의 경우 집과 같은 공간 즉, 영유아 개인 공간, 잠자리 공간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어 24시간 보육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24시간 보육프로그램 개발 요구

한편 현재 24시간 보육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편부 가정이 많았으며, 대부분 저소득 가정이어서 일반보육과는 다른 운영상의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해체가정 및 극빈 지역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까지 있어 이에 대비한 치료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도를 포함한 부모대체 프로그램,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들이 요구되고 있었다. 영유아 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정서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들이 요구되었다.

○ 보육교사 지원 시스템 구축

24시간 보육은 대체적으로 혼합연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유아 중심이어서 교사들의 보육업무가 일반보육에 비하여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저녁 잠자는 시간에는 영유아 수에 관계없이 교사 혼자 지키는 것을 불안해하였으며, 특히 미혼 교사인 경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배치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 보수교육 및 보수 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어 24시간 보육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성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아 보육의 문제점

○ 기초조사의 미비

본 조사결과에 의할 때 장애대기 영유아는 42개 보육시설에서 평균 11 명, 총 461명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육 대상이 되는 장애아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조윤경 등(2002)의 연구에 의할 때 장애보육시설 부족으로 장애아 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보육 수요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 규정의 미비

현재 장애아보육 관련 규정으로는 보육료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1-3급은 2세 미만 보육단가를, 4-6급은 2세 보육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면접결과 5세 이하의 경우 장애 1-3급 및 4-6급은 구분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의사들 역시 등급판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료 산정역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아 전담시설은 물론 장애아 통합시설에서도 장애아동 보육에는 별도의 인력이 요구되므로 세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교사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 보육시에는 치료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시설 설비 및 공간이 요구되고 있고 특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 역시 요구되고 있어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아 프로그램 개발 요구

장애아의 특징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 보육시설에 장애아 통합이 도입, 권장되고 있으므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램 개발 및 교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 조기발견 프로그램,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다.

○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 보육료가 2세 및 2세미만아 보육료에 준하고 있는 한편 부모들은 장애가 심한 경우 특수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보육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운영지원

보육현장에서는 장애아 보육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장애아 보험제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아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활성화 방안

1. 보육정책 개발 목적	259
2. 정책 목표	259
3. 핵심정책과제	259
4. 정책과제	259
5. 4대 우선 추진 과제	261
6. 정책과제별 추진 전략	261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보육정책을 제안한다.

1. 보육정책 개발 목적

여성·남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 영유아의 교육 및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건강한 가정 지원체계 확립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2. 정책 목표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의 양적·질적 향상
- 지역사회 통합 보육 모형 구축

3. 핵심정책과제

- 핵심정책과제 1 :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
- 핵심정책과제 2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방안 마련
- 핵심정책과제 3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핵심정책과제 4 : 지역사회 통합 보육 모형 구축
- 핵심정책과제 5 : 효율적인 보육행정·지원체계 구축
- 핵심정책과제 6 : 기업의 보육정책 확대
- 핵심정책과제 7 : 가정과 기업에서의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문화 확산

4. 정책과제

정책과제 1 -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

- 1) 공보육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기반 확충

- 2)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 확대
- 3)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 4) 읍·면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과제 2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방안 마련

- 1)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2) 야간·공휴일·시간제 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3) 장애아 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보호 및 여성의 안정된 취업여건 조성을 위한 방과후 보육 확대

정책과제 3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1) 보육시설 관리, 평가제도 개발, 도입
- 2) 유형별 표준 보육과정 검토, 정비
- 3) 유형별 시설·환경구성, 필수 교재·교구 관련 표준지침서 개발
- 4) 보육교사 양성과정 정비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
- 5)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확대, 강화
- 6)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책과제 4 - 지역사회 통합 보육 모형 구축

- 1)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모색
- 2) 지역사회 기반 자녀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 5 - 효율적인 보육행정·지원체계 구축

- 1) 보육행정체계의 정비 및 전문화
- 2) 보육정보센터 운영체계 및 역할 재정립
- 3) 보육위원회 활성화
- 4) 보육전담 연구기관 설치

정책과제 6 - 기업의 보육정책 확대

- 1) 직장의 자녀양육 참여 활성화

정책과제 7 - 가정과 기업에서의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문화 확산

- 1) 자녀양육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 문화 확산
- 2)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방안 마련

5. 4대 우선 추진 과제

- 1)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 제도』 확대
- 2)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3)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확립을 위한 『보육시설 관리, 평가제도』 확립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 제도』 정비
- 4) 지역사회 자녀양육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형』 구축

6. 정책과제별 추진 전략

정책과제 1 -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

1-1. 공보육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기반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이란 국가 및 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제도로 공공성,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다.
-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변화와 인구·가족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보육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70% 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경우 보육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가족 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서도 자녀양육

의 가족지원체제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인 자녀양육지원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 보육의 공공성 확보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의미한다. 오늘날 보육 문제는 사회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의한 가정의 자녀양육 곤란으로 발생되고 있다. 육아는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문제해결 책임 역시 사회에 있다고 본다. 보육의 공공성은 영유아 보육 문제를 시장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육아 문제를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관 때문에 가족 내에서 시장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시장원리의 특성상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매력은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아의 문제를 시장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과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함.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보육재정에서 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부 부담율은 25% 수준이다. 이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스웨덴 83%, 프랑스 75%, 일본 54%, 미국 41% 등으로 우리 나라의 국가분담이 매우 저조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추진전략

- 현재 정부의 보육비용분담율을 현행 25%에서 2007년 6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매년 7% 이상씩의 증액을 요구하는 수치이다. 국가는 현재의 총 보육비용을 1조 3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7%는 약 9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증가율 35%는 4,550억원이다.
- 보육특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정부 예산 담당 부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용분담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타 기업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

1-2.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는 3단계로 ① 법정 저소득층 100% 지원, ② 기타 저소득층 40% 지원, ③ 지원이 없는 일반 영유아로 구분된다.
- 2002년도 보육영유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0~4세아 105,780명(104,856,048천원), 5세아 무상보육 86,982명(103,288,592천원)으로 총 192,762명임. 이는 2001년도 12월말 현재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영유아 734,192명의 26.3%에 해당한다. 0~4세아의 경우 1인 월평균 지원액은 83,000원임. 5세아 무상보육비는 1인 월평균 99,000원이다. 2001년 기준 국가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는 56,511명(7.7%)이고 국가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 40%를 지원받는 기타 저소득층 영유아는 95,161명(13.0%)임. 우리 나라는 OECD국가중 부모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다.
- ※ 참고 : 유치원 5세아 무상교육 유아는 48,000명(약7%)이다.

<표 V-1> 2002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아동수	지원액	1인당 지원액/월
0~4세	105,780	104,856,048	83
5세	86,982	103,288,592	99
소 계	192,762	208,144,640	

- 그러나 보육이란 공공정책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합의되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에서는 5세, 4세, 3세 무상 보육에 이어 무상지원 연령을 하향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역시 보육료 지원 단계의 폭을 넓혀 지원 혜택을 받는 영유아의 수를 넓히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보육시설들의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전략

- 현행 보육료 지원 단계를 확대하여 지원 영유아의 폭을 넓힌다. 즉, 영유아 보육료 차등지원제도를 현행 3단계(① 법정 저소득층, ② 기타 저소득층, ③ 일반아동)에서 6단계로 확대,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점차 넓혀나감으로써 부모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6단계 지원 범위는 ① 법정저소득, ② 기타저소득(80%지원), ③ 기타저소득(60%지원), ④ 기타저소득(40%지원), ⑤ 기타저소득(20%지원), ⑥ 일반아동으로 한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게는 특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 이로써 2001년도말 보육시설 취원아동중 정부지원아 20.7%(152,672명)을 2007년도까지 50%로 늘린다.

1-3.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정부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민간보육시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하향화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보육시설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전략

-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보육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일반 및 특수보육 보육교사 양·보수교육 확대 및 비용지원, 출산 및 보수교육 참가와 관련한 대체교사 지원, 노후 시설에 대한 증·개축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교사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사관련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 차등보육료 확대, 시설에 대한 증·개축 지원, 교사지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 인가조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현재까지 국가지원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제도적 관리,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 증·개축 지원은 국·공립법인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에 지원되고 있다.

- 현재 보육시설 20,097개소중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93.5%에 달한다. 이들 민간보육시설에도 시설 증·개축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단 민간시설에 대한 증·개축 지원은 민간(자가)시설, 그리고 개원한 지 10년이 지난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민간시설중 자가보유율은 10~20%로 추정된다. 2001년 12월 현재 민간시설중 10년이 지난 시설은 638개소로 단체 46개소, 개인/놀이방 588개소 등이다.
-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축 10년 경과 및 개원 10년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1-4. 읍·면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6.5%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들이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읍·면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정책과제 2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방안 마련

2-1.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12월 현재 영아 168,575명(12개월 미만 7,887명, 24개월 미만 45,342명, 만 2세 115,346명)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현재 보육영아의 18.2%(30,751명)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에서 보육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2) 조사에 의할 때 부모들은 영아양육을 '영아의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규모가 작은 놀이방(22.0%)', '규모가 큰 어린이 집(15.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보육시설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영아의 경우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육료는 192,000원에서

362,000원으로 결혼초기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육료가 높은 영영아(0 - 1세)보육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이 요구된다.

- 영아보육의 문제는 취업여성의 연령별 분포가 M자 형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추진전략

-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⁵⁾의 확충, 영아수당 지원, 교재·교구를 포함한 영아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영아전담 교사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116개소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에서 영아 3,734명이 보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개 시설당 평균 보육영아수는 32명이다. 기타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영아(0~2세)를 포함한 총 보육영아수는 168,575명이다. 따라서 보육영아가 총 영아의 5 - 6% 수준인 매년 10,000명씩 증가한다고 추계하면 500개소 정도의 영아전담 시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미 보육현장에서 많은 시설들이 영아전담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영아보육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신축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영아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국·공립은 물론 민간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자가시설은 동일한 정부지원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에서는 일정기준을 갖춘 놀이방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현재 행정자치부는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부모들의 영아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비의 50%를 보육수당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003년부터 보육 영유아의 5% 정도씩 추가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할 때 매년 약 10,000여명씩 증가하게 된다.
- 2002년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부 용역사업으로 '영아보육 실태조사

5) '영아전담시설'이라 함은 영아 20명 이상 보육 시설을 의미함.

및 모형개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영아(0 - 2세)보육은 유아(3 - 5세) 보육과는 다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아를 전담할 보육교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아 168,575명 보육을 위한 정부규정 교사비율을 살펴보았을 때⁶⁾, 영아전담 교사 27,124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보육영아가 매년 10,000명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추가 진입 교사는 약 2,5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이 영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수교육체계가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2. 야간·공휴일·시간제 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여성개발원 자체 조사결과에 의할 때 2002년 9월 현재 야간·24시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21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20,097개소중 1.1%를 차지한다.
- 우리 나라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취업형태가 급격히 다양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다양화 될 전망이므로 야간·24시간·공휴일·시간제 보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추진전략

- 야간·24시간·공휴일·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시설들이 야간·24시간·공휴일·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보육교사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평균 10.6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교사가 추가 지원되어야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야간·24시간·공휴일·시간제 보육이 별도의 교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운영 프로그램이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으므로 교사 보수교육이 전체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24시간·공휴일 보육에서는 맞벌이 혹은 홀부모의 야간 근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2세 미만 교사 1인 대 영아 5인, 2세 교사 1인 대 영아 7인임.

- 특수보육 활성화로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나 아파서 취원활동이 어려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역권을 나누어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착가능하다.

2-3. 장애아 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아의 경우 중증장애아(장애등급 1~3)의 경우 2세미만 아동 보육료를, 경증장애아(장애등급 4~6급)의 경우 2세아동 보육료를 적용하므로 보육료 부담이 높다. 특히 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특수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 요구된다.

□ 추진전략

- 장애아 보육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민간 동일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아 보육시 전원에게 무상 지원한다.

2-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보호 및 여성의 안정된 취업여건 조성을 위한 방과후 보육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109개소로 초등학생 15,663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의 선행연구(2000년)에 의할 때 방과후 보육 실시 유형에서는 보육시설 이외에 복지관(167개소), 초등학교(20개소), 공부방(68개소)에서도 방과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편 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하교 후 돌보아 줄 보육프로그램의 요구가 높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선행연구(2000년)에 의할 때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요구는 아동 754천명이었고, 전업주부의 경우 희망아동 수는 564천명이었다. 따라서 취업모를 둔 아동에게 우선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 학급 20명 기준으로 37,700개소의 학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전략

- 방과후 보육은 현재까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마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 및 제도 추진전략 마련
 -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1안) ‘방과후 아동보육법’ 제정, 2안) 영유아보육법의 ‘아동보육법’으로의 통합, 개정, 3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시설 설치기준 마련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발전 방안 마련
 - 대상별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개발
 - 방과후 아동보육에 적절한 환경 조성
 -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 방과후 아동지도사 양성교육 및 재교육과정 설치
 - 방과후 아동지도사협의체 구성
 - 지역별 아동 보육수요에 기초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대 방안
 -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단독시설 설치
 - 기존 시설의 개방을 위한 조치 마련
 - 초등학교 개방을 위한 조치 마련
 - 방과후 아동보육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 방안
 -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부처간 협력 방안 및 담당 부서의 설치
 - 방과후 아동보육 전달체계 구축
 - 방과후 아동보육정보센터 설치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연합회 설치
 -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행·재정적 지원 및 질 관리 방안
 - 방과후 아동보육 서비스의 행정지원 및 질 관리 방안 마련
 - 방과후 아동보육 재정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정책과제 3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1. 보육시설 관리, 평가제도 개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시설이 2002년 6월 말 현재 2만1천 개소를 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여건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불과하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이유로 보육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지도·감독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주로 행정·재정적 영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현재까지 정부는 주로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민간 시설의 운영이 어렵고 선진국들에서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국·공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전략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도입되어야 함.
 - 1 단계 : 평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 즉 보육시설 평가는 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선별해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평가절차를 거치면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법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활용되어야 함. 나아가 보육시설의 인증 여부를 공개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단계 : 평가를 주관할 평가 주체의 선정
 - 3 단계 : 평가방법의 개발

- 평가범위 확정
- 평가도구 개발(영유아보육법 규정 준수 여부, 보육프로그램 운영평가, 보육교사 평가, 보육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
- 평가절차 확정
- 4 단계 : 평가결과 활용 방법 확정
- 평가결과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여부 결정이외에 열악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하며 즉, 인증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시되어야 한다.
 - 2003년 : 평가주체 선정 및 평가도구 개발
 - 2004년 : 제 1차 시범 평가 실시
 - 2005년 : 제 2차 시범 평가 실시 및 평가시설 확대 시작
 - 2006년~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검토, 보완 및 평가시설 확대 시작
- 1개 시설 평가에 200,000원이 소요예정일 때,
20,000 개소 1회 평가에 40억원
30,000 개소 1회 평가에 60억원 소요됨.

3-2. 유형별 표준 보육과정 검토,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시설이 2만 개소를 넘고 있으나 보육시설들은 아직까지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지 않고 제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표준보육과정』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 2002년 9월 현재 보육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령에 기초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 보육과정 확산을 위한 후속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추진전략

- 『표준보육과정(2002)』의 후속작업으로는 보육과정에 기초한 연령별 『보육과정의 실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2003~2004년).
- 『표준보육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현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영아

보육, 야간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실제』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2004~2005).

- 각각의 보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실체는 현장 적용과정을 피드백하면서 수정,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3-3. 유형별 시설·환경구성, 필수 교재·교구 관련 표준지침서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현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표준 시설·환경구성 및 연령별 필수 교재·교구에 대한 표준지침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준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보육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에 의한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작업이다.
- 2003년도에 연구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 추진전략

- 시설·환경 구성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령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실(실내) 환경구성 및 설비의 실제
 - 연령별 영유아를 위한 건강·영양·안전관리 설비의 실제
 - 연령별 영유아를 위한 바깥놀이(실외) 시설설비의 실제
 - 연령별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및 놀이감의 실제
 - 유형별 교사를 위한 시설·설비의 실제

3-4. 보육교사 양성과정 정비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의 질적 수준보장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82,231명으로 이중 시설장 20,054명, 보육교사 60,997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교사’라고 지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이들에 대한 양성과정과 자격관리, 경력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 현재 규정에 의할 때 보육교사는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유아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시설장과 보육교사 사이에 주임교사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1년 양성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01등)에서 양성기간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 추진전략

-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다음과 같이 구분, 제도화 되어야 한다.

자격구분	주요업무
보육시설 시설장	· 보육시설 총괄관리
(가칭)주임교사	· 프로그램 관리 · 행정, 재무관리 · 운영관리 · 시설장 보조 및 보육현장 관리
보육교사 1급	· 연령별 영유아 보육담당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준
보육교사 2급	· 연령별 영유아 보육담당 *2년제 대학 졸업자 기준
보육교사 3급	· 1, 2급 보육교사 지원 *양성과정 졸업자 기준

- 2003년도 실시.

3-5.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확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서비스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교사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정도이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자격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44.4%, 대학관련학과 졸업 54.8%, 관련 대학원 졸업 1.1%이다. 유치원 교사가 대학관련학과 졸업자인 것과 비교할 때 학력이 낮음.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 추진전략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다음 단계로 실시되어야 한다.

- 1단계 : 지금까지 실시된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태파악
 -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
- 2단계 :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요구조사
 - 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급별 보수교육 체제 및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 3단계 : 보수교육 실시
 - 시설장 보수교육
 - 보육교사 보수교육
 - 특수보육 보육교사 보수교육
 - 기타 종사자 보수교육

3-6.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관련한 주요 문제로는 근무시간을 포함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급여수준을 들 수 있다.
- 열악한 근무환경
 - 보육사업 지침(2001)은 일일 보육시간을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대로 근무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지침대로 근무할 경우 9시간 근무하게 됨. 그러나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2001)』결과에 의할 때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하루 평균 10.6시간, 토요일은 6.3시간으로 나타난다. 이를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59.3시간이다. 이것은 노동법에서 제시한 주당 총 44시간 근무기준과 비교하면 15.3시간이나 초과한 것이며 보육사업 지침과 비교하여도 9.3시간 초과한다.
 - 동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장시간 근무’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은 길어 힘이 들지만 보수는 낮은 현상은 보육교사의 이직 및 전직 희망으로 나타남. 조사응답 보육교사의 83.3%가 이직을, 89.9%는 전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 낮은보수

- 보육교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에 의하며, 2002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 1급 1호봉의 경우 986,409원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2001)』에 의할 때 경력 1년 미만 보육교사의 초봉평균은 744,000원으로 1호봉 금액과 비교시 24만 2천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임금 현상은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열악하다 (본 조사 결과 보육교사 평균보수 국·공립보육시설 1,030천원, 법인보육시설 1,051천원, 민간보육시설 811천원, 직장보육시설 834천원, 가정보육시설 751천원).

<표 V-2> 1년 미만 보육교사 초봉 평균

	국·공립	법인·단체	개인	직장	가정
보육교사 1급	936	800	655	·	·
보육교사 2급	925	625	579	·	538
1·2급 평균	930	796	616	850	550

자료: 한국보육교사회(2001).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2001)』. 26-27.

- 이를 유치원 교사 보수와 비교하면 유치원 및 초·중등교직원 인건비 산정기준(2002)에 의할 때 4년제 대학 졸업 유치원 교사(8호봉)의 보수는 1,463,400원이다.
- 보육교사들의 보수를 유사직급인 유치원 교사 1,463,400원과 비교시 476,991원이 차이가 남. 전문성 높은 보육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 추진전략

- 근무환경의 개선

- 우선 보육교사들이 법정근로 시간인 8시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탄력근무제를 전용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비담당 주임교사 혹은 보육교사 인턴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비담당 주임교사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여 교사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인턴교사 제도는 지역단위별로 운영하

여 산후교사 및 교육참가 교사를 지원하거나 특수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 보육교사는 현재 20~29세가 63.4%로 절반이 넘으며 30~34세 19.1%로 35세 미만이 82.5%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이 산후휴가를 하게될 경우 대체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공근로인력, 지역 자원 봉사자 활용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보육교사 8만명의 0.5%에 해당하는 400명(3개월)을 지원한다.
- 2007년도 추정 보육교사수는 127,055~144,581명으로 0.5%를 추정하였을 때 대체교사 635~723명이 요구된다.

- 보수체계 정비

- 보육교사들이 적정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 표준보수표를 개선한다.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을 고려한 직급별, 항목별 보수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보육교사는 ‘교사’이므로 근거 규정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에 기준해서는 안되며 유치원 교사 ‘보수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 1급(4년제 대학 졸), 보육교사 2급(2년제 대학 졸)의 경우 유치원교사에 준하고 보육교사 3급(양성소 졸업)은 별도로 규정한다.
 - 민간시설의 경우 차등보육료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한 보육료 지원 증가, 시설 증·개축비 지원, 교사 보수교육 지원 등은 민간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교사들에게 적정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현재 보육시설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0.6시간 근무하면서도 수령봉급도 야간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75.4%만을 수령하고 있어 저임금 방지 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현재 국고 보조 지원시설(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 법인시설)의 경우 시설장(40인 이상 시설) 인건비의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40%가 지원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 실시 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의 경우 점차적으로 국고 보조시설과 동일한 지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인증제도 도입 후인 2006년도부터 실시 가능하다.
- 서울시의 경우 2002년도 보육교사 연구수당을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 150,000원, 국·공립 및 민간시설 보육교사 100,000원씩 지급한다.

정책과제 4 - 지역사회 통합 보육 모형 구축

4-1.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모색

□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들은 가정, 보육시설 이외에 지역사회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린 시기부터 지역사회 시설과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시설들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들의 활동경험을 확대해 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여러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 및 교육서비스 제공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가정 혹은 보육시설내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게 된다. 폭넓은 자원망의 구축, 활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이고 보육시설의 공익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우리 나라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추진전략

- 지역사회 자원활용으로는 지역사회 시설, 인적자원, 물적자원 활용을 들 수 있다.
 - 지역사회 시설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의 복지기관, 전문상담기관, 특수아 치료기관, 주민자치센터, 사회문화시설, 보건소, 의료기관, 은행, 소방서, 경찰서, 공원, 학교운동장, 공공놀이터와 같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아픈 영유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계 구축이 요구된다.
 -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 ① 운영위원회(가칭) 운영 :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지역 보육관련 전문가, 자원봉사 대표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지원
 - 보육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진행 지원
 -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 문화 확산
 - 지역의 보육욕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보육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질적 향상을 도모

② 보육시설 운영지원 : 보호자, 관련 대학의 실습생, 민간 자원봉사 단체, 퇴직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자원활동 활용

- 기타 : 지역사회내 기관, 가정으로부터 기증된 물품

예) 지역내 대형마트의 기증, 지역내 기관, 가정의 어린이 관련 물품

- 지역사회 자원활용에서는 지역사회내의 자원에 관한 정보수집, 활용계획이 작성되어야 하고, 활용계획에서는 지원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지역사회 기반 자녀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핵가족 비율의 증가(82.0%, 2000),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의 급강하(합계출산율 1.3명, 2002), 이혼율 증가(35.9%, 2000)에 따른 문제가정 증가 등의 이유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환경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지역사회내에서 보육시설이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역할의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다른 나라의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이스라엘의 경우 2km간격으로 아동발달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임신초기부터 시작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다.
- 일본 : 1999년 현재 지역양육센터가 1,500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까지 3,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지역의 양육네트워크를 기점으로 육아상담, 육아서클 등을 지원함. 그리고 보육소등에 지역양육센터를 부설하여 각 시정촌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 : 여성 및 가족개발부 산하에 전국 인구 및 가족개발원(NPFDB)을 두어 보건, 혼인관계,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탈선 등 폭넓은 가족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추진전략

- 지방자체단체별 그리고 영유아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단위로 건강한 자녀

양육 환경조성이 주목적이다. 보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공공 보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사회 기반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중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상담(정보제공)사업, 보육시설 개방, 지역사회 활동 전개 등이 있다.
 - 보육시설 개방 : 보육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중 놀이터 개방, 비취원아 대상 놀이 프로그램 전개, 도서 대여 사업, 놀이감 대여 사업, 부모의 응급 시 일시보육 지원, 저소득지역 자녀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등 지역사회내의 유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지역사회에 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 상담(정보제공)사업 : 자녀양육 상담, 자녀양육지원 자료 및 정보 제공, 장애아 상담 및 연계사업, 가족문제 상담, 부모 자활 지원상담 등이 있다. 상담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녀양육 욕구를 파악하게 된다.
 -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모 자녀양육 지원 교육, 자녀 성교육, 학대아동 방지교육 등이 있다.
 - 보육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내 전업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예에서 같이 소규모 가족에서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커지므로 보육시설이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학대아동·성폭력 아동을 위한 예방, 발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활동 전개
 - 양성평등문화 확산 : 지역사회내의 자녀 바르게 키우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녀양육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동참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 지역사회내 지원봉사 참여 : 보육대상인 아동은 어린 나이지만 경로잔치 공연, 쓰레기 줍기 등 아동이 수행할 수 있는 지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함은 물론 아동에게 전인적 인격체로 발달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 참여의식

을 습득하게 하는 좋은 학습수단 이다.

- 보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기반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별도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요구된다. 교사제도에서 주임교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임교사를 중심으로 팀플레이로 운영할 수 있다. 즉 보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내의 관련 전문가들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실시 후 확산될 수 있다.

정책과제 5 - 효율적인 보육행정·지원체계 구축

5-1. 보육행정체계의 정비 및 전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행정체계상의 문제로는 담당 부처간의 연계 문제, 전달체계 즉, 담당 인력 관련 문제, 관리 시스템의 문제, 보육관련 규정정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며, 그 이외에 현재 보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농림부, 그리고 유관 부처로 교육인적자원부를 들 수 있다.
- 보육관련 공무원 1인 담당 보육시설수는 전국 평균 49개소이다. 부천시의 경우 공무원 1인이 348개의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육시설이 20,000개소를 넘고 있으나 이들이 어떤 교사에 의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임. 유치원이 교육청 및 교육구청을 중심으로 년 1회 의무적으로 장학을 받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 보육현장에서 보육시설 운영결과 보육시설 인허가 문제, 지원금 관리 문제, 교사대 영유아비율 등에 대한 규정관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추진전략

-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간의 협의체제가 요구되며, 보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추진할 때 부처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은 전년대비 1995년도 2,110개소, 1996년도 3,013개소, 1997년도

3,277개소, 1998년도 2,230개소, 1999년도 1,163개소, 2000년도 508개소, 2001년도 821개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육담당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 않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증대될 경우 보육시설들이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담당인력들이 순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보강할 정책이 요구된다. 담당인력의 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 보육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관리 시스템에서는 표준회계관리의 전산화, 운영관리의 전산화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 보육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환원하여야 한다.
- 현재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현 행		수정요구안	
영유아 연령	교사대 영유아 비율	영유아연령	교사대 영유아 비율
2세 미만	1 : 5	0세	1 : 3
		1세	1 : 5
2세	1 : 7	2세	1 : 7
3세 이상	1 : 20	3세	1 : 15
		4~5세	1 : 20
장애아	1 : 5	장애아	1 : 5
방과후	1 : 30	방과후	1 : 20

- 그 이외에도 표준보육과정, 보육료의 표준화, 교사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5-2. 보육정보센터 운영체계 및 역할 재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보육정보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보육정보센터 외에 6개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총 13개소의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서도 보육정보센터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 추진전략

- 보육정보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 아직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9개 광역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들 보육정보센터들간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재정립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육인력이 확보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6 - 기업의 보육정책 확대

6-1. 직장의 자녀양육 참여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나라의 경우 직장의 자녀양육 지원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았을 때 직장의 자녀양육 지원형태는 ‘취업부모들을 위한 보육 지원’과 ‘기업의 가정 친화적인 관계 형성 사업’으로 구분된다.
- 정부의 보육정책 중 직장 보육에 중점을 두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고용주의 보육지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대기업을 15%가 직장보육을 설치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육시설의 20%정도가 직장보육시설이다. 독일은 11%정도가 직장보육시설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지역보육 혹은 직장보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 우리 나라의 직장보육 설치비율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도 0.5% 수준이 1994년도까지 지속되었으며, 1995년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들은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직장보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형태이다. 직장보육설치 저조 이유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29.4%)’, ‘기업주의 인식부족(23.5%)’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 외국의 직장보육 활성화 사례

- 미국 : 병원, 금융서비스기관, 정보관련산업체에 직장보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 영국 : 런던 시내 중심 외무부 내에 상징적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 필리핀 : 직장보육 활성화는 국가의 보육지원 솔루션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노동 및 고용부, 내무 및 지방 정부 담당 부서, 필리핀 정보청, 시청, 기타 다른 여러 정부기관에 직장보육을 설치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 내의 보육시설 설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 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join-joint)이 고용주들에게 직장보육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기업의 가정 친화적인 관계 형성 사업 예

- 싱가포르 : 직장생활 친화적인 문화 도입에 자녀양육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① 직장 생활 유연화 전략

- 유연 근로 옵션 : 유연 근로제, 시간제 근로, 직무 공유, 집중 근로 주간, 자택 근무 등
- 휴가 혜택 : 결혼, 출산(아버지의 경우에도), 노약자 부양, 사별, 학습/시험을 위한 휴가 등 특별휴가제도 도입.
- 직원 지원 계획/서비스 : 자녀 보육수당 지원,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재정적 지원 계획, 독신을 위한 사회활동, 재원 및 조회 서비스 등

② 기업지원 사업

- 가족 친화적인 기업(FFF) 상
- 인식, 교육 훈련, 그리고 상담의 촉진
- 조사 및 연구의 수행

③ 협력사업

- 재정적 후원/장려금의 제공
- 보육시설 지원

- 말레이시아 : 여성 및 가족 개발부 산하 전국 인구 및 가족개발원(NPFDB)에서 고용주들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부여하도록 권장.

- 탄력적 직장 여건 마련 : 탄력 근무제, 재택 근무제, 집중 근로 주간, 파트 타임 업무, 업무 분담 등
- 육아 휴가 : 현재의 자녀, 부모 혹은 기타 가족의 긴급 상황 발생시 아버지를 위한 3일간의 휴가. 혹은 장기특별 휴가.
- 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과 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 시설 설치
- 고용주가 주선하는 가족의 날 행사
- 가족 문제 카운셀링 및 상담 서비스
- 가족 생활 교육, 가정 관리, 가족간의 대화,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에 대한 훈련 워크샵
- 기타 개인적인 면에서나 공공적인 면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족 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지원 프로그램

□ 추진전략

-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공공시설내의 보육시설 우선 설치
 - 대학 내의 보육시설 우선 설치 권장
 - 대기업의 보육시설 우선 설치 권장
 - 소규모 기업간의 연대 보육시설 설치 모형 구축
 -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적극적 세금감면 제도 구축
 - 지역보육과 직장보육시설과의 연계 모형 구축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상담·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인식의 전환 및 홍보 강화
- 기업-가정간의 친화적인 협력 관계 구축 사업 개발 및 활성화
 - 직장 생활 유연화 전략 : 유연 근로 옵션, 가정 관련 휴가 혜택, 자녀 양육 지원 계획/서비스 등 도입
 - 가정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보육시설 지원 사업

정책과제 7 - 가정과 기업에서의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문화 확산

7-1. 자녀양육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 문화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가정의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5%를 넘고 있는 현재에 여성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양육을 책임지라고 하는 이중부담은 불합리하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는 독신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지연과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져 사회발전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가사 및 자녀양육은 여성이 책임, 직장생활은 남성이 주도’라는 사회의식이 합리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추진전략

-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의 55.0%를 넘어 70%를 상회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지원이 요구된다.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활동, 가사활동, 자녀양육활동 등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의 성차별적 성역할을 불식하고 남녀가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회구축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성차별 분야에 대한 제재보다는 양성평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 불식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
 -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시(분야 및 대상별)
 - 국가의 의식전환 홍보

7-2.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의 기업문화는 남성중심 문화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한 참여는 물론 기업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 내에서의 성차별 사례로는 입사에서의 성차별, 직장 내의 성역할 분담, 승진 및 보직 배정에서의 성차별 등이다. 남녀가 평등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 추진전략

-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인식 확산 교육 실시
 -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직장문화 구축
 - 직장에서의 성차별 사례 발굴 및 시정
 - 남녀평등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격려방안 마련
 -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 국민 홍보 실시
 - 직장의 자녀양육 지원 사업 지원에서 남성·여성의 동등한 참여 촉진
 - 직장내 아버지학교 운영

참고문헌

- 교육부(2000). “우리 딸, 아들 어떻게 키워야 할 까요?”. 학부모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안내 소책자.
- 김기환(2001).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론적 개념과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활용.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15~46.
- 김명순(200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47~72.
- 김승권 외(2000).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인 외 10인(2000).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김희진(2001). 저소득 지역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99~132.
- 나정(2001). “OECD의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요인에 비추어 본 우리 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한국교육 2001. Vol. 28. No. 1. 233-255.
- 나정 · 장영숙(2002).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양서원.
- 나정 · 장영숙(2002).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양서원.
- 나정 · 장영숙 · 문무경(2002).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및 제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변화순(2001). 저소득 지역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9회 국제 학술 대회 삼성복지재단. 73~97.
- 보건복지부(2000). 보육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집(2001).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보육발전위원회 · 기획단.
- 사바리안 라만(2002).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조치”. ANMC21 아시아 대도시 여성정책 국제 심포지움. 245~251.
- 유애열(2001). 삼성 포괄적 보육서비스 개발 배경.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7~14.
- 유희정(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98연구보고서.
- 유희정(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한국여성개발원 99연구보고서.
- 유희정(2001). 영국, 프랑스의 보육제도. 미발간 자료.

- 유희정(2001). “영·유아를 위한 교회 사회복지 사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2002). 일본의 보육제도. 미발간 자료.
- 위리 그라시에(2002). “싱가폴의 고용친화적 문화창조”. ANMC21 아시아 대도시 여성정책 국제 심포지움. 277~284.
- 정경희·김유경(1997). 지역별 보육수요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보육협의회의(2000). 보육연보. 전국사회복지협의회.
- 조운경, 이계운, 이창미, 장혜성, 김수진, 백운찬(2002). 장애아보육 확충방안. 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 프로서피나 타팔레스(2002). “필리핀의 정책과 실제”. ANMC21 아시아 대도시 여성정책 국제 심포지움. 253~260.
- 한국여성개발원(1996).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96연구보고서. 200-7.
-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통계연보』.
- B. Kamerman(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The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 OECD(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Norstedts Tryckeri.
- OECD(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ECD.
- OECD(2000).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Australian Background Report*.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Macquarie university, sydney,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OECD(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America*. OECD.
- Tony Bertram Christine Pascal(2000). *The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ackground report for the united kingdom*. OECD.
- Douglas R. Powell(2001). “미국에서의 양질의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성들”.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163~195.
- Douglas R. Powell(2001). “저소득 가족을 위한 부모 교육 중재 프로그램”.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197~219.
- 一番ヶ瀬康子(2001). “일본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9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133~161.

森上史郎(2002). 最新保育資料集. ミネルグァ書房.

保育研究所(2001). 基礎から學ぶ保育制度-現状と改善・擴充のポイント. 草土文化.

淺井春夫(2002). 保育の市場化と保育運動の課題. 草土文化.

二宮厚美(2002). 新福祉國家への展望と保育運動の課題. 草土文化.

木下秀雄(2002). 今日的情勢と保育運動に期待するてと. 草土文化.

垣内國光(2002). 福祉・保育の質と競争の論理を考える. 草土文化.

村山祐一(2002). 構造改革の『痛み』を子どもに押しつけるな-規制緩和政策を乗り越え、保育所擴充と待機兒童對策をすすめる課題-. 草土文化.

渡保博(2002). 保育の第三者評価をどうみるか. 草土文化.

普光院亞(2002). 制度激變 公立保育園が生き残るには. 草土文化.

中山 徹(2002). 保育所と保育運動に何が課せられているか. 草土文化.

村田浩治(2002). 共立保育所民營化反對運動から見えてきた保育運動の役割. 草土文化.

林 若子(2002). 幼保一體化・共用化施設の現状と問題. 草土文化.

田中章史(2002). 積極的に地域に出て、『豊かな子育てがごきる地域・日本をつくる』運動を. 草土文化.

仲野 智(2002). 賃金・労働條件は保育の質を決める要. 草土文化.

中村尚子(2002). 公的基盤の切り崩しは許されない-障害乳幼兒の癸達保障の場としての保育所-. 草土文化.

林 克思(2002). 1歳兒保育補助制度 長野縣ご實現. 草土文化.

長谷川一宏(2002). 栃木縣における無認可保育園の認可狀況. 草土文化.

實方伸子(2002). 保育における構造改革路線の問題點-規制緩和・市場化論の内實. 草土文化.

逆井直紀(2002). 待機兒童ゼロ作戦と規制緩和-政策動向の整理批判-. 草土文化.

<http://www.educare.or.kr>

<http://www.moe.go.kr>



부 록



<부표 1> 지역별 운영 프로그램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통계치
유아전담	97 (22.3)	17 (14.3)	2 (11.1)	116 (20.3)	$X^2=6.75$ df=2 p=.034
영아전담	130 (29.9)	43 (36.1)	5 (27.8)	178 (31.1)	$X^2=.87$ df=2 p=.647
영유아통합	120 (27.6)	23 (19.3)	3 (16.7)	146 (25.5)	$X^2=6.78$ df=2 p=.034
장애아전담	26 (6.0)	16 (13.4)	3 (16.7)	45 (7.9)	$X^2=8.71$ df=2 p=.013
일반·장애아 통합	62 (14.2)	20 (16.8)	5 (27.8)	87 (15.2)	$X^2=2.36$ df=2 p=.307
계	435(100.0)	119(100.0)	18(100.0)	572(100.0)	

<부표 2> 지역별 어머니 취업형태

단위 : 명

구분	종일제 취업모				시간제 취업모				가내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평균	34	26	17	32	10	8	14	10	9	7	22	9
(최대)	99	85	35	99	61	40	35	61	50	20	57	57
(최소)	1	3	5	1	1	1	5	1	1	1	7	1
통계치	$X^2=4.81$ df=296 p=.009				$X^2=1.04$ df=165 p=.357				$X^2=3.48$ df=144 p=.033			

<부표 3> 지역별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평균	최대	최소
현장학습비	대도시	10	80	1
	중·소도시	8	20	2
	군	10	15	5
	소계	10	80	1
특기교육비	대도시	21	200	-
	중·소도시	21	39	5
	군	20	20	20
	소계	21	200	-
급·간식비	대도시	24	50	5
	중·소도시	20	35	6
	군	-	-	-
	소계	23	50	5
차량운영비	대도시	33	60	3
	중·소도시	17	30	10
	군	-	-	-
	소계	27	60	3
교재·교구비	대도시	20	30	3
	중·소도시	7	10	4
	군	-	-	-
	소계	16	30	3

<부표 4> 기타 가입 보험

단위 : 개소(%)

구분	가입	비가입	계
자동차보험	18(5.4)	316(94.6)	334(100.0)
가스배상책임보험	8(2.4)	326(97.6)	334(100.0)
(교사)국민연금	5(1.5)	329(98.5)	334(100.0)
(교사)상해보험	6(1.8)	328(98.2)	334(100.0)
(교사)퇴직적금	3(0.9)	331(99.1)	334(100.0)
여행보험(야외행사 때)	3(0.9)	331(99.1)	334(100.0)
음식물배상보험	1(0.3)	333(99.7)	334(100.0)

시설장 조사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성문제 전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여성 관련 국내·외 정보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원 교육연구부에서는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개별 보육시설별로는 분석되지 않으며 총수로 분석되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담당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유희정 연구위원 Tel : 02-356-0070(교환 339)

E-mail : hjungyoo@kwdi.re.kr

강정희 책임연구원 E-mail : taresa@kwdi.re.kr

한 국 여 성 개 발 원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시거나, 빈칸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1. 귀 시설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____1)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____2) 중·소도시 ____3) 군

2. 귀 시설은 보육시설 유형 중 어디에 속합니까?

____1) 국공립 ____2) 법인 ____3) 단체 ____4) 개인 ____5) 직장 ____6) 가정

3. 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모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못하는 경우 이유가 있으면 보기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실시 여부	실시 못하는 경우 이유
아동별	1) 유아(3 - 5세) 전담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2) 영아(0 - 2세) 전담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3) 영유아(0 - 5세) 통합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4) 장애아 전담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5) 일반·장애아 통합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시간대별	1) 반일제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2) 종일제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3) 야간(저녁 10시 정도까지)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4) 24시간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5) 휴일	____1) 실시 ____2) 실시 못함	

실시 못하는 이유

- 1) 시설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 2) 실시할 의향은 있으나 해당 영유아가 없어서
- 3)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 4) 시설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하여서
- 5) 시설장으로서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 6) 기타_____

4. 현재 특수보육(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모들의 요구가 있다면 앞으로 실시 의사가 있습니까?

____ 1) 없다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
____ 2) 있다	____ 영아	
	____ 장애아	
	____ 야간	
	____ 24시간	

5. 현재 귀 시설의 연령별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세미만	2세	3세이상	총 아동수
현 원	반일제				총 명
	종일제				
	야간활용				
	24시간활용				
	장애아				
	계				

정원		명	명	명	명
----	--	---	---	---	---

6.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어머니가 일하는 영유아는 얼마나 됩니까?

구분	종일제 취업모	시간제 취업모	가내취업	계
1) 취업	()명	()명	()명	()명
2) 비취업	()명			

7. 귀 시설에서는 현재 연령별 보육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구분	2세미만	2세	3세이상
반일제	원	원	원
종일제	원	원	원
야간	원	원	원
24시간	원	원	원
휴일	원	원	원
장애아	원	원	원

8.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이 있으면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1) 현장학습비(월평균 원) ____2) 특기교육비(월평균 원)
 ____3) 급간식비(월평균 원) ____4) 기타_____
 ____5) 없다

9. 현재 받고 계신 보육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단가와 비교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1) 높은 편이다 ____2) 기준에 맞는다 ____3) 낮은 편이다

9-1. (3) 정부가 제시한 기준단가 보다 낮게 받는 경우) 보육료를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1)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
 ____2)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여서
 ____3)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____4) 기타_____

10. 보육시설 운영시 영유아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령	어려움 여부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유
유아(3 - 5세)	____1) 있다 ____2) 없다	
영아(0 - 2세)	____1) 있다 ____2) 없다	

11. 귀 보육시설에는 대기아동이 있습니까?

____1) 없다	대기아수(명)	
____2) 있다	____0세	()명
	____1세	()명
	____2세	()명
	____3 ~ 5세	()명
	총계	()명
기타	장애아	()명
	야간보육	()명

12. 보육시설 운영시 교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형	어려움 여부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유
일반교사	____1) 있다 ____2) 없다	
특수교사	____1) 있다 ____2) 없다	

13. 귀 시설에서 운영 유형에 따라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두 가지까지 골라주십시오.

특성별	중점 프로그램	
1) 유아(3 - 5세) 프로그램		
2) 영아(0 - 2세) 프로그램		
3) 장애아 프로그램		
4) 야간 프로그램		
5) 24시간 프로그램		
6) 휴일 프로그램		

보기

1)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2) 인성지도,
 3) 안전한 보호, 4)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
 5)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6)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7) 특별 프로그램,
 8) 충분한 휴식, 8) 기타_____

14. 정보 활용 관련입니다.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_____1) 있다(대)	_____2) 없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__1) 활용한다	_____2) 안한다

15. 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어떤 보험을 들고 있나요? 귀 시설이 들고 있는 보험에 모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1) (교사를 위한) 산재보험
 _____2) (교사를 위한) 고용보험
 _____3) (교사를 위한) 건강보험
 _____4)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상해보험)
 _____5) (시설을 위한) 학교배상책임보험
 _____6) (시설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_____7) (시설을 위한) 화재보험
 _____8) 기타_____

16.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 응답에 모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1) 자녀양육 자료 제공
 _____2) 자녀양육 상담
 _____3) 이웃 어린이들에게 보육시설 개방 프로그램 실시
 _____4) 지역부모 대상 부모교육 실시
 _____5) 기타
 _____6) 없다

보육발전을 위한 시설장님들의 의견조사입니다.

17.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 운영 만족에 대한 물음입니다. 만족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비고 (해당없음)
물리적 환경	1) 시설의 위치					
	2) 규모					
	3) 설비					
인적 환경	1) 교사의 전문성					
	2) 자격					
	3) 보수					
보육 서비스 내용	1) 운영시간					
	2) 프로그램 운영					
	3) 급·간식 운영					
	4) 안전관리 운영					
	5) 차량운행 운영					
보육료 수납						

18. 보육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들이 시설 이용시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하십시오.)

- | | |
|-----------------------------|-----------------------|
| ____ 1)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 ____ 2) 프로그램이 좋아서 |
| ____ 3) 환경이 좋아서 | ____ 4) 교사들이 좋아서 |
| ____ 5)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 ____ 6) 가깝고 활용에 편리하여서 |
| ____ 7) 비용이 가장 적게 들므로 | ____ 8) 영아를 받아주므로 |
| ____ 9) 장애아를 받아주므로 | ____ 10) 기타 _____ |

19. 시설장님께서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 | | |
|-------------------|---------------|
| ____ 1) 관심이 매우 높다 | ____ 2) 조금 있다 |
| ____ 3) 별로 없다 | ____ 4) 전혀 없다 |

20. 시설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제도				

21.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 1) 찬성한다(이유_____)
- ____ 2) 반대한다(이유_____)

22. 귀 시설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방과후 보육을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 ____ 1) 있다 ____ 2) 없다

23.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 1) 초등학교 ____ 2) 어린이집 ____ 3) 복지관
- ____ 4) 기타 공공시설 ____ 5) 종교시설
- ____ 6) 어디라도 공간이 허락하면 다양화 하는 것이 좋다
- ____ 7) 방과후 전담시설 ____ 8) 기타_____

24. 보육시설 운영시 시설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지까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 | | | |
|-------------------|--------------|---------------|
| 1) 보육아동모집 | 2) 보육료 미납 | 3) 종사자 관리(관계) |
| 4) 행정(서류)업무 | 5) 행정기관과의 관계 | 6) 아동부모와의 관계 |
| 7)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 8) 재정적인 문제 | 9) 융자금(부채) 상환 |
| 10) 기타_____ | | |

25.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요인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내용에 대하여 적어주십시오.

세부내용	지원내용
1) 법·제도	
2) 시설 환경	
3) 프로그램	
4) 교사	
5) 시설운영	
6) 행정 지원	
7) 평가인증제	

26.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형별로 가장 시급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적어주십시오.

세부내용	지원내용
1) 유아보육	
2) 영아보육	
3) 장애아보육	
4) 야간·24시간 보육교사	
5) 기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7.	성별	____1) 여자	____2) 남자
28.	연령	만_____세	
29.	경력	1) 보육시설 경력(년)	2) 기타직종 경력(년)
30.	급여	월 평균_____원	

31. 보육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경우 보기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____1) 있다() ____2) 없다

1) 1급 보육교사	2) 2급 보육교사	3) 1급 유치원정교사 (1급 보육교사)
4) 2급 유치원정교사 (1급 보육교사)	5) 특수교사	6)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7) 자격없음	8) 기타()	

32. 시설장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1) 고졸
☐ 2) 대학졸(3년제이하)
☐ 3) 대학교졸(4년제이상)
☐ 4) 대학원

32-1. 시설장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 1) 보육학 ☐ 2) 유아교육학
☐ 3) 사회복지학 ☐ 4) 아동(복지)학
☐ 5) 가정(관리)학 ☐ 6) 간호학
☐ 7) 교육학 ☐ 8) 영양학
☐ 9) 기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육교사 조사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성문제 전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여성 관련 국내·외 정보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원 교육연구부에서는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보육교사 개인별로는 분석되지 않으며 총수로 분석되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담당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유희정 연구위원 Tel : 02-356-0070(교환 339)

E-mail : hjungyoo@kwdi.re.kr

강정희 책임연구원 E-mail : taresa@kwdi.re.kr

한 국 여 성 개 발 원

○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거나, 빈칸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시설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____1)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____2) 중·소도시 ____3) 군

2. 귀 시설은 보육시설 유형 중 어디에 속합니까?

____1) 국공립 ____2) 법인 ____3) 단체 ____4) 개인 ____5) 직장 ____6) 가정

3.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영유아의 연령, 담당 영유아 수 및 프로그램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영유아의 연령별로 교사 한 명이 담당하기에 적절한 영유아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별	현재 담당 영유아 수	교사 한 명이 담당하기에 적절한 영유아 수
담당 영유아	____1) 0 - 1세 미만	명	명
	____2) 1 - 2세 미만	명	명
	____3) 2세아	명	명
	____4) 3세아	명	명
	____5) 4세아	명	명
	____6) 5세아	명	명
	____7) 장애아	명	명
담당 프로그램	____1) 반일제	명	명
	____2) 종일제	명	명
	____3) 야간(저녁 10시 정도까지)	명	명
	____4) 24시간	명	명
	____5) 휴일	명	명

4. 선생님께서 영유아 보육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은 무엇입니까?(두 가지까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____1)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____2) 인성지도
 ____3) 안전한 보호 ____4)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____5) 부모와의 관계 ____6) 특별 프로그램
 ____7) 기타_____

5. 다음과 같은 보육시설 운영내용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잘 운영되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해당없음
1) 시설설비					
2) 교사 관리					
3) 프로그램 운영					
4) 급·간식 운영					
5) 안전관리 운영					
6) 차량운행 운영					
7) 재정관리					

6.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부모들이 시설 이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하십시오)

- | | |
|-----------------------------|-----------------------|
| ____ 1)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 ____ 2) 프로그램이 좋아서 |
| ____ 3) 환경이 좋아서 | ____ 4) 교사들이 좋아서 |
| ____ 5)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 ____ 6) 가깝고 활용에 편리하여서 |
| ____ 7) 비용이 적게 들므로 | ____ 8) 영아를 받아주므로 |
| ____ 9) 장애아를 받아주므로 | |

7.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 | | |
|-------------------|---------------|
| ____ 1) 관심이 매우 높다 | ____ 2) 조금 있다 |
| ____ 3) 별로 없다 | ____ 4) 전혀 없다 |

8.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모른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포함)				

9. 선생님께서는 근무시 다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교사를 위한 물리적(근무)환경				
보육프로그램(교재교구) 준비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장과의 관계				
기타 종사자들과의 관계				
근무시간				
급여				
담당 영유아 수				
교사연수				
고용의 안정성				
식사 및 간식 준비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				
행정(서류)업무				
교실 관리(청소, 정리정돈)				
교사를 위한 복리후생				
기타_____				

10.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십니까?

- _____ 1) 매우 보람을 느낀다 _____ 2) 다소 보람을 느낀다
 _____ 3)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_____ 4)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11. 보육교사의 직업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_____ 1) 계속 할 것이다 _____ 2) 이직을 희망한다

11-1.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_____ 2) 교사를 위한 근무환경(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
 _____ 3) 업무량이 너무 많다
 _____ 4) 업무량에 비하여 보수가 너무 적다
 _____ 5) 시설장과의 갈등이 많다
 _____ 6)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_____ 7)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가 적다
 _____ 8) 교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_____ 9)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가 너무 열악하다
 _____ 10) 기타_____

12. 정보 활용 관련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_1) 있다	____2) 아니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_1) 있다	____2) 아니다

13. 보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유형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내용	지원내용
1) 유아보육	
2) 영아보육	
3) 장애아보육	
4) 야간·24시간 보육	
5) 기타	

14.	성별	_____1) 여자	_____2) 남자
15.	혼인	_____1) 기혼	_____2) 미혼
16.	연령	만_____세	
17.	경력	1) 보육시설 경력(_____년) 2) 기타직종 경력(_____년)	
18.	급여	월 평균 보수	_____원
		초과근무 수당	_____원
		특별 프로그램진행 수당	_____원

19. 보육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경우 보기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____1) 있다() ____2) 없다

1) 1급 보육교사	2) 2급 보육교사	3) 1급 유치원정교사 (1급 보육교사)
4) 2급 유치원정교사 (1급 보육교사)	5) 특수교사	6)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7) 자격없음	8) 기타()	

19-1.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 자격증 취득 경로는 무엇인가요?

____1)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____2) 관련 대학 졸업
 ____3) 관련 대학원 졸업
 ____4) 기타_____

20.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____1) 고졸
 ____2) 대학졸(3년제이하)
 ____3) 대학교졸(4년제이상)
 ____4) 대학원

20-1.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_1) 보육학 ____2) 유아교육학
 ____3) 사회복지학 ____4) 아동(복지)학
 ____5) 가정(관리)학 ____6) 간호학
 ____7) 교육학 ____8) 영양학
 ____9) 기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모 조사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성문제 전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여성 관련 국내·외 정보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원 교육연구부에서는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개인별로는 분석되지 않으며 전국 단위로 분석되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담당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유희정 연구위원 Tel : 02-356-0070(교환 339)

E-mail : hjungyoo@kwdi.re.kr

강정희 책임연구원 E-mail : taresa@kwdi.re.kr

한 국 여 성 개 발 원

○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거나, 빈칸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다음의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____ 1)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____ 2) 중·소도시 ____ 3) 군

2. 귀하는 다음 어느 유형의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____ 1) 국공립 보육시설 ____ 2) 민간 보육시설
____ 3) 직장 보육시설 ____ 4) 가정 보육시설(놀이방)

3. 현재 귀하가 이용하고 계신 프로그램 유형, 자녀연령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연령	____ 1) 1세 미만 ____ 2) 1 - 2세 미만 ____ 3) 2세아 ____ 4) 3세아 ____ 5) 4세아 ____ 6) 5세아 ____ 7) 장애아
이용 프로그램	____ 1) 반일제 보육 ____ 2) 종일제 보육 ____ 3) 야간(저녁 10시 정도까지) 보육 ____ 4) 24시간 ____ 5) 휴일 보육
장애유무	____ 1) 일반아동 ____ 2) 장애아동

4. 영아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영아의 집에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_ 2)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_ 3) 규모가 작은 놀이방에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_ 4) 일반 가정집이라면 다 괜찮다
____ 5) 기타_____

5. 귀하께서 자녀양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무엇입니까?(두 가지까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____ 1)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____ 2) 인성지도
____ 3) 안전한 보호 ____ 4) 자유스런 놀이중심 활동
____ 5) 식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____ 6)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____ 7) 특별 활동 (영어, 글쓰기 등) ____ 8) 기타_____

6.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까지 골라주십시오)

1 순위)_____

2 순위)_____

- ① 낮 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인척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②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③ 주변 사람들이 다 보내니까
 ④ 사회성발달을 위하여(친구들을 사귀도록 하려고)
 ⑤ 기타_____

7. 평상시에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예: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19시 30분)

()시 ()분 ~ ()시 ()분

8. 이러한 이용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1) 만족한다

_____2) 불만족하다

8-1. 불만족하는 경우,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 ()분 ~ ()시 ()분

9. 부모님께서 한달 평균 보육료로 얼마를 내십니까?

1) 보육료	월 () 원
2) 현장학습비	월 () 원
3) 특기교육비	월 () 원
4) 급간식비	월 () 원
5) 기타_____	월 () 원
☆ 월평균 총액(1+2+3+4+5)	월 () 원

10. 부모님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보육료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1) 매우 부담된다

_____2) 부담되는 편이다

_____3) 적당하다

_____4) 부담되지 않는다

10-1. 부담되신다면, 월평균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월

원)

11.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있다면 보육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_____1) 있다 _____2) 없다

12. 부모님께서 보육시설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까지 골라주십시오)

1 순위)_____ 2 순위)_____ 3 순위)_____

①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② 좋은 프로그램
③ 좋은 시설·설비	④ 훌륭한 교사
⑤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는 시설	⑥ 가깝고 활용에 편리한 시설
⑦ 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	⑧ 영아(0~2세)를 받아주는 시설
⑨ 장애아를 받아주는 시설	⑩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⑪ 기타_____	

13.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_____1) 비용이 많이 든다
 _____2)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_____3) 부모와 아동간에 상호작용이 적어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
 _____4)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높은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_____5) 집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_____6) 기타_____

14. 부모님께서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_____1) 관심이 매우 높다 _____2) 조금 있다
 _____3) 별로 없다 _____4) 전혀 없다

15. 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모른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보육·유아교육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제도(출산휴가 포함)				

16. 이용하고 계신 보육시설의 다음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세부내용	매우 만족하다	만족한 편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육·교육 비용				
교사				
프로그램				
시설 설비				
운영 시간				
집과의 거리				
식간식				
안전관리				
차량운행				
특별활동				

16-1.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와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현재 이용하고 계신 보육시설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사일 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맞벌이 가족인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부모님께서서는 직장을 고를 때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십니까?
____ 1) 자녀양육과 관련없이 가능하면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
____ 2) 보수등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녀양육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우선 고른다
____ 3) 기타
____ 4) 잘 모르겠다
19.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개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십니까?
____ 1) 대체적으로 직장일을 먼저 한다
____ 2) 대체적으로 자녀양육 일을 먼저 한다
____ 3) 기타
____ 4) 잘 모르겠다
20.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매우 지장이 있다 ____ 2) 다소 지장이 있다
____ 3) 별로 지장이 없다 ____ 4) 전혀 지장 없다
21. 가사일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매우 지장이 있다 ____ 2) 다소 지장이 있다
____ 3) 별로 지장이 없다 ____ 4) 전혀 지장 없다
22.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가정에서 자녀양육은 주로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____ 1) 주로 (아이의)엄마가 책임진다
____ 2) 주로 (아이의)아빠가 책임진다
____ 3) 엄마와 아빠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____ 4) 주로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이 책임진다
____ 5) 기타_____

23.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활동은 주로 누가 담당하십니까?

- ____ 1)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
 ____ 2)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
 ____ 3) 부인과 남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____ 4) 주로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이 담당한다
 ____ 5) 기타_____

24. 귀하께서 저녁에 일이나 모임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은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 ____ 1) 배우자가 담당한다
 ____ 2) 형제자매가 담당한다
 ____ 3) 친인척에게 부탁한다
 ____ 4) 이웃에게 부탁한다
 ____ 5)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에게 부탁한다
 ____ 6) 기타_____

25.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가 아프면 주로 누가 대처합니까?

- ____ 1) 주로 (아이)엄마가 담당한다
 ____ 2) 주로 (아이)아빠가 담당한다
 ____ 3) 엄마 아빠가 반반 담당한다
 ____ 4) 주로 친인척에게 부탁한다
 ____ 5) 주로 도와주는 사람(가정부등)이 담당한다
 ____ 6) 어린이집(놀이방) 교사나 원장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____ 7) 기타_____

26.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7.	설문응답자와 아동과의 관계		____1) 어머니 ____2) 아버지 ____3) 친인척 ____4) 기타
28.	성별		____1) 여자 ____2) 남자
29.	혼인		____1) 기혼 ____2) 미혼
30.	연령		만_____세
31.	월평균 수입		_____원
32.	최종 학력	부	____1) 중졸이하 ____2) 고졸 ____3) 대졸 ____3) 대학원졸 ____4) 기타
		모	____1) 중졸이하 ____2) 고졸 ____3) 대졸 ____3) 대학원졸 ____4) 기타
33.	직업	부____ 모____	① 가정주부, 무직 ② 정년퇴직/연금생활자 ③ 농어민(농업, 축산·농업, 어업, 수산업종사자 등) ④ 생산직(생산감독, 공장근로자, 단순노무자, 기능공, 운전사) ⑤ 서비스직(요식, 숙박업경영자, 이·미용업, 청소, 관리인) ⑥ 자영업(1인 이하의 도·소매업, 가내 수공업) ⑦ 판매직(도·소매상인, 부동산 중개인, 행상, 외판원, 기타 판매직) ⑧ 사무직(과장이하, 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위관 이하 군인) ⑨ 관리직(경영주, 고급공무원, 기업체 간부, 영관 이상 군인, 경정이상 경찰) ⑩ 전문직(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판검사, 교수, 교사, 연구원, 종교인, 체육인, 예술인, 언론인, 엔지니어 등)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 연구보고서 220-1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2002년 12월 26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2,000원>

ISBN 89-8491-044-9 93370